

연구보고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책임연구원 오해섭

공동연구원 최인재 염유식 김세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 ▶ 책임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염유식(연세대학교·교수)
김세광(고신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윤혜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정재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인턴)

발간사 ■ ■ ■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현재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활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올해 수행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정책적 환경과 매우 부합하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 현재 5년차 연속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구에서는 연구세부 영역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지난 4개년(2013-2016)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시행과정에 나타난 한계 점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에 대한 최근 3개년 간의 시계열 비교와 연령-기간-코호트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운영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마을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와 정책 제언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병국

국 문 초 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의 연구목적은 전국단위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과 변화추이를 점검하고 더불어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황과 모델을 제안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① 전국 17개시·도 청소년 행복 수준 조사 분석, ②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관련 자료 고찰, ③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2개 지역)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효과 분석, ④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특성화 요인 도출과 논리모델 개발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전국단위 지표조사, 현장 면접조사, 콜로키움, 포럼, 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과 정책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공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청소년 간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마을진로체험 학습장 조성, ‘청소년행복마을 지원센터’ 등을 추진해야 한다.

* 키워드: 청소년행복공동체, 청소년 행복지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논리모델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이슈와 공통의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의 행복 수준 조사와 최근 3개년 간의 결과에 대한 시계열 비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 추이를 살펴보고, ‘청소년행복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타 지역에서의 유사사업 운영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의 유형별 특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논리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2017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 17년도 조사 결과 제시와 함께 15년부터 17년까지의 3개년 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음. 또한 세부적으로 17개 시·도별(도시규모별 포함) 비교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연령-기간-코호트별 효과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음.
- 한편, 청소년 행복지표 중 객관적 지표에 대해 행정통계나 사회통계자료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행복과 관련된 정량적 측면을 검토해 보았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 3년 차 연속으로 추진하였음.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참여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시범사업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국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영모델로 제시하였음.
- 마을공동체조성 사례연구를 위해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면접조사는 사례연구의 한 방식인 패턴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및 행복마을 만들기 현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고 투입 요소와 추진 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논리모델을 제시하였음.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을 위해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사회지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음. 또한 국제비교조사를 위한 지표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방법은 충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표집된 학교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시범사업) 2017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2015-2016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실시하였고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현장사례조사) 2016년 12월 말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대도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산어촌 2개)’ 6곳에 대한 현장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콜로키움) 청소년 활동중심의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포럼)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사례 및 모형개발’을 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시범사업 실시 기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음.
- (워크숍) 연구조사 내용과 특성화 요인 및 논리모델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담당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담당자,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자와 상반기에 제1차 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연구진을 중심으로 연구 후반부에 제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4. 주요 연구 결과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국내·외 사례 탐색과 시사점 도출

-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 분석’을 토대로 국내외 ‘마을복지공동체’ 특성과 실천전략을 분석하였음. 국내 사례로 ‘어린이·청소년 마을공동체’ 운영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고찰하였음.
- 국외 사례는 영국의 ‘섬머힐 공동체’의 핵심적인 운영 전략을 탐색하고, 혈 시티 도시경영을 우리나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적용하기 위한 여섯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2) 지역사회 청소년이 행복한 지표조사 결과

-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행복 수준을 직접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에 대한 정량적 측면을 행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관적 지표는 크게 9개 영역(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교급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결과가 더 많이 도출되었음. 시도별 비교에서는 지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제주, 대구, 인천 등의 지역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강원, 경북, 전북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부적결과를 나타냈음.
- 객관적 지표(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및 환경 등)는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건강영역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신체 활동 실천율의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자살률, 흡연율, 음주율 등 청소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율과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 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등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청소년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 추세이며, 활동영역과 관련해서는 증가폭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지표항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영역과 관련된 지표 결과에서는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 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나 실업률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치는 작으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환경영역과 관련하여 통학 소요시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녹지 접근성 역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9개 영역에서 연령과 코호트와 기간이 변화함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삶의 각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특히 참여 영역과 활동 영역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안전과 관계 영역에서는 비교적 작았음.
- 출생 코호트에 따른 변화에서는 2001년생과 2005년생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생에게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기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학업 성적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의 경우 만 15~16세 정도까지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달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구 관계가 좋은 그룹과 좋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시범사업 결과

- 2017년도 시범사업은 2개 지역에서 8개 세부사업(달그락 Youth Market, 청소년의회,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 청소년행복 의견함,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축제, 청소년행복 징검다리, Youth Happy Zone)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활동과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금년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기획과 실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포럼과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음. 또한 참가한 청소년들을 5개 분과(청소년 인권참여, 경제, 문화, 교육진로, 복지안전)와 청소년기자단, 작가단, 경제활동자치기구, 인권자치기구 등 12개의 청소년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과 청소년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교급별,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사업 참여 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성별분석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남학생들의 사업 효과가 보다 컸음. 한편, 지역별 비교에서는 목포지역에서만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음.

5)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 면접조사 결과분석

- 아동친화도시 인증 6개와 마을공동체 6개 등 총 12개 지역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2016년 연구에서 도출한 영역별 성공요인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 및 마을 단위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사전에 설계된 연구방법에 따라 패턴 매칭 접근방식에 의한 논리모형과 매트릭스를 연구진이 1차로 개발한 다음 해당지역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 요인과 논리모델을 보완하였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장면접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별 운영 모형의 특성화 요인을 도출하였고 논리모델을 제시하였음.
- 현장 면접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지역의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2개 유형별 총괄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사전 예측 요인들과의 일치 및 유사정도를 비교·분석하였음.

5. 정책제언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추진 방향과 더불어 5개 정책영역(증거기반 정책추진,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아동친화도시 운영 모델,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모델, 정책 기반과 협력체계)에서 21개의 정책과제를 제언하였고, 현안사항, 추진방향, 실천전략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 1) 청소년 각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추진, 3) 청소년 행복관련 지표의 시계열 자료 축적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1) Youth Market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과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청소년마을축제’ 개최, 3)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행복공간(Youth Happy Zone)’으로 운영, 4) 지자체 ‘청소년의회’에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예산 심의 권한 확대, 5)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 작성
-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운영 모델 : 1) 자치단체장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의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2)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및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련 조례 제정, 3)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주무부서의 지원 부여, 4) 아동과 청소년 활동 지원과 공간 이용을 위한 민간협의체 활성화, 5) 지역 주민과 행정 담당자들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 모델 : 1)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 청소년 협업체제 구축, 3) 지역 내 자원 활동가와 자원봉사 인력 활용, 4) 마을공동체 단위의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확대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1) 개인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2) 마을 전체를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 3) 아동과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위한 ‘청소년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운영, 4)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1) 연구 추진 과정과 연차별 사업 개요(2013~2017)	5
2) 연구과정(2013~2016)의 성과와 한계 분석	7
3) 2017년 주요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2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12
2) 설문조사	13
3)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효과 조사	14
4) 현장사례 조사	14
5) 기타연구방법	16
4. 연구추진 체계	19
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지표분석의 이론적 고찰	21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 분석	23
1) 생활환경 변화 추이	23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	26
3)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 방안	27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30
1) 국내·외 마을복지공동체 실천 사례의 특성 및 실천전략 분석	30
2) 국내 어린이·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32
3) 영국의 섬머힐 공동체 운영 사례 고찰 및 시사점	34

3.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및 지표 구성안	43
1) 국제비교 조사연구의 고려사항	43
2)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45
3)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이후의 국제 비교 연구	50
4) 국제 비교 연구 방법	54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59
1. 조사개요	61
1) 조사대상 및 절차	61
2) 모집단분석	62
2. 표본설계	65
1) 표본크기	65
2) 층화	67
3) 표본배분	67
4) 표본추출	70
5) 성별 사후층화	71
3. 가중치와 모수추정	71
1) 가중치	71
2) 모수추정	72
4.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74
1) 주관지표	74
2) 객관지표	75

5. 조사결과	83
1) 주관적 지표 조사 결과	83
2) 객관적 지표 조사 결과	149
6. 소결	212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217
1. 연구개요	220
2.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221
1)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221
2) 식별의 문제	222
3) 분석 결과 보고 양식	223
4) 분석 소프트웨어	223
3. 응답자 특성	224
4. 분석 결과	225
1)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	225
2)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 결과	227
3) 연령과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237
5. 소결	242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운영	245
1. 2017 시범사업 추진 개요	247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249
1) 추진 개요	249
2) 사업 운영 계획	250

3)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252
4)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	258
5) 종합제언	265
3. 목포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271
1) 추진 개요	271
2) 시범사업 진행일정	272
3)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272
4)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 및 제언	275
5) 종합제언	276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278
1) 조사개요	278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1
3) 지표 영역 분석 결과	282
5. 시사점	294
V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현장 면접조사 및 특화모형개발	295
1.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 면접조사 결과분석	297
1) 면접조사 개요	297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298
3) 조사 기간 및 방법	300
4) 면접조사 지역 현황 및 개요	300
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결과분석	301
6)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결과 분석	314
7)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대상 면접조사가 주는 시사점	326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특성화 요인 도출과 논리모델 개발	327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개념	327
2) 특성화 요인 도출 및 논리모델 개발 절차	327
3) 청소년 행복마을 추진 유형별 특화모형과 논리모델 구성	329
4) 소결: 공동체 유형별 매트릭스를 통한 특성화 요인 패턴 매칭 비교 분석	352
 VII.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357
1. 정책추진 방향	359
2. 정책과제 및 활용 방안	360
 ■ 참고문헌	 389
 ■ 부록	 401

표 목차

【표 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6
【표 I-2】 2017년 주요 연구내용	12
【표 I-3】 청소년 행복 수준 설문조사 내용	13
【표 I-4】 현장 면접조사 실시 내용	15
【표 I-5】 정책개발 포럼 내용(2017. 7. 28/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17
【표 I-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18
【표 II-1】 네트워크 관점과 강조점	29
【표 II-2】 국내·외 마을복지공동체 운영의 특성과 실천전략	31
【표 II-3】 국내 어린이·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33
【표 II-4】 회복적 도시의 토대	38
【표 II-5】 헐 시티의 도시경영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에 적용하기	42
【표 II-6】 기존 연구의 행복 영역 구분 방식	46
【표 II-7】 방정환 재단의 OECD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 및 데이터	48
【표 II-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Children's World의 핵심 문항 비교	55
【표 II-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Children's World의 공통 문항	56
【표 II-10】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의 주관적 행복 영역 구성	57
【표 II-11】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와의 비교를 위한 설문 추가 안	58
【표 III-1】 조사일정	61
【표 III-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62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63
【표 III-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63
【표 III-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64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64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65
【표 III-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66

【표 III-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68
【표 III-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69
【표 III-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69
【표 III-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70
【표 III-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지표(설문지) 구성 및 출처	76
【표 III-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	79
【표 III-15】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83
【표 III-1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84
【표 III-1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85
【표 III-1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86
【표 III-1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87
【표 III-2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88
【표 III-2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89
【표 III-2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90
【표 III-2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유데모니아	91
【표 III-2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92
【표 III-2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93
【표 III-2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94
【표 III-2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95
【표 III-2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96
【표 III-2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97
【표 III-3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98
【표 III-3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99
【표 III-3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100
【표 III-3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101
【표 III-3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선생님)	102

【표 III-3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103
【표 III-36】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104
【표 III-37】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105
【표 III-3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106
【표 III-3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107
【표 III-40】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	108
【표 III-41】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	109
【표 III-4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110
【표 III-4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111
【표 III-4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112
【표 III-4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113
【표 III-4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114
【표 III-4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15
【표 III-4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116
【표 III-4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117
【표 III-5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118
【표 III-5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119
【표 III-5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120
【표 III-5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121
【표 III-5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122
【표 III-5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123
【표 III-5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직업교육 · 체험 참여 정도	124
【표 III-5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125
【표 III-5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126
【표 III-5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127
【표 III-6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128

【표 III-6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129
【표 III-6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130
【표 III-6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위기상황대처능력	131
【표 III-6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132
【표 III-6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133
【표 III-6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134
【표 III-6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135
【표 III-6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칙 개정권	136
【표 III-6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137
【표 III-7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138
【표 III-7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139
【표 III-7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140
【표 III-7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141
【표 III-7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142
【표 III-7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143
【표 III-7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144
【표 III-7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145
【표 III-7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146
【표 III-79】 2015~17년도 비교: 시도별 주택만족도	147
【표 III-8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거지 형태(자가)	148
【표 III-81】 청소년 비만율(BMI)	150
【표 III-82】 청소년 비만율(BMI)(2012~2016)	151
【표 III-83】 청소년 자살률	152
【표 III-84】 청소년 자살률 (2011~2015)	153
【표 III-85】 신체 활동 실천율	154
【표 III-86】 신체 활동 실천율 (2012~2016)	155

【표 III-87】 평균수면시간	156
【표 III-88】 평균수면시간 (2012~2016)	157
【표 III-89】 청소년 흡연율	158
【표 III-90】 청소년 흡연율 (2012~2016)	159
【표 III-91】 청소년 음주율	160
【표 III-92】 청소년 음주율 (2012~2016)	161
【표 III-93】 스마트폰 과의존율	162
【표 III-94】 스마트폰 과의존율 (2016)	163
【표 III-95】 학업중단율	164
【표 III-96】 학업중단율(2012~2016)	165
【표 III-97】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166
【표 III-9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0~2016)	167
【표 III-99】 학업성취도	168
【표 III-100】 학업성취도(2015~2016)	169
【표 III-101】 사교육비 지출액	170
【표 III-102】 사교육비 지출액(2012~2016)	171
【표 III-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172
【표 III-104】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2~2016)	173
【표 III-105】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174
【표 III-106】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1~2015)	175
【표 III-107】 청소년 범죄 피해율	176
【표 III-108】 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177
【표 III-10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78
【표 III-11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1~2015)	179
【표 III-111】 학교폭력 발생률	180
【표 III-112】 학교폭력 발생률(2016)	181

【표 III-113】 자원봉사 참여율	182
【표 III-114】 자원봉사 참여율 (2011~2015)	183
【표 III-115】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184
【표 III-116】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2015)	185
【표 III-117】 문화여가 지출비용	186
【표 III-118】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2~2016)	187
【표 III-119】 동아리활동 참여율	188
【표 III-120】 동아리활동 참여율(2011, 2014)	189
【표 III-121】 문화예술시설 비율	190
【표 III-122】 문화예술시설 비율(2011~2015)	191
【표 III-123】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192
【표 III-12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2~2016)	193
【표 III-125】 청소년 지도사 비율	194
【표 III-126】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195
【표 III-127】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196
【표 III-128】 지역경제수준(2011~2015)	197
【표 III-129】 지니계수	198
【표 III-130】 지니계수(2012~2016)	199
【표 III-131】 사회복지지출 비율	200
【표 III-132】 사회복지지출 비율(2012~2016)	201
【표 III-133】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2
【표 III-134】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2~2016)	203
【표 III-135】 경제활동 참여율	204
【표 III-136】 경제활동 참여율(2012~2016)	205
【표 III-137】 실업률	206
【표 III-138】 실업률 (2012~2016)	207

【표 III-139】 통학 소요시간	208
【표 III-140】 통학 소요시간 (2010, 2015)	209
【표 III-141】 녹지 접근성	210
【표 III-142】 녹지 접근성 (2012~2016)	211
【표 IV-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9개 영역	220
【표 IV-2】 4장 분석 대상자 특성	224
【표 V-1】 2017년도 시범사업 모델	248
【표 V-2】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세부 항목	279
【표 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1
【표 V-4】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282
【표 V-5】 인간관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284
【표 V-6】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286
【표 V-7】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288
【표 V-8】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290
【표 V-9】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292
【표 VI-1】 조사영역 및 중요 질문 문항	299
【표 VI-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전담부서 및 인구 현황(9~24세)	300
【표 VI-3】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개요	301
【표 VI-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항목	329
【표 VI-5】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면접조사의 주요 항목	339
【표 VI-6】 꿈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세부내용	340
【표 VI-7】 성미산마을공동체 운영 영역 및 활동 내용	343
【표 VI-8】 참이슬마을 프로그램	345
【표 VI-9】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실시 사업	347
【표 VI-10】 산마을고등학교 특화프로그램	349
【표 VI-11】 한드미마을 특화프로그램	350

【표 VI-1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354
【표 VI-13】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특성화 요인 비교	356
【표 VI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을 위한 정책영역과 과제 ..	360
【표 VII-2】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361
【표 VII-3】 일반현황에 따른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362
【표 VII-4】 전국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및 추진 현황	371
【표 VII-5】 전국 17개 지자체별 지역 및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2016)	377
【표 VII-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	388

그림 목차

【그림 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	8
【그림 I-2】 연구 추진 체계도	19
【그림 II-1】 1965~2065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3
【그림 II-2】 OECD 국가별 임금노동자 소득 격차 비교	24
【그림 II-3】 국가예산 대비 교육예산 증감추이	25
【그림 II-4】 주관적 행복의 세부요소	26
【그림 II-5】 여섯 영역에서의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변화 추이 ...	50
【그림 III-1】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84
【그림 III-2】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85
【그림 III-3】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86
【그림 III-4】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87
【그림 III-5】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88
【그림 III-6】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89
【그림 III-7】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90
【그림 III-8】 17년도 시도별 비교: 유데모니아	91
【그림 III-9】 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92
【그림 III-10】 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93
【그림 III-11】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94
【그림 III-12】 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95
【그림 III-13】 17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96
【그림 III-14】 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97
【그림 III-15】 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98
【그림 III-16】 17년도 시도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99
【그림 III-17】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부모님(보호자))	100
【그림 III-18】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101
【그림 III-19】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선생님)	102

【그림 III-20】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103
【그림 III-21】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처음 만난 사람들)	104
【그림 III-22】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105
【그림 III-23】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106
【그림 III-24】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07
【그림 III-25】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108
【그림 III-26】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109
【그림 III-27】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110
【그림 III-28】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111
【그림 III-29】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112
【그림 III-30】 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113
【그림 III-31】 17년도 시도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114
【그림 III-32】 17년도 시도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15
【그림 III-33】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116
【그림 III-34】 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117
【그림 III-35】 17년도 시도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118
【그림 III-36】 17년도 시도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119
【그림 III-37】 17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120
【그림 III-38】 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121
【그림 III-39】 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122
【그림 III-40】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123
【그림 III-41】 17년도 시도별 비교: 직업교육 · 체험 참여 정도	124
【그림 III-42】 17년도 시도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125
【그림 III-43】 17년도 시도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126
【그림 III-44】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127
【그림 III-45】 17년도 시도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128

【그림 III-46】 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129
【그림 III-47】 17년도 시도별 비교: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	130
【그림 III-48】 17년도 시도별 비교: 위기상황대처능력	131
【그림 III-49】 17년도 시도별 비교: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132
【그림 III-50】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133
【그림 III-51】 17년도 시도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134
【그림 III-52】 17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135
【그림 III-53】 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칙 개정권	136
【그림 III-54】 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137
【그림 III-55】 17년도 시도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138
【그림 III-56】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139
【그림 III-57】 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140
【그림 III-58】 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141
【그림 III-59】 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142
【그림 III-60】 17년도 시도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143
【그림 III-61】 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144
【그림 III-62】 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145
【그림 III-63】 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146
【그림 III-64】 17년도 시도별 비교: 주택만족도	147
【그림 III-65】 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거지 형태(자가)	148
【그림 III-66】 청소년 비만율	151
【그림 III-67】 도시규모별, 권역별 BMI(비만율, 2016)	151
【그림 III-68】 청소년 비만율(2016)	151
【그림 III-69】 청소년 자살률	153
【그림 III-70】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자살률(2015)	153
【그림 III-71】 청소년 자살률(2015)	153

【그림 III-72】 신체 활동 실천율	155
【그림 III-73】 도시규모별, 권역별 신체 활동 실천율	155
【그림 III-74】 신체 활동 실천율(2016)	155
【그림 III-75】 평균수면시간	157
【그림 III-76】 도시규모별, 권역별 평균수면시간(2016)	157
【그림 III-77】 평균수면시간(2016)	157
【그림 III-78】 청소년 흡연율	159
【그림 III-79】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흡연율(2016)	159
【그림 III-80】 청소년 흡연율(2016)	159
【그림 III-81】 청소년 음주율	161
【그림 III-82】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음주율(2016)	161
【그림 III-83】 청소년 음주율(2016)	161
【그림 III-84】 스마트폰 과의존율(고위험군)	163
【그림 III-85】 도시규모별, 권역별스마트폰 과의존율(2016)	163
【그림 III-86】 스마트폰 과의존율(2016)	163
【그림 III-87】 학업중단율	165
【그림 III-88】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중단율(2016)	165
【그림 III-89】 학업중단율(2016)	165
【그림 III-90】 전국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급당 학생 수(2010~2016)	167
【그림 III-91】 학업성취도	169
【그림 III-92】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성취도(2016)	169
【그림 III-93】 학업성취도(2016)	169
【그림 III-94】 사교육비 지출액	171
【그림 III-95】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교육비 지출액(2016)	171
【그림 III-96】 사교육비 지출액(2016)	171
【그림 III-97】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173

【그림 III-9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6)	173
【그림 III-99】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6)	173
【그림 III-100】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175
【그림 III-101】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5)	175
【그림 III-102】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5)	175
【그림 III-103】 청소년 범죄 피해율	177
【그림 III-104】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177
【그림 III-105】 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177
【그림 III-106】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79
【그림 III-107】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5)	179
【그림 III-10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5)	179
【그림 III-109】 학교폭력 발생률	181
【그림 III-110】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폭력 발생률(2016)	181
【그림 III-111】 학교폭력 발생률(2016)	181
【그림 III-112】 자원봉사 참여율	183
【그림 III-113】 도시규모별, 권역별 자원봉사 참여율(2015)	183
【그림 III-114】 자원봉사 참여율(2015)	183
【그림 III-115】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185
【그림 III-116】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5)	185
【그림 III-117】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5)	185
【그림 III-118】 문화여가 지출비용	187
【그림 III-119】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여가 지출비용(2016)	187
【그림 III-120】 문화여가 지출비용(2016)	187
【그림 III-121】 동아리활동 참여율	189
【그림 III-122】 도시규모별, 권역별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	189
【그림 III-123】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	189

【그림 III-124】 문화예술시설 비율	191
【그림 III-125】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비율(2015)	191
【그림 III-126】 문화예술시설 비율(2015)	191
【그림 III-127】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193
【그림 III-12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6)	193
【그림 III-129】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6)	193
【그림 III-130】 청소년 지도사 비율	195
【그림 III-131】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195
【그림 III-132】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195
【그림 III-133】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97
【그림 III-134】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5)	197
【그림 III-135】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5)	197
【그림 III-136】 지니계수	199
【그림 III-137】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니계수(2016)	199
【그림 III-138】 지니계수(2016)	199
【그림 III-139】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
【그림 III-140】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6)	201
【그림 III-141】 사회복지지출 비율(2016)	201
【그림 III-142】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3
【그림 III-143】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6)	203
【그림 III-144】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6)	203
【그림 III-145】 경제활동 참가율	205
【그림 III-146】 도시규모별, 권역별 경제활동 참가율(2016)	205
【그림 III-147】 경제활동 참가율(2016)	205
【그림 III-148】 실업률	207
【그림 III-149】 도시규모별, 권역별 실업률(2016)	207

【그림 III-150】 실업률(2016)	207
【그림 III-151】 통학 소요시간	209
【그림 III-152】 도시규모별, 권역별 통학 소요시간(2015)	209
【그림 III-153】 통학 소요시간(2015)	209
【그림 III-154】 녹지 접근성	211
【그림 III-155】 도시규모별, 권역별 녹지 접근성(2016)	211
【그림 III-156】 녹지 접근성(2016)	211
【그림 IV-1】 만연령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기간과 코호트를 보정하지 않음) ..	226
【그림 IV-2】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연령과 기간을 보정하지 않음) ..	226
【그림 IV-3】 조사 기간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연령과 코호트를 보정하지 않음)	227
【그림 IV-4】 만 연령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29
【그림 IV-5】 만 연령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	229
【그림 IV-6】 만 연령에 따른 관계, 안전, 경제, 건강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30
【그림 IV-7】 만 연령에 따른 교육, 환경, 활동, 참여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31
【그림 IV-8】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33
【그림 IV-9】 코호트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	234
【그림 IV-10】 코호트에 따른 교육, 건강 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APC모델 사용) ..	234
【그림 IV-11】 코호트에 따른 관계, 활동, 경제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 (APC모델 사용)	235
【그림 IV-12】 코호트에 따른 안전, 참여, 환경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 (APC모델 사용)	235
【그림 IV-13】 조사 기간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 (APC모델 사용) ..	236
【그림 IV-14】 학업성적과 연령에 따른 삶에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38

【그림 IV-15】 연령에 따른 성적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238
【그림 IV-16】 연령에 따른 성적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239
【그림 IV-17】 연령에 따른 부모관계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240
【그림 IV-18】 친구 관계와 연령에 따른 삶에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241
【그림 IV-19】 연령에 따른 친구 관계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241
【그림 V-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247
【그림 V-2】 조사도구 개발 절차	278
【그림 V-3】 학교, 성별, 지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283
【그림 V-4】 학교, 성별, 지역별 인간관계 변화 추이	285
【그림 V-5】 학교, 성별, 지역별 문제해결 역량 변화 추이	287
【그림 V-6】 학교, 성별, 지역별 성취동기 역량 변화 추이	289
【그림 V-7】 학교, 성별, 지역별 리더십 역량 변화 추이	291
【그림 V-8】 학교, 성별, 지역별 시민성 역량 변화 추이	293
【그림 VI-1】 지역별 특화모형과 논리모델 개발절차	328
【그림 VI-2】 서울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요인	330
【그림 VI-3】 서울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1
【그림 VI-4】 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331
【그림 VI-5】 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2
【그림 VI-6】 서울시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333
【그림 VI-7】 서울시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4
【그림 VI-8】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335
【그림 VI-9】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5
【그림 VI-10】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336
【그림 VI-11】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7

【그림 VI-12】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338
【그림 VI-13】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338
【그림 VI-14】 꿈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특성화 요인	341
【그림 VI-15】 꿈마을공동체 논리모델	341
【그림 VI-16】 성미산마을 협동조합 네트워크 특성화 요인	344
【그림 VI-17】 성미산마을 논리모델	344
【그림 VI-18】 참이슬마을 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345
【그림 VI-19】 참이슬마을 논리모델	346
【그림 VI-20】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실시 사업 특성화 요인	347
【그림 VI-21】 시흥시행복교육지원센터 논리모델	348
【그림 VI-22】 산마을고등학교 특화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349
【그림 VI-23】 산마을고등학교 논리모델	350
【그림 VI-24】 한드미마을 특화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351
【그림 VI-25】 한드미마을 논리모델	351
【그림 VII-1】 아동청소년 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385
【그림 VII-2】 중앙부처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 협력체계	38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주제체계

[제 |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주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이슈와 공통의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도 시도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은 주로 농산어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기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농산어촌의 경우 급속한 젊은 층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은 안전공동체 구축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추진방향이다(오해섭, 김세광, 2016). 이러한 노력의 일면에는 “어린 시절의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 개개인의 전체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Yang, 2008;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121~154 재인용).

이 같은 시의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주요계획으로 명기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Ⅰ」를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전국비교,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개발,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집단만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 이 장은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지역사회 조성 혹은 청소년행복마을 조성'과 같은 사업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단일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오해섭, 김세광, 2016:202). 그 중 한 가지는 현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사업이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청소년기본법 상의 18~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혹은 '가족친화도시'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친화도시', '청소년행복마을'과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거론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6년도 연구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혹은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정책화 방안을 다면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2022년까지 계획된 연구과제의 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재조정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과의 연관성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오해섭, 김세광, 2016:201~202).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다수 부처가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단위 청소년행복지표 조사와 더불어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소년의 행복 수준 조사를 통해 최근 3개년 간의 시계열 비교와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기반 정책을 제안한다. 둘째,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토대로 운영 과정의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타 지역의 유사사업에 운영모델을 제공한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에 대한 면접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행복마을의 운영 유형별 특성화 요인을 도출한다. 넷째, 투입 요소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추정하는 논리모델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행복마을 운영을 위한 정책영역과 영역별 과제를 제언하고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확대될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사업,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개발과 단위 과제별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연구 추진 과정과 연차별 사업 개요(2013~2017)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근거로 들 수 있다. 세부과제의 한 영역으로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를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과제의 명칭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로 바뀌었다. ‘마을’의 개념이 ‘지역사회’로, ‘조성방안’이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2014년과 2015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과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 사업개발’ 및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Ⅰ’을 시작하여 1개 지역을 공모과정을 거쳐 운영하였다. 동시에 이전에 개발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개발하였다.

제4차년도인 2016년에는 지난 3년(2013~2015)간의 지표개발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 지표에 대한 최근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2015년도에 이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을 실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 사례 연구를 통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사업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제5차년도인 2017년에는 청소년행복지표 9개 영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15년도 연구에서 개발 완료된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의 시사점을 도출해 나가고 아울러 이 지표의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Ⅲ’은 3차년도 사업 내용과 사업 방향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참가자 효과성 검증을 위한 별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의 한 방식인 패턴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및 행복마을 만들기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운영 과정을 위한 논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출발 시점인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된 연차별 연구 및 사업 내용과 개요, 그리고 2017년 추진한 영역별 내용을 <표 I-1>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별 연구내용 및 사업성과 개요

연도	분야	연구 및 사업 내용	주요 성과
2013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행복 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전체영역)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 보고서 발간
2014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계속(2차년도부터 본원 고유 사업예산으로 운영)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년도)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년도 실시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의견 보고서 발간
2016	연구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수정·보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도출	- 지역사회 청소년행복 관련 핵심지표 중심으로 최근 3년간 변화추세 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안) 마련
	사업	- 시범사업 2차년도 실시 -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담당자간담회 운영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모델 제시	- 전국의 마을 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차년도 시범사업운영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정책화 및 추진방향 제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로드맵 구상
2017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수정·보완 및 조사 실시(17개 시·도)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별 특화모형 개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핵심지표 영역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제언 제시 - 전국의 마을 만들기 및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 및 장애요인 분석
	사업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3차년도 실시	- 시범사업 지역과 공동으로 전문가 포럼 및 단위사업 개발을 위한 실무 워크숍 개최 - 시범사업 참가자 대상 시전사후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참조: 오해섭, 김세평(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p 8 재구성

2) 연구과정(2013–2016)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이 과제가 시작된 2013년 연구(장근영 외, 2013)는 연구의 주요 목적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사회와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를 개발하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표를 측정하여 한국사회의 청소년 삶의 질 현황과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구축을 목표로 하여 10년간의 연속과제로 추진할 계획도 함께 명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로 지표개발 및 조사 분석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분석 결과’와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청소년정책 사업 현황 및 예산,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업 내용, 청소년 인원과 청소년시설,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등을 비교하였다. 국제교류 협력 방안으로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방안과 그 밖의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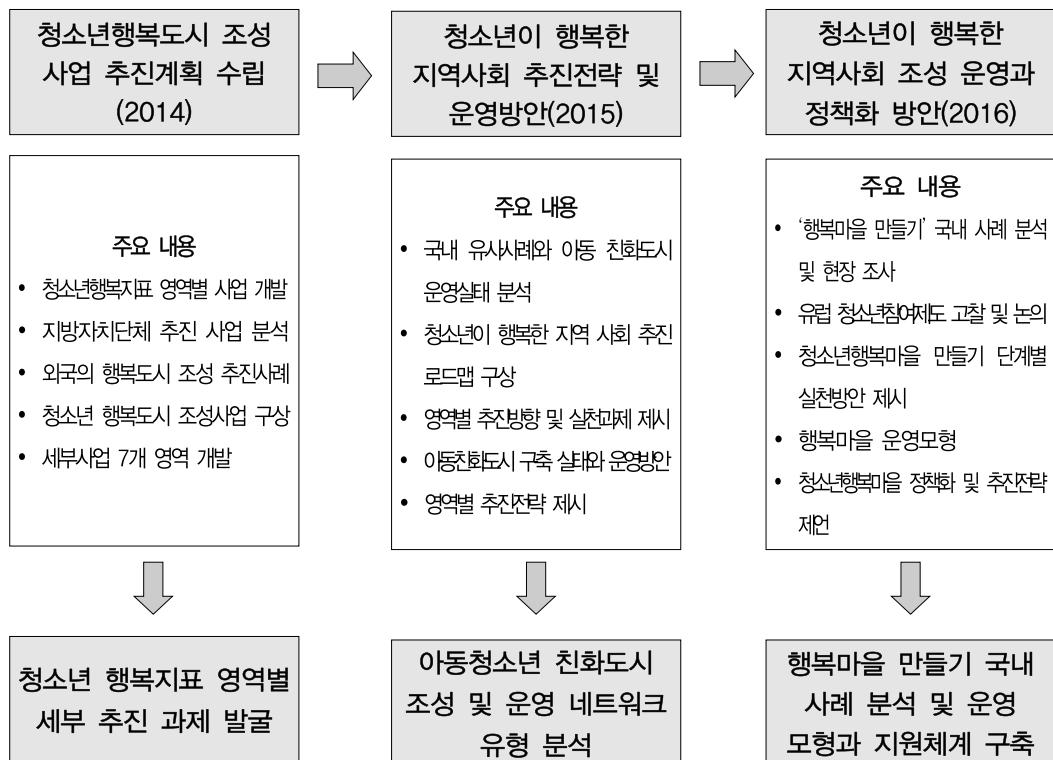
또한 정책제언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가치로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5가지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장근영 외, 2013: 261–26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다양화, ②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③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배정, ④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적극 조성, ⑤ 청소년 행복관련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각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체계형성과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청소년행복도시(마을) 혹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관련 과제와 사업 영역에 해당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주요 연구결과를 [그림 I-1]과 같이 요약하였다.

먼저 2차년도 연구에서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은 ‘청소년행복도시 조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서는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관련 사업을 분석하고 외국의 행복도시 조성 추진사례로 6개 국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관점과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행복지표를 근거로 7개 영역[경제, 건강(복지), 안전, 교육, 관계, 활동, 참여]의 세부추진사업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국내외 청소년행복도시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과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청소년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청소년 행복지표 7개 영역에서 총 37개의 세부추진사업 혹은 실천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세부사업은 영역별 추진 배경과 사유, 추진 목표를 기술하고, 추진사업의 명칭에 따른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 추진 방법, 사업 기대효과, 사업예산(대략적인 추정치) 등의 하위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I-1】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3차년도(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는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청소년행복도시 추진전략 개발 등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시범사업은 3개 영역(청소년 상설 프리마켓 시범사업, 청소년옴브즈맨 기구, 어르신-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그리고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유사 사례의 특징과 운영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더불어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CFC)’이행에 필요 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10개)에 관한 각 국의 적용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전략과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전략 개발의 절차와 핵심원리, 지역사회 조성 실행체계, 추진 로드맵, 영역별 실천과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에 따른 종합제언,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적용방안,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역별 세부사업 추진전략 개발,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법제정 권고 사항 및 조례(안) 등을 제언하였다.

진술한 3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 얻은 성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복마을(도시)만들기 혹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조성 및 운영 과정의 주도적 역할집단의 특징과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청소년 대상 요구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에 필요한 15개 세부사업별 추진전략과 관련 조례(안)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4차년도인 2016년에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써 청소년 행복마을(도시) 혹은 아동친화도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화 시도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과 정책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오해섭, 김세광, 2016). 첫째,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자치위원회와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에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재원 확보는 지역사회 후원조직과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주도적인 기획 및 운영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 정책화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정책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연구 및 청소년 담당 부서와의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가 현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기본법 상의 18-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혹은 ‘가족친화도시’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친화도시’를 중복적으로 거론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오해섭, 김세광, 2016:202).

3) 2017년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가 2013년부터 연속 과제로 추진되어온 만큼, 2017년에도 17개 시·도 청소년의 행복 수준 조사를 위한 양적조사의 설계와 연구방법 등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틀을 유지하였다. 다만 연구 분석 과정에서 연령-기간-코호트별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3개년 연구 결과의 비교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3년차 시범사업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 2개 지역에서 추진하였다. 더불어 금년도에는 현장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화 요인 도출 및 추진 과정을 토대로 한 논리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 도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 년도의 차별성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반영하여 금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심층 분석

2017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다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의 실태 진단을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국제비교 등 향후 지표조사의 발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추이를 살펴보았고, 17개 시·도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3차년도에 접어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 차이가 나이 차이에 따른 효과(aging effect)인지, 세대 차이에 따른 효과(cohort effect)인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시도별 비교 분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Ⅲ 실시 및 참여 효과분석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어 3년차 연속으로 추진하였다. 선정기준은 운영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유형(행정기관 주도형 및 시민단체 중심형, 민-관 연계 협력형, 협동조합형)과 지역특성(농산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을 고려하여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 2개 시범지역을 확정하였다. 사전에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시범사업 지역에 전달하고, 사업 운영진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 연구진이 회수하여 참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국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특성화 요인 분석 및 논리모델 개발

2016년 12월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 자치체와 2016년 마을공동체조성 사례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6개 지역에 대한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현장면접조사는 사례연구의 한 방식인 패턴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및 행복마을 만들기 현황을 분석하였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 특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고 투입 요소와 추진 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12개 지역을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유형으로 구분하여 2개 유형에 대한 유형별 매트릭스를 제시하였고 예측 요인들과의 유사도와 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I-2 2017년 주요 연구내용

연구 영역	세부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사 및 심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의 실태 진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표 결과의 시계열 자료 분석 및 17개 사도 비교 -3차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변화 추세 심층 분석 -각 시도별 비교 분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Ⅲ 실시 및 참여 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실시(2개 지역) -시범사업 참가자에 대해 사전사후 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결과와 참여 효과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시사점 제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특성화 요인 분석 및 논리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친화도시 인증 6개 지자체(2016년 12월 기준)와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6개에 대한 현장면접조사 실시 -조사 내용에 대한 SWOT분석,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 단위 특화모형(특성화 요인 구성 및 논리모델 제시) 개발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2개 유형의 특성화 요인에 대한 총괄 매트릭스 비교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4) 용어의 정의

- ① **논리모델**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들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시계열 분석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 ② **특화모형** : 이 연구의 부제로 제시한 청소년 행복마을 ‘특화모형’은 금년도 12개 공동체 대상으로 현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으로 도출된 특성화 요인 구성 모형과 논리모델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교육나눔공

동체 지원 및 실행 등과 관련된 보고서 및 기초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와 구체적인 실천전략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그동안 추진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연차보고서와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 과정에서 산출된 지자체별 사업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현장면접조사 질문지의 주요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보고서를 결과 정리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중 객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을 위해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사회지표 자료 그리고 청소년 정책실행계획서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객관적 지표조사 결과에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2016년 교육통계 연보’를 통한 총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집단 설문조사로 표집 절차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 표본 수는 약 9,000명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절차 및 결과는 3장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청소년 행복 수준 설문조사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표집 틀	• 청소년 : 2016 교육통계 연보	
표본 수	• 재학청소년 약 9,000명	
표집 방법	• 표집 방법: 총화다단계집락표집 • 조사 방법: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조사 시기	• 2017년 5월 ~ 7월	
통합조사 참여	• 통합조사 참여함(<input checked="" type="checkbox"/>) / 참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효과 조사

이 연구의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시범사업」의 연속으로 제3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금년도에는 2015년
도 제1차 시범사업 3개 영역(경제, 참여, 관계)을 포함하여, 2016년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가한 2개 영역(건강·복지, 활동)에 2017년도 2개 영역(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이 상상한
마을 디자인) 등 총 7개 단위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응모 기관은
사전에 공지된 활동영역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혹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과 프로그램 명칭은 지역과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
여 창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사업 기획
및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공모 내용에 명시하였다.

추진과정은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 심사과정을 거쳐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연구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017. 4~2017. 9(6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시과정에서
단위사업별 추진과정을 기록하고 특이사항 및 개선방안 정리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와 참여 효과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사전사후 인식 변화에 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4) 현장사례 조사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및 행복마을 만들기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운영 과정을
위한 논리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례연구의 한 방식인 패턴 매칭(pattern-matching)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마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를 기본 유닛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집단 역동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방식이다. 또한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사전 연구를 통해 미리 예측했던
패턴을 비교하는 논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Robert, 2008).

이러한 논리적 토대를 기반으로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연구’의 한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행복마을 모형 개발’ 과정에 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2016년 연구에서 제시된 전국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2가지 유형의
사례 분석 내용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금년도는 2016년 12월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 지자체와 6개 ‘마을공동체(대도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산어촌 2개)’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연구진이 사전에 일정조율과 질문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기록과 녹취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지자체별 특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SWOT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고 투입 요소와 추진 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2개 지역의 조사 결과를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등 2개 유형에 대한 유형별 총괄 매트릭스를 제시하였고, 예측 요인들과의 유사도와 일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I - 4 현장 면접조사 실시 내용

구분	방문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	면담자 직책	방문 일시
아동친화도시 6개 (2016년, 12월 말 기준 인증 획득)	도봉구청	청소년아동친화도시팀장	3/31
	송파구청	청소년육성팀장	7/10
	성북구청	아동청소년친화팀장	7/10
	금정구청	아동친화팀주무관	7/29
	군산시청	어린이정책계장	8/31
	완주군청	아동청소년친화팀장	8/31
마을공동체 6개 (대도시 2개, 중소도시 2개 농산어촌 2개)	산마을고등학교	교장	4/26
	한드미마을	대표	4/17
	성미산마을	마을안내팀원	6/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사업팀장, 마을사업팀장	6/2
	참이슬마을학교	교장	6/9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교사	6/9

5) 기타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설계 및 내용 구성부터 지표 검토, 설문지 개발, 정책과제의 개발 등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의 방향 설정과 성과 제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콜로키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행복마을조성 관련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면접조사 실시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운영의 모범사례로 판단된 ‘서울시 공통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센터장을 섭외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핵심 내용에 대한 강의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 운영방안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포럼

2017년도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사례 및 모형개발’을 주제로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 목표시청소년수련원이 공동으로 2017년 7월 28일 (사) 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 발표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상상하는 지역공동체 모형과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사업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청소년 행복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의 도의원, 공무원,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 및 참여 청소년들과 제도적·정책적 측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 결과는 청소년활동 중심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표 I-5 정책개발 포럼 내용(2017. 7. 28/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포럼 주제	주요 내용	발표자	주요참석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운영사례 및 모형개발 (주제발표 및 토론)	발표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분석 및 모형개발	연구책임자	연구진, 도의회의원, 군산시 공무원, 시범사업 운영지역 담당자 및 청소년, 청소년활동가
	발표2.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방안	청소년자치연구소	
	발표3.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	청소년 기자단	
	발표4. 목포시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 만들기 운영사례	대학생 분과	

○ 워크숍

연구조사 내용과 특성화 요인 및 논리모델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현장면접조사 지자체 담당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기관과 연구진이었다.

먼저 현장면접조사 정리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소개와 12개 지역(6개 아동친화도시, 6개 마을공동체)에 대한 특성화 요인 구성과 논리모델 개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의 타당성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운영상의 애로점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워크숍 결과는 특성화 요인 구성과 논리모델 개발에 반영하였다.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 연구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의 세부과제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Ⅰ」로 출발하였다. 금년도 제5년차 연구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연구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하여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담당자들과 2017년 4월 제1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은 지난 4년간 추진된 연구 내용과 결과 소개, 정책적 활용방안 논의였으며, 개발된 청소년행복지표의 활용 및 향후 진행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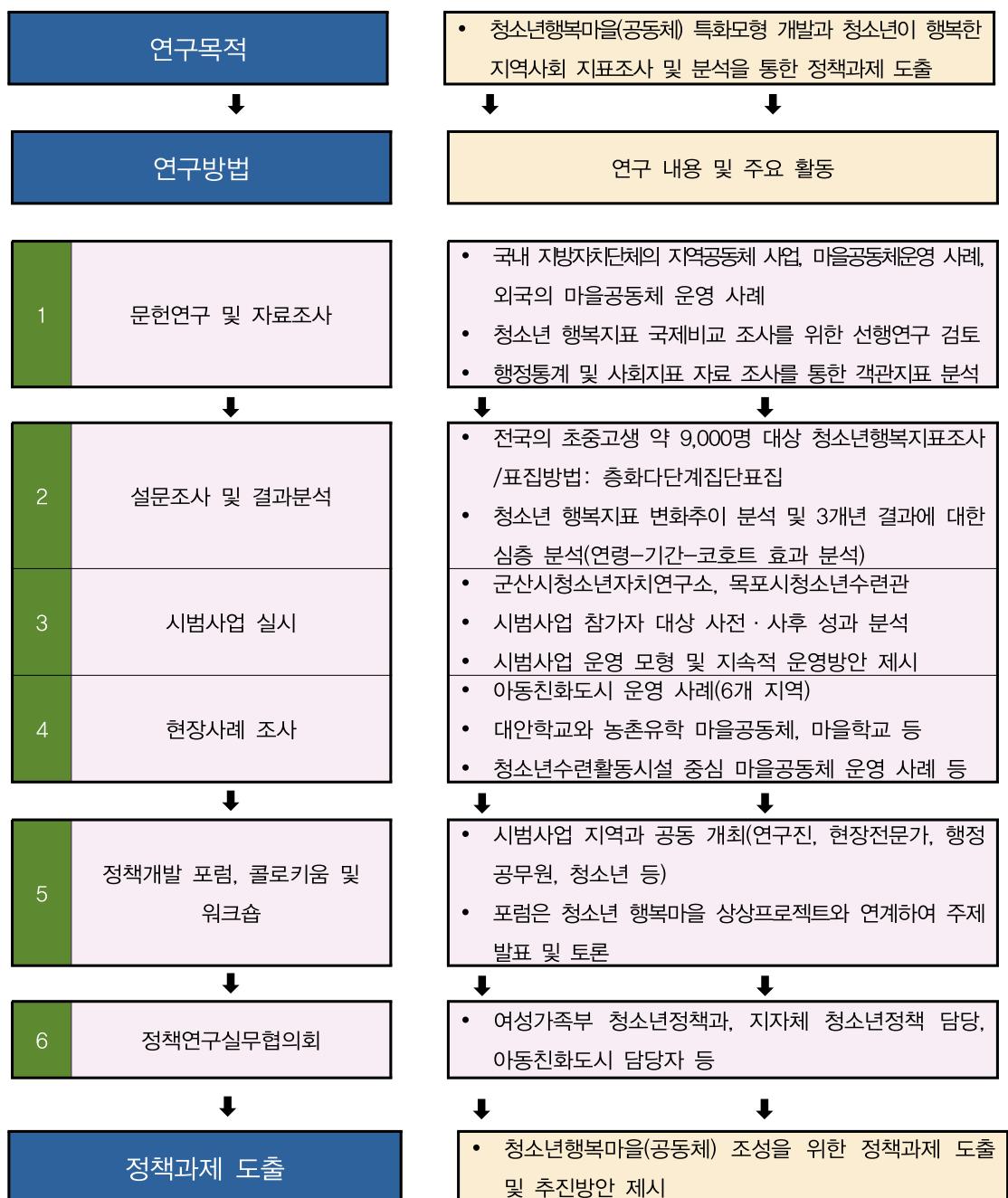
제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진행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조성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표 I-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회수	주요 내용	참석자 직책	개최시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2016년까지 추진된 연구결과 및 정책적 활용방안- 청소년행복지표 활용 및 향후 연구 진행 방향	전문위원, 연구책임자, 청소년가족 정책실장, 청소년정책과장	4월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조성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및 사업	사업 담당자 1명, 지자체 이동청소년 친화팀 3명, 연구진 5명	9월

4. 연구추진 체계



【그림 I-2】 연구 추진 체계도

제 II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지표분석의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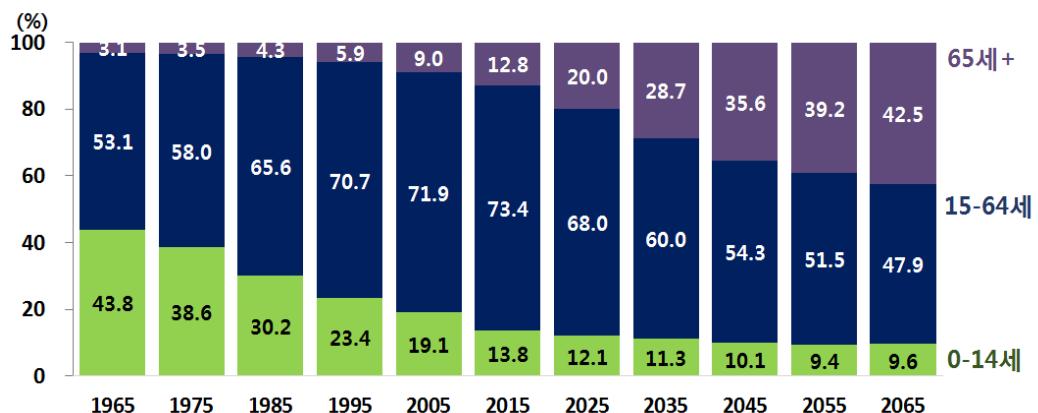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 분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3.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및 지표 구성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및 지표분석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 분석

1) 생활환경 변화 추이

국내의 청소년 생활환경에서 먼저 살펴 볼 내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짚은 층의 결혼 기피와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9-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인구는 2016년 현재 9,378천명에서 2060년에는 5,011천명으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 여성가족부, 2016, 재인용).



출처: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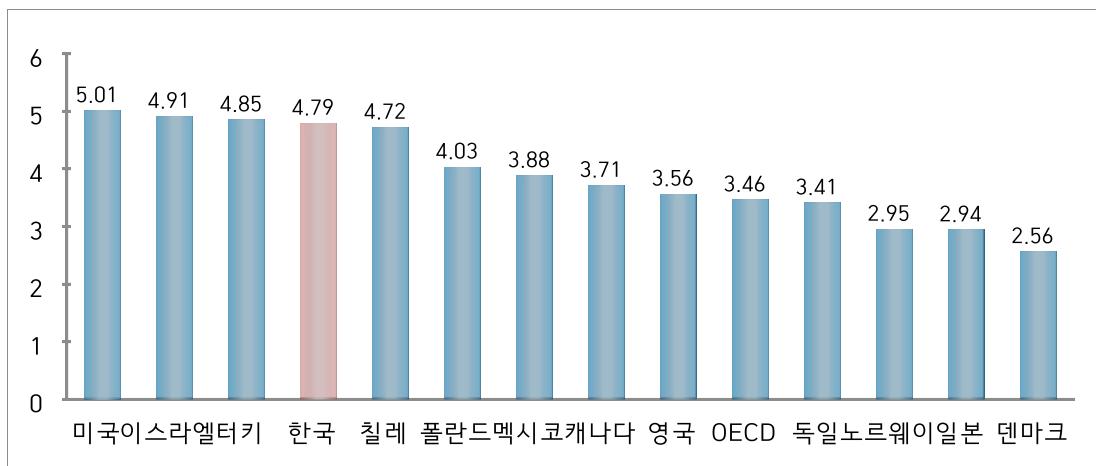
【그림 II-1】 1965-2065년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이 장의 1절은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3절은 염유식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가 집필하였음.

이러한 젊은 세대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가계 소비와 지출 등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그림 II-1]과 같이 젊은 세대의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이들에게 과도한 노인부양의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소득 계층 간 혹은 세대 간의 갈등 현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및 자산으로 인한 계층화이다. [그림 II-2]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금노동자 최상위(10%)와 최하위(10%) 간의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았고 OECD 평균보다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격차의 경우 국내 상위 1%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교육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월 평균소득 7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81.9%,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30.0%의 사교육 참여율이 나타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나타나(통계청, 2017) 청소년들 내의 교육적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계층화 현상은 빈익빈 부익부 양상을 고착화하여 가정빈곤, 교육의 불평등 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와 청소년 자녀 모두 과도하게 경제활동에의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혹은 높은 과소비 성향을 만들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제성장을 또한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급감과

자본투입의 한계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상쇄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국내의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영향은 교육 영역의 예산 증감률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예산 대비 교육 예산의 증감률은 1.81%('14)에서 4.34%('15)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에 0.57%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교육예산(A)	49.8(A1)	50.7	1.81%	52.9	4.34%	53.2	0.57%
교육예산 비중(A/E)	14.57%	14.25%	-0.32%	14.09%	-0.16%	13.76%	-0.33%
복지예산(B)	97.9	106.4	8.7%	115.7	8.7%	122.9	6.22%
복지예산 비중(B/E)	28.63%	29.90%	1.27%	30.82%	0.92%	31.78%	0.96%
타 정부분야(E-A)	2921	305.1	4.45%	322.5	5.70%	333.5	3.41%
총 규모 (E)	341.9	355.8	4.07%	375.4	5.51%	386.7	3.01%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일자리(2016.03.02),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정보 공시자료
2013~2015년은 결산기준, 2016년은 예산기준.

출처: 월간교육, “[특별기획]교육과 복지② 2016년 국가예산의 교육복지 수준을 분석한다.” (2016. 5. 4).

【그림 II-3】 국가예산 대비 교육예산 증감추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계층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일자리 감소 및 부모의 실업 등 가정 빈곤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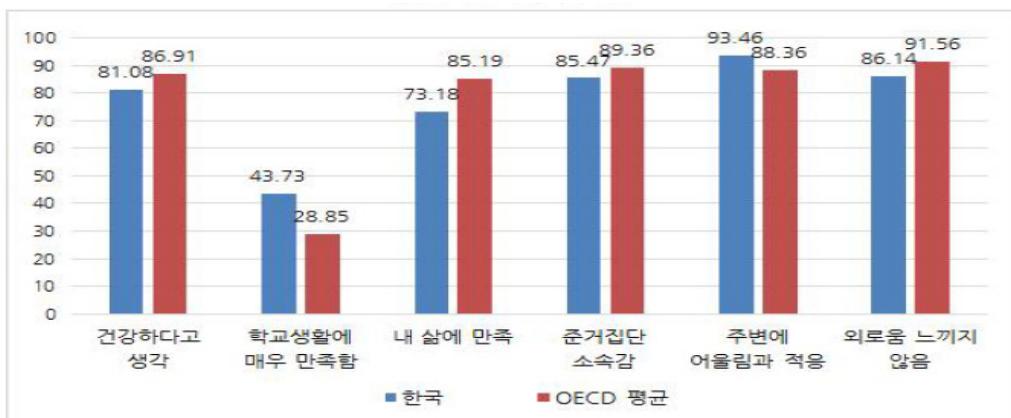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산업기술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으로 인터넷 플랫폼 및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연계 및 융합으로 더욱 지능화되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직무역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자동화 기술, 컴퓨터 연산 기술 향상 등으로 인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행정적 또는 저숙련 업무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예측된다. Oxford Martin School(2013)은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김진하, 2016. 08. 재인용).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의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IoT(Internet of Things)와 같은 기술들로 생활 속의 사물화 인터넷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방식의 디지털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감소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플랫폼 등의 초연결성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사이버 유해환경 또한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

한국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평균(100점)보다 낮으며 OECD 최하위 국가의 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4.3점('09)에서 90.4점('15)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82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는 뉴스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이미 나타난 바 있으며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학업으로 인한 좌절감,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 교우관계의 어려움 등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낮은 행복감과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출처: 한국방정환재단(2016).

【그림 II-4】 주관적 행복의 세부요소

주관적 행복의 세부 요소에는 건강, 학교생활의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 소속감, 생활환경에의 적응, 외로움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생활의 만족감과 생활환경에의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요소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강, 삶에 대한 만족, 소속감, 외로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주제로 자살충동 위험집단과 비위험집단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자살충동 위험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은 27.3%로 비위험집단(53.9%)에 비해 크게 낮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범주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약 4배로 확대됐다(한국방정환재단, 2016:92).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자살충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문화권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중국(92.3%)과 일본(75.5%)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71.2%로 낮게 나타났다(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청소년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내의 경쟁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성공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것처럼 성적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 시기의 경험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감은 심리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대인관계적인 측면 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이는 성인기가 된 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관적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청소년들(15-29세)은 73%이고 6.3점(27위)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정환재단, 2016).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일꾼으로 그들의 행복은 비단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하여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 방안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공공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행위이다(김영인, 2007). 아동과 청소년은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 자신의 생활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참여 경험은 아동으로 인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유니세프, 2003).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참여기술 및 책임감을 경험하며 이는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Hart, 1997; 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08, 재인용).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후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서 주체적인 개인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이 변화하였고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청소년의 참여이다.

과거에는 지역사회의 개념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청소년의 삶이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대학 입시의 이유로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학교, 학원 등으로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참여 역할에서도 배제되어 청소년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써의 역할과 권리가 있지만 이들은 고립되어왔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수준, 공동체성, 적극성 등의 발달의 저해요인이 되어왔다(김윤나, 정건희, 진은설, 오세비, 2015).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 모두의 삶과 문화가 있는 곳으로, 함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형성해나가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활발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넘치는 에너지로 지역사회의 개발 및 개선에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김정주, 1999).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형성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한다(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08).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범위 및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참여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나, 정건희, 진은설, 오세비, 2015).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 형성으로 지역사회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소속감, 심리적 유대감 등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족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이해주, 최윤진, 구정화, 2008).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부터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네트워크의 관점과 강조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II-1 네트워크 관점과 강조점

관점	강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	연계(connection)에 대한 가치
네트워크 조직이론(network organization)의 관점	신뢰에 기초한 반복적 교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관점	해당 사업의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s)를 형성
집단과정의 관점	빈번한 상호작용과 정서적 공감

출처: 김윤나, 정건희, 진은설, 오세비(2015). 청소년활동론. p.158 인용.

네트워크의 관점과 강조점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자원과 정보들을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둔 사회적 자본의 관점, 조직 간의 신뢰를 기초로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관점, 실시하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실천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식경영의 관점, 참여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공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집단과정의 관점이 있다. 정리하자면 네트워크의 특징은 지역 간의 네트워크와 개인 간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는 관계, 공동의 목적, 협력체계 등을 특징으로 하고 개인 네트워크는 관계, 수평적 특성을 갖는다(김윤나, 정건희, 진은설, 오세비, 2015).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외 마을복지공동체 실천 사례의 특성 및 실천전략 분석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례와 유형을 이 연구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에도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사례집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운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표Ⅱ-2>에 기술한 내용은 한 지역의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마을공동체 운영사례를 특성, 핵심전략, 실천방안 및 성과로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이다(전병관, 2015). 요약된 사례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과 부모 및 경로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돌봄과 교육을 통해 세대가 어우러지는 마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이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은 스스로 이 과정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골목 경제를 토대로 다양한 관계망이 활성화된 유형이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동네 빵집과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문가 및 예술가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마을과 작은 나눔이 있는 공동체 운영 사례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원주민과 외주민의 갈등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 및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귀농과 귀촌이 증가하면서 농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방안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나눔의 사례로 충남 아산의 온양3동 ‘행복드림사업후원구좌가입운동’은 동네 구성원들이 후원구좌를 만들어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집수리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유 자산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복지공동체 운영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II-2 국내·외 마을복지공동체 운영의 특성과 실천전략

특성	지역	핵심전략	실천 방안 및 성과
돌봄과 교육이 살아있는 동네	뜰에 어린이집 (울산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봄 ● 범죄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협동형 대안 어린이집 운영 -여러 부모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운영 -조기교육보다 아이들 행복에 더 큰 관심 -어린이집 사고 감소 및 아이들 행복 증가의 효과
	동네 어린이 도서관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후원 및 어머니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도서관 -주거 단지 근처에 배치하여 편리한 이용 및 친근감 유발
세대가 어우러지는 동네	온양 3동 (충남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반복적인 다양한 세대 간의 관계망 확장 ● 청년과 은퇴자들 간의 멘토링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협약체결로 만남 실시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람과 재미를,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회성 향상의 기회부여
골목경제가 살아있는 동네	동네빵집 협동조합 (서울 서대문구 및 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가게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 ● 다양한 관계망 구축의 역할 수행 ● 주민들 관계망에서의 하브 역할로 유대감 강화 ● 정서적 및 규범적 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빵집 사장님들의 협동조합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고객증대 노하우 배움
	문래동 창작촌 (서울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한 임대료로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지역이 형성 -예술가들의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한 골목길 조형물 및 벽화 -친환경 예술체험교육, 공공미술활동 등을 제공
	전통축제 마초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가게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
	군현도 파우메이라는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은행 설립 -지역화폐를 만들어 경제적 연대를 맺음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동네	은평구 구름정원 (서울 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동네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문제의 새로운 접근 전략 수립 ● 대안적인 주거모델 확신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 및 이웃과의 유대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형 공유주택으로 은퇴를 대비하자고 뜻을 모아 지은 집 -동네가게 3곳을 두어 동네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
	염리동 소금길 (서울 마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민 및 외주민의 갈등 및 치안 문제 해결 -방문자의 증가로 원주민들이 안내자 역할을 실시
	온양3동 (충남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연립주택 및 해당 골목의 변화 위한 후원금 모음 -아티스트의 재능기부, 기관단체장협의회와 봉사단체의 외부벽면 도색작업 및 벽화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에 ‘한 평 화단’ 조성으로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동네주민 의식 개선
작은 나눔이 있는 동네	온양3동 행복드림 사업 후원구좌 가입운동 (충남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대상자 및 비용 증가로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주민들의 주체적인 나눔으로 개인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 ● 공유자산 형성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 ● 개인 생활재 나눔으로 생활비 절감 및 지원절약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구성원들이 후원구좌를 만들어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집수리 및 의료비 지원 -후원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 -우리이웃지킴이의 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후원 가능

출처: 전병관(2015).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시골동장의 동네복지 이야기- pp. 201-241.

2) 국내 어린이·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규모와 수는 확대되었으나 정작 인간 중심의 정주공간으로써의 공동체는 오히려 감소되거나 파괴 되었다. 인간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이 없는 공동체는 청소년 범죄, 충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다(안전행정부, 2013).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독자적인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활동을 중심의 지역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제도화는 최근 들어 아동친화도시인증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표Ⅱ-3>은 안전행정부(2013)에서 발간한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수록된 지역공동체 사례 분석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한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고찰한 내용이다. 사례들 중 4개 지역의 특성화 사업과 추진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은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은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주거지의 이미지를 개선한 사례로 전국적인 마을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도시아카데미와 마을학교’를 개설하여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마을리더를 육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 노원구 중계9단지의 ‘아동청소년축제’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축제준비기획팀을 구성하여 준비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체험한 사례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부산 반송동의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지역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병원 등 20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결성체이다. 특히 지역 내 소외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매결연을 통한 돌봄 실천사례는 지역의 인재 육성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폭력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대구 삼덕동의 ‘공동체 극장-마고재 조성 및 운영’ 사례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한옥을

지역주민이 매입하여 공동체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축제 기간에 본체에서는 인형마임 공연을 실시하고 마당은 다양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극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사례는 지역의 다양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여 공동체 활동으로 재생산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가옥과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전수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금년도 연구는 기 연구에서 고찰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공동체 운영의 특성과 실천전략을 토대로 특화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표 II-3 국내 어린이·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개요		주요 추진 내용	성공요인과 시사점
지역	특성화 사업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 마을벽화 그리기 • 도시 아카데미 • 미을학교	- 20여 가구에 벽화 그림 - 파손된 벽 보수 활동 추진 - 도시아카데미 개설로 마을리더 육성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 주민들에게 접수리 방법, 방충망 설치요령 등 교육 실시 -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 - 지역체정의 리더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열정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 초등학생과 함께 마을 살펴보기	- 00초 4~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마을 내의 아이들의 선호기피 장소와 이유 탐색	-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복지 실현
	• 협의체 구성 • 인문학 대학	- 주민들이 함께 마을프로그램 준비 - 리더들의 재충전을 위한 인문학 대학의 타 지역 확산	- 커뮤니티 형성으로 인재 육성 과정의 필요성 느낌 -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로 마을이웃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 - 마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을 만들기 지속성 확보
서울 노원구 중계9단지	• 아동청소년 축제	- 아동 및 청소년 축제준비기획팀 참여 - 청소년들이 성취감 및 자부심 느낌	
	• 푸른하늘 공부방	- 맞벌이 및 결손가정의 아이들의 방과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 방학교실로 확대 - 현장체험, 체험교실, 특강	- 공동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 시작 및 주민들의 주도성 강화
	• 마을신문 「반송 사람들」	- 주민 간 소통 역할 - 매달 6천부 발행 및 배포하여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	- 학습모임 및 지역모임 활성화로 주민 간의 네트워크 활발 -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로 마을 형성
부산 반송동	• 농촌봉사활동과 별별축제	- 청소년 문화체험의 장 제공 - 학교 간의 소통 형성	
	• 희망의 사다리 운동	- 시민사회연대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해결하고자 함	
	• 미을 만들기 센터 조성 및 운영	-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센터 조성 - 마을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마을 공간	- 국토해양부 및 중앙정부의 행정으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지원 - 마을활동가 및 주민들의 사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
대구 삼덕동	• 공동체 극장 :마고재 조성 및 운영	- 인형마임축제 개최 된 후 극장으로 전환	

출처: 안전행정부(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p. 90-168.

3) 영국의 섬머힐 공동체 운영 사례 고찰 및 시사점

(1) 헐 시티에 대한 재조명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관리 방안’의 국외 사례로 일부분 언급한 영국의 헐 시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회복적 도시 헐 시티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오해섭, 김세광, 2015:178).

- 헐 시티가 회복적 도시로 전환된 후 소년 범죄 재범률이 50%이상 경감됨.
- 시 예산 절약 효과로, 새로운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259,000파운드(약 4억5천 만원) 예산이 추가로 발생됨. 그 결과 350파운드(약 60억 원)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옴. 이는 소년범 감소와 사법 및 교정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임.
- 학교문제의 감소 효과를 가져옴.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95% 이상으로 향상되어 수업방해 행동은 90% 가까이 감소하였고, 한 학기당 약 6,000파운드(약 1억 원)의 절약 효과와 교사의 수업의 질이 향상됨.
- 주민 간의 분쟁이 비사법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형성됨. 훈련된 진행자/조정자가 양성되어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이 향상됨.

2015년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의 기본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제시한 헐 시티의 긍정적인 변화는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헐 시티의 긍정적 변화의 사례가 도출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회복적 도시와 관련된 사례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의 「회복적 도시를 꿈꾸며」의 일부 내용의 구성을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재구조화하였다.

(2) 회복적 도시

회복적 정의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법 영역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천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록 회복적 정의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사법과 생활지도가 생산해왔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나 인류의 오랜 전통 속에 있었던 공동체 정의를 구현하는 현대적 모습이란 점에서는 오히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구현해내려는 시도가 결국 회복적 도시(Restorative City)라는 새로운 도시경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다.

(3) 회복적 도시 : 헐 시티(Hull City)에서 리즈 시티(Leeds City)로

회복적 도시, 즉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는 도시는 영국 동부의 도시 헐 시티(Hull City)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Laura Mirsky, 2009). 헐 시티는 한 때 영국의 대표적 수산업 도시로 번영을 누렸지만 지역경제 하락으로 점점 경제적 쇠락을 맞게 되었고, 결국 25만 명의 도시는 많은 실직과 범죄,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4년 헐 시티의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인 콜링우드(Collingwood) 초등학교에 새롭게 부임한 에스텔 맥도날드(Estelle Macdonald) 교장은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서클타임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고 처벌하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궁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교직원의 문화를 바꿔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급이 공동체로써 갈등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를 생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가 주장하듯이 ‘교사가 존경을 받고 싶다면, 학생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학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교육방침은 2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전 교직원이 지속적인 회복적 정의 워크숍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든 학급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학급서클을 진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매우 열악하던 학교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영국 교육부로부터 수업환경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학교가 최상위 등급을 받는 학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결국 최악의 부정적 문화가 지배하던 학교가 매우 긍정적인 학교문화와 공동체성이 특별한 학교로 인정을 받게 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콜링우드 학교의 변화에 고무되어 헐 시티에서 두 번째로 회복적 정의를 학생생활지도의 기초로 도입한 학교는 엔디보울(Endeavour) 중·고등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존중’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직원 외에도 15세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훈련을 시켜 스스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푸는 과정과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였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학교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의 서클을 통해 풀어가는 경험을 한 이 학교는 현재 회복적 접근이 일상화 된

곳으로 변모하였다. 더 이상 학교에 왕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시간과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이 두 학교의 성공사례를 계기로 2007년 헐 시티의 7개 구(區)중에 하나인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회복적 정의를 전체 구의 가능한 많은 학교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의 12개 초등학교와 2개의 중고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어린이 보호시설, 학부모운동단체, 가족치료 및 상담시설, 복지관, 보건시설,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경찰, 보호관찰소 등의 직원 총 3500여 명이 회복적 정의 관련 훈련을 받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총 9개의 학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회복적 정의 가치에 입각한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문제학생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역 전문기관의 스텝들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가족 협의회 프로젝트(The Families Project)가 있다.

또 다시 리버사이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계기로 2008년부터 헐 시티의 경찰은 경범죄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관내 모든 경찰이 하루짜리 회복적 정의 소개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그 중 65명은 계속해서 훈련 워크숍에 참여하여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이끄는 진행 훈련까지 이수하였다. 이 후 경찰은 입건 이후 어떤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경찰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학생들의 사건과 이웃들 간의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있다.

헐 시티의 시(市) 아동 및 청소년 복지과에서도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의 복지과 직원들이 회복적 정의 관련 워크숍을 이수하였고, 문제 청소년을 다룰 때 회복적 대화모임이나 공동체 서클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모임에는 경찰과 지역사회 일원들도 참가하여 해결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헐 시티 시 차원의 회복적 접근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경찰 개입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처음 몇 개의 학교에서 시작되었던 헐 시티의 회복적 정의 실천운동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그 실험의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헐 시티 경찰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를 시차원에서 시작한 첫해에는 비록 259,000파운드(약4억5천만 원)의 예산이 새로운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 다음해 최소한 350만 파운드(약 60억)의 절약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건이 소년사법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되면서 생겨난 결과이고, 다른 많은 변화 요소 가운데 특히 약 23% 정도의 보호시설 수감 명령이 줄어들면서 절약된 예산이다. 그 외에도 소년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은 13% 정도(영국평균은 27%)로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문제 학생이나 가족에 대한 학교 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회복적 정의 접근 이전의 0~40%에서 이후 95% 넘는 수치들로 수직 상승하였다. 또한 수업 방해의 경우 90% 가까이 줄어들어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당 한 학기에 약 6,000파운드(약 1억 원) 정도의 교육지원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처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 간에 친유가 되고, 직원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가족 내의 오래된 갈등이 성공적으로 풀어져가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긍정적 변화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는 비단 사법이나 교육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가치인 상호책임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안전한 갈등해결이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Joshua Wachte, 2012).

세계 최초의 회복적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영국의 헐 시티의 성공적 변화는 바로 그 옆 도시인 리즈 시티(Leeds City)에 영향을 주어 리즈 시티도 회복적 도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회복적 정의 실천모델인 가족 간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에서도 작은 도시 왕가누이(Wanganui)가 헐 시티를 벤치 마케팅 하여 회복적 도시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Joshua Wachtel, 2012). 이처럼 회복적 도시라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방식에 기반을 둔 도시운영의 실험들이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 많은 가시적 변화들을 생산하고 있다.

(4) 회복적 도시의 토대

회복적 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점검되고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회복적 정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목표이다. 회복적 도시의 핵심요소는 위에 언급한 회복적 정의 원칙, 가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는 인간관계의 가변성과 모호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가변성과 모호성은 매우 상대적이고 측정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변화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한다. 따라서 회복적 도시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헐 시티의 경우도 수 년 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의 기본적 토대들이 프로그램에 잘 녹여날 수 있었고 매우 고무적인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결국 회복적 도시는 회복적 정의를 구현해나갈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충분한 훈련을 전제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접근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기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4 회복적 도시의 토대

분류	내용
회복적 정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인식과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 설계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참여 유도 직면을 통한 자발적 책임의식 고취
회복적 정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로운 사회적 삶 - 문제해결과 보호 존중과 인정 - 참여와 권한부여 공동체성 - 직면, 지원, 윤리의식 자발적 책임 - 결자해지와 보상
회복적 정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 공동체성 강화 안전한 사회

(5) 회복적 실천(Aims of Restorative Practice)의 목표(Joshua Wachtel, 2012)

- 세움과 회복의 관계 - 존중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해와 공감을 키우고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내부와 외부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개인, 팀 및 직장 공동체의 관계성 향상 - 회복적 실천은 자신의 삶과 업무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관리하며 각각의 그룹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정의는 개인과 팀 전체의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의 복지와 긍정적 효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을 제공한다.
- 상호 책임성 -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그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장려하고 범죄자 혹은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대한으로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 공유 - 회복적 정의의 접근 방식은 공식적인 담당 부서와 공동체 간의 지식, 기술, 자원, 비공식적인 업무 등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유하여 서로 간의 복지와 책임을 공유한다.
- 성과 중심의 솔루션 - 회복적 활동은 이해 관계자(비즈니스, 고객 및 직원)의 결과를 모든 행동의 기반으로 사용하여 결과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작업은 주로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원의 지식과 강점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찾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업무 및 협업 기술이 향상되고 개인 및 팀의 강점을 토대로 표준화된 방법과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6) 회복적 도시 형성 과정이 주는 시사점

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피해의 회복, 자발적 책임의 회복,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모델 연구와 선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인지,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가족 간 협의체 형태로 할 것인지, 공동체 참여가 보장되는 커뮤니티 서클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지역에 가장 알맞은 모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 중에 연구, 임상을 통해 선택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명칭도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역에 잘 반영하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②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 구축

광의적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에서 말하는 정의를 이루는 주체는 사법기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교육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기관, 종교기관, 경제단체,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 인프라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청, 지방법원,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③ 담당 공무원들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향상

실제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학교, 법원, 지자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책 결정자와 관심 있는 리더들에 의해 주도될 경우, 실제로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취지와 과정을 소개하는 실무자들이 정작 정확한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곧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심지어 왜곡(eg. 금전적 합의도출에 용이한 도구)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④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선발 및 훈련 체계 구축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안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위원 or 조정자)의 자질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나라에서도 진행자(facilitator/mediator)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내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진행자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훈련을 의뢰하는 하는 방법과 시가 자체적으로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고 선발된 사람들을 전문훈련 시키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내 대학이나 평생학습원 등을 통해 회복적 정의 관련 훈련을 받는 사람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진행자를 공급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지역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초기의 회복적 정의 지역 모델이 외부전문기관이나 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력(형사조정위원 등)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나 시범적용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4~6개월 정도의 전문적 훈련 기간을 걸쳐 양성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주축으로 ‘공동체 회복적 정의 센터’와 같은 지역 전문기관(민간)이 형성되어 시와 파트너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돋고, 지역의 공동체적 정의를 이뤄 가는데 계속 협력적 동반자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회복적 정의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과 학교, 기관들이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범죄 예방(특히 청소년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좀 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과 운영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소수의 상주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로 이뤄지며, 운영재원은 시의 지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후원, 공모사업 등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지역의 은퇴한 경찰이나 교사, 종교인 등이 전문훈련을 이수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회복적 정의 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지역모델로 바람직하다.

⑥ 회복적 도시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

친환경도시, 슬로우시티 등 각 도시가 갖는 특성을 살려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아직은 매우 작은 움직임이지만 ‘회복적 도시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회복적 도시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를 사법 분야 외에 도시의 교육정책이나 공공영역, 비즈니스 분야에까지 확대해가고 있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계 파괴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고 공동체성이 강화, 재생산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응보적 또는 징벌적 책임 추궁 방식과 문화를 벗어나서 상호협력과 당사자 권한부여라는 새로운 접근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평화문화 형성과 생산적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비전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⑦ 작은 프로젝트의 성공에서 시작

영국의 헐 시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복적 도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시도의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크고 전반적 차원의 시도보다 작은 프로젝트를 잘 구상하여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원들이 준비 및 훈련되어 가면서 작은 규모의 시범학교나, 법원의 시범사례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복 적정의 운동이 도시 전체에 확산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헐 시티의 회복적 도시 형성 과정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 지역이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하려면 큰 그림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작은 실천부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목표하는 가치에 대하여 공유하고 지역 전문가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개발
 둘째, 지역사회의 협력 인프라 구축
 셋째, 담당 공무원들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넷째, 프로그램 진행자의 선발과 교육
 다섯째, 지역 전문기관 형성의 필요
 여섯째, 회복적 도시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
 일곱째, 작은 실천에서 시작

(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용점

헐 시티가 회복적 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모범적인 도시경영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 헐 시티의 도시경영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에 적용하기

도시경영 적용점	청소년행복마을 적용점
Explicit statement of values and expectations 가치와 기대를 명료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기
Working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청소년,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기
Use of fair process 공정한 프로세스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전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기
Use of restorative language 회복적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회복적 언어를 사용하기
Free expression of emotion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자발성과 참여가 허용되는 소통의 환경 구성
Modelling of expected behaviour 예상 행동 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될 과정에 대한 예측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출처: Joshua Wachtel(2012). World's First "Restorative City": Hull, UK, Improves Outcomes of All Interventions with Young People, Saves Resources, 재구성함.

3. 국제비교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및 지표 구성안

이 절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국제비교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국제비교 연구인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비교연구(PISA 2015와 Children’s World Report 2015)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표 구성 시안을 제안하였다.

1) 국제비교 조사연구의 고려사항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 결과를 보고하거나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복잡한 여러 개의 지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성과 용이성, 그리고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행복도가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행복도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하나의 요약적인 지표를 통해서 비교하기보다 여러 영역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복합 지표를 만들도록 좀 더 복합적인 비교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O’Hare & Gutierrez, 2012).

이러한 영역 간 구분의 필요성은 한국의 청소년들을 연구할 때 특히나 중요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행복의 영역에 따라 최상위권에 속하기도 하고 동시에 최하위권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행복도를 하나의 지표로 요약했을 때 한국은 10위에 해당해 중하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 각각의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봤을 때에는 교육, 물질적 상황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u & Bradshaw, 2010). 한국 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은 OECD 국가들 간의 비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 염유식, 2010).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완전히 상이한 상태를 보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합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단일지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복합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청소년들의 행복과 안녕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다만 유엔 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원칙들은 아이들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여 지표 구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Bradshaw et al., 2007a). 대표적인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 제2조: 반차별(non-discrimination)
- 제3조: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 제6조: 생존과 발달(survival and development)
- 제12조: 어린이들의 시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비록 단일한 지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규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도 이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Hauser, Brown & Prosser, 1997).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Ben-Arieh, 2007).

(1) 생존에서 삶의 질로의 전환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전통적인 지표들은 유아 사망률, 예방 접종과 같이 생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지표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지표들을 생존 자체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감을 포괄하고 있다.

(2)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

전통적인 지표들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상태를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의 성취가 부족하거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의 부재가 곧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점이 지적되었고(Moore, Lippman and Brown, 2004), 이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3) ‘Well-Becoming’에서 ‘Well-Being’으로의 전환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Well-Becoming)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기, 청소년기를 어른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존중되어야 할 시기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복지수는 아이들의 Well-Being 자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4) 새로운 영역 개발

위의 세 가지 변화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 영역들도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시민적 삶에 필요한 능력, 안전, 청소년 활동과 같은 영역은 기존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던 영역들이다.

2)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위에서 살펴본 연구 흐름에 있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이자 한국 최초의 연구로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가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 염유식, 2010). 이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9년에 걸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대략 8,000명가량의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OECD, HBSC 등에서 발표하는 국제 비교 지표와 비교하여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는 이 연구 이전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비교 연구의 지표 구성 방식에 착안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를 어떤 지표와 묶어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이룬다고 볼 것 인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에 따라 두 개 영역을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혹은 영역들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행복을 나누는 방식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II-6 기존 연구의 행복 영역 구분 방식

연구자 / 년도	연구 대상 국가	영역 구분 방식
Bradshaw, Hoelscher, & Richardson, 2007a	OECD 국가	물질적 행복/교육/보건과 안전/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주관적 행복/가족과 친구 관계
Bradshaw, Hoelscher, & Richardson, 2007b	유럽 연합 국가	물질적 상황/주택/교육/건강/ 위험과 안전/주관적 행복/ 아이들의 관계/시민 참여
Richardson, Hoelscher, & Bradshaw, 2008	중부유럽 국가, 동부유럽 국가	물질적 상황/주택 및 환경/ 교육/건강/위험과 안전/ 개인적, 사회적 안녕/가족 구조와 돌봄
Bradshaw & Richardson, 2009	유럽 연합 국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물질적 자원/주택과 환경/교육/건강/ 행동과 위험/주관적 행복/개인적 관계
Lau & Bradshaw, 2010	환태평양의 13개 국가	물질적 상황/교육/건강/위험과 안전/ 주관적 행복/삶의 환경
Hernandez, 2011	미국	가족의 경제적 행복/ 건강/공동체 참여/사회적 관계
Bradshaw et al., 2009	영국	소득/주택/교육/건강/ 환경/범죄/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Lee, Lamb, & Land, 2009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족의 경제적 행복 교육/건강/안전과 행동/정서적 행복
Moore et al., 2008	미국	개인적 요소(심리적/사회적/교육적, 지적)/ 상황적 요소(가족/공동체/사회인구적)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0	미국	경제적 보장/교육/건강/행동, 사회 환경/ 인구 · 가족적 특성
O' Hare & Bramstedt, 2003	미국	아동 빈곤/부모의 안정적 고용 고등학교 퇴학 학교 다니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 저체중아 비율/유아 사망/아동 사망/ 청소년 사망/청소년 출산/한부모 가족
Land, Lamb, & Mustillo, 2001	미국	물질적 행복/교육 성취/건강/안전과 행동 공동체/정서적/종교적 행복/사회적 관계
Land, 2014	미국	가족의 경제적 행복/교육 성취/건강 안전과 위험/사회적 관계/정서적 종교적 행복/ 공동체 참여

대부분의 지표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영역은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것이다.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빈곤율,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있는지 여부는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유럽 국가의 경우 주택과 관련한 영역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교육 또한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분야의 세부 영역은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나 교육의 결과로서 성적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있다.

청소년들의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O'Hare와 Bramstedt의 연구에서는 건강의 조건이 좀 더 생존 자체에 치중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이들의 행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O'Hare & Bramstedt, 2003).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독립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다. 행동에 대한 영역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으로서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마약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영양 섭취는 잘 하고 있는지 등의 세부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행동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범죄 행위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행복, 주관적 행복과 같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본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경제적 조건, 교육, 건강, 행동 네 영역의 경우가 전통적인 행복지표에 속한다면 주관적 행복 영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을 미완의 어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중시하여 많은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이 정서적 행복 영역에 종종 함께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들이 부모 혹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많은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다. 생존에만 집중하고 어른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가족구조 정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후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에서 시민 참여 혹은 공동체 참여와 같은 영역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을 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이들의 시민 참여

정도가 그들의 행복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는 것이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로는 학생회, 청년 조직, 환경 조직, 인권 조직과 같은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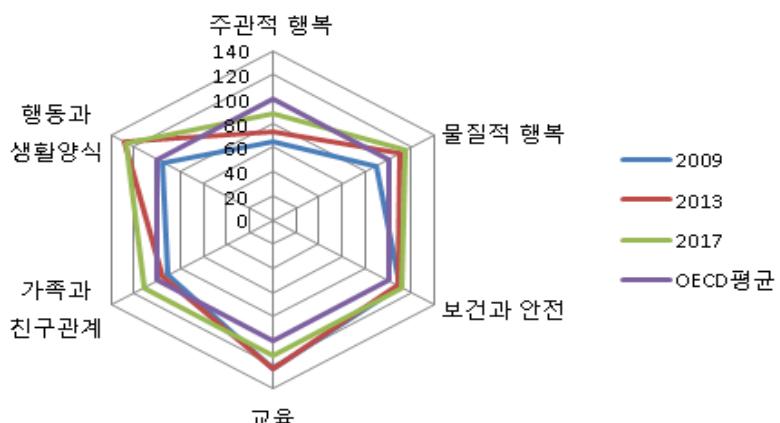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영역 구분 방식을 따라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행복, 교육 보건과 안전, 건강 관련 행위, 주관적 행복, 가족과 친구 관계 총 여섯 개 영역에서 한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7 방정환 재단의 OECD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표 및 데이터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사용한 데이터(출처)	
					외국	한국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 수입의 50%이하	중위 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13(OECD, 2014a)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5)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OECD 2014(OECD, 2014b)	방정환 재단 연구 실문지(염유식 외, 2017)
	결핍	교육 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OECD 2012(OECD, 2017b)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12(OECD, 2017b)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출산 1,000명 당)	0~12 개월	WHO 2015(WHO, 2017)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UNICEF 2014(UNICEF, 2017)	
보건과 안전	예방 접종	질병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 개월	WHO 2015(WHO, 2015a)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 개월	WHO 2015(WHO, 2015b)	
			DPT3 예방접종	12~23 개월	WHO 2015(WHO, 2015c)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10만 명 당)	19세 이하	WHO 2008(WHO, 2008)	
	학업성취	15세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15(OECD, 2016)	
교육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4(OECD, 2014c)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OECD, 2008)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사용한 데이터(출처)		
					외국	한국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 부모 가정	홀 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방정환 재단 연구 설문지 (염유식 외, 2017)	
		의붓 가정	의붓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OECD, 2017a)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친구 관계	친절한 금우 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행동	아침 식사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방정환 재단 연구 설문지 (염유식 외, 2017)	
		과일 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학생의 비율	13, 15세	HBSC 2012 (WHO, 2012)		
		운동	지난 1주일 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가 7일인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위험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흡연/ 음주 경험 비율 마약 사용 경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WHO, 2012)		
			섹스 경험 비율	15세	HBSC 2016 (WHO, 2016)		
		임신과 출산	실태 출산율	15–19세 (여)	WDI 2015 (The World Bank, 2017)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방정환 재단 연구 설문지 (염유식 외, 2017)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12 (WHO, 2012)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율	15세			
			‘다소’, ‘매우 외롭다’는 비율	15세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아래 그래프는 행복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의 OECD 평균을 100, 표준편차를 10이라고 했을 때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표준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연구의 결과, 나머지 다섯 영역에서는 한국이 대부분 평균 이상인 반면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만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이나 행동,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주관적 행복에서는 실제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보였다. 그러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의 증가 폭이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OECD 평균보다 4 표준편차 이하에 불과했던 60점에 가까웠던 데 비해, 2017년에는 80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 영역 외에, 행동과 생활양식, 가족과 친구 관계, 물질적 행복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OECD 최상위 수준이었던 교육 영역의 경우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p.7의 그림을 재구성.

【그림 II-5】 여섯 영역에서의 한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변화 추이

3) 한국방정환재단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이후의 국제 비교 연구

(1) PISA 2015 학생들의 삶의 질 연구 결과 보고서

OECD에서는 매 3년마다 OECD 각 국가의 만 15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rogram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를 실시한다. OECD 국가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 및 삶의 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5년도 PISA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어 국제비교 지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삶의 질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보고서의 네 가지 측면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학교 관련 걱정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그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의 걱정 등은 그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PISA에서는 2015년에 학교와 관련한 걱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OECD, 2016). 조사문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

- 나는 종종 시험을 치는 것이 어려울까봐 걱정이 된다(I often worry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me to take a test).
- 나는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I worry I will get poor grades at school).
- 나는 시험을 볼 준비가 잘 되어있어도 매우 걱정이 된다(I feel very anxious even if I am well prepared for a test).
- 나는 시험공부를 할 때 매우 긴장이 된다(I get very tense when I study for a test).
-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를 때 긴장이 된다(I get nervous when I do not know how to solve a task at school).

조사 결과 한국은 35개 OECD 국가 중에서 12번째로 학생들의 학교 관련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련 걱정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그 관련성은 문화권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적과의 상관관계도 문화권에 따라 상이했는데, 호주, 칠레,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더 걱정을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선생님과의 관계

PISA 2015년 조사에서 추가로 조사한 문항은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영역을 물었는데, 첫째로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는가와 둘째로 학교 선생님들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첫 번째 선생님들의 지지는 다음의 세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을 보인다(The teacher shows an interest in every student's learning).
- 선생님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별도로 도움을 준다(The teacher gives extra help when students need it).
-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The teacher helps students with their learning).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여섯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선생님은 나보다 다른 학생들을 더 자주 호명한다(teacher calls on me less often than they call on other students).
-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성적을 매긴다(teacher grades me harder than they grade other students).
- 선생님은 실제보다 내가 덜 똑똑하다는 인상을 준다(teacher gives me the impression that I am less smart than I really am).
-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나에게 더 엄격하게 훈육을 한다(teacher disciplines me more harshly than others).
-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는다(teacher ridicules me in front of others).
-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teacher tells me something insulting in front of others).

실제로 선생님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할 확률이 OECD 평균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도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 아웃사이더로 느낀다고 응답한 확률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에 비해 1.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폭력 경험은 이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이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PISA 2015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폭력의 종류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세 가지는 때리거나 밀치는 육체적 폭력, 놀리거나 조롱하는 언어적 폭력, 무시하거나 집단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관계적 폭력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폭력을 다음의 여섯 문항을 사용해 조사했다.

- 다른 학생들은 나를 고의적으로 각종 일로부터 제외시켰다(Other students left me out of things on purpose).
- 다른 학생들은 나를 놀렸다(Other students made fun of me).
- 다른 학생들이 나를 위협했다(I was threatened by other students).

- 다른 학생들이 내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부쉈다(Other students took away or destroyed thing that belong to me).
-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리거나 밀쳤다(I got hit or pushed around by other students).
- 다른 학생들이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Other students spread nasty rumours about me).

조사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한 달에 몇 번 이상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9.3%)에 이어 두 번째 (11.9%)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공부를 잘 하는 학교일수록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반면 한국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hildren's World Report 2015

Children's World에서는 Jacobs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2009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8세, 10세, 12세 아동의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Rees & Main 2015).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인 아동 삶의 질 국제 조사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ISCWeB)는 전 세계 아동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현재 3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다(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유민상, 최창용 외, 2015).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주요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두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삶의 질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 행복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에서는 보지 않았던 두 가지 영역이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첫째로 거주 지역 (local area)과 두 번째로 아동권리 인식(child right recognition)영역이다. 거주 지역에 대한 영역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 마을의 위원회는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The town council asks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ir opinion about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
- 내가 사는 지역에는 놀거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In my area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or to have a good time).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을 돌아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I feel safe when I walk around in the area I live in).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만족한다(I am satisfied with the people who live in my area).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경찰에 대해 만족한다(I am satisfied with the local police in my area).
- 나는 내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들의 대우에 대해 만족한다(I am satisfied with how I am dealt with when I go to the doctors).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동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만족한다(I am satisfied with the outdoor areas children can use in my area).
-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I am satisfied with the area where I live, in general).

조사 결과 첫 번째 문항인 “마을의 위원회는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The town council asks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ir opinion about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의 경우 신뢰도가 떨어져 분석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문항에 있어서는 한국이 15개 국가 중하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놀거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을 돌아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15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영역이 있는데, 총 세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나는 아동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I know what rights children have).
- 나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I know about the children's rights convention).
- 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I think, in my country, adults in general respect children's rights).

아동의 권리 영역에 있어서도 한국은 15개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1등인 노르웨이(84%)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고, 열 세 번째인 남아프리카(44%), 열 네 번째인 알제리(41%)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4) 국제 비교 연구 방법

(1) Children's World와의 비교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문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국제비교 연구와 비교 가능하도록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가장 유사성이 크고 직접 비교가 가능한 조사는 Children's World의 조사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크게 아홉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 영역은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이다. 그리고 각 행복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가 Children's World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주요 이유는 바로 이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Children's World의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의 각 영역 별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이에 해당하는 Children's World의 문항을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Rees & Main 2015).

표 II-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Children's World의 핵심 문항 비교

영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문항	Children's World 조사의 문항	비고
1. 주관적 웰빙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 with your life as a whole	
2. 관계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general	
3. 건강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health	의미 해석에 유의
4. 교육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chool experience	
5. 안전	학생은 평소 생활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I feel safe when I walk around in the area I live in	의미 해석에 유의 척도 차이
6. 참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he town council asks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ir opinion about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	의미 해석에 유의 척도 차이
7. 활동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outdoor areas children can use in your area	의미 해석에 유의
8. 경제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all the things you have	
9. 환경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area you live in, in general	

위 표에서 보듯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핵심 문항이 Children's World의 문항과 비슷하다는 점과 더불어 두 조사는 응답지 구성도 동일하게 구성되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각 영역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고 만족도를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 총 11점 척도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를 하고자 할 때 Children's World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Children's World의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알제리,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이 있다.

또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아홉 개의 핵심적인 문항 외에도 두 조사는 동일한 문항을 공유하고 있어 비교를 할 수 있다. 두 조사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 문항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와 Children's World의 공통 문항

영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문항	Children's World의 문항
1. 주관적 웰빙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I feel positive about my future
	최근 행복한 감정	happy during the last two weeks
	최근 편안한 감정	relaxed during the last two weeks
2. 관계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We have a good time together in my family
4. 교육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things you have learned
6. 참여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I know what rights children have
7. 활동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In my area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or to have a good time

매우 유사한 문항과 응답 방식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연구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미가 다소 다른 문항이 있다는 점이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 안전, 참여, 활동 영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 영역 같은 경우 Children's World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던 반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는 “또래에 비해” 어떤지를 묻고 있다.

안전 영역에서는 Children's World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물었던 반면, 본 조사에서는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에 차이가 있다. 또한 참여 영역에서도 town council이 우리 사회로 바뀌면서 의미가 다소 달라졌고, 활동 영역에서도 Children's World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면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문항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비교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척도에 차이가 있는 문항이 있다는 점이다. 안전과 참여 영역이 그러한데, Children's World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 반면 본 조사에서는 11점 척도로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함에 있어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방정환 재단 연구 및 HBSC, PISA와의 비교 분석

청소년들의 행복을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는 주관적 행복 영역이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최악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주관적 행복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어떤 행복 영역에 대한 이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비교 연구인 한국방정환 재단의 연구와 주관적 행복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의 주관적 행복 영역은 HBSC 및 PISA의 주관적 행복과 같은 문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에 몇 가지 문항을 추가하여 한국방정환 재단의 연구, HBSC 및 PISA와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II-10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의 주관적 행복 영역 구성

영역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문항 공유 국제비교 연구 데이터(출처)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6 (WHO 2016)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혹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혹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12 (OECD, 2017)
			주변상황에 ‘별로’ 혹은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율	15세	
			‘다소’ 혹은 ‘매우 외롭다’는 비율	15세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주관적 행복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만족, 삶에 만족 문항의 경우 비록 척도는 다르지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에도 포함되어있는 문항이다.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와 HBSC에서는 이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비록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11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는 현재 문항을 0~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3점은 별로 그렇지 않다, 4~6점은 보통이다, 7~8점은 조금 그렇다, 9~10점은 ‘매우 그렇다’로 재 코딩하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지는 않으므로 함께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 생각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 세 개의 부정적 생각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가 좀 더 풍부한 비교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를 제안한다. 현재 설문지 문항의 주관적 웰빙 영역에는 내가 느낀 기분이라는 문항으로 청소년들의 감정을 묻고 있다. 여기에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에서 조사한 세 가지 감정을 추가함으로써 설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 및 PISA의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II-11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와의 비교를 위한 설문 추가 안

기존의 문항 구성	문항 구성 제안
1) 즐거운	1) 즐거운
2) 편안한	2) 편안한
3) 불안한	3) 불안한
4) 슬픈	4) 슬픈
5) 우울한	5) 우울한
6) 행복한	6) 행복한
	7)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되어있는
	8) 외로운
	9) 주변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제 III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 조사개요
2. 표본설계
3. 가중치와 모수추정
4.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5. 조사결과
6. 소결

제 I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절차

이 조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¹⁾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충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표집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 표집 → 조사대상 학교 리스트 정제 →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학교 사전접촉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학교 방문 → 학생 조사 진행 → 학생 설문지 현장 확인 및 수거 → 설문지 최종 수합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각 자료수집 절차에 따른 이 연구의 구체적 조사일정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일정

	내용	일정
조사준비	조사대상 학교 리스트 정제·획정	4월 28일
	공문 및 안내문 준비·발송	~ 5월 8일
	조사대상 학교 사전접촉	5월 10일~
	면접원 선발 및 교육	5월 12일~17일
조사 실시 및 검수	본 조사 실시	5월 22일~7월 17일
	대체표본(총4차) 송부 및 발송	5월 17일~6월 22일
	데이터 검수 실시	7월 19일~21일
	자료입력 완료	7월 21일~7월 27일
	가중치 작업 진행 및 최종데이터 확정	7월 31일~8월 14일

*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본 연구원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2) 모집단분석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480,0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94,448명(28.9%), 중학교 1,446,158명(32.3%), 고등학교 1,739,458명(38.8%)이다(<표 III-2>~<표 III-4> 참조). 지역 × 학교급 × 학년별 × 성별 학생 수 분포는 <표 III-5>~<표 III-7>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III-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0,708	68,129	75,042	77,246	75,825	85,351	599	599	599	383	383	384
경기	117,953	111,629	120,864	124,017	119,626	134,501	1,225	1,231	1,232	619	618	618
인천	24,759	23,893	25,559	26,894	25,846	29,436	245	243	246	134	134	133
강원	12,224	12,375	13,245	13,750	14,040	15,835	330	331	335	162	162	162
충북	13,393	13,089	14,157	14,476	14,579	16,753	268	262	262	126	128	128
충남	18,547	17,604	18,839	19,210	18,721	21,620	397	395	396	187	187	187
대전	13,919	13,371	14,729	15,259	15,058	16,896	147	147	147	88	88	88
세종	2,862	2,612	2,704	2,679	2,347	2,369	37	37	37	18	18	18
경북	20,205	19,814	21,068	22,220	22,086	25,577	395	395	411	280	282	281
경남	29,448	28,328	30,630	31,552	31,187	35,826	482	489	491	268	267	267
부산	24,101	23,670	25,849	27,529	27,047	31,404	308	308	308	172	172	172
대구	20,117	20,241	21,816	23,721	22,937	26,789	224	224	224	125	123	123
울산	10,406	10,027	10,744	11,277	10,851	12,946	118	118	118	63	62	62
진북	15,576	15,669	16,841	17,856	18,128	20,542	386	385	392	209	209	209
전남	14,906	14,445	15,781	16,490	16,833	19,323	416	417	415	252	247	253
광주	14,462	13,949	15,455	16,483	16,067	18,639	154	154	154	90	90	89
제주	6,293	6,071	6,330	6,729	6,467	7,318	114	112	114	45	45	44
합계	429,879	414,916	449,653	467,388	457,645	521,125	5,845	5,847	5,881	3,221	3,215	3,218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5,860	63,802	67,413	13,841	13,484	12,487	18,608	18,041	18,029	2,012	2,120	2,116
경기	122,431	117,272	117,980	3,888	3,732	4,047	19,812	19,665	20,195	2,589	2,551	2,459
인천	21,917	21,580	22,015	2,058	1,971	1,723	7,524	7,271	7,407	829	756	713
강원	13,893	13,806	14,277	155	151	155	3,560	3,207	3,378	185	214	173
충북	11,284	10,838	11,187	1,576	1,528	1,586	5,209	5,108	5,368	243	240	200
충남	16,512	15,714	15,816	1,960	2,014	1,993	6,022	5,727	5,865	241	244	221
대전	12,261	11,895	12,563	2,673	2,599	2,590	3,709	3,490	3,618	431	427	398
세종	1,953	1,700	1,244	200	202	191	148	146	152	197	194	95
경북	20,163	19,817	19,592	2,741	2,699	2,600	6,664	6,383	6,467	223	224	176
경남	30,401	29,858	30,404	2,793	2,703	2,707	5,436	5,338	5,568	521	548	449
부산	21,563	21,173	22,202	3,518	3,515	3,566	8,763	8,668	8,666	1,137	1,174	1,126
대구	17,926	18,184	18,413	5,542	5,491	5,698	6,627	6,295	6,269	326	321	277
울산	10,398	10,331	10,608	1,022	1,047	939	3,027	2,956	3,243	239	253	214
전북	17,211	16,686	17,227	1,029	966	950	5,174	5,011	5,169	225	207	189
전남	13,655	13,374	13,514	2,228	2,176	2,234	6,226	6,133	6,246	212	208	165
광주	15,478	14,948	15,370	1,114	1,105	1,094	4,174	4,110	4,262	95	93	94
제주	5,294	4,967	4,927	232	231	225	2,235	2,153	2,129	142	136	119
합계	418,200	405,945	414,752	46,570	45,614	44,785	112,918	109,702	112,031	9,847	9,910	9,184

표 III-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6	186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2	353	34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79	8	8	7	31	31	31	6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7	2	2	2
충북	46	46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7	67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경북	9	9	5	1	1	1	1	1	1	2	2	1
경남	117	117	118	12	12	11	56	56	58	3	3	3
부산	138	138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대구	81	81	80	14	14	14	41	42	42	7	7	7
울산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전북	37	36	35	4	4	4	13	13	13	2	2	2
전남	94	94	93	3	3	3	34	34	34	2	2	2
광주	78	78	78	8	8	8	55	55	55	2	2	2
제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합계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표 III-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6,396	35,147	38,612	34,312	32,982	36,430	40,135	39,515	44,429	37,111	36,310	40,922
경기	60,571	57,454	62,084	57,382	54,175	58,780	64,107	62,074	69,775	59,910	57,552	64,726
인천	12,788	12,233	13,141	11,971	11,660	12,418	13,803	13,348	15,172	13,091	12,498	14,264
강원	6,305	6,407	6,900	5,919	5,968	6,345	7,113	7,335	8,290	6,637	6,705	7,545
충북	6,836	6,803	7,415	6,557	6,286	6,742	7,538	7,666	8,714	6,938	6,913	8,039
충남	9,575	9,025	9,713	8,972	8,579	9,126	9,936	9,829	11,129	9,274	8,892	10,491
대전	7,204	6,945	7,603	6,715	6,426	7,126	7,864	7,874	8,858	7,395	7,184	8,038
세종	1,475	1,315	1,341	1,387	1,297	1,363	1,366	1,190	1,172	1,313	1,157	1,197
경북	10,564	10,273	11,126	9,641	9,541	9,942	11,700	11,720	13,468	10,520	10,366	12,109
경남	15,260	14,733	16,166	14,188	13,595	14,464	16,679	16,437	18,937	14,873	14,750	16,889
부산	12,404	12,269	13,275	11,697	11,401	12,574	14,385	14,110	16,370	13,144	12,937	15,034
대구	10,430	10,625	11,432	9,687	9,616	10,384	12,484	12,307	14,103	11,237	10,630	12,686
울산	5,433	5,283	5,665	4,973	4,744	5,079	5,996	5,700	6,901	5,281	5,151	6,045
전북	8,000	8,231	8,691	7,576	7,438	8,150	9,185	9,585	10,513	8,671	8,543	10,029
전남	7,608	7,390	8,232	7,298	7,055	7,549	8,548	8,771	10,097	7,942	8,062	9,226
광주	7,486	7,224	8,022	6,976	6,725	7,433	8,648	8,372	9,655	7,835	7,695	8,984
제주	3,299	3,226	3,356	2,994	2,845	2,974	3,541	3,489	3,861	3,188	2,978	3,457
합계	221,634	214,583	232,774	208,245	200,333	216,879	243,028	239,322	271,444	224,360	218,323	249,681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23	31,620	33,808	9,561	9,340	8,639	8,564	8,333	8,192	755	811	749
경기	63,537	60,497	60,980	1,865	1,768	1,977	10,821	10,732	10,774	837	832	869
인천	11,271	11,256	11,437	1,205	1,206	1,026	3,882	3,765	3,828	391	338	289
강원	6,981	6,792	7,114	86	80	86	2,372	2,119	2,225	81	104	84
충북	5,634	5,363	5,559	911	889	929	2,939	2,878	3,001	89	88	79
충남	8,285	7,971	7,993	1,140	1,200	1,156	3,510	3,325	3,341	79	82	80
대전	5,717	5,660	5,904	1,909	1,853	1,836	2,093	1,979	2,105	176	185	171
세종	978	829	601	84	82	67	119	131	120	111	105	26
경북	9,836	9,538	9,418	1,730	1,767	1,694	4,339	4,185	4,148	99	116	84
경남	14,801	14,336	14,558	2,200	2,167	2,225	3,553	3,439	3,577	228	218	151
부산	10,740	10,510	11,262	1,967	1,929	2,028	5,339	5,357	5,262	459	505	459
대구	8,886	8,779	9,235	2,959	3,009	3,183	4,161	3,988	3,865	182	166	157
울산	5,299	5,209	5,509	564	574	481	1,847	1,844	1,964	89	102	81
전북	8,229	7,949	8,307	897	837	822	3,149	3,041	3,121	78	81	54
전남	6,372	6,205	6,175	1,659	1,620	1,653	3,592	3,586	3,609	91	88	61
광주	7,785	7,411	7,746	699	679	657	2,314	2,236	2,266	82	80	73
제주	2,774	2,615	2,611	0	0	0	1,226	1,215	1,181	53	57	49
합계	210,048	202,540	208,217	29,436	29,000	28,459	63,820	62,153	62,579	3,880	3,958	3,516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37	32,182	33,605	4,280	4,144	3,848	10,044	9,708	9,837	1,257	1,309	1,367
경기	58,894	56,775	57,000	2,023	1,964	2,070	8,991	8,933	9,421	1,752	1,719	1,590
인천	10,646	10,324	10,578	853	765	697	3,642	3,506	3,579	438	418	424
강원	6,912	7,014	7,163	69	71	69	1,188	1,088	1,153	104	110	89
충북	5,650	5,475	5,628	665	639	657	2,270	2,230	2,367	154	152	121
충남	8,227	7,743	7,823	820	814	837	2,512	2,402	2,524	162	162	141
대전	6,544	6,235	6,659	764	746	754	1,616	1,511	1,513	255	242	227
세종	975	871	643	116	120	124	29	15	32	86	89	69
경북	10,327	10,279	10,174	1,011	932	906	2,325	2,198	2,319	124	108	92
경남	15,600	15,522	15,846	593	536	482	1,883	1,899	1,991	293	330	298
부산	10,823	10,663	10,940	1,551	1,586	1,538	3,424	3,311	3,404	678	669	667
대구	9,040	9,405	9,178	2,583	2,482	2,515	2,466	2,307	2,404	144	155	120
울산	5,099	5,122	5,099	458	473	458	1,180	1,112	1,279	150	151	133
전북	8,982	8,737	8,920	132	129	128	2,025	1,970	2,048	147	126	135
전남	7,283	7,169	7,339	569	556	581	2,634	2,547	2,637	121	120	104
광주	7,693	7,537	7,624	415	426	437	1,860	1,874	1,996	13	13	21
제주	2,520	2,352	2,316	232	231	225	1,009	938	948	89	79	70
합계	208,152	203,405	206,535	17,134	16,614	16,326	49,098	47,549	49,452	5,967	5,952	5,668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충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충화집락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 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600명, 중학교: 2,905명, 고등학교: 3,494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충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III-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29,879	1,294,448 (28.9%)	2,600 (28.9%)	2,520 (28.0%)		
		5	414,916					
		6	449,653					
중학교	중학교	1	467,388	1,446,158 (32.3%)	2,905 (32.3%)	2,772 (30.7%)		
		2	457,645					
		3	521,125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18,200	1,238,897 (27.7%)	2,489 (27.7%)	2,511 (27.9%)	3,723 (41.3%)	
		2	405,945					
		3	414,752					
	유형 2 (자율고)	1	46,570	136,969 (3.1%)	275 (3.1%)	450 (5.0%)		
		2	45,614					
		3	44,785					
	유형 3 (특성화고)	1	112,918	334,651 (7.5%)	672 (7.5%)	624 (6.9%)		
		2	109,702					
		3	112,031					
	유형 4 (특수목적고)	1	9,847	28,941 (0.6%)	58 (0.6%)	138 (1.5%)		
		2	9,910					
		3	9,184					
합계			4,480,064(100.0%)	9,000(100.0%)	9,015(100.0%)			

2) 총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6년 12월 교육통계 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 구분과 학교 구분을 총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총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 · 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6개)
- 학년 : 초(4~6학년), 중, 고(1~3학년) (각 교급별 3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총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총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총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 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9>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II-10>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30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4명(학년 당 약 1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 당 약 30명의 학생을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1>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3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III-11> 및 <표 III-12>와 같다.

표 III-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30	479	396	45	195	
경기	704	760	719	67	85	
인천	149	165	132			
강원	76	88	84			
충북	82	92	67			
충남	110	120	97	45	96	
대전	84	95	74			
세종	16	15	10			
경북	123	140	120			
경남	178	198	182			
부산	148	173	130	74	229	
대구	125	148	110			
울산	63	70	63			
전북	97	114	103			
전남	91	106	81	44	67	
광주	88	103	92			
제주	38	41	31			
합계	2,600	2,905	2,489	275	672	59

* 총계: 9,000명

표 III-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9	17.1	12.8	1.5	7.5	
경기	29.3	27.1	23.2			
인천	6.2	5.9	4.2	2.2	3.3	
강원	3.2	3.1	2.7			
충북	3.4	3.3	2.2			
충남	4.6	4.3	3.1	1.5	3.7	
대전	3.5	3.4	2.4			
세종	0.7	0.5	0.3			
경북	5.1	5.0	3.9			
경남	7.4	7.1	5.9			
부산	6.2	6.2	4.2	2.5	8.8	
대구	5.2	5.3	3.5			
울산	2.6	2.5	2.0			
전북	4.0	4.1	3.3			
전남	3.8	3.8	2.6	1.5	2.6	
광주	3.7	3.7	3.0			
제주	1.6	1.5	1.0			
합계	108.3	103.8	80.3	9.2	25.8	2.6

* 총계: 330개

표 III-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6(2)	
경기	27(9)	24(8)	21(7)			
인천	6(2)	6(2)	3(1)	3(1)	3(1)	
강원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경남	6(2)	6(2)	6(2)			
부산	6(2)	6(2)	3(1)	3(1)	9(3)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전남	3(1)	3(1)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30(110)개

표 III-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72	90	156	
경기	648	672	651			
인천	144	168	93	90	78	
강원	72	84	93			
충북	72	84	93			
충남	144	84	93			
대전	72	84	93			
세종	72	84	93			
경북	144	168	93			
경남	144	168	186			
부산	144	168	93			
대구	144	168	93			
울산	72	84	93			
전북	72	84	93			
전남	72	84	93			
광주	72	84	93			
제주	72	84	93			
합계	2,520	2,772	2,511	450	624	138

* 총계: 9,015명

4) 표본추출

각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1>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 학교 설문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 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5) 성별 사후총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총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총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을 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충에서 일차 추출 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충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충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충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 = 1, 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총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총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총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text{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총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총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n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quad \quad \quad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4. 지표의 구성 및 조사내용

이 연구에서 활용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²⁾은 2015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 진행 완료하였으며, 2016년 4차년도 연구에서 지표의 일부문항이 추가되거나 용어 사용에 있어 불명확 부분을 일부 수정·보안 하였다.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는 기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3회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는 크게 주관지표 9개영역과 객관지표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서정아, 김희주, 2016). 각 영역별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지표

- ① 주관적 웰빙영역: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 상태, 유데모니아 및 성격특성
- ② 관계영역: 전반적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모관계, 교우 관계, 교사 관계 및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 및 중앙정부), 가족 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및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③ 건강영역: 전반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 카페인 이용량, 아침 식사율, 및 질병유무
- ④ 교육영역: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 만족도

2) 2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CF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참조 지표를 제시하였고, 영역별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회의를 통해 최종 지표를 선정함(성윤숙, 홍성호, 2015).

- ⑤ 안전영역: 전반적 안전 만족도,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및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및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정도
- ⑥ 참여영역: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아동권리인지, 정계 소명권, 학칙개정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및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 ⑦ 활동영역: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공간 및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놀이친구 접근성
- ⑧ 경제영역: 가정경제 만족도
- ⑨ 환경영역: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및 주택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객관지표

- ① 건강영역: 청소년 비만율(BMI), 청소년 자살률, 신체 활동 실천율, 평균 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스마트폰 과의존율
- ② 교육영역: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 ③ 안전영역: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청소년 범죄 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 ④ 참여영역: 자원봉사 참여율
- ⑤ 활동영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 ⑥ 경제영역: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 ⑦ 환경영역: 통학 소요시간, 녹지 접근성

주관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객관지표는 행정통계, 통계청의 사회조사, 행정기관의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지표 영역과 항목, 출처는 다음<표 III-13>,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지표(설문지)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상태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	OECD(2013)
		1) 즐거운	문2-1~6)	OECD(2013) 서은국, 구재선 (2011)
		2) 편안한		
		3) 불안한		
		4) 슬픈		
		5) 우울한		
		6) 행복한		
	유데모니아 성격특성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 한다	문3-1)	OECD(2013)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문3-4)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문3-5)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돌아올 수 있다	문3-6)	
관계	전반적 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관계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교사 관계 만족도 이웃과의 만족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5	YHCl(2015) Q5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1)	YHCl(2014) Q9-1)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2)	YHCl(2015) Q6-2)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3)	YHCl(2014) Q9-2), 3),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6-4)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문6-5)	
	일반신뢰도	부모님(보호자)	문7-1)	YHCl(2014) Q15-1), 2), 3), 4)
		친구들	문7-2)	
		학교 선생님	문7-3)	
		이웃 사람들	문7-4)	
		처음 만난 사람들	문7-5)	YHCl(2016) Q7-5), 6)
		다른 나라 사람들	문7-6)	
		우리나라 전체	문7-7)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7-8)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문7-9)	YHCl(2016) Q7-9),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문7-10)	
가족 간의 대화시간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역사회 전문기관	문8-1)	YHCl(2014) Q16-1), 2), 3)
		지방정부	문8-2)	
		중앙정부	문8-3)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 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문10	YHCl(2015) Q9-11)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11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건강	전반적 건강 만족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2	YHCl(2015) Q12
	주관적 건강상태	나는 신체적으로(몸이) 건강하다	문13-1)	YHCl(2014) Q1-1), 2)
	스트레스 정도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3-2)	
	고 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문14	YHCl(2015) Q14), Q15)
	아침 식사율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문15	
	질병유무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문16,	YHCl(2015) Q16, Q16-1
		1) 선천적 질병(태아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2)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문16-1	
교육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7	YHCl(2015) Q17
	직업교육 · 체험 참여 정도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문 18-1)	YHCl(2016) Q18-1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 한다	문18-2)	YHCl(2015) Q18-2), 3)
	진로교육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 한다	문18-3)	
안전	전반적 안전 만족도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19	YHCl(2015) Q19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20-1)	YHCl(2014) Q10-1), 2), 3), 4)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 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20-2)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컴퓨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문20-3)	
	위기 상황 대처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문20-4)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나의 생활 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있다	문20-5)	YHCl(2015) Q20-5)

영역	세부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참여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우리 사회적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문21	YHCI(2015) Q21
	아동권리 인지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문22-1)	YHCI(2015) Q22-1), 2), 3), 4), 5)
	징계 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별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2)	
	학칙 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3)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문22-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 한다	문22-5)	
활동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3	YHCI(2015) Q23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4-1)	YHCI(2014) Q14-1), 2), 3), 4)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4-2)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문24-3)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문24-4)	
경제	가정경제 만족도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5	YHCI(2014) Q25
환경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6	YHCI(2015) Q26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7-1)	YHCI(2015) Q27-1), 2)
	주택 만족도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문27-2)	

* 출처: 위 표는 성윤숙, 흥성효(2015), pp. 110~113의 표를 재구성 함.

- YHCI 2013: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연구
- YHCI 2014: 김지경 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2년차 연구
- YHCI 2015: 성윤숙, 흥성효(2015),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3년차 연구
- YHCI 2016: 서정아, 김희주(2016):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4년차 연구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표 III-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객관지표 구성 및 출처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건강 상태	청소년 비만율	2007년 소이청소년 성장도표 연령 별 체질량지수 기준 95 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0kg인 사람의 분율	체중(kg)/[신장(m)]	%	중·고등 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76-179.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령인구) × 100,000	명(10만 명당)	10~24세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D11&conn_path=4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건강 결정 요인	신체 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	%	중·고등 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30-133.
	평균 수면 시간	조사사점 작전 지난 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	시간	중·고등 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26-229.
	청소년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	중·고등 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청소년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	중·고등 학생	1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2-95.
	스마트폰 과의존율	스마트폰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	%	본지표의 분석 대상 10~19세	1년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원자료.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교육	교육 기회	학업 중단율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내학, 자살·유원회 요청 또는 학적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시망, 자살 제외)	(학업중단 학생 수/학생 수) × 100	%	초 · 중 · 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re.kr/index 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학생 수/학급 수	명	초 · 중 · 고	1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re.kr/index 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학업 성취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	중3 고2	1년	교육부(2016),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자료
안전	사고	사교육비 지출액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만원	전 연령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13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심판 명당) (김지경 외, 2014)	(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 등록연령인구) × 100,000	명 (십만 명당)	10~24세	1년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령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운동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	.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령인구) × 100,000	명 (십만 명당)	10~24세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D11&conn_path=14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범죄	청소년 범죄 피해율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절도, 사기, 손괴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	%	.	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시례 중 이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김지경 외, 2014)	.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주민등록 연령인구) × 100,000	10만 명 당 건수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1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학교폭력 발생률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배로부터 욕설, 폭행, 왕따, 괴롭힘 등을 당한 학생의 비율	.	.	%	초 4 ~ 고 3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연령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참여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	%	13세 이상	2년	통계청. 2015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5SP151R&vw_cd=MT_ZTITLE&list_id=D21D 에서 2017년 5월 4일 인출.
활동 상태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지난 1년 동안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	%	13~24세	2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2015 사회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 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문화여가 지출비용	한 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	원	15세 이상	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240
	동아리 활동 참여율	동아리 활동 참여율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 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김경 외, 2014)	.	%,회	9~24세	3년	여성가족부(2015).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문화예술 시설 비율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	(문화예술시설수 /인구수) × 100,000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전 연령	1년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지표, p.344~345.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연방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 × 100,000	인구 10만 명 당 개소	9~24세	1년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429~430.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방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청소년지도사비율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명	.	.	1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7).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429~430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산식	단위	대상 연령	작성 주기	출처
경제	소득/ 소비	지역경제 수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시도))	지역 내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 수로 나눈 값	.	백만 원	전 연령	1년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3# 에서 2017년 09월 12일 인출.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1 + (1 / N) - [2/(m \cdot N^2)] [\sum (N - i + 1) y_i]$.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 근로자	분기/ 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복지	사회복지 지출 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 예산 규모) × 100	%	전연령	1년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에서 2017년 6월 29일 인출.
		아동 청소년 국민 기초생활 수혜비율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 · 청소년의 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 · 청소년의 수/10~24세 주민등록 연장인구) × 100,000	인구 10만 명 당 수혜자 수	10~24세	1년	보건복지부(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장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고용	고용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1 5세 이상 인구) × 100	%	15세 이상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3 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실업률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	%	15세 이상	1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시도 · 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7 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환경	주거 기반	통학 소요시간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	.	분	12세 이상	5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517# 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녹지 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 · 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도시 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 인구)	m ²	전연령	1년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녹색도시과/ e-나리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05 2016년 말 도시공원현황에서 2017년 9월 12일 인출.

* 위 표는 성윤숙, 홍성호(2015), pp. 477~483의 표를 일부 재구성하였고, 17년도 보고서에 맞추어 출처 등 업데이트 함.

5. 조사결과

1) 주관적 지표 조사 결과

2017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는 2015년도에 기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도에 문항 내용의 일부가 수정·보완되었으나 연도별 시계열 비교를 위해 설문지 내용의 큰 변화 없이 기존 설문 내용을 유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자료 분석 및 제시 방법에 있어 먼저 2017년도 조사결과에 대해 그림과 표로 제시하였고,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성별, 교급별 및 17개 각 시도별 변화 결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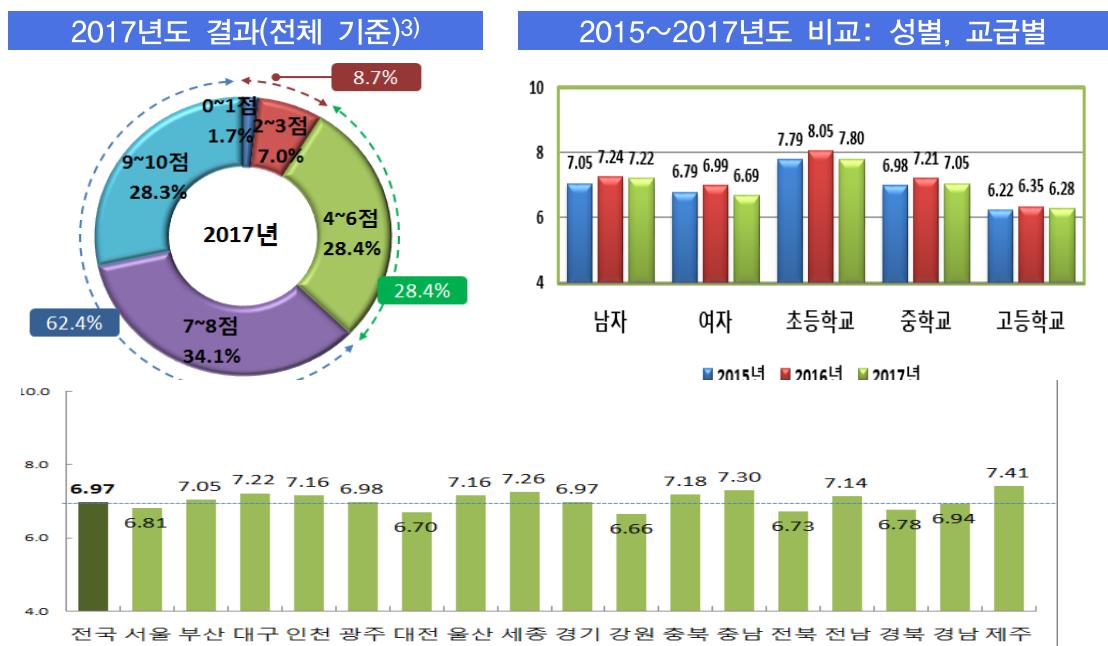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는 9,022명(남: 4,693명, 여: 4,329명)이었고, 초등학교 2,607명, 중학교 2,913명, 고등학교 3,503명이었다. 각 시도별 조사대상자 등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전체	9,022	100.0	전체	9,022	100.0	
성별	남자	4,693	서울	1,505	16.7	
	여자	4,329		573	6.4	
학교급	초등학교	2,607	대구	396	4.4	
	중학교	2,912		광주	317	3.5
	고등학교	3,503		인천	475	5.3
지역규모	대도시	3,743	대전	252	2.8	
	중소도시	3,899		울산	252	2.8
	읍면지역	1,380		세종	43	0.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032	지역	경기	2,353	26.1
	한부모 가정	705		강원	338	3.7
	조손가정	116		충북	263	2.9
	기타	151		충남	382	4.2
	무응답	18		전북	350	3.9
학업성적	높은 수준	2,893		전남	337	3.7
	중간	3,856		경북	469	5.2
	낮은 수준	2,260		경남	596	6.6
	무응답	13		제주	120	1.3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①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82.4%, 보통(4~6점) 28.4%, 부정 응답(0~3점)은 8.7%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4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7.30), 세종(7.26), 대구(7.22) 순이었으며, 강원(6.66)과 대전(6.70)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6.93)에 비해 16년(7.12)에는 증가했지만 17년(7.41)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표 III-1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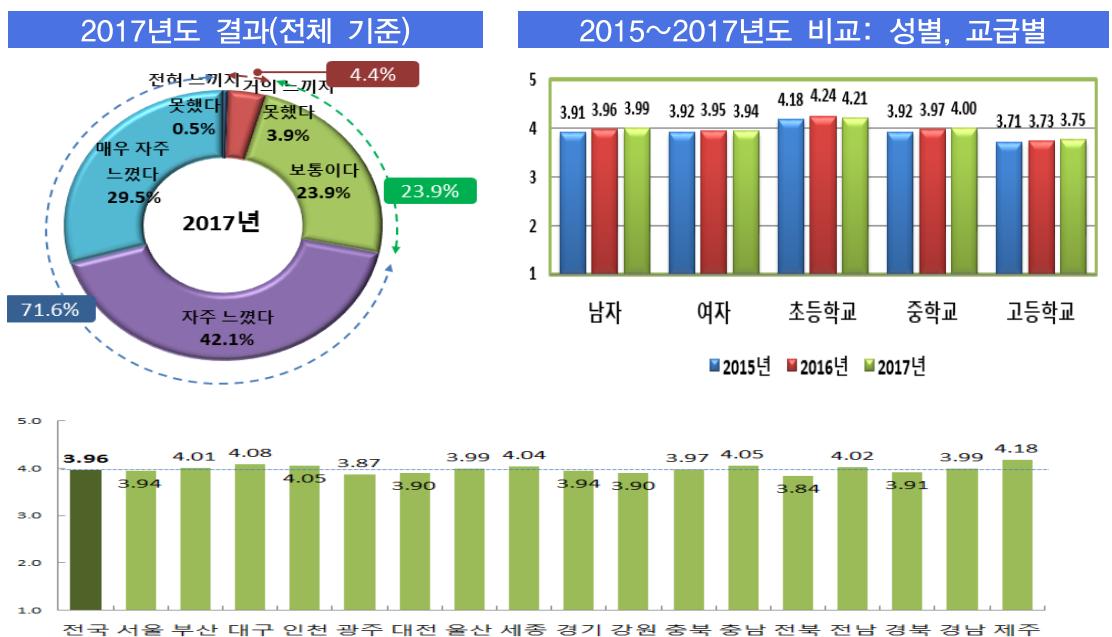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93	6.78	7.36	7.17	7.05	6.82	6.78	6.69	6.83	7.16	6.83	7.17	6.84	6.59	6.99	7.15	7.16	
16년	7.12	6.93	7.34	7.12	7.02	7.27	7.28	7.70	6.81	7.00	7.02	7.25	7.31	7.15	7.34	7.12	7.29	7.05
17년	7.41	7.05	7.22	7.16	6.98	6.70	7.16	7.26	6.97	6.66	7.18	7.30	6.73	7.14	6.78	6.94	7.41	

3) 모름/ 무응답은 응답비율이 낮아 원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음(이하 지표동일).

4) 15년도 조사에서는 세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음(이하 지표 동일).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즐거운

- 즐거운에 대한 긍정 응답은 71.6%, 보통 23.9%, 부정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16, 17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4.1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4.08), 충남과 인천(4.05) 순이었으며, 전북(3.84)과 광주(3.87)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즐거운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91)에 비해 16년(3.96)에는 증가했고 17년은 3.96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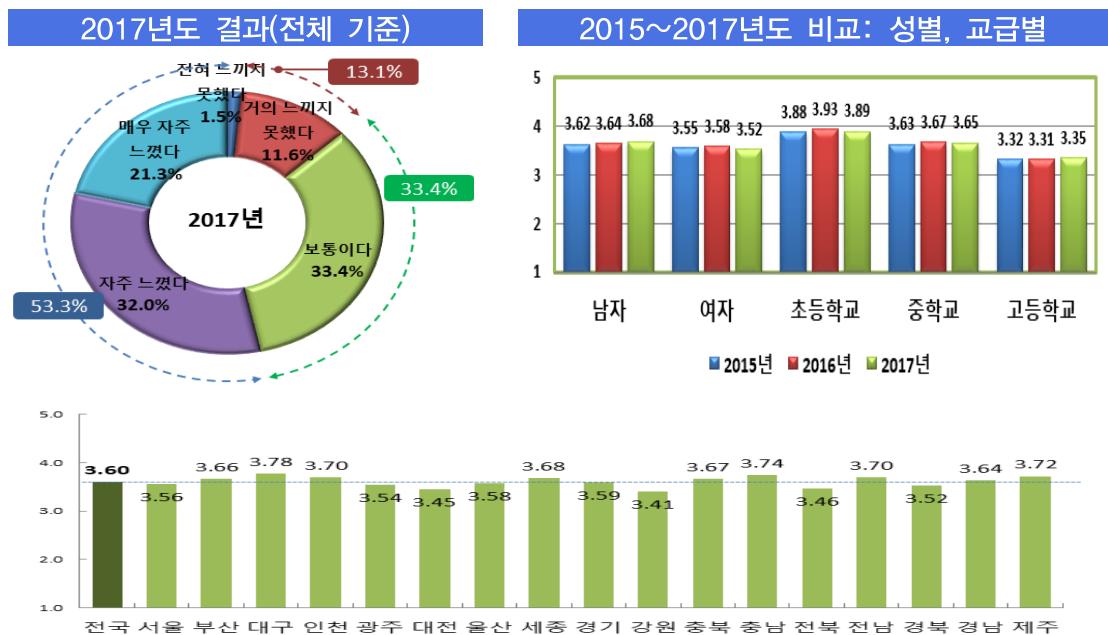
【그림 III-2】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표 III-1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즐거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1	3.89	4.10	3.92	3.97	3.82	3.94	3.83		3.89	3.95	3.85	3.93	3.83	3.82	3.87	3.98	4.03
16년	3.96	3.93	4.04	3.93	3.93	4.05	4.01	4.14	3.68	3.93	3.87	4.04	4.02	3.88	3.95	3.93	3.97	4.02
17년	3.96	3.94	4.01	4.08	4.05	3.87	3.90	3.99	4.04	3.94	3.90	3.97	4.05	3.84	4.02	3.91	3.99	4.18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편안한

- 편안한에 대한 긍정 응답은 53.3%, 보통 33.4%, 부정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7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3.74), 제주(3.72), 인천과 전남(3.70) 순이었으며, 강원(3.43)과 대전(3.45)은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편안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58)에 비해 16년(3.61)에는 증가했고 17년은 3.60으로 전년도에 비해 극소하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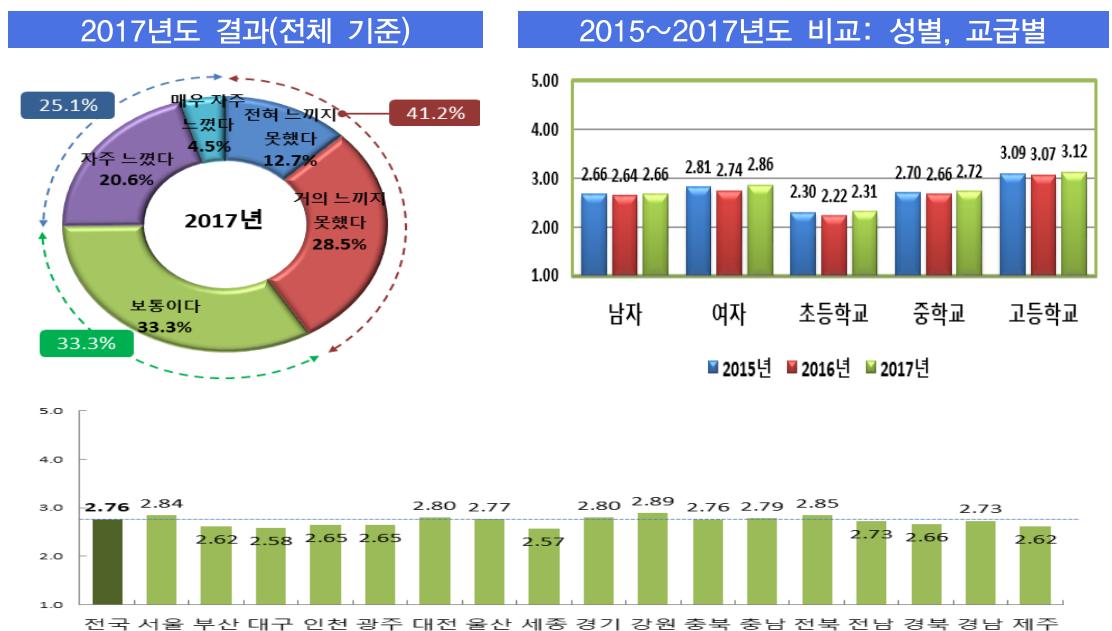
【그림 III-3】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표 III-1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편안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8	3.57	3.78	3.69	3.66	3.48	3.48	3.57	3.52	3.57	3.56	3.44	3.59	3.49	3.45	3.59	3.61	3.71
16년	3.61	3.54	3.70	3.65	3.57	3.69	3.62	3.82	3.38	3.56	3.52	3.60	3.72	3.57	3.66	3.61	3.69	3.72
17년	3.60	3.56	3.66	3.78	3.70	3.54	3.45	3.58	3.68	3.59	3.41	3.67	3.74	3.46	3.70	3.52	3.64	3.72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불안한

- 불안한에 대한 긍정 응답은 25.1%, 보통 33.3%, 부정 응답은 41.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불안한 정서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2.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2.85), 서울(2.84), 대전과 경기(2.80) 순이었으며, 세종(2.57)과 대구(2.58)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불안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73)에 비해 16년(2.69)에는 감소했지만 17년은 2.76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림 III-4】 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표 III-1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불안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73	2.90	2.61	2.56	2.56	2.68	2.72	2.79	2.75	2.75	2.69	2.96	2.61	2.63	2.78	2.55	2.59	2.76
16년	2.69	2.88	2.50	2.53	2.71	2.68	2.70	2.54	3.00	2.69	2.82	2.67	2.62	2.71	2.53	2.58	2.66	2.83
17년	2.76	2.84	2.62	2.58	2.65	2.65	2.80	2.77	2.57	2.80	2.89	2.76	2.79	2.85	2.73	2.66	2.73	2.62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슬픈

- 슬픈에 대한 긍정 응답은 16.5%, 보통 35.5%, 부정 응답은 47.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2.7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2.63), 서울(2.61), 대전, 전북, 경북(2.59) 순이었으며, 세종(2.36)과 제주(2.40)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슬픈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52)에 비해 16년도(2.50)에는 감소했지만 17년은 2.56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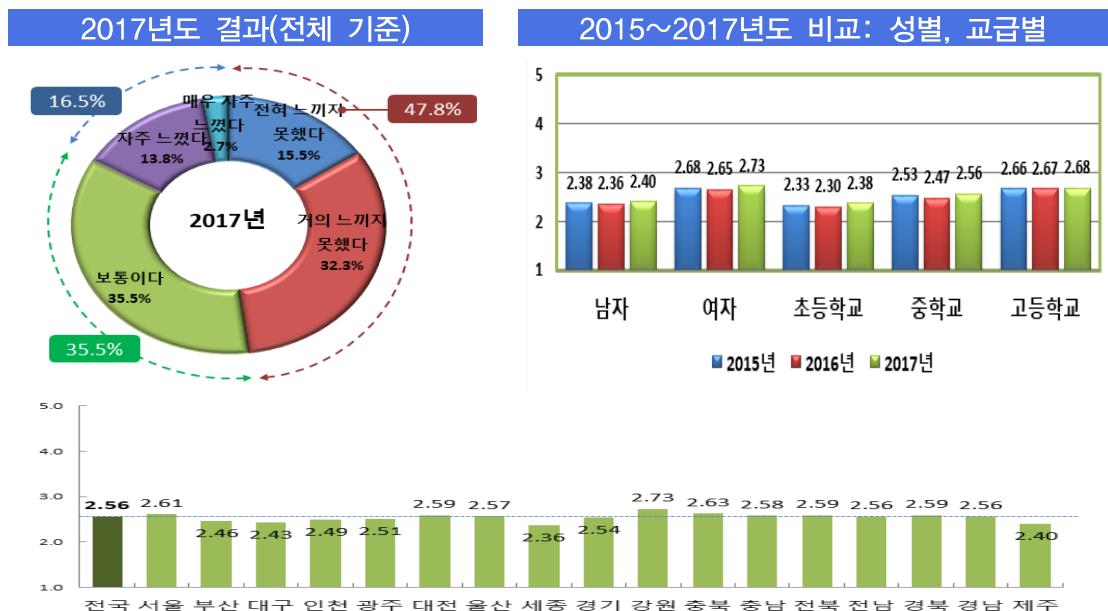


표 III-2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슬픈)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52	2.62	2.38	2.34	2.50	2.62	2.46	2.60	2.61	2.55	2.40	2.58	2.40	2.53	2.51	2.43	2.46	2.55
16년	2.50	2.58	2.38	2.32	2.50	2.49	2.46	2.27	2.56	2.56	2.56	2.45	2.44	2.53	2.44	2.38	2.50	2.63
17년	2.56	2.61	2.46	2.43	2.49	2.51	2.59	2.57	2.36	2.54	2.73	2.63	2.58	2.59	2.56	2.56	2.40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우울한

- 우울한에 대한 긍정 응답은 19.8%, 보통 29.0%, 부정 응답은 50.9%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2.5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2.55), 충남(2.54), 울산(2.52) 순이었으며, 제주(2.29)와 인천 및 세종(2.41)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우울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46)에 비해 16년도(2.43)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17년도에는 2.50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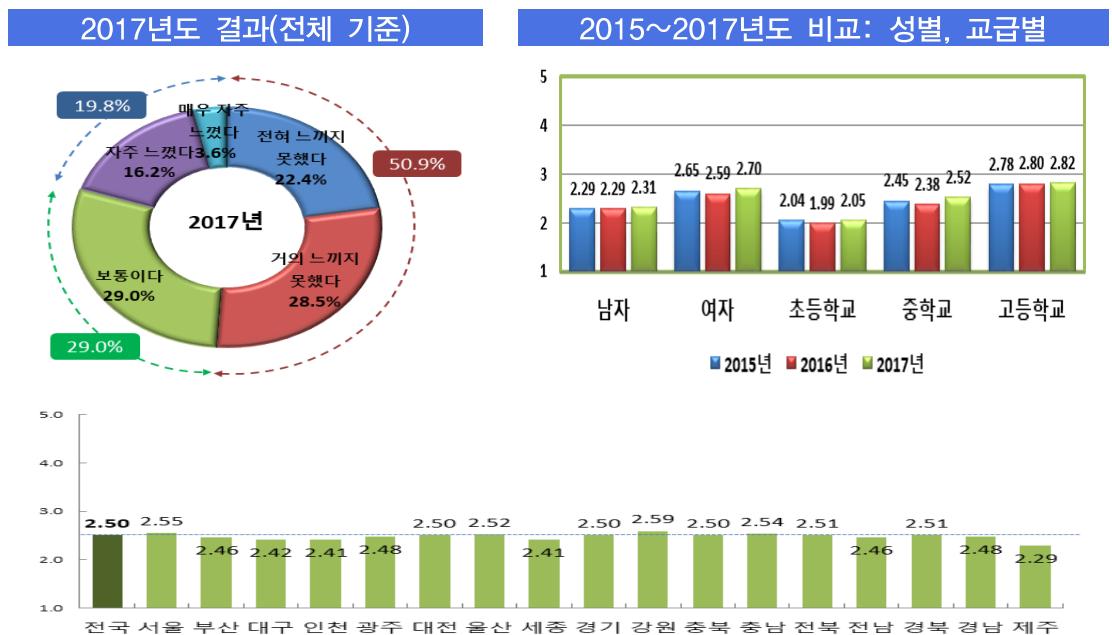


표 III-2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우울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46	2.58	2.33	2.28	2.47	2.43	2.56	2.55		2.50	2.38	2.61	2.31	2.47	2.46	2.33	2.32	2.44
16년	2.43	2.55	2.33	2.26	2.38	2.39	2.38	2.23	2.57	2.49	2.50	2.31	2.38	2.48	2.36	2.30	2.40	2.55
17년	2.50	2.55	2.46	2.42	2.41	2.48	2.50	2.52	2.41	2.50	2.59	2.50	2.54	2.51	2.46	2.51	2.48	2.29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② 정서상태: 행복한

- 행복한에 대한 긍정 응답은 67.1%, 보통 26.1%,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했지만 16, 17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4.06)이 가장 높았고, 대구와 제주(4.04), 충북(4.02) 순이었으며, 강원(3.78)과 광주와 전북(3.81)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행복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5, 3.90,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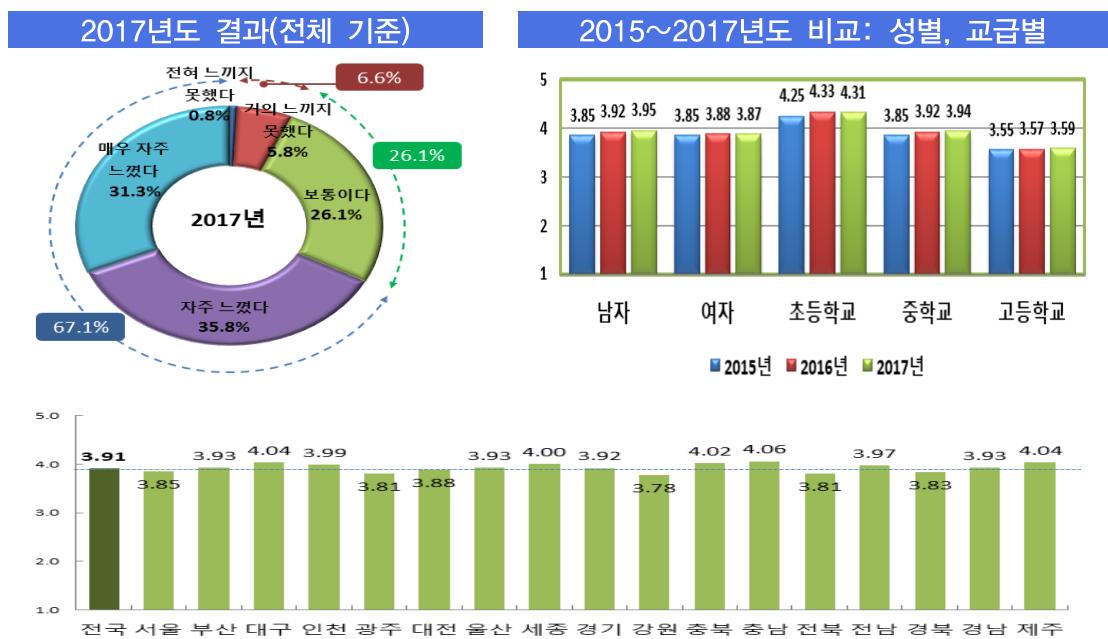


표 III-2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정서상태(행복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5	3.84	4.01	3.82	3.94	3.69	3.79	3.71		3.85	3.80	3.73	3.87	3.81	3.75	3.86	3.93	3.92
16년	3.90	3.86	3.97	3.83	3.89	4.04	3.95	4.09	3.53	3.89	3.83	3.97	3.99	3.82	3.93	3.90	3.91	3.90
17년	3.91	3.85	3.93	4.04	3.99	3.81	3.88	3.93	4.00	3.92	3.78	4.02	4.06	3.81	3.97	3.83	3.93	4.04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③ 유데모니아

- 유데모니아에 대한 응답은 가치감이 가장 높았고(3.91), 다음으로 자율성 3.83, 성취감 3.81, 긍정성 3.70, 낙관성 3.53, 회복탄력성은 3.47 순으로 나타났다.
- 6가지 속성을 통합한 유데모니아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8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83), 세종(3.80), 광주(3.79) 순이었으며, 강원(3.59)과 전북(3.60)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유데모니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68)에 비해 16년도(3.72)는 증가했지만 17년도(3.71)에는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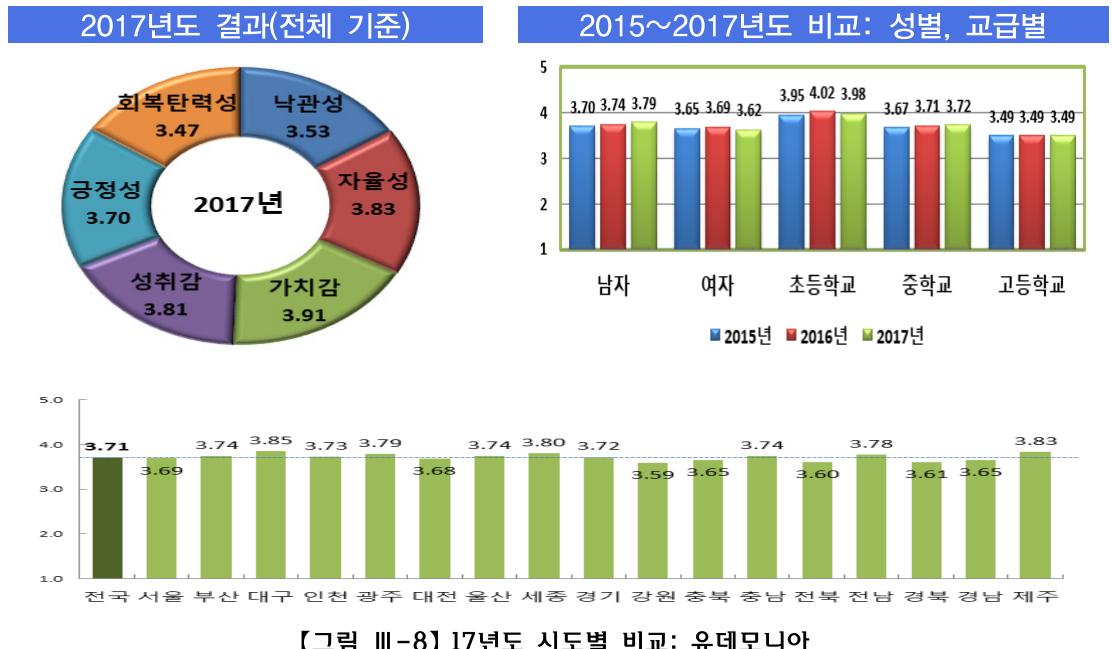


표 III-2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유데모니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3.78	3.72	3.63	3.63	3.58	3.64	3.77	3.60	3.69	3.60	3.54	3.61	3.70	3.76
15년	3.68	3.71	3.85	3.78	3.72	3.63	3.63	3.58												
16년	3.72	3.71	3.81	3.73	3.67	3.84	3.82	3.90	3.50	3.69	3.69	3.72	3.71	3.63	3.63	3.71	3.71	3.72		
17년	3.71	3.69	3.74	3.85	3.73	3.79	3.68	3.74	3.80	3.72	3.59	3.65	3.74	3.60	3.78	3.61	3.65	3.83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④ 성격특성: 외향적인

- 외향적인 성격에 대한 긍정 응답은 62.8%, 보통 25.4%, 부정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88), 부산(3.86), 울산(3.84) 순이었으며, 전북(3.55)과 강원(3.62)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외향적인 성격특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9, 3.73,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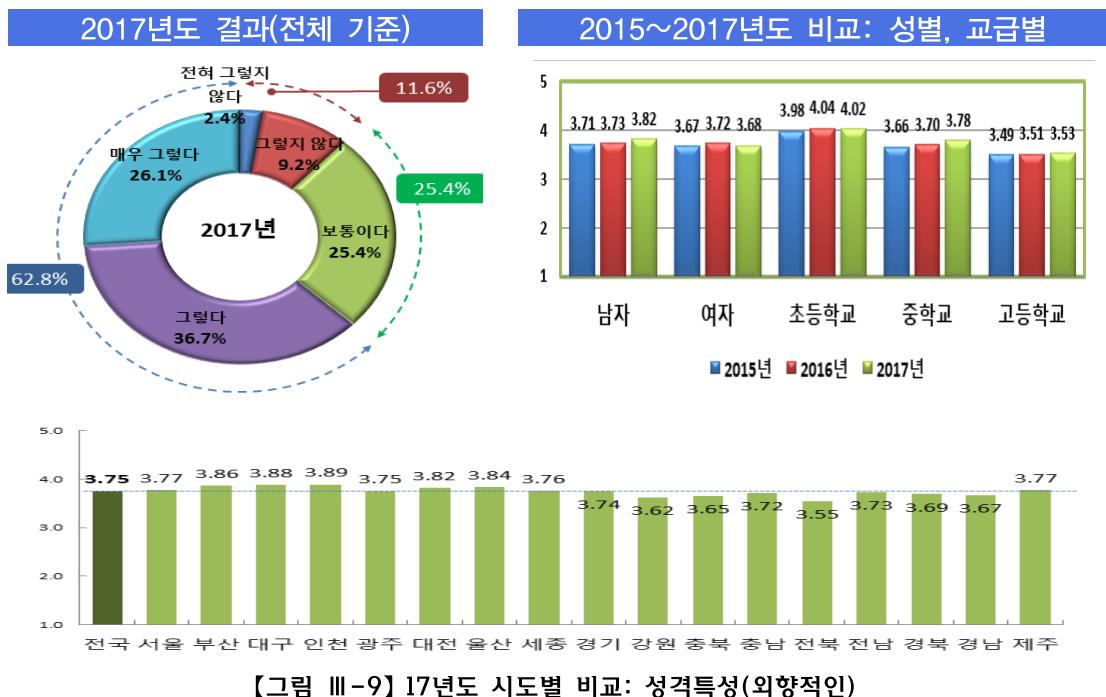


표 III-2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외향적인)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9	3.77	3.78	3.75	3.70	3.62	3.66	3.51	3.68	3.62	3.53	3.69	3.58	3.51	3.64	3.73	3.75	
16년	3.73	3.78	3.74	3.73	3.75	3.91	3.84	3.75	3.47	3.74	3.63	3.73	3.64	3.61	3.68	3.67	3.64	3.58
17년	3.75	3.77	3.86	3.88	3.89	3.75	3.82	3.84	3.76	3.74	3.62	3.65	3.72	3.55	3.73	3.69	3.67	3.77

(1) 주관적 웰빙 영역 - ④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 걱정이 많은 성격에 대한 긍정 응답은 36.9%, 보통 33.0%, 부정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남과 충남(3.1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과 경북(3.12), 서울, 충북, 전북(3.09) 순이었으며, 인천(2.91)과 세종(2.94)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성격특성 중 걱정이 많은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06)에 비해 16년도(3.07)는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17년도(3.04)에는 1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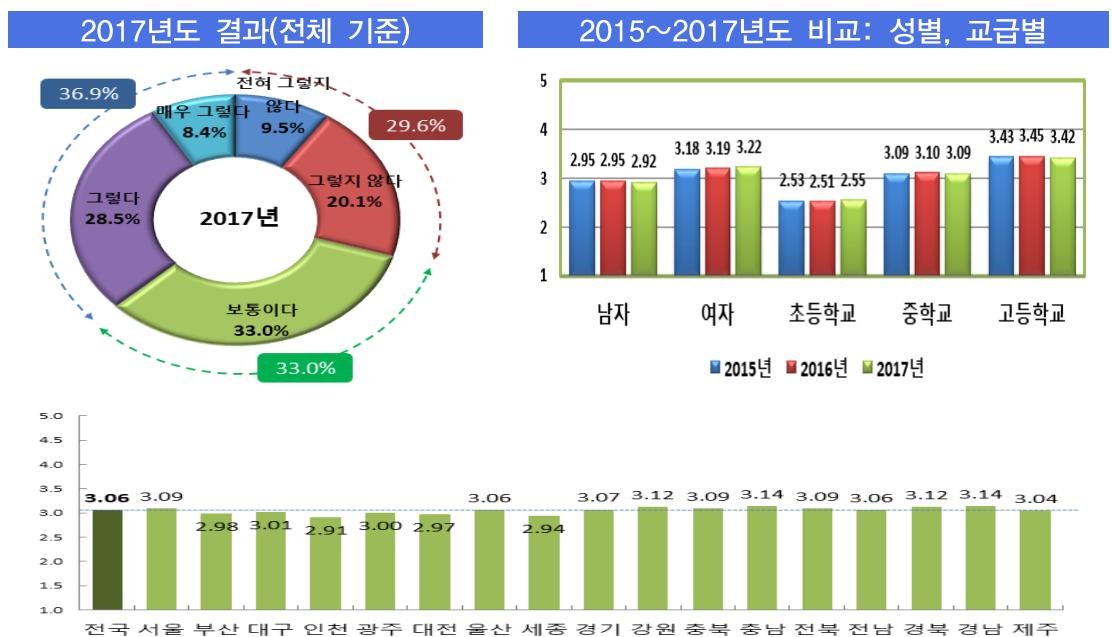


표 III-2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성격특성(걱정이 많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06	3.12	2.97	2.94	2.98	3.05	3.19	3.17		3.09	2.91	3.30	3.00	3.04	3.09	3.05	2.97	3.00
16년	3.07	3.13	2.97	3.01	2.99	3.00	3.03	2.88	3.40	3.07	3.15	3.05	3.04	3.16	3.08	2.99	3.07	3.22
17년	3.06	3.09	2.98	3.01	2.91	3.00	2.97	3.06	2.94	3.07	3.12	3.09	3.14	3.09	3.06	3.12	3.14	3.04

(2) 관계 영역 - ①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73.1%, 보통(4~6점) 22.9%, 부정 응답(0~3점)은 3.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3개년 동안 동일하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7.8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7.80), 제주(7.75), 전남(7.71) 순이었으며, 강원(7.22)과 전북(7.27)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7.45)에 비해 16년도(7.54)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17년도(7.53)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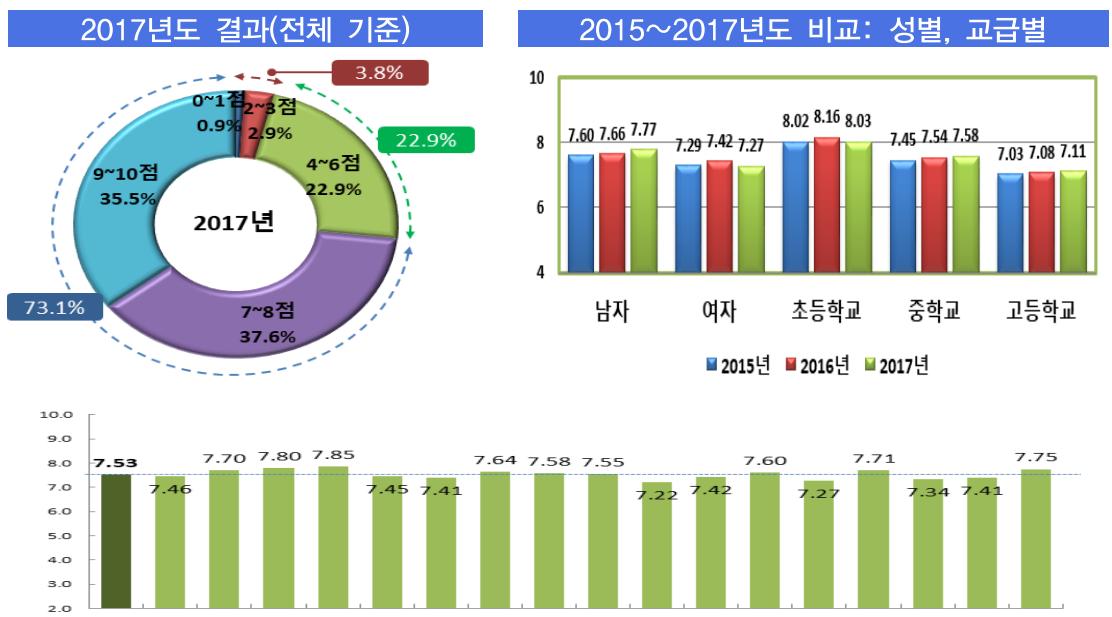


표 III-2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인간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45	7.54	7.81	7.62	7.46	7.23	7.41	7.22		7.40	7.48	7.17	7.66	7.06	7.14	7.39	7.55	7.48
16년	7.54	7.51	7.78	7.56	7.42	7.81	7.73	7.93	7.15	7.49	7.27	7.62	7.56	7.47	7.50	7.44	7.61	7.28
17년	7.53	7.46	7.70	7.80	7.85	7.45	7.41	7.64	7.58	7.55	7.22	7.42	7.60	7.27	7.71	7.34	7.41	7.75

(2) 관계 영역 - ② 가족관계 만족도

-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6.5%, 보통 18.9%, 부정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4.26), 인천과 세종(4.19) 순이었으며, 경북(3.99)과 강원(3.9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02)에 비해 16년도(4.10)에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4.10)에는 16년도와 동일한 평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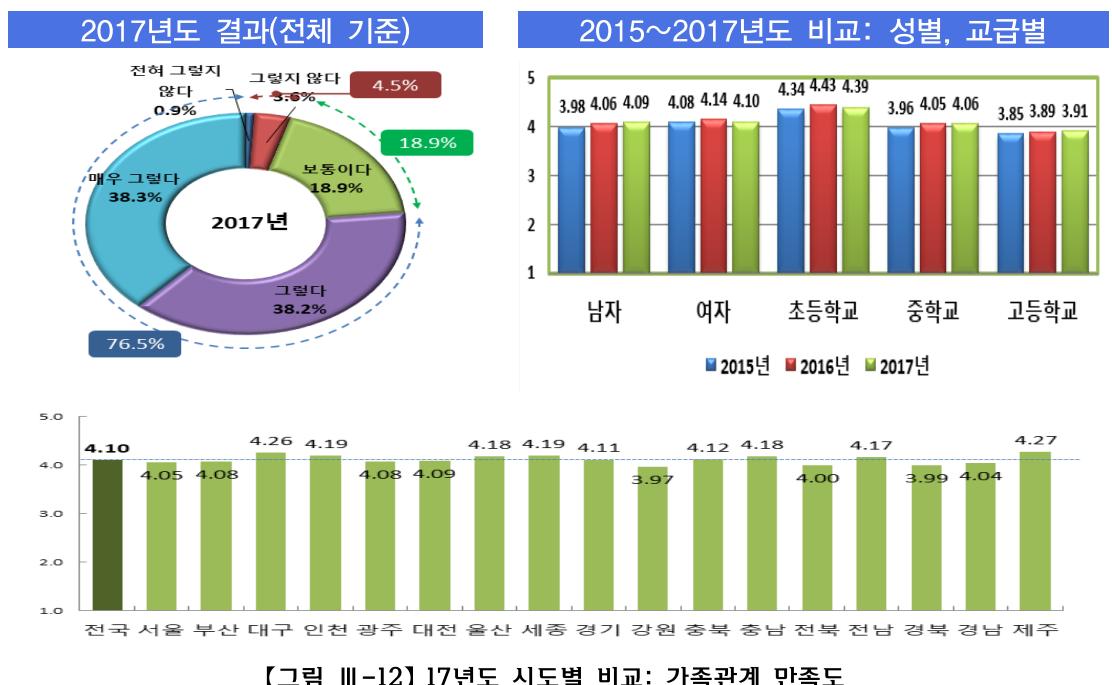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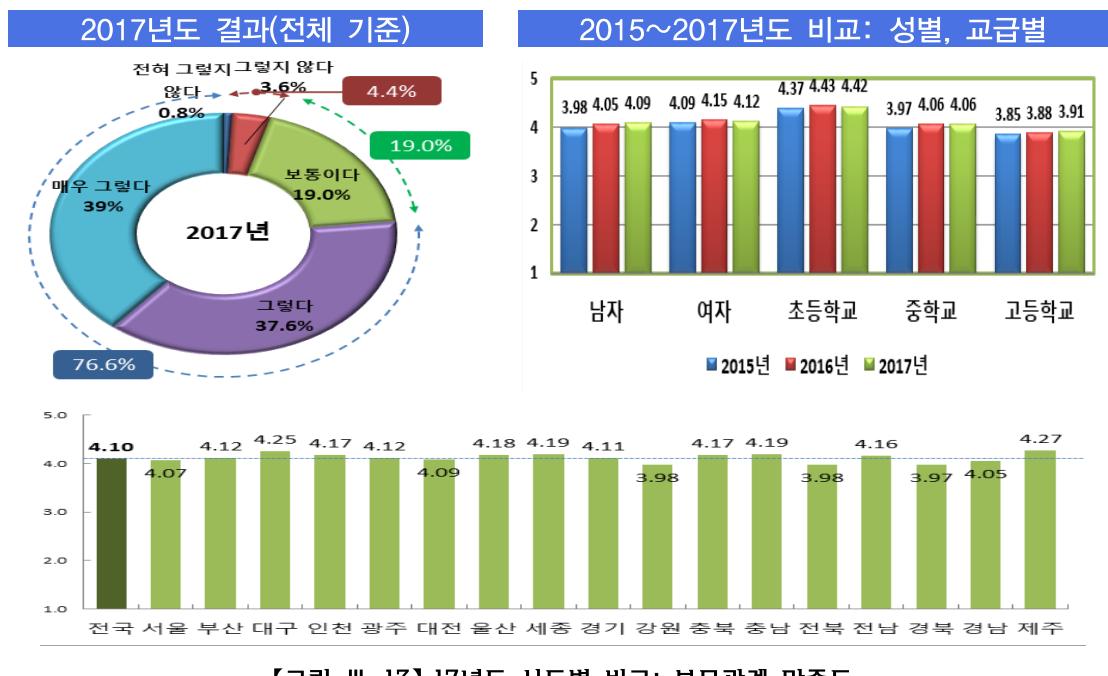


표 III-2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02	4.00	4.19	4.12	4.09	3.98	3.95	3.96		3.98	4.08	4.01	4.09	3.97	3.94	4.05	4.02	4.21
16년	4.10	4.06	4.21	4.02	4.03	4.19	4.18	4.24	3.88	4.05	4.07	4.15	4.22	4.06	4.18	4.04	4.15	4.11
17년	4.10	4.05	4.08	4.26	4.19	4.08	4.09	4.18	4.19	4.11	3.97	4.12	4.18	4.00	4.17	3.99	4.04	4.27

(2) 관계 영역 - ③ 부모관계 만족도

-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6.6%, 보통 19.0%, 부정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4.2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4.25), 세종과 충남(4.19) 순이었으며, 경북(3.97), 전북과 강원(3.9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04)에 비해 16년도(4.10)에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4.27)에는 16년도와 동일한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III-13】17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표 III-2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부모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04	4.02	4.21	4.16	4.12	3.97	3.98	3.99		3.99	4.07	4.04	4.09	3.97	3.88	4.05	4.01	4.17
16년	4.10	4.04	4.21	4.03	4.03	4.21	4.18	4.28	3.87	4.06	4.06	4.21	4.20	4.06	4.11	4.04	4.17	4.13
17년	4.10	4.07	4.12	4.25	4.17	4.12	4.09	4.18	4.19	4.11	3.98	4.17	4.19	3.98	4.16	3.97	4.05	4.27

(2) 관계 영역 - ④ 교우관계 만족도

- 교우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85.3%, 보통 12.6%, 부정 응답은 2.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과 17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16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3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4.36), 전남과 제주(4.33) 순이었으며, 강원(4.11)과 전북(4.1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우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23)에 비해 16년도(4.29)에는 증가한 반면, 17년도(4.27)에는 근소하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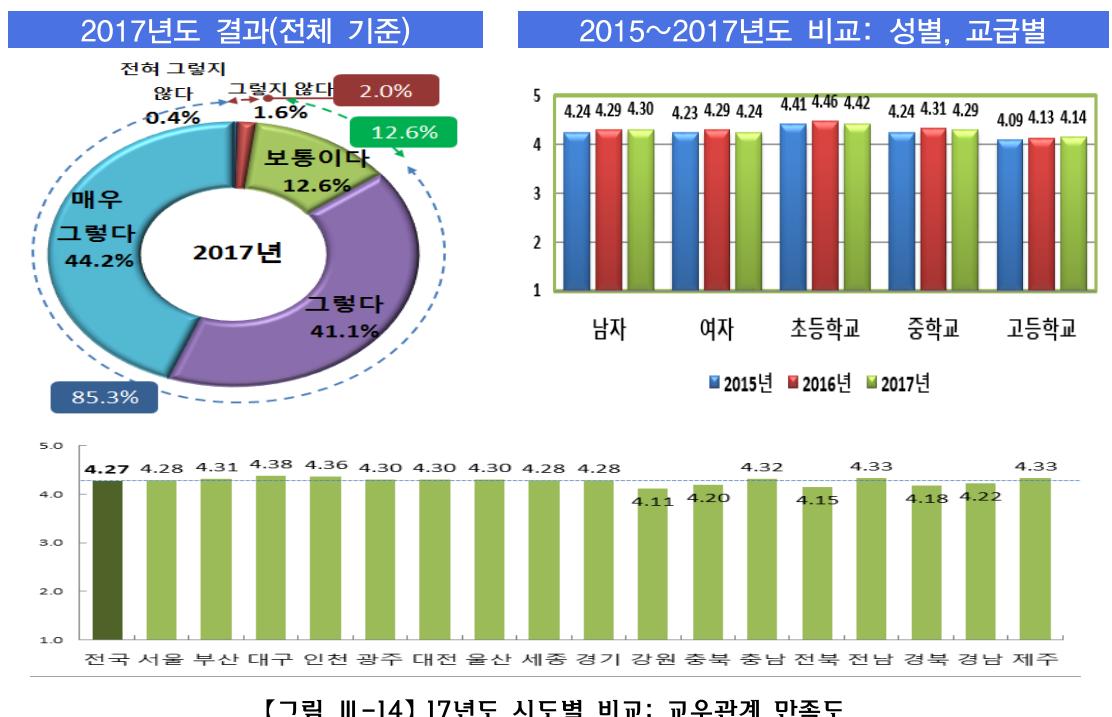


표 III-2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우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23	4.28	4.37	4.27	4.26	4.13	4.22	4.14		4.23	4.18	4.08	4.27	4.12	4.10	4.16	4.25	4.29
16년	4.29	4.26	4.35	4.31	4.27	4.38	4.35	4.39	4.23	4.29	4.26	4.33	4.31	4.20	4.21	4.26	4.29	4.22
17년	4.27	4.28	4.31	4.38	4.36	4.30	4.30	4.30	4.28	4.28	4.11	4.20	4.32	4.15	4.33	4.18	4.22	4.33

(2) 관계 영역 - ⑤ 교사관계 만족도

- 교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6.7%, 보통 33.8%, 부정 응답은 9.4%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8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3.83), 부산(3.79), 인천(3.75) 순이었으며, 전북(3.43)과 경북(3.54)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만족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7, 3.65,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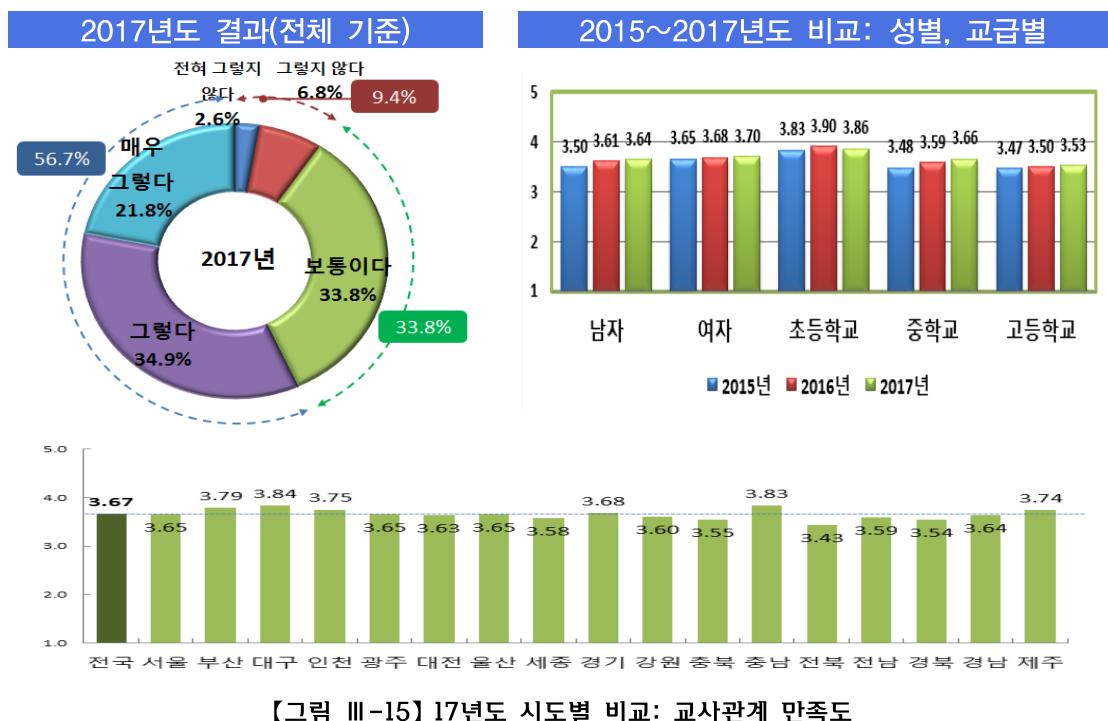


표 III-3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사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7	3.61	3.78	3.54	3.66	3.36	3.48	3.56	3.59	3.61	3.56	3.57	3.41	3.50	3.46	3.51	3.62	
16년	3.65	3.65	3.72	3.70	3.52	3.70	3.72	3.89	3.65	3.66	3.66	3.64	3.70	3.48	3.40	3.62	3.58	3.70
17년	3.67	3.65	3.79	3.84	3.75	3.65	3.63	3.65	3.58	3.68	3.60	3.55	3.83	3.43	3.59	3.54	3.64	3.74

(2) 관계 영역 - ⑥ 이웃관계 만족도

- 이웃관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9.0%, 보통 35.6%, 부정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9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89), 전남(3.87), 울산(3.83) 순이었으며, 전북(3.63)과 강원(3.6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웃관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7, 3.76,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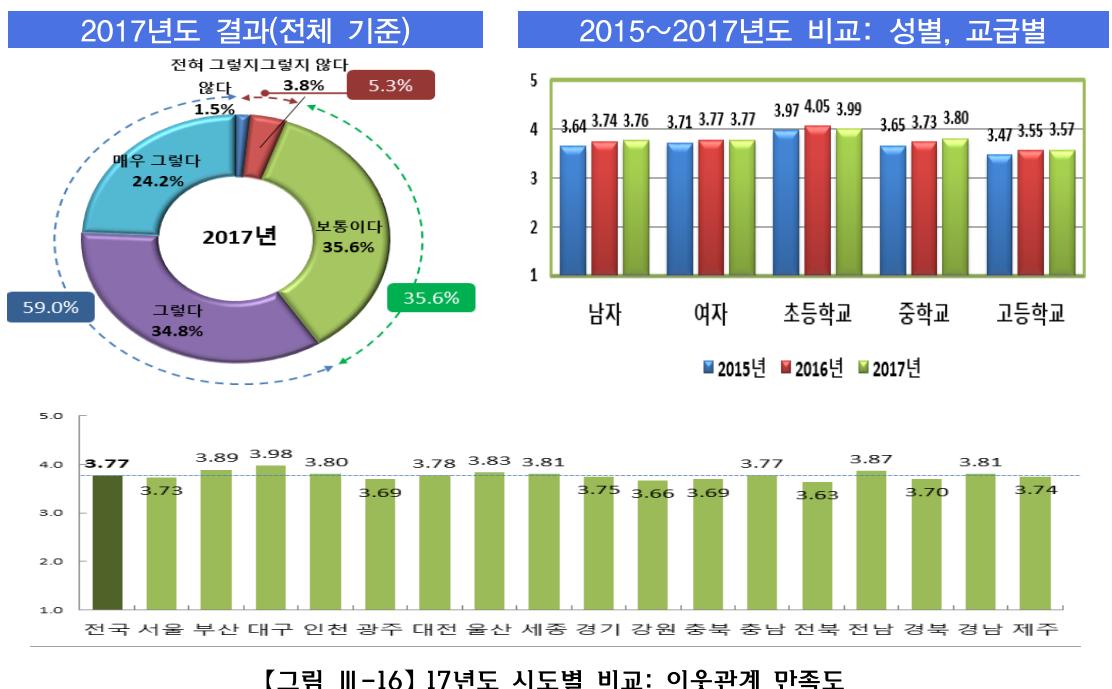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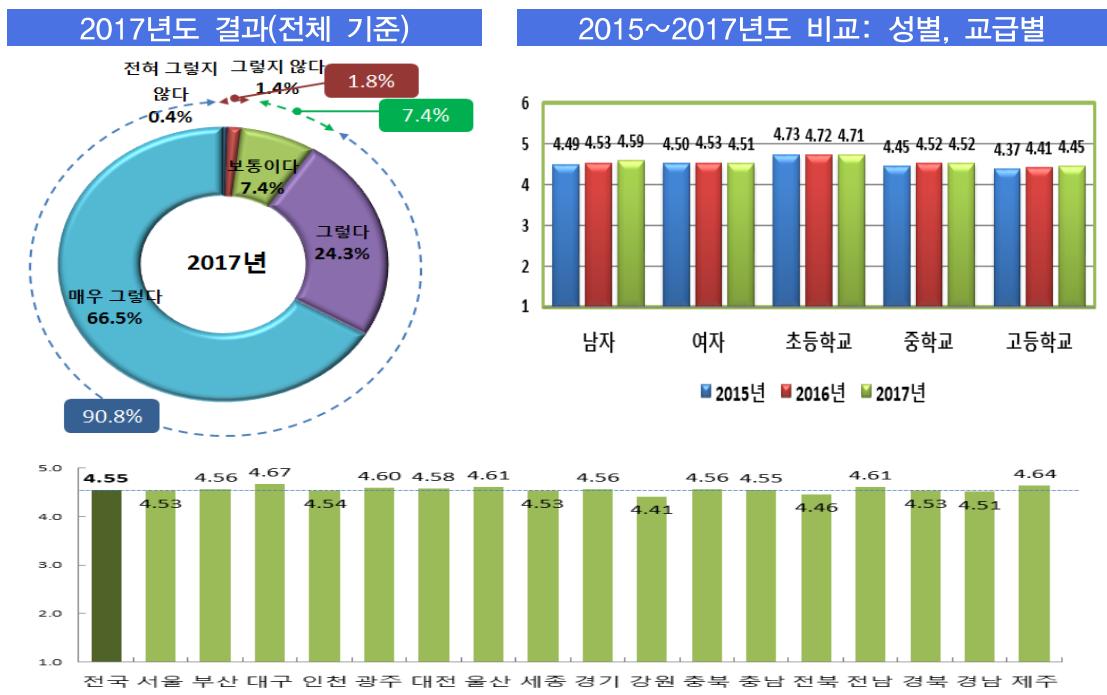


표 III-3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이웃관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7	3.70	3.87	3.72	3.75	3.63	3.60	3.66		3.62	3.68	3.58	3.67	3.55	3.57	3.78	3.72	3.68	
16년		3.76	3.75	3.87	3.80	3.82	3.87	3.81	3.90	3.36	3.71	3.68	3.78	3.83	3.60	3.77	3.67	3.78	3.85
17년	3.77	3.73	3.89	3.98	3.80	3.69	3.78	3.83	3.81	3.75	3.66	3.69	3.77	3.63	3.87	3.70	3.81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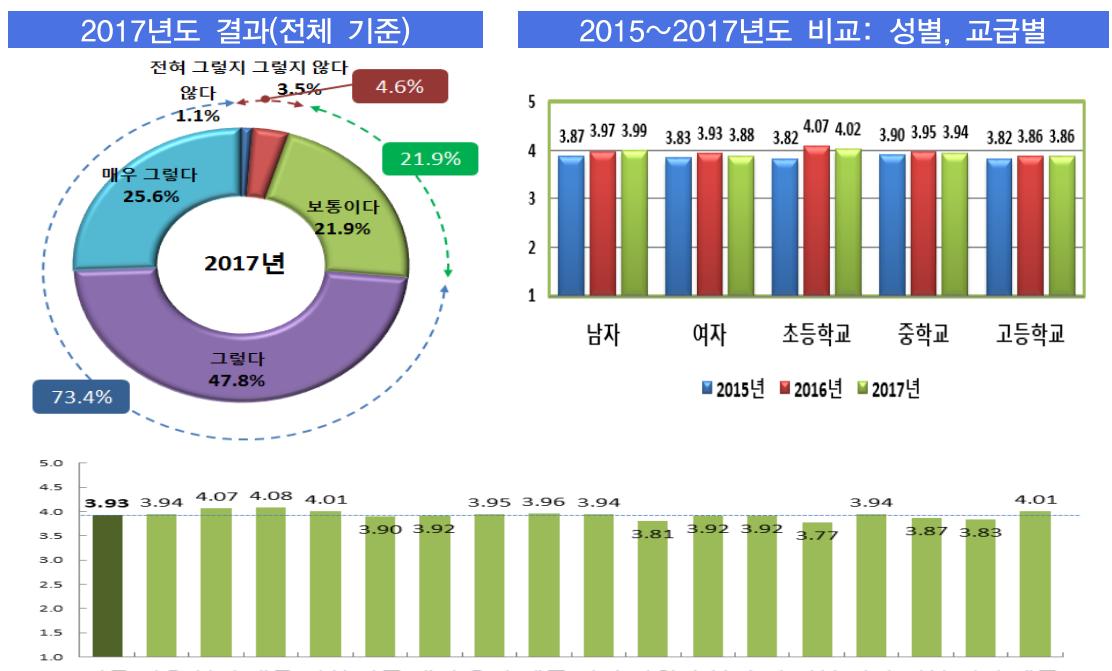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부모님(보호자)

- 부모님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90.8%, 보통 7.4%, 부정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6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64), 전남과 울산(4.61) 순이었으며, 강원(4.41)과 전북(4.4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0, 4.53, 4.55).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친구들

- 친구들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3.4%, 보통 21.9%, 부정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았고 16, 17년도에는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0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4.07), 인천과 제주(4.01) 순이었으며, 전북(3.77)과 강원(3.8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를 3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85)에 비해 16년도(3.95)에 증가했지만 17년도(3.93)에는 근소하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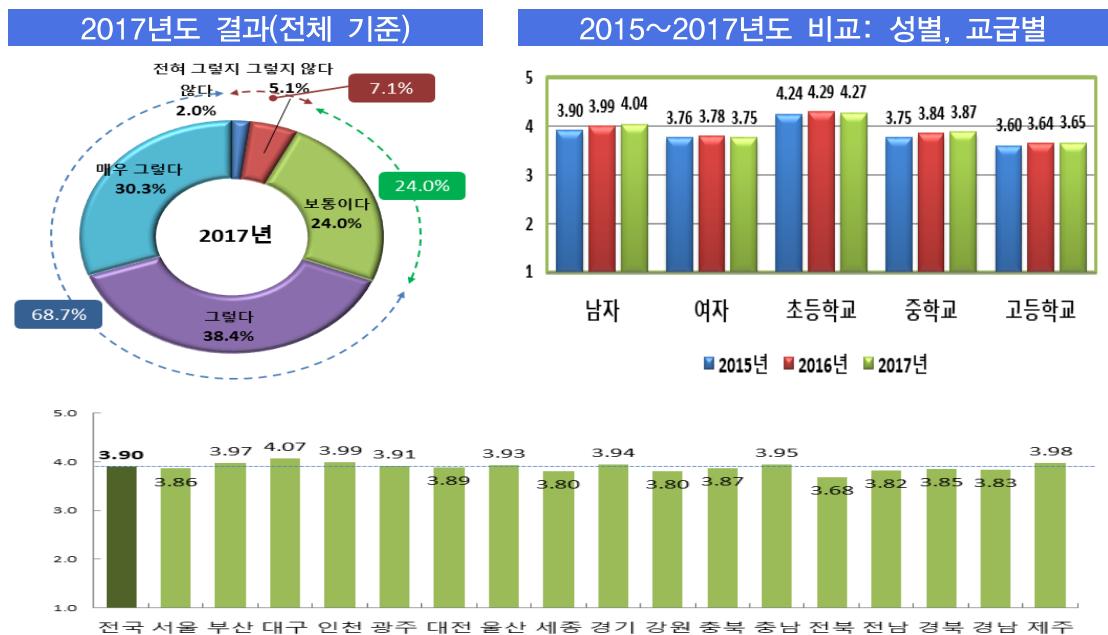
【그림 III-18】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표 III-3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친구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5	3.88	3.93	3.92	3.83	3.71	3.86	3.87		3.86	3.78	3.74	3.89	3.75	3.76	3.74	3.85	3.92
16년	3.95	3.93	4.04	3.96	3.95	4.06	4.03	4.08	3.85	3.95	3.91	4.01	3.94	3.81	3.96	3.93	3.88	3.87
17년	3.93	3.94	4.07	4.08	4.01	3.90	3.92	3.95	3.96	3.94	3.81	3.92	3.77	3.94	3.87	3.83	4.01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학교 선생님

- 학교 선생님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68.7%, 보통 24.0%, 부정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0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99), 제주(3.98), 부산(3.97) 순이었으며, 전북(3.68)과 세종과 강원(3.8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를 3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3, 3.89, 3.90).



【그림 III-19】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선생님)

표 III-3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학교선생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83	3.83	3.94	3.87	3.91	3.80	3.81	3.73		3.82	3.87	3.72	3.88	3.78	3.80	3.85	3.79	3.89
16년	3.89	3.86	3.99	3.99	3.88	3.93	4.01	4.05	3.61	3.90	3.87	3.97	4.00	3.73	3.62	3.94	3.82	3.80
17년	3.90	3.86	3.97	4.07	3.99	3.91	3.89	3.93	3.80	3.94	3.80	3.87	3.95	3.68	3.82	3.85	3.83	3.9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이웃 사람들

- 이웃 사람들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8.4%, 보통 46.2%, 부정 응답은 25.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2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18), 전남(3.17), 울산(3.13) 순이었으며, 강원(2.95)과 광주(2.96)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웃 사람들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2.95)에 비해 16년도(3.06)에는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3.05)에는 신뢰도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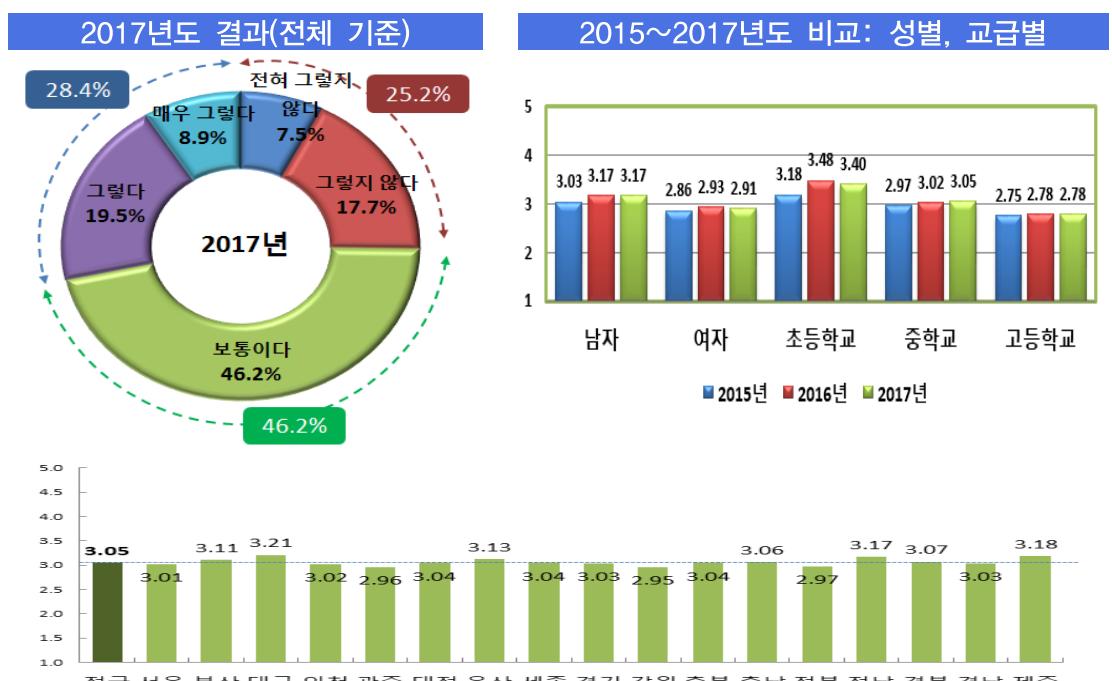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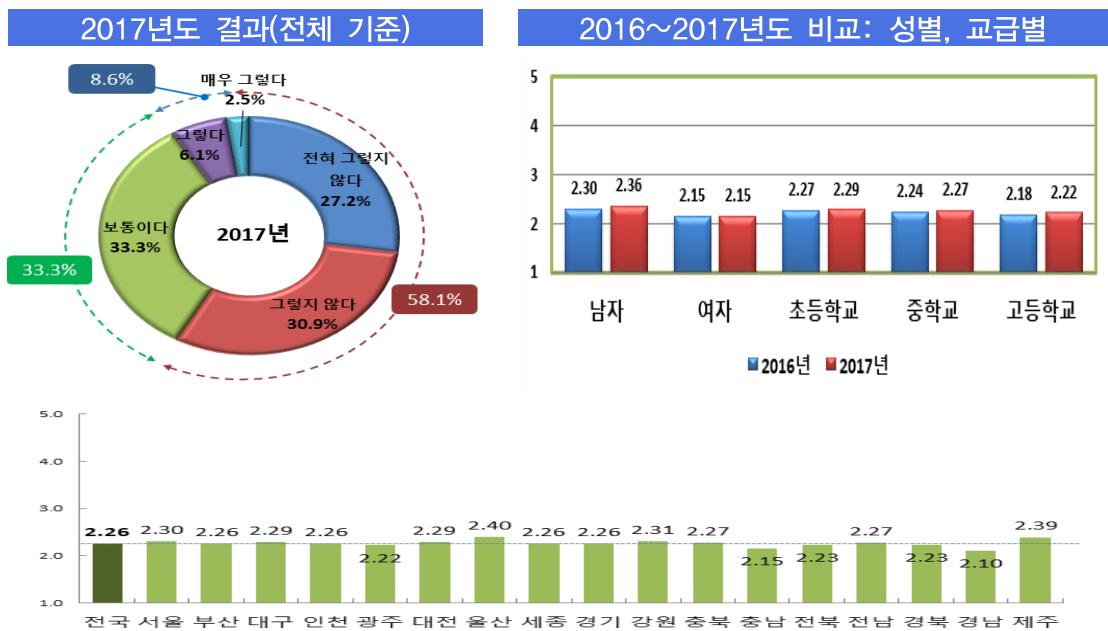


표 III-3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이웃 사람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95	2.93	3.07	3.05	2.96	2.93	2.95	2.95	2.88	3.02	2.92	2.95	2.91	2.87	3.03	3.01	3.07	
16년	3.06	3.04	3.15	3.04	3.12	3.12	3.11	3.25	2.92	3.00	3.03	3.10	3.11	2.92	3.11	3.10	3.07	3.04
17년	3.05	3.01	3.11	3.21	3.02	2.96	3.04	3.13	3.04	3.03	2.95	3.04	3.06	2.97	3.17	3.07	3.03	3.1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처음 만난 사람들⁵⁾

- 처음 만난 사람들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8.6%, 보통 33.3%, 부정 응답은 58.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2.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2.39), 강원(2.31), 서울(2.30) 순이었으며, 경남(2.10)과 충남(2.1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처음 만난 사람들 신뢰에 대한 2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도(2.23)에 비해 17년도(2.26)에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다른 나라 사람들⁶⁾

-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14.3%, 보통 42.5%, 부정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2.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2.66), 제주(2.65), 인천과 대전(2.63) 순이었으며, 경남(2.39)과 전북(2.4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2개년 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도(2.59)에 비해 17년도(2.57)에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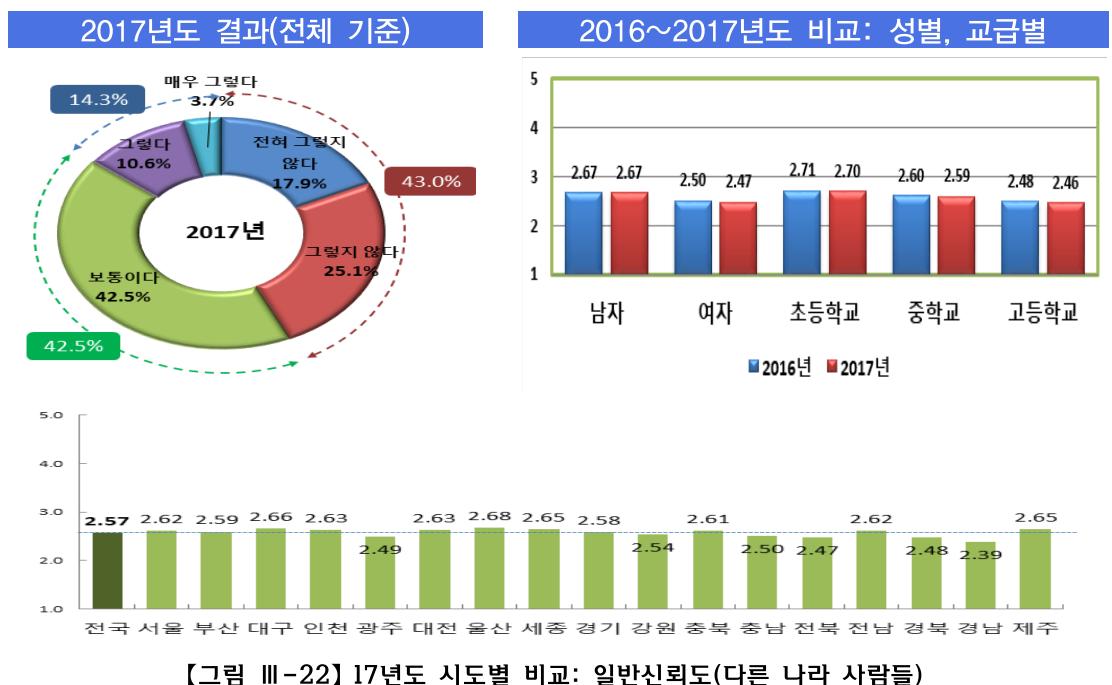


표 III-37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다른 나라 사람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59	2.68	2.64	2.51	2.56	2.61	2.62	2.82	2.55	2.59	2.49	2.60	2.52	2.45	2.52	2.51	2.52	2.53
17년	2.57	2.62	2.59	2.66	2.63	2.49	2.63	2.68	2.65	2.58	2.54	2.61	2.50	2.47	2.62	2.48	2.39	2.65

6)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우리나라 전체

- 우리나라 전체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13.8%, 보통 42.5%, 부정 응답은 43.7%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16, 17년도에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2.7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2.69), 제주(2.68), 충북(2.67) 순이었으며, 경남(2.44)과 경북(2.4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3년간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6, 2.57,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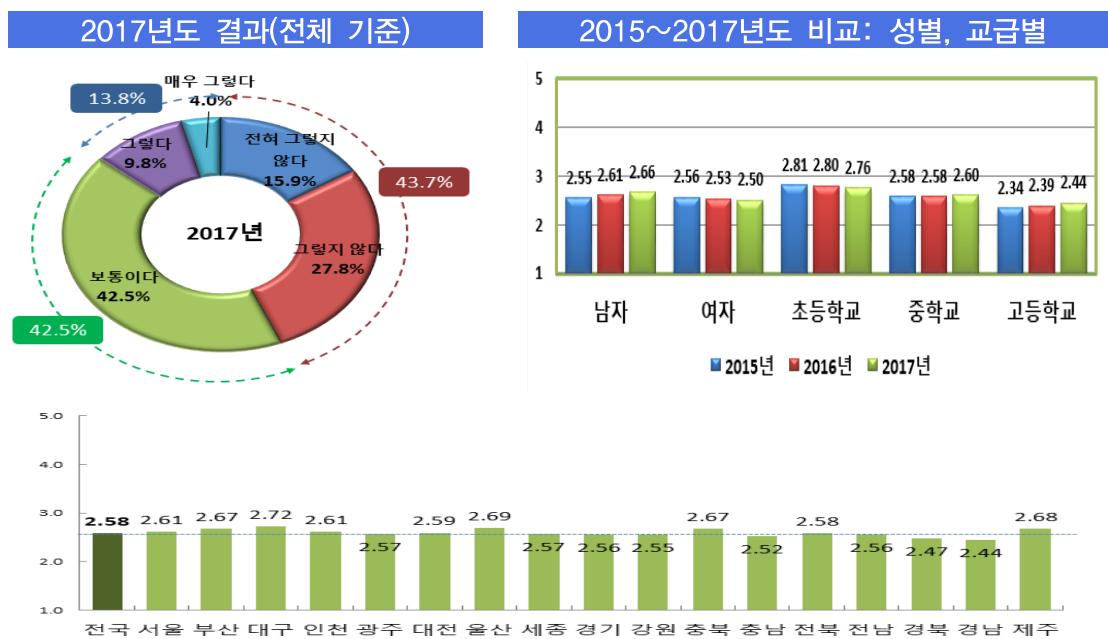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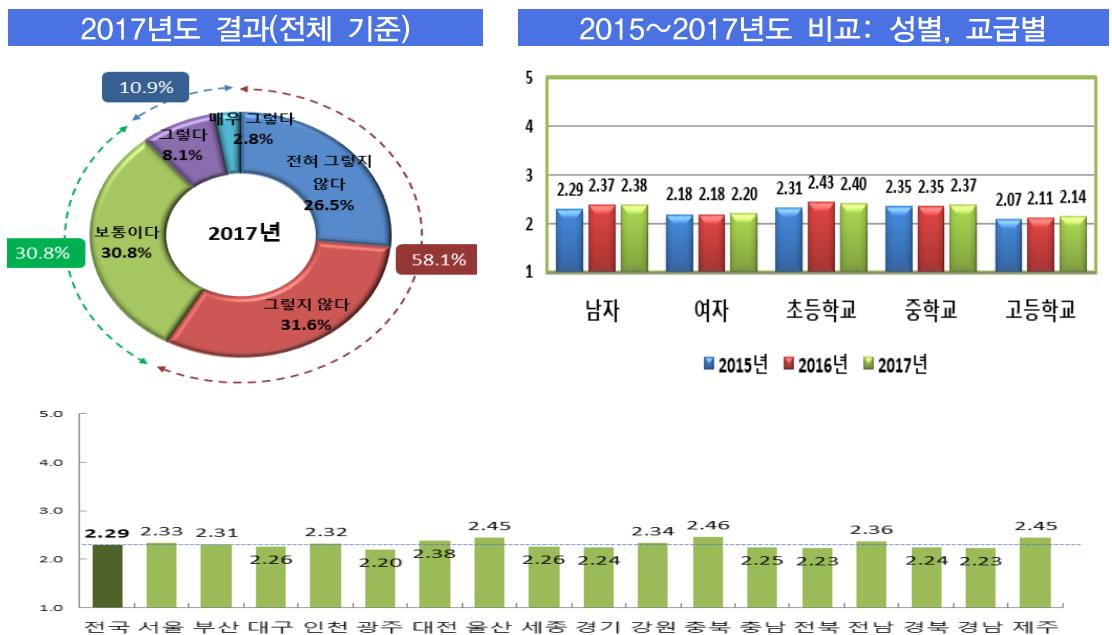


표 III-3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56	2.57	2.71	2.68	2.59	2.49	2.62	2.35		2.49	2.53	2.50	2.57	2.52	2.39	2.60	2.65	2.67
16년	2.57	2.58	2.71	2.49	2.61	2.62	2.64	2.70	2.35	2.54	2.50	2.57	2.61	2.47	2.56	2.63	2.60	2.51
17년	2.58	2.61	2.67	2.72	2.61	2.57	2.59	2.69	2.57	2.56	2.55	2.67	2.52	2.58	2.56	2.47	2.44	2.6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사이버 공간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10.9%, 보통 30.8%, 부정 응답은 58.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북(2.4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와 울산(2.45), 대전(2.38), 전남(2.36) 순이었으며, 광주(2.20)와 전북 및 경남(2.2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사이버 공간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4, 2.28,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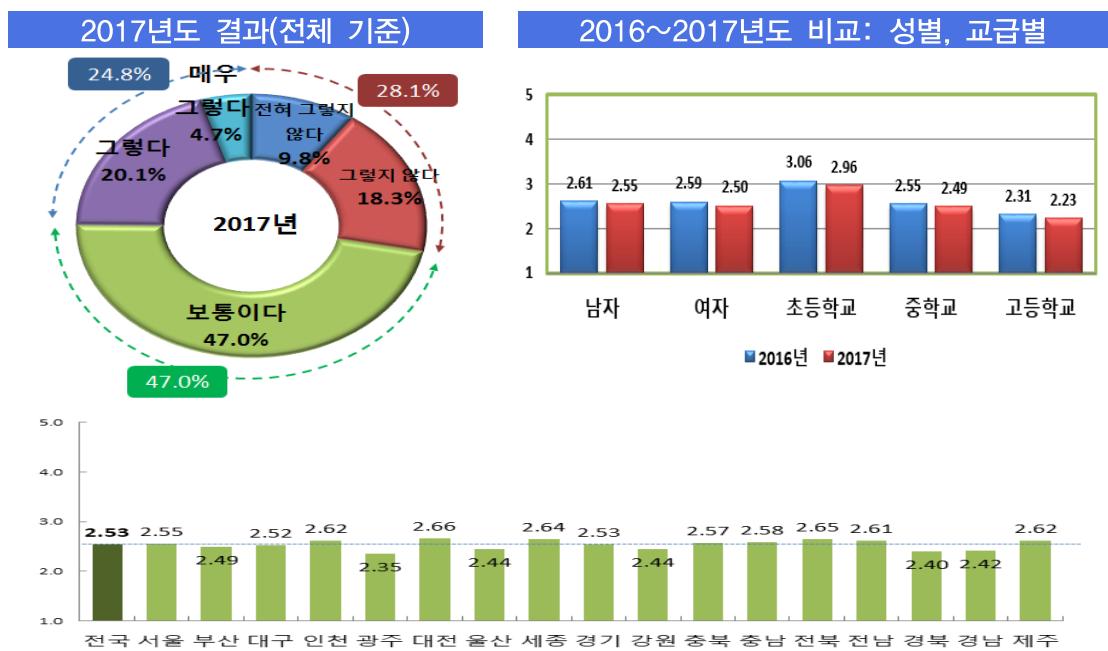
【그림 III-24】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표 III-3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24	2.26	2.30	2.24	2.20	2.28	2.29	2.15	2.18	2.18	2.30	2.27	2.19	2.18	2.24	2.35	2.29	
16년	2.28	2.29	2.34	2.14	2.26	2.26	2.34	2.51	2.30	2.26	2.21	2.24	2.28	2.32	2.37	2.26	2.32	2.28
17년	2.29	2.33	2.31	2.26	2.32	2.20	2.38	2.45	2.26	2.24	2.34	2.46	2.25	2.23	2.36	2.24	2.23	2.45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⁷⁾

- 종교단체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4%, 보통 47.0%, 부정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2.6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2.65), 세종(2.64), 제주(2.62) 순이었으며, 광주(2.35)와 경북(2.4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뢰에 대한 2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2.60)에 비해 17년도(2.53)에 신뢰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60	2.66	2.51	2.34	2.61	2.69	2.54	2.72	2.79	2.63	2.63	2.47	2.67	2.69	2.69	2.47	2.56	2.55
17년	2.53	2.55	2.49	2.52	2.62	2.35	2.66	2.44	2.64	2.53	2.44	2.57	2.58	2.65	2.61	2.40	2.42	2.62

7)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조직신뢰도: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⁸⁾

- 대중매체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4.8%, 보통 30.0%, 부정 응답은 28.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2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6년도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7년도에는 중학교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0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00), 울산(2.99), 서울과 충북(2.95) 순이었으며, 전북(2.84)과 세종 및 강원(2.8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신문·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신뢰에 대한 2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6년(2.86)에 비해 17년도(2.92)에 신뢰도가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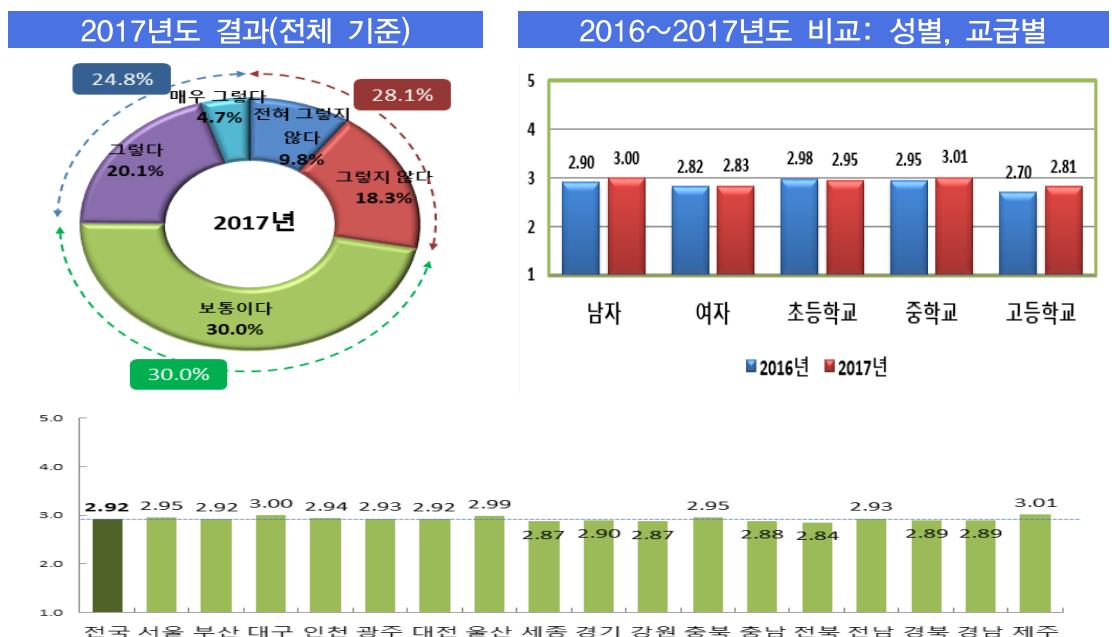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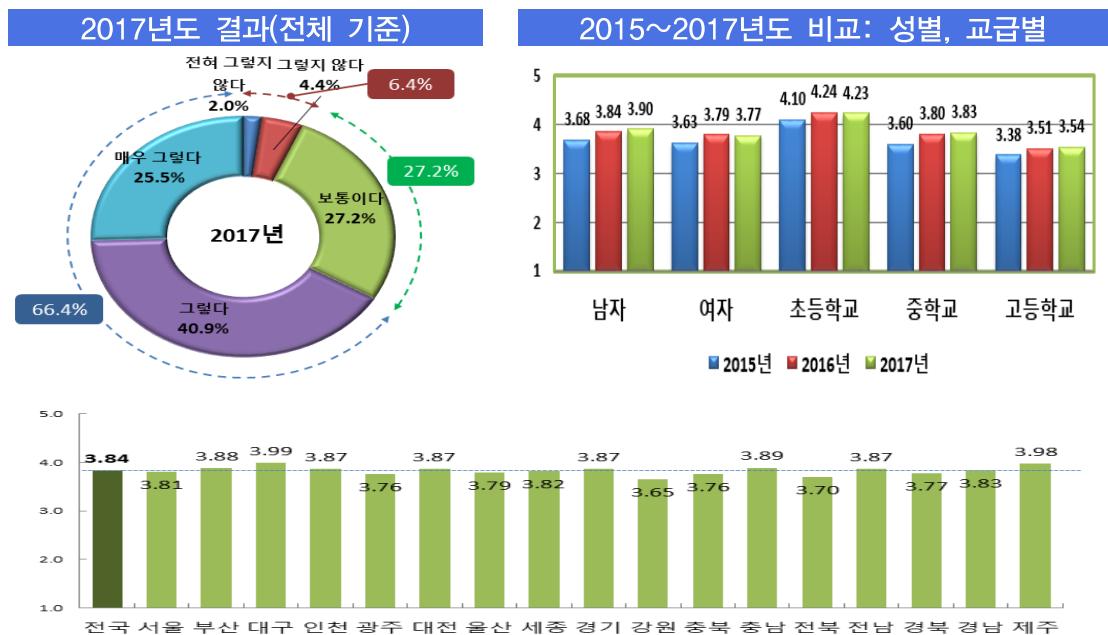
표 III-41 2016~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2.86	2.88	2.92	2.83	2.79	2.89	2.84	3.03	2.42	2.86	2.84	2.79	2.92	2.80	2.86	2.90	2.82	2.90
17년	2.92	2.95	2.92	3.00	2.94	2.93	2.92	2.99	2.87	2.90	2.87	2.95	2.88	2.84	2.93	2.89	2.89	3.01

8) 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15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지역사회 전문기관

-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66.4%, 보통 27.2%, 부정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9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98), 충남(3.89), 부산(3.88) 순이었으며, 강원(3.65)과 전북(3.7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6, 3.81, 3.84).



【그림 III-27】 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표 III-4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역사회 전문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6	3.63	3.89	3.77	3.80	3.68	3.67	3.52		3.58	3.64	3.54	3.66	3.56	3.57	3.77	3.70	3.76
16년	3.81	3.78	3.84	3.84	3.82	3.97	3.91	4.00	3.55	3.76	3.71	3.81	3.94	3.72	3.85	3.86	3.84	3.84
17년	3.84	3.81	3.88	3.99	3.87	3.76	3.87	3.79	3.82	3.87	3.65	3.76	3.89	3.70	3.87	3.77	3.83	3.98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지방정부

- 지방정부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9%, 보통 40.0%, 부정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6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66), 전남(3.59), 부산(3.58) 순이었으며, 강원(3.33)과 경북(3.4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0, 3.45,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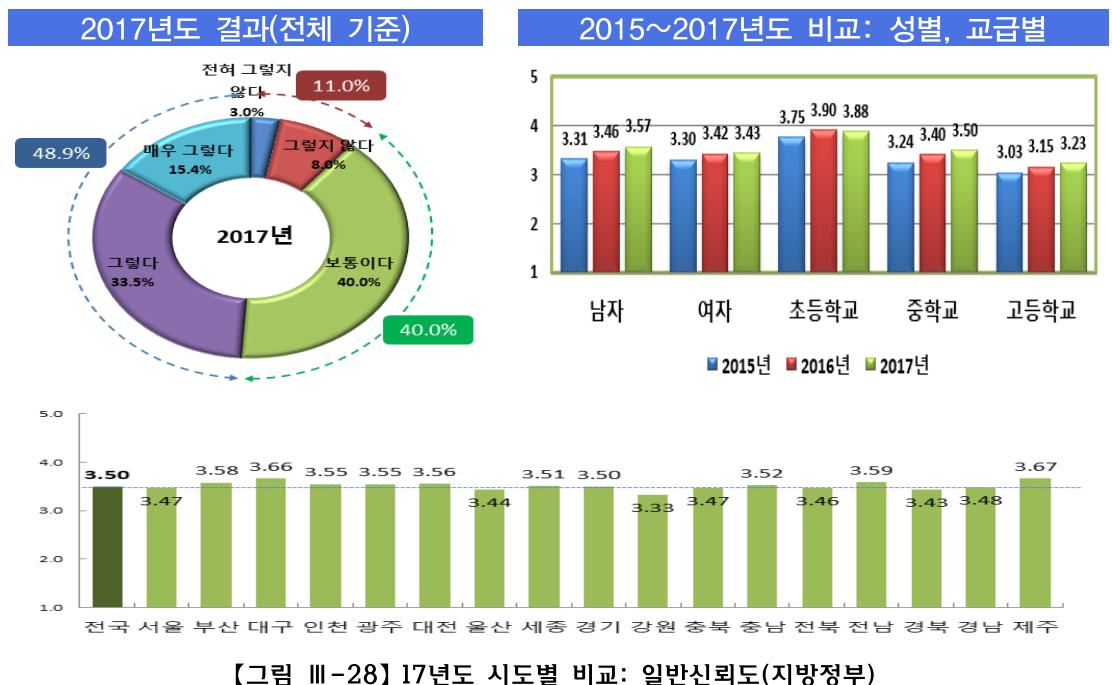


표 III-4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지방정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0	3.29	3.54	3.42	3.39	3.35	3.34	3.21	3.34	3.22	3.42	3.25	3.32	3.16	3.19	3.38	3.31	3.40
16년	3.45	3.38	3.53	3.48	3.51	3.60	3.53	3.62	3.15	3.38	3.36	3.44	3.56	3.37	3.51	3.52	3.47	3.51
17년	3.50	3.47	3.58	3.66	3.55	3.55	3.56	3.44	3.51	3.50	3.33	3.47	3.52	3.46	3.59	3.43	3.48	3.67

(2) 관계 영역 - ⑦ 일반신뢰도: 중앙정부

- 중앙정부 신뢰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0.8%, 보통 37.0%, 부정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4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43), 대전(3.40), 인천(3.36) 순이었으며, 경북(3.13)과 울산(3.1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중앙정부 신뢰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신뢰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4, 3.10,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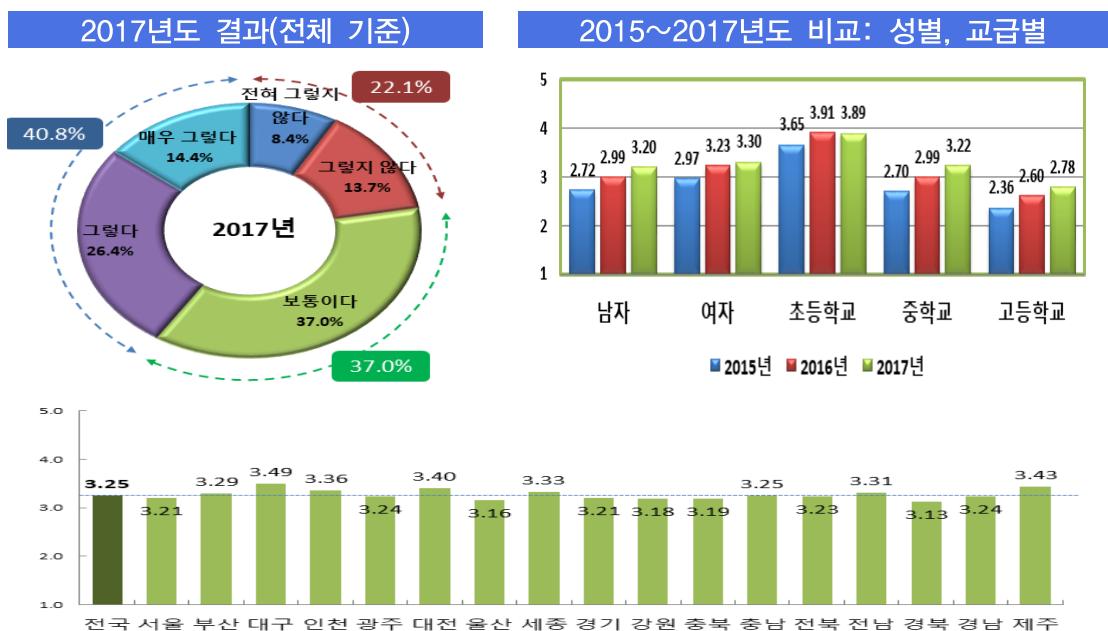


표 III-4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일반신뢰도(중앙정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84	2.81	3.08	2.93	3.00	2.88	2.75	2.75	2.77	2.84	2.74	2.82	2.82	2.77	2.96	2.90	2.95	
16년	3.10	3.00	3.23	3.01	3.07	3.37	3.24	3.26	3.02	3.04	3.11	3.03	3.20	3.10	3.24	3.12	3.16	3.19
17년	3.25	3.21	3.29	3.49	3.36	3.24	3.40	3.16	3.33	3.21	3.18	3.19	3.25	3.23	3.31	3.13	3.24	3.43

(2) 관계 영역 - ⑧ 가족 간의 대화시간

-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은 46.9%, 30분~1시간 30.8%, 30분미만은 22.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5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3.55), 인천(3.54), 강원(3.52) 순이었으며, 전남(3.27)과 전북(3.3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9, 3.45,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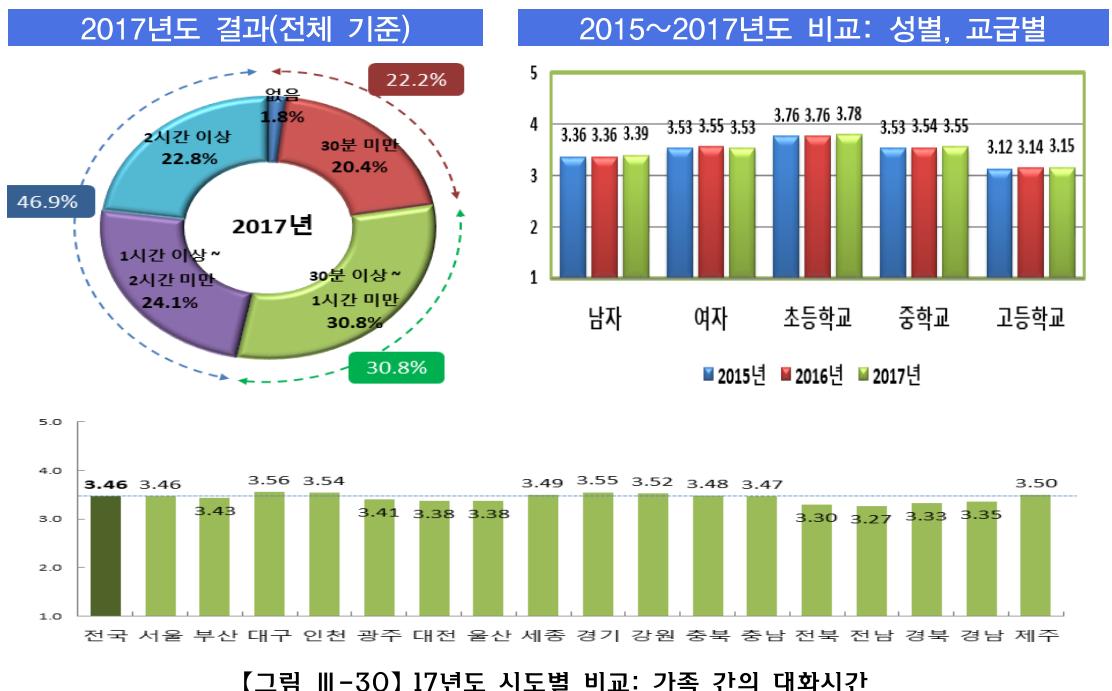


표 III-4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족 간의 대화시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9	3.51	3.41	3.42	3.49	3.40	3.38	3.25		3.51	3.21	3.38	3.45	3.46	3.24	3.35	3.45	3.33
16년	3.45	3.46	3.46	3.40	3.44	3.54	3.44	3.25	3.21	3.49	3.35	3.48	3.62	3.40	3.24	3.45	3.45	3.43
17년	3.46	3.46	3.43	3.56	3.54	3.41	3.38	3.38	3.49	3.55	3.52	3.48	3.47	3.30	3.27	3.33	3.35	3.50

(2) 관계 영역 - ⑨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에 대해 없음은 60.5%, 1~2회는 31.1%, 3회 이상은 18.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6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15, 17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2.0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1.84), 전북(1.79), 강원(1.78) 순이었으며, 세종(1.51)과 서울(1.5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4, 1.68,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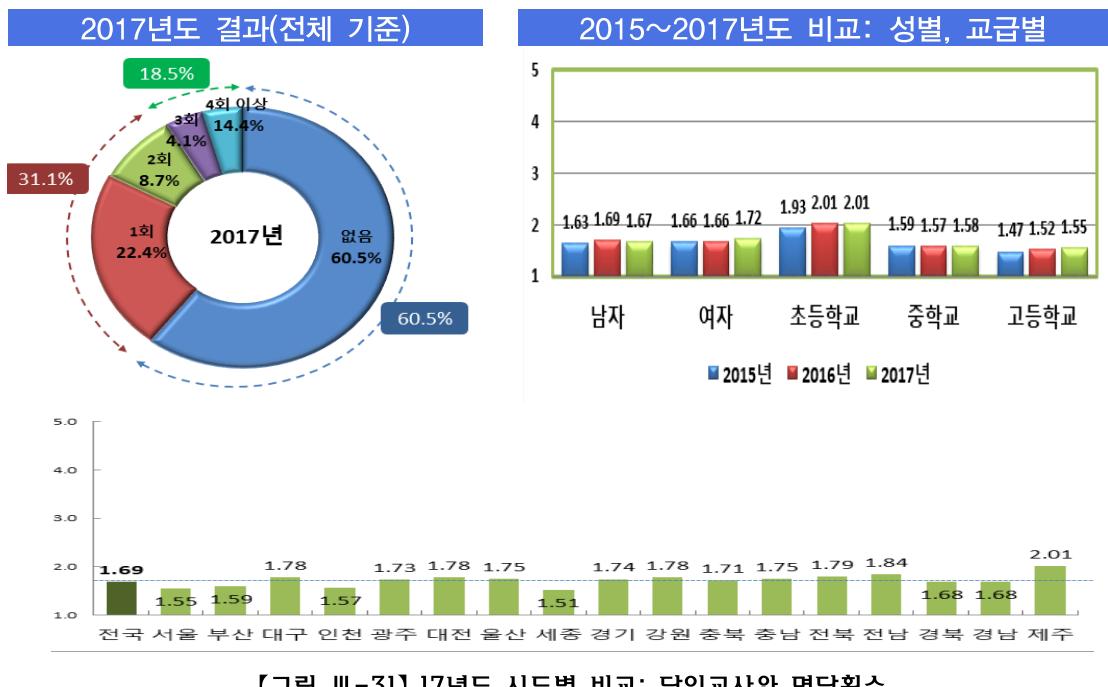


표 III-4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1.64	1.60	1.68	1.47	1.65	1.65	1.66	1.46		1.68	1.58	1.64	1.78	1.82	1.71	1.58	1.61	1.63
16년	1.68	1.62	1.60	1.77	1.66	1.71	1.66	1.65	1.39	1.67	1.66	1.71	1.97	1.81	1.75	1.59	1.64	1.63
17년	1.69	1.55	1.59	1.78	1.57	1.73	1.78	1.75	1.51	1.74	1.78	1.71	1.75	1.79	1.84	1.68	1.68	2.01

(2) 관계 영역 - ⑩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은 55.2%, 30분~1시간 19.6%, 30분미만은 25.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중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3.7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3.67), 광주(3.64), 전남(3.63) 순이었으며, 대전(3.34)과 전북(3.4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2, 3.54,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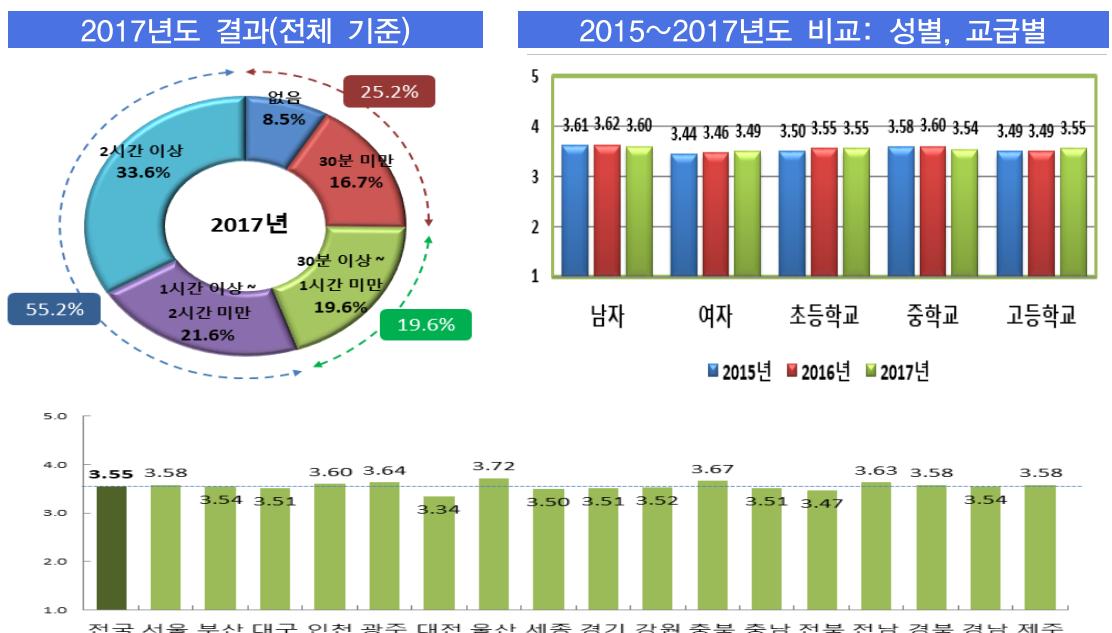


표 III-4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2	3.57	3.49	3.38	3.53	3.36	3.43	3.29		3.62	3.55	3.38	3.64	3.65	3.38	3.47	3.38	3.63
16년	3.54	3.59	3.32	3.61	3.42	3.53	3.52	3.51	3.60	3.62	3.46	3.53	3.63	3.43	3.68	3.44	3.52	3.22
17년	3.55	3.58	3.54	3.51	3.60	3.64	3.34	3.72	3.50	3.51	3.52	3.67	3.51	3.47	3.63	3.58	3.54	3.58

(3) 건강영역 - ① 전반적 건강 만족도

- 전반적 건강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67.9%, 보통(4~6점) 25.7%, 부정 응답(0~3점)은 6.3%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7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7.73), 대구(7.61), 울산(7.58) 순이었으며, 강원(6.99)과 전북(7.0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건강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33, 7.36,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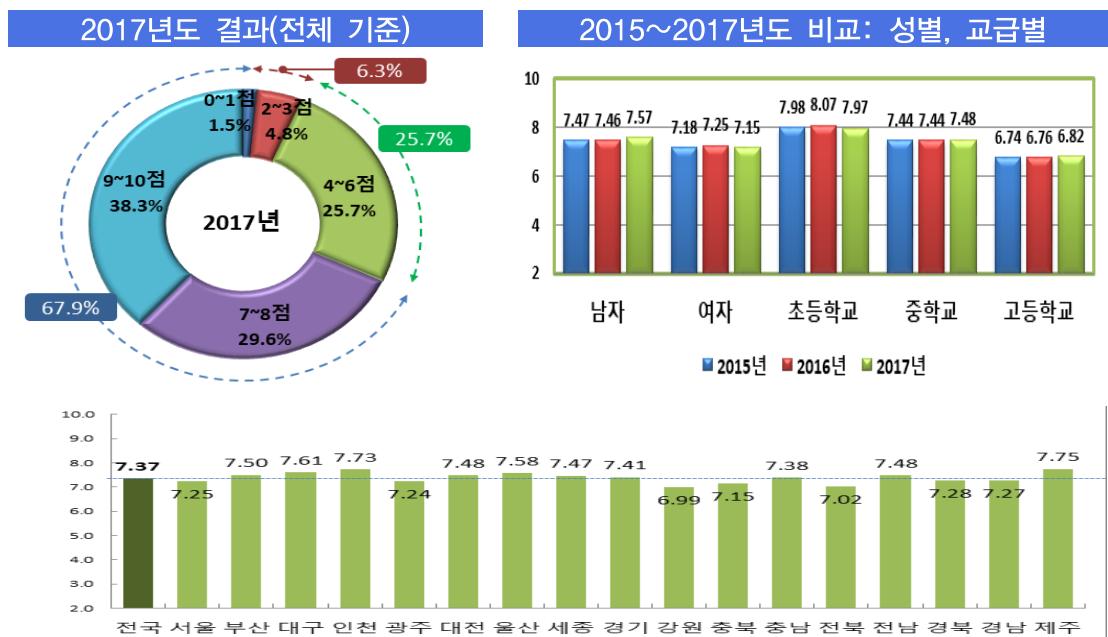


표 III-4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건강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33	7.34	7.66	7.53	7.52	7.22	7.35	7.18		7.27	7.40	7.19	7.52	6.95	6.83	7.24	7.41	7.49
16년	7.36	7.26	7.66	7.42	7.31	7.69	7.60	7.91	7.29	7.30	7.04	7.14	7.56	7.10	7.33	7.33	7.44	7.09
17년	7.37	7.25	7.50	7.61	7.73	7.24	7.48	7.58	7.47	7.41	6.99	7.15	7.38	7.02	7.48	7.28	7.27	7.75

(3) 건강영역 - ②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 응답은 68.3%, 보통 23.3%, 부정 응답은 8.3%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0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01), 대전(4.00), 인천(3.99) 순이었으며, 강원(3.73)과 전북(3.7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91)에 비해 16년(3.89)에는 근소하게 감소했지만, 17년(3.90)에는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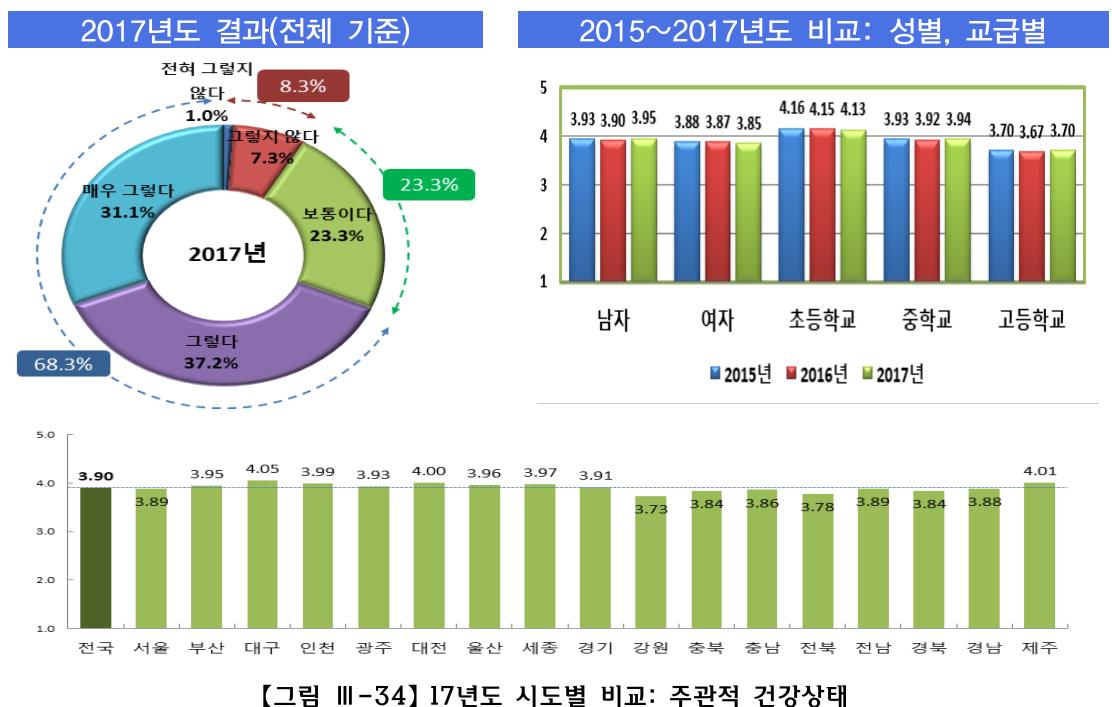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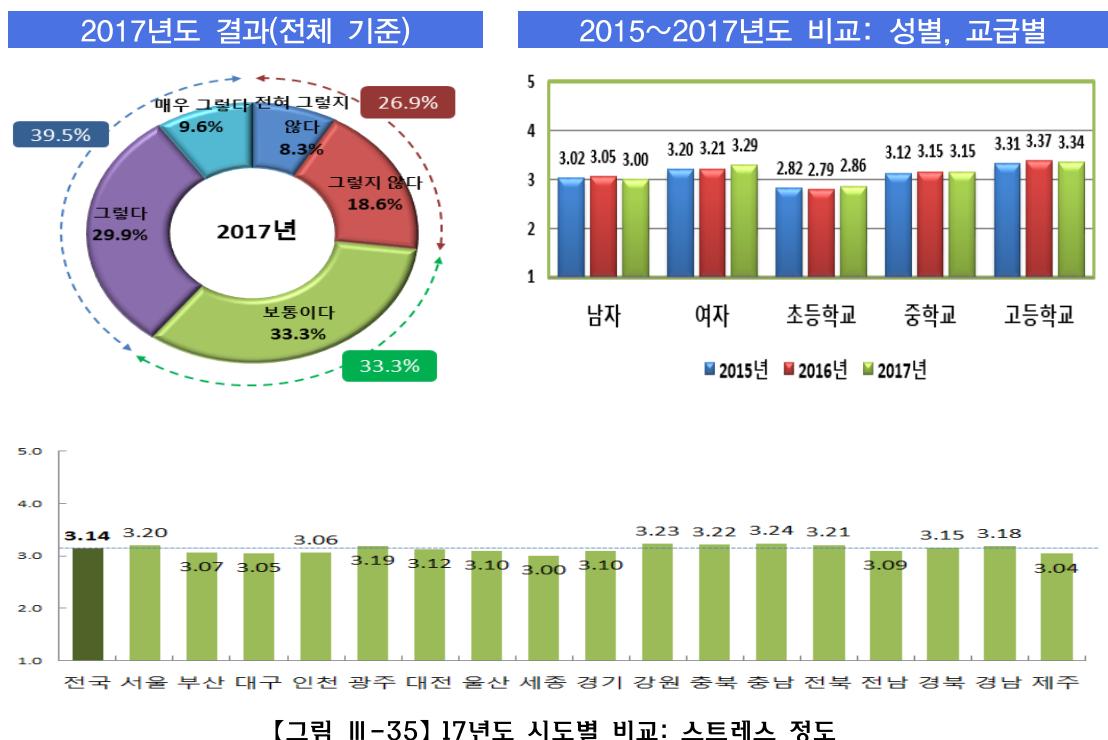


표 III-4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관적 건강상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1	3.94	4.07	3.98	4.01	3.82	3.91	3.86	3.89	3.98	3.81	3.92	3.71	3.76	3.84	3.88	4.00	
16년	3.89	3.86	4.03	3.90	3.82	4.01	3.99	4.02	3.71	3.89	3.75	3.80	3.99	3.72	3.85	3.88	3.87	3.80
17년	3.90	3.89	3.95	4.05	3.99	3.93	4.00	3.96	3.97	3.91	3.73	3.84	3.86	3.78	3.89	3.84	3.88	4.01

(3) 건강영역 - ③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39.5%, 보통 33.3%, 부정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3.2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3.23), 충북(3.22), 전북(3.21) 순이었으며, 세종(3.00)과 제주(3.04)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1, 3.13, 3.14).

**표 Ⅲ-5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스트레스 정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11	3.17	3.00	2.93	3.07	3.17	3.33	3.15		3.13	2.80	3.25	3.04	3.08	3.17	3.13	3.05	3.07
16년	3.13	3.21	3.02	3.08	3.18	3.02	3.12	2.79	3.33	3.15	3.14	3.18	3.16	3.19	3.12	3.03	3.10	3.23
17년	3.14	3.20	3.07	3.05	3.06	3.19	3.12	3.10	3.00	3.10	3.23	3.22	3.24	3.21	3.09	3.15	3.18	3.04

(3) 건강영역 - ④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에 대한 긍정 응답은 17.3%, 보통 38.0%, 부정 응답은 44.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 16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17년도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2개년은 교급이 높아질수록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남(2.7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2.75), 경북과 충남(2.72) 순이었으며, 세종(2.43)과 대전(2.4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고카페인 이용량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4, 2.54,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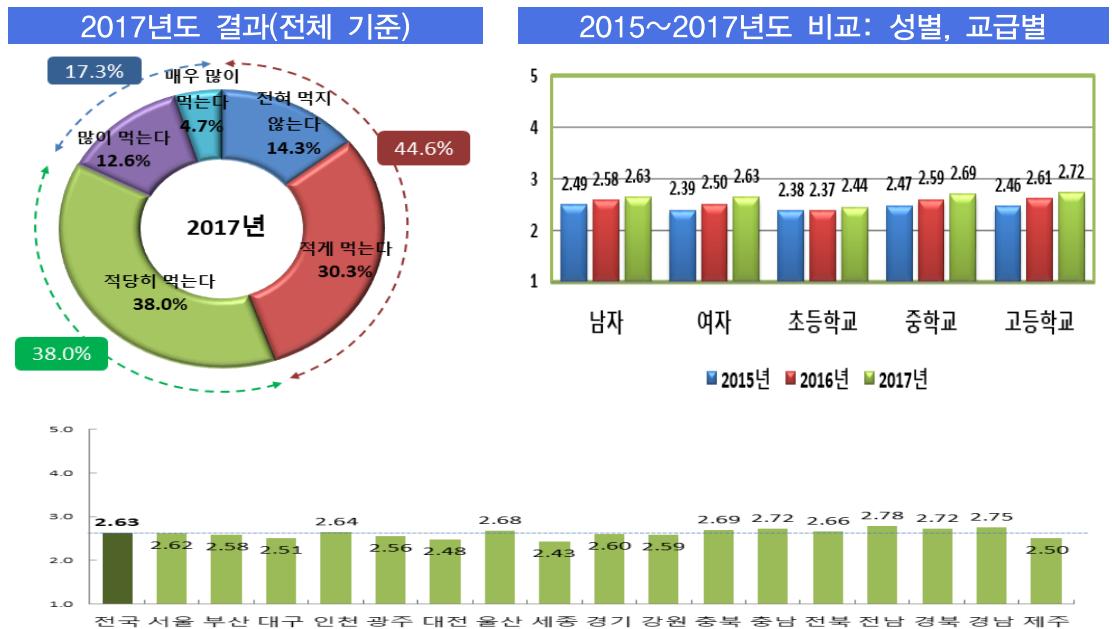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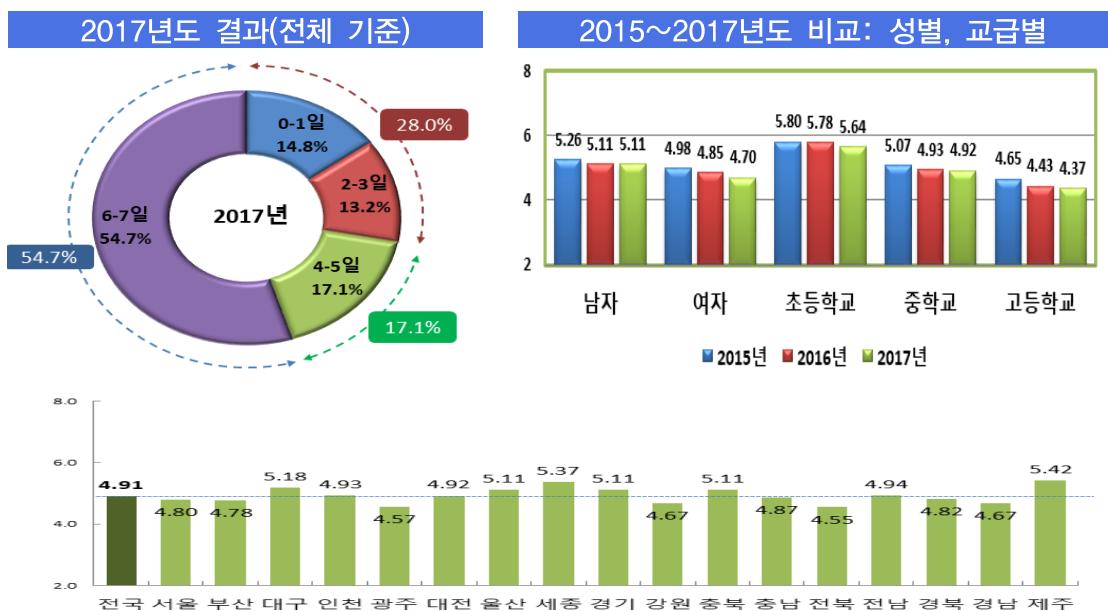


표 III-5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2.44	2.40	2.38	2.43	2.43	2.38	2.43	2.49	2.56	2.45	2.42	2.59	2.35	2.50	2.45	2.48	2.46	2.44
16년	2.54	2.44	2.54	2.53	2.58	2.51	2.46	2.47	2.49	2.52	2.63	2.65	2.62	2.56	2.66	2.60	2.65	2.50
17년	2.63	2.62	2.58	2.51	2.64	2.56	2.48	2.68	2.43	2.60	2.59	2.69	2.72	2.66	2.78	2.72	2.75	2.50

(3) 건강영역 - ⑤ 아침 식사율⁹⁾

- 아침 식사율에 대해 6일 이상은 54.7%, 4일 이상은 17.1%, 3일 이하는 28.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 일 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5.4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5.37), 대구(5.18), 울산, 경기 와 충북(5.11) 순이었으며, 전북(4.55)과 광주(4.57)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아침 식사율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12, 4.98, 4.91).



【그림 III-37】 17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표 III-5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아침 식사율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5.12	5.10	5.29	5.12	5.08	5.12	5.05	4.88	5.08	5.29	5.02	5.50	4.99	4.84	5.15	5.19	5.29	
16년	4.98	5.12	4.94	5.03	5.35	4.96	4.85	5.47	4.11	5.03	5.01	4.73	5.13	4.76	4.50	4.84	4.84	4.83
17년	4.91	4.80	4.78	5.18	4.93	4.57	4.92	5.11	5.37	5.11	4.67	5.11	4.87	4.55	4.94	4.82	4.67	5.42

9) 0일 0점~7일 7점으로 Recode하여 분석함

(3) 건강영역 - ⑥ 질병유무(있다)

○ 질병유무에 대해 ‘있다’는 18.1%, ‘없다’는 80.9%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6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지만 나머지 2개년은 교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27.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20.4%), 서울(20.1%), 충남(19.5%) 순이었으며, 광주(11.3%)와 울산(13.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질병유무(있다)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19.1%)에 비해 16년도(21.3%)는 증가했지만 17년도(18.1%)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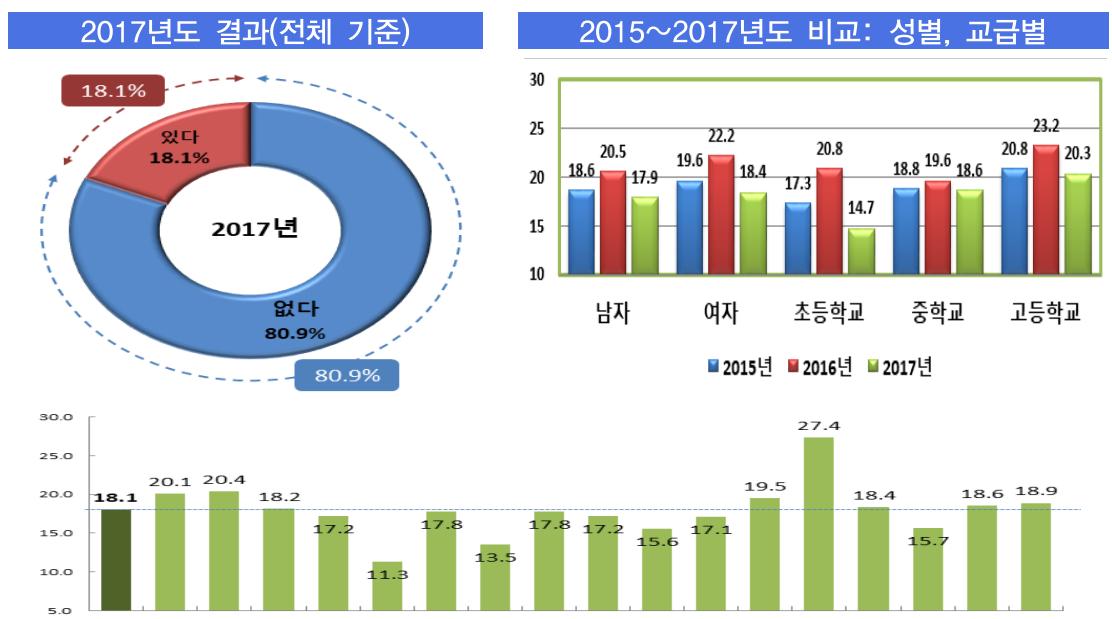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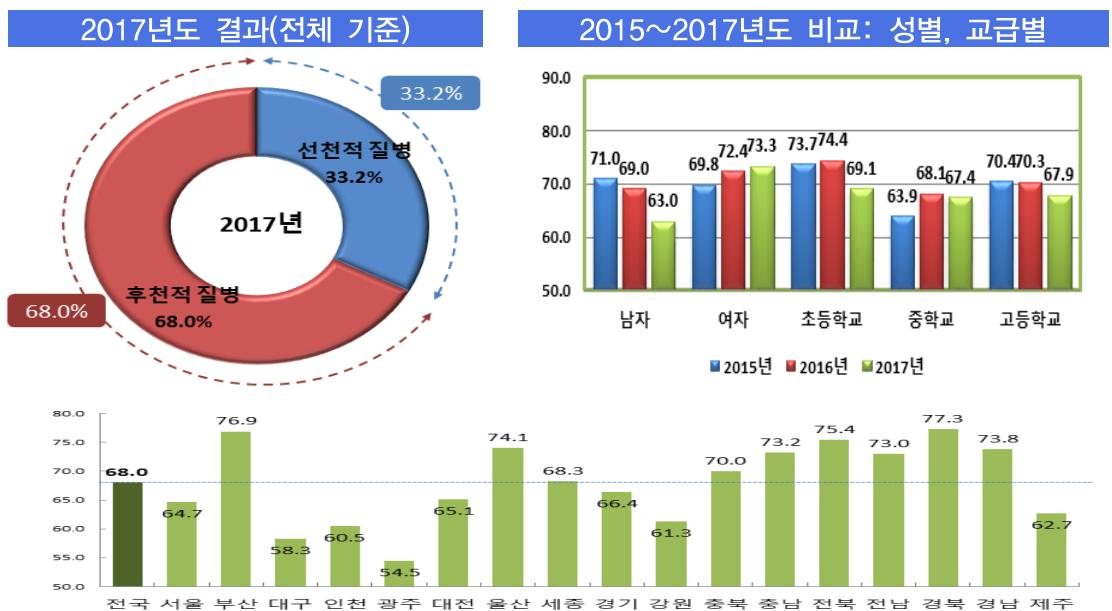


표 III-5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있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19.1	21.1	17.4	12.1	17.9	18.3	24.2	18.3		16.6	15.9	24.7	19.5	23.5	18.4	24.9	20.7	25.6
16년	21.3	21.0	20.0	25.1	15.9	22.7	24.2	17.6	17.5	20.1	18.1	35.2	28.1	21.9	19.2	16.1	21.6	25.2
17년	18.1	20.1	20.4	18.2	17.2	11.3	17.8	13.5	17.8	17.2	15.6	17.1	19.5	27.4	18.4	15.7	18.6	18.9

(3) 건강영역 - ⑥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 질병유무에서 후천적 질병의 비율은 68.0%, 선천적 질병은 33.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2개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교가 후천적 질병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77.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76.9%), 전북(75.4%), 울산(74.1%) 순이었으며, 광주(54.5%)와 대구(58.3%)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질병유무(후천적 질병)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69.3%)에 비해 16년도(70.7%)는 증가했지만 17년도(68.0%)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9】 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표 Ⅲ-5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질병유무(후천적 질병)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9.3	68.9	70.1	70.1	71.0	63.1	78.1	64.5		69.7	76.4	66.5	70.7	64.0	77.1	57.1	66.1	80.4
16년	70.7	70.9	70.3	73.2	72.7	74.3	64.9	85.8	54.4	66.5	83.2	66.5	82.7	74.3	73.7	63.6	69.0	73.2
17년	68.0	64.7	76.9	58.3	60.5	54.5	65.1	74.1	68.3	66.4	61.3	70.0	73.2	75.4	73.0	77.3	73.8	62.7

(4) 교육영역 - ①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65.1%, 보통(4~6점) 27.4%, 부정 응답(0~3점)은 7.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7.4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과 제주(7.42), 인천(7.36) 순이었으며, 강원(6.68)과 경북(6.69)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8, 7.10,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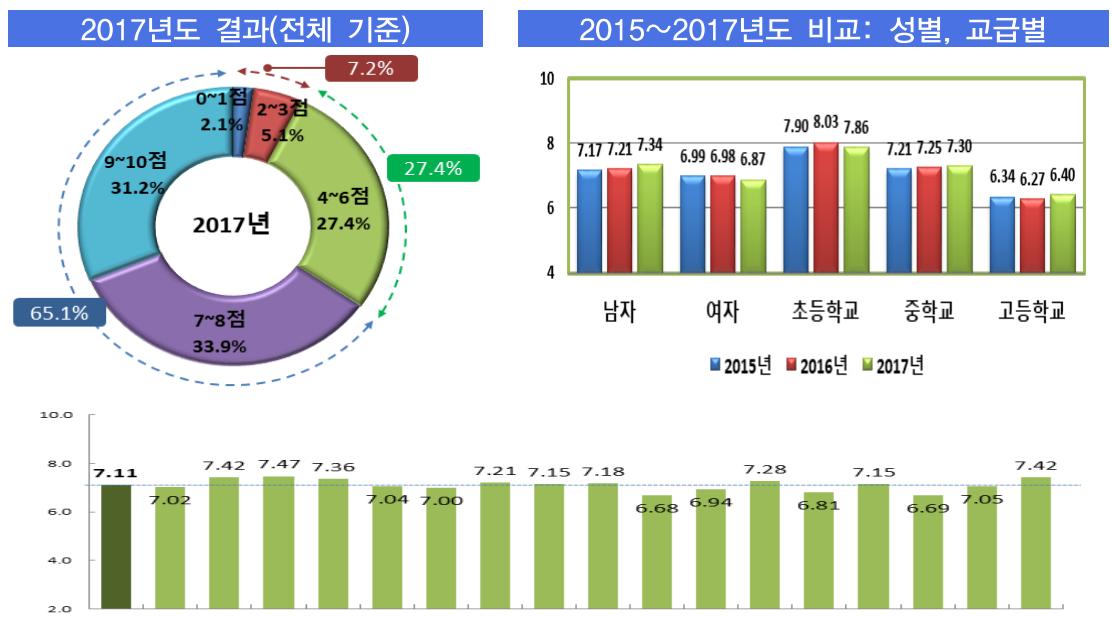


표 III-5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08	7.14	7.57	7.08	7.29	6.89	7.06	6.74		7.02	7.18	6.86	7.32	6.65	6.65	6.91	7.23	7.27
16년	7.10	7.12	7.37	7.21	6.80	7.42	7.24	7.66	6.54	6.98	6.96	7.20	7.14	6.98	6.88	7.08	7.06	7.09
17년	7.11	7.02	7.42	7.47	7.36	7.04	7.00	7.21	7.15	7.18	6.68	6.94	7.28	6.81	7.15	6.69	7.05	7.42

(4) 교육영역 - ②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 직업교육·체험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은 55.1%, 보통 24.4%, 부정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2개년은 중학교가 가장 높았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3.58), 제주(3.56), 서울과 전남(3.50) 순이었으며, 충북(3.17), 대전과 전북(3.29)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직업교육·체험경험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3.22, 3.35,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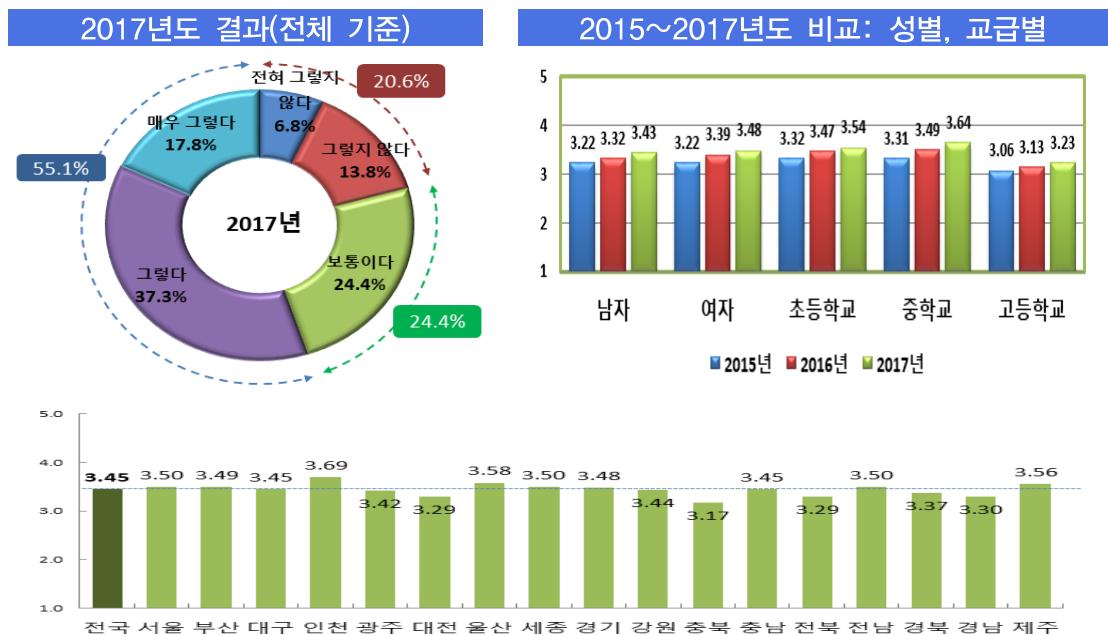


표 III-5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22	3.33	3.23	3.28	3.36	3.16	3.14	3.11	3.22	3.11	3.11	3.39	3.05	3.07	3.18	3.06	3.29	
16년	3.35	3.40	3.26	3.36	3.40	3.58	3.38	3.70	3.47	3.32	3.23	3.19	3.50	3.31	3.27	3.42	3.13	3.37
17년	3.45	3.50	3.49	3.45	3.69	3.42	3.29	3.58	3.50	3.48	3.44	3.17	3.45	3.29	3.50	3.37	3.30	3.56

(4) 교육영역 - ③ 교과과정 만족도

- 교과과정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7.6%, 보통 37.0%, 부정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57)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3.55), 부산과 인천(3.54), 대구와 세종(3.51) 순이었으며, 전북(3.24)과 경북(3.2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교과과정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5)에 비해 16년도(3.45)는 증가했지만 17년도(3.43)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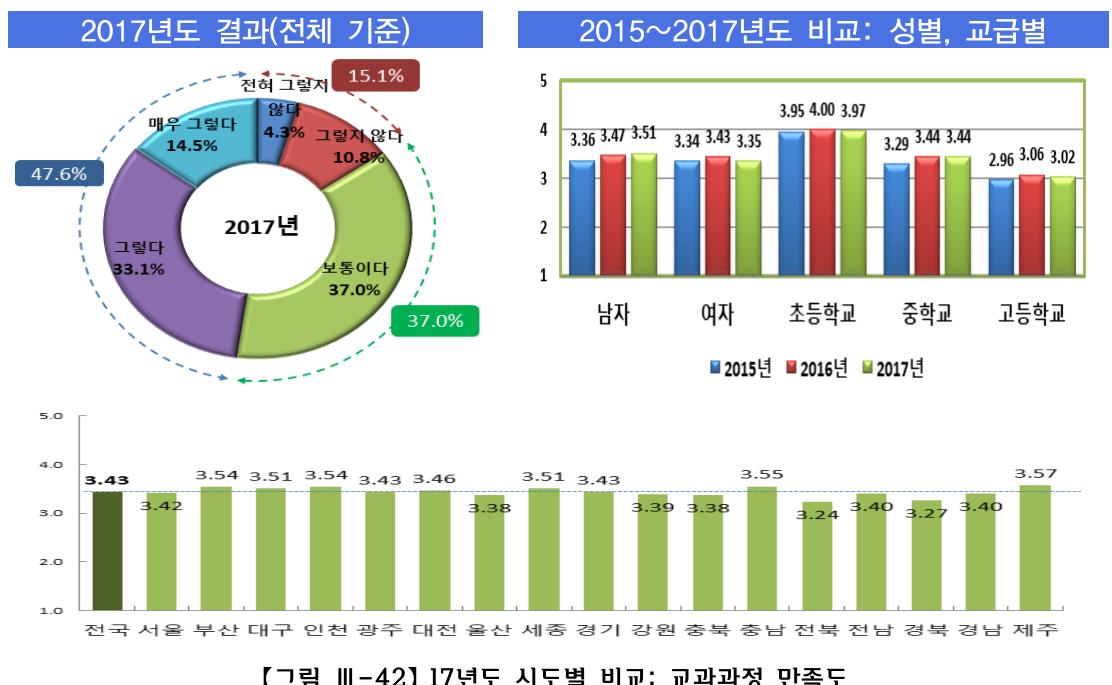


표 III-5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교과과정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5	3.41	3.60	3.31	3.47	3.26	3.40	3.06	3.30	3.39	3.15	3.33	3.33	3.28	3.39	3.38	3.39	
16년	3.45	3.46	3.62	3.45	3.37	3.65	3.50	3.83	3.32	3.36	3.41	3.54	3.37	3.35	3.52	3.42	3.58	
17년	3.43	3.42	3.54	3.51	3.54	3.43	3.46	3.38	3.51	3.43	3.39	3.38	3.55	3.24	3.40	3.27	3.40	

(4) 교육영역 - ④ 진로교육 만족도

-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3.6%, 보통 36.8%, 부정 응답은 19.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5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50), 전남(3.44), 충남(3.42) 순이었으며, 경북(3.11)과 전북(3.2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0)에 비해 16년도(3.35)는 증가했지만 17년도(3.33)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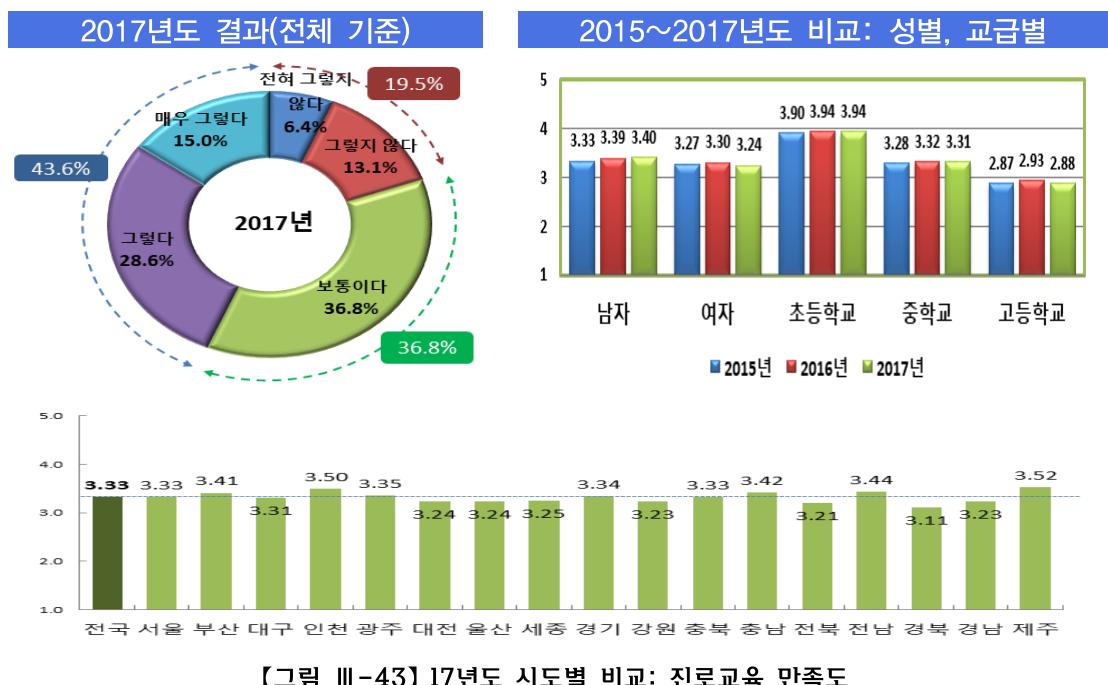


표 III-5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진로교육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0	3.34	3.52	3.23	3.45	3.36	3.37	3.11	3.24	3.23	3.10	3.31	3.31	3.21	3.37	3.28	3.43	
16년	3.35	3.32	3.60	3.36	3.38	3.60	3.45	3.74	3.13	3.25	3.10	3.31	3.48	3.37	3.31	3.27	3.26	3.53
17년	3.33	3.33	3.41	3.31	3.50	3.35	3.24	3.24	3.25	3.34	3.23	3.33	3.42	3.21	3.44	3.11	3.23	3.52

(5) 안전영역 - ① 전반적 안전 만족도

- 전반적 안전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66.2%, 보통(4~6점) 29.9%, 부정 응답(0~3점)은 3.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7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7.60), 부산(7.59), 전남(7.43) 순이었으며, 강원(6.75)과 경북(6.7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반적 안전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7.08)에 비해 16년도(7.26)는 증가했지만 17년도(7.24)에는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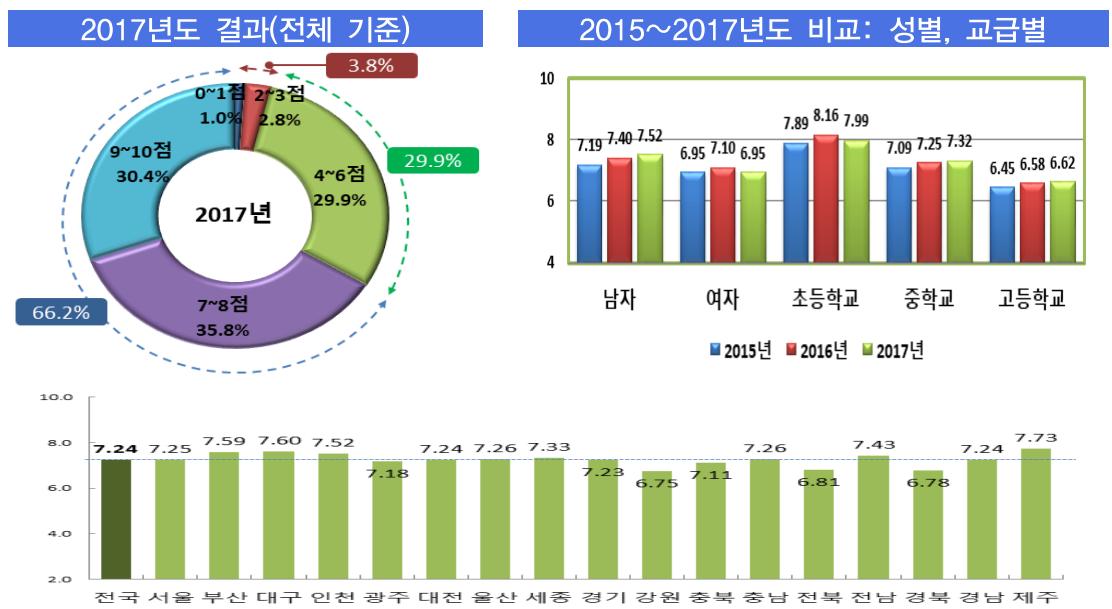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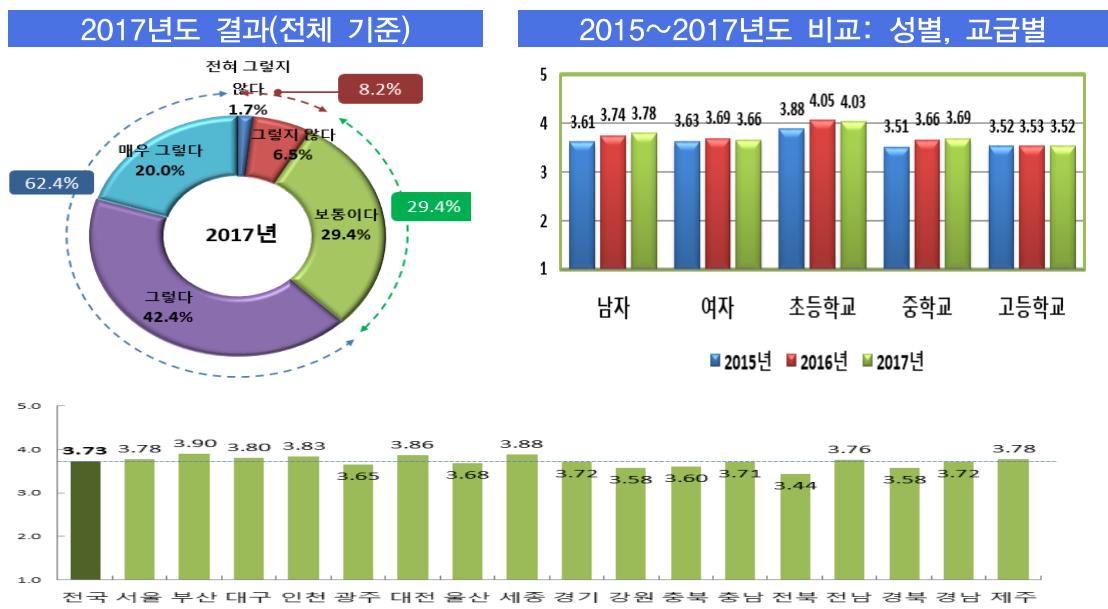


표 III-5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안전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08	7.18	7.53	7.18	7.27	6.93	7.09	6.88	6.93	7.22	6.75	7.17	6.70	6.79	7.00	7.17	7.51	
16년	7.26	7.22	7.48	7.29	7.09	7.60	7.31	7.88	6.67	7.18	6.93	7.19	7.45	7.05	7.10	7.36	7.26	7.33
17년	7.24	7.25	7.59	7.60	7.52	7.18	7.24	7.26	7.33	7.23	6.75	7.11	7.26	6.81	7.43	6.78	7.24	7.73

(5) 안전영역 - ② 학교시설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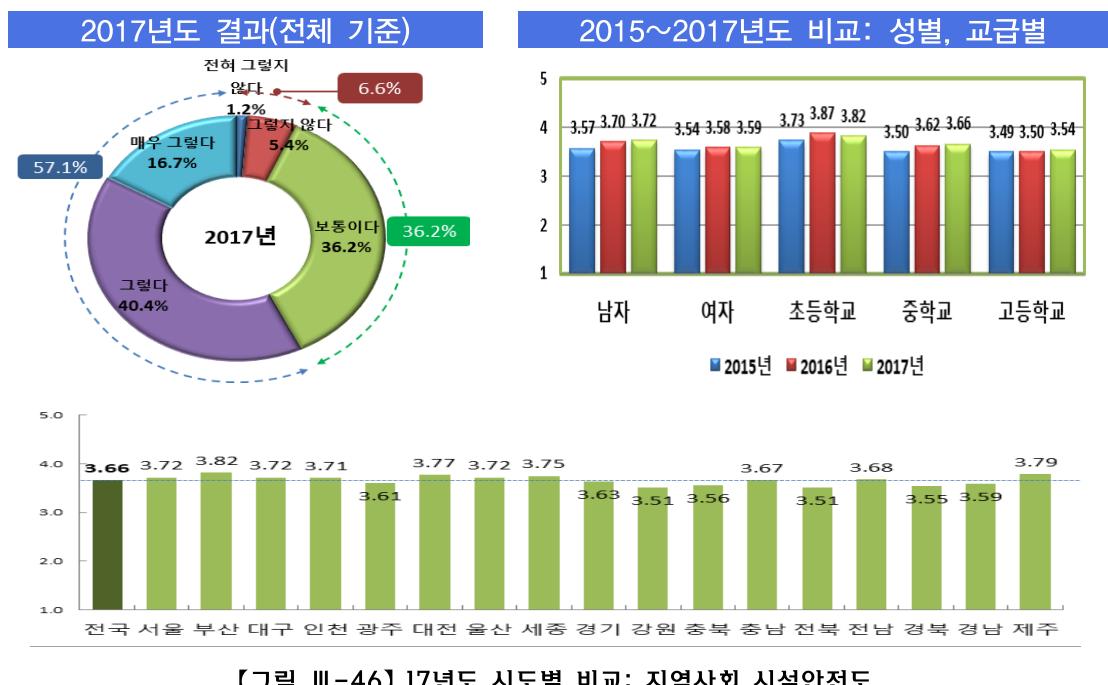
- 학교시설 안전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62.4%, 보통 29.4%, 부정 응답은 8.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6, 17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 중학교가 가장 낮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2개년은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9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3.88), 대전(3.86), 인천(3.83) 순이었으며, 전북(3.44), 강원과 경북(3.58)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교시설 안전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2, 3.72, 3.73).

**표 Ⅲ-6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교시설 안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2	3.69	3.88	3.70	3.69	3.57	3.60	3.43	3.54	3.62	3.52	3.65	3.41	3.60	3.52	3.60	3.86	
16년	3.72	3.72	3.98	3.68	3.74	3.85	3.73	3.92	3.87	3.65	3.59	3.73	3.75	3.64	3.64	3.76	3.70	3.78
17년	3.73	3.78	3.90	3.80	3.83	3.65	3.86	3.68	3.88	3.72	3.58	3.60	3.71	3.44	3.76	3.58	3.72	3.78

(5) 안전영역 - ③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 지역사회 시설안전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7.1%, 보통 36.2%,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3.8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79), 대전(3.77), 세종(3.75) 순이었으며, 강원, 전북(3.51)과 경북(3.5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시설안전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도 3.56, 16년도 3.64, 17년도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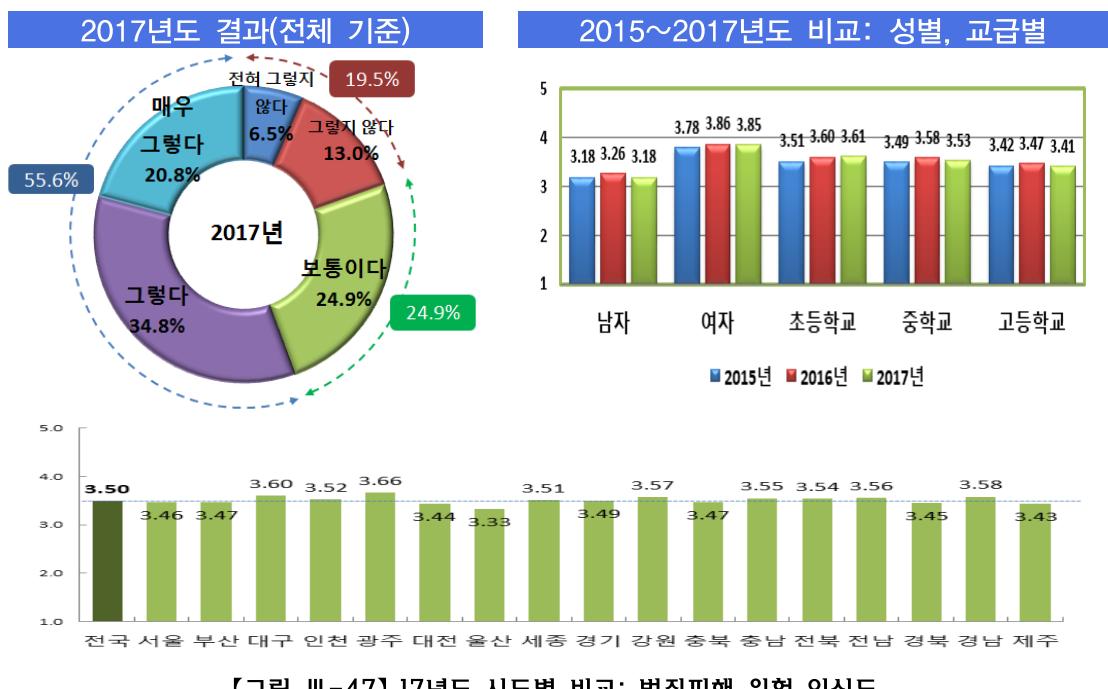
【그림 III-46】 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표 III-6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6	3.60	3.75	3.62	3.61	3.50	3.58	3.55		3.50	3.51	3.47	3.60	3.47	3.53	3.46	3.54	3.71
16년	3.64	3.66	3.86	3.60	3.63	3.82	3.70	3.89	3.80	3.59	3.46	3.61	3.67	3.55	3.64	3.62	3.58	3.63
17년	3.66	3.72	3.82	3.72	3.71	3.61	3.77	3.72	3.75	3.63	3.51	3.56	3.67	3.51	3.67	3.51	3.59	3.79

(5) 안전영역 - ④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¹⁰⁾

-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에 대한 궁정 응답은 55.6%, 보통 24.9%, 부정 응답은 19.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근소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3.6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60), 경남(3.58), 강원(3.57) 순이었으며, 울산(3.33)과 제주(3.43)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47)에 비해 16년도(3.54)는 증가했지만 17년도(3.50)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설문문항이 부정 방향으로 되어 있어, 지표 결과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범죄피해 위험 인식도로 지표명을 변경함.

(5) 안전영역 - ⑤ 위기상황 대처능력

-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긍정 응답은 61.6%, 보통 29.2%, 부정 응답은 9.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과 인천(3.9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3.88), 세종(3.80), 대전(3.78) 순이었으며, 강원(3.53)과 충북(3.6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위기상황대처능력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5, 3.69,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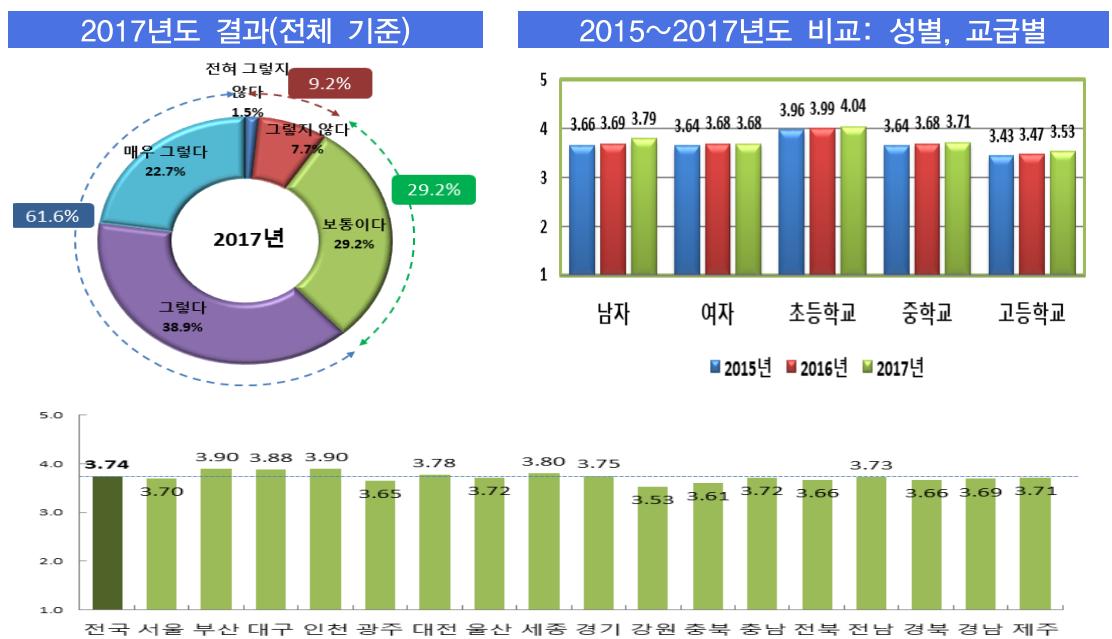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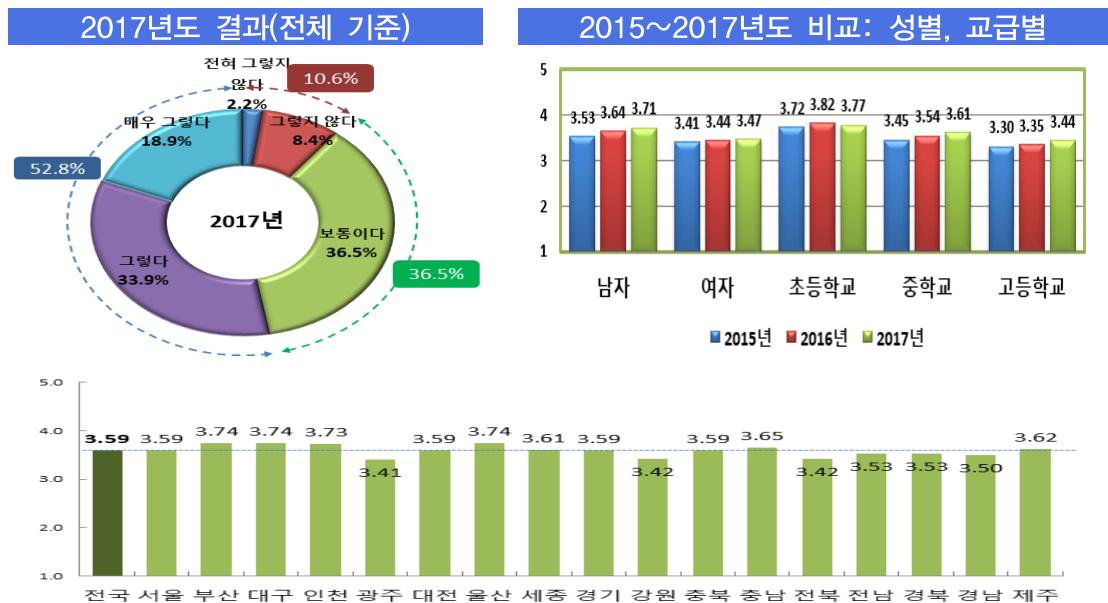


표 III-6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위기상황대처능력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5	3.64	3.84	3.77	3.79	3.54	3.71	3.58	3.60	3.65	3.52	3.70	3.52	3.53	3.69	3.68	3.68	
16년	3.69	3.65	3.83	3.85	3.58	3.86	3.76	3.90	3.43	3.65	3.56	3.69	3.63	3.56	3.72	3.65	3.71	3.72
17년	3.74	3.70	3.90	3.88	3.90	3.65	3.78	3.72	3.80	3.75	3.53	3.61	3.72	3.66	3.73	3.66	3.69	3.71

(5) 안전영역 - ⑥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2.8%, 보통 36.5%, 부정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부산, 대구, 울산(3.7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73), 충남(3.65) 순이었으며, 광주(3.41), 강원과 전북(3.4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7, 3.55, 3.59).

**표 III-6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생활주변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정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7	3.43	3.62	3.44	3.68	3.53	3.48	3.58	3.42	3.43	3.39	3.47	3.45	3.31	3.56	3.54	3.40	
16년	3.55	3.56	3.64	3.54	3.59	3.71	3.66	3.95	3.63	3.52	3.33	3.53	3.52	3.49	3.43	3.54	3.47	3.30
17년	3.59	3.59	3.74	3.74	3.73	3.41	3.59	3.74	3.61	3.59	3.42	3.59	3.65	3.42	3.53	3.50	3.62	

(6) 참여영역 - ①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49.7%, 보통(4~6점) 36.6%, 부정 응답(0~3점)은 13.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6.7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6.64), 대구(6.49), 충남(6.46) 순이었으며, 경북(5.96)과 강원(6.1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07, 6.18,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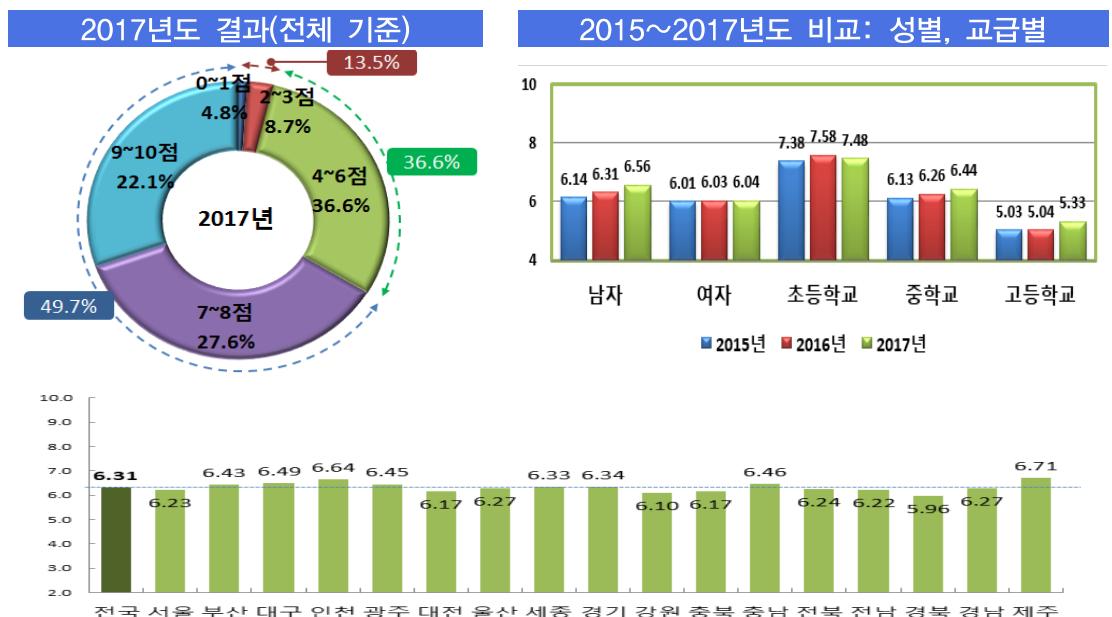


표 III-6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07	6.02	6.58	6.12	6.48	6.04	6.06	5.56	5.95	5.83	5.83	6.21	5.99	5.96	6.22	6.26	6.20	
16년	6.18	5.87	6.56	6.14	6.08	6.49	6.40	6.72	5.82	6.10	6.01	6.04	6.47	6.18	6.29	6.23	6.35	6.19
17년	6.31	6.23	6.43	6.49	6.64	6.45	6.17	6.27	6.33	6.34	6.10	6.17	6.46	6.24	5.96	6.27	6.71	

(6) 참여영역 - ② 아동권리 인지

- 아동권리 인지에 대한 긍정 응답은 63.8%, 보통 30.2%, 부정 응답은 6.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9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90), 대구와 전남(3.89), 세종(3.83) 순이었으며, 경북(3.64)과 충북(3.6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아동권리 인지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65, 3.71,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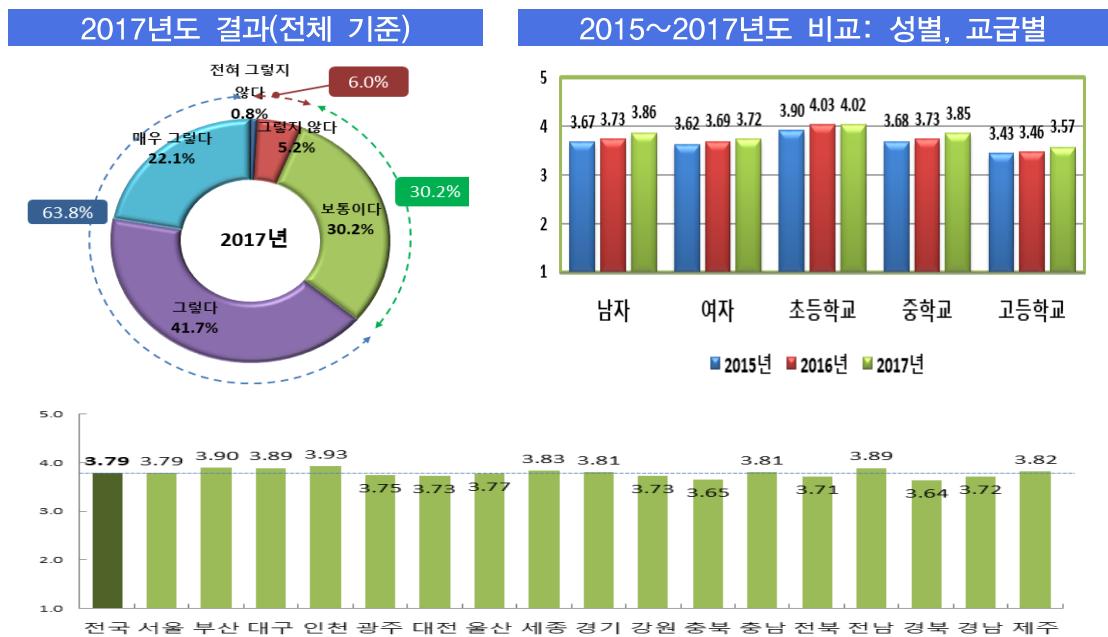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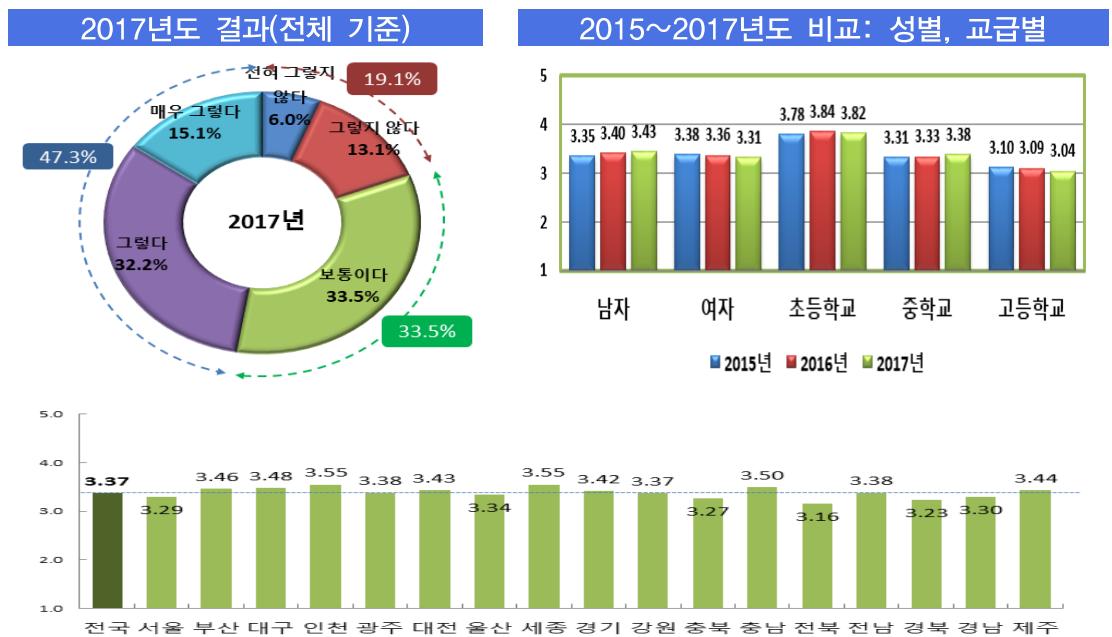


표 III-6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아동권리 인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65	3.65	3.81	3.77	3.78	3.65	3.61	3.56		3.62	3.62	3.53	3.66	3.64	3.48	3.57	3.64	3.76
16년	3.71	3.69	3.84	3.70	3.69	3.87	3.80	3.87	3.39	3.70	3.61	3.65	3.70	3.73	3.64	3.63	3.68	3.68
17년	3.79	3.79	3.90	3.89	3.93	3.75	3.73	3.77	3.83	3.81	3.73	3.65	3.81	3.71	3.89	3.64	3.72	3.82

(6) 참여영역 - ③ 징계 소명권

- 징계 소명권에 대한 긍정 응답은 47.3%, 보통 33.5%, 부정 응답은 19.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16, 17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과 세종(3.5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3.50), 대구(3.48), 부산(3.46) 순이었으며, 전북(3.16)과 경북(3.2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징계소명권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36)에 비해 16년도(3.38)는 증가했지만 17년도(3.37)에는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2】 17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표 III-6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징계 소명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6	3.37	3.51	3.34	3.47	3.32	3.35	3.22		3.41	3.37	3.17	3.34	3.26	3.14	3.31	3.37	3.38
16년	3.38	3.35	3.45	3.39	3.40	3.47	3.48	3.63	3.27	3.40	3.29	3.31	3.30	3.31	3.22	3.45	3.37	3.33
17년	3.37	3.29	3.46	3.48	3.55	3.38	3.43	3.34	3.55	3.42	3.37	3.27	3.50	3.16	3.38	3.23	3.30	3.44

(6) 참여영역 - ④ 학적 개정권

- 학적 개정권에 대한 긍정 응답은 50.7%, 보통 32.0%, 부정 응답은 17.1%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16, 17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3.6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3.63), 충남(3.62), 세종(3.61) 순이었으며, 경북(3.17)과 전북(3.2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적 개정권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34, 3.37,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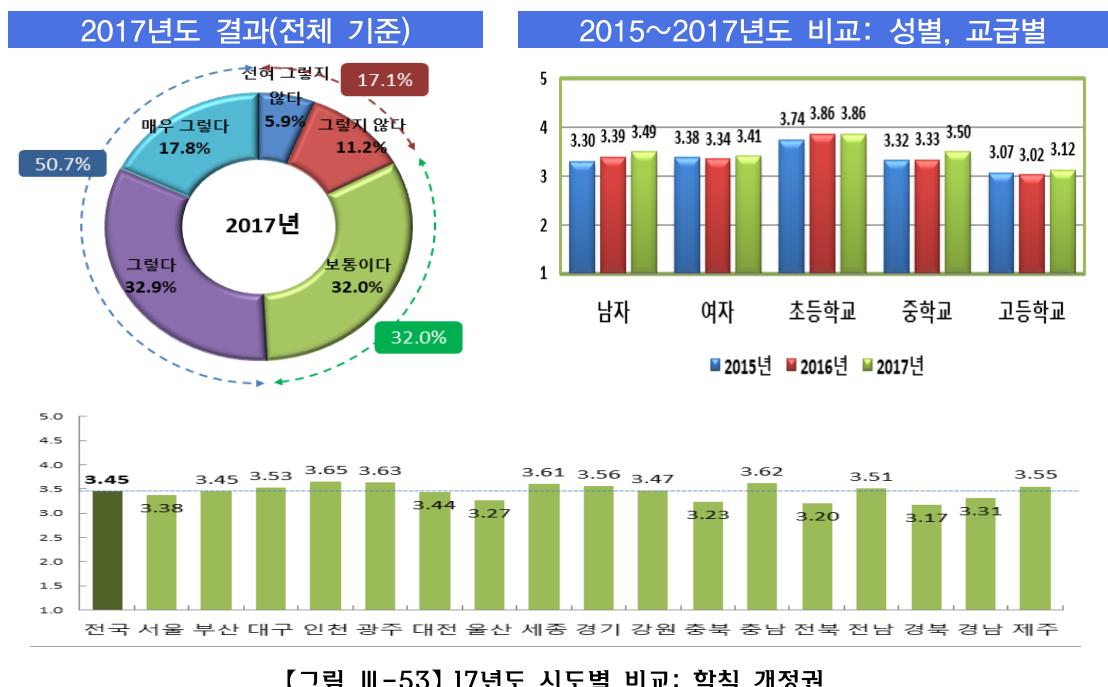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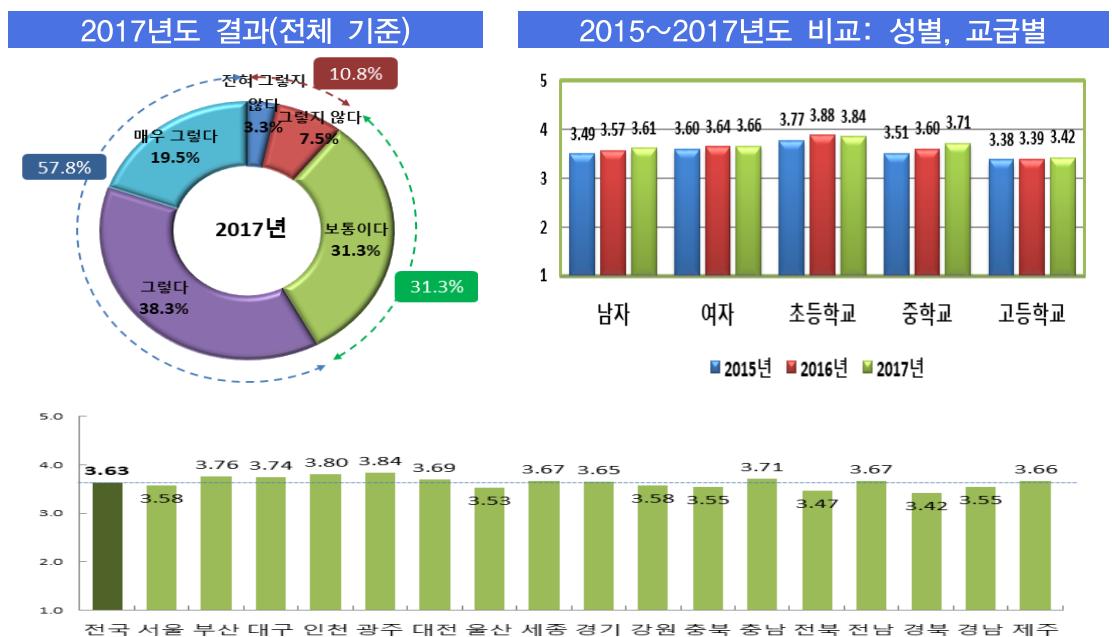


표 III-6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적 개정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34	3.41	3.47	3.22	3.38	3.42	3.28	3.16	3.41	3.40	3.11	3.19	3.12	3.26	3.26	3.32	3.39	
16년	3.37	3.31	3.67	3.27	3.39	3.53	3.31	3.57	3.17	3.42	3.35	3.17	3.25	3.29	3.25	3.26	3.59	
17년	3.45	3.38	3.45	3.53	3.65	3.63	3.44	3.27	3.61	3.56	3.47	3.23	3.62	3.20	3.51	3.17	3.55	

(6) 참여영역 - ⑤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에 대한 긍정 응답은 57.8%, 보통 31.3%, 부정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3.8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80), 부산(3.76), 대구(3.74) 순이었으며, 경북(3.42)과 전북(3.4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54, 3.60,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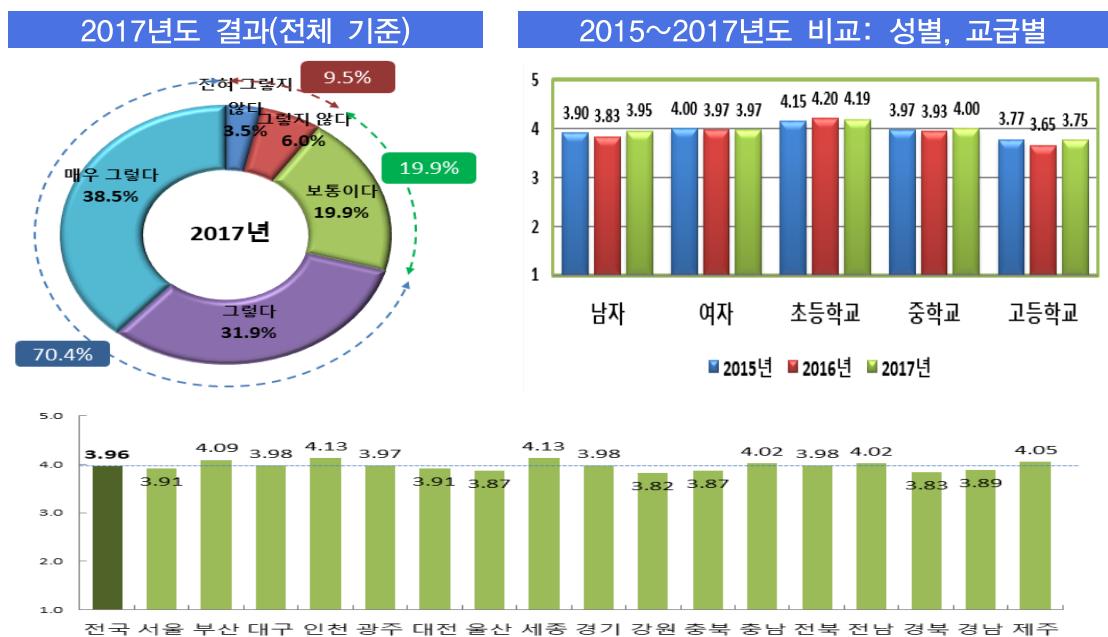
【그림 III-54】 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표 III-69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4	3.58	3.76	3.45	3.55	3.46	3.54	3.48		3.54	3.49	3.59	3.47	3.35	3.38	3.57	3.48	3.82
16년	3.60	3.57	3.91	3.48	3.62	3.79	3.66	3.83	3.40	3.57	3.54	3.52	3.62	3.49	3.47	3.56	3.54	3.77
17년	3.63	3.58	3.76	3.74	3.80	3.84	3.69	3.53	3.67	3.65	3.58	3.55	3.71	3.47	3.67	3.42	3.55	3.66

(6) 참여영역 - ⑥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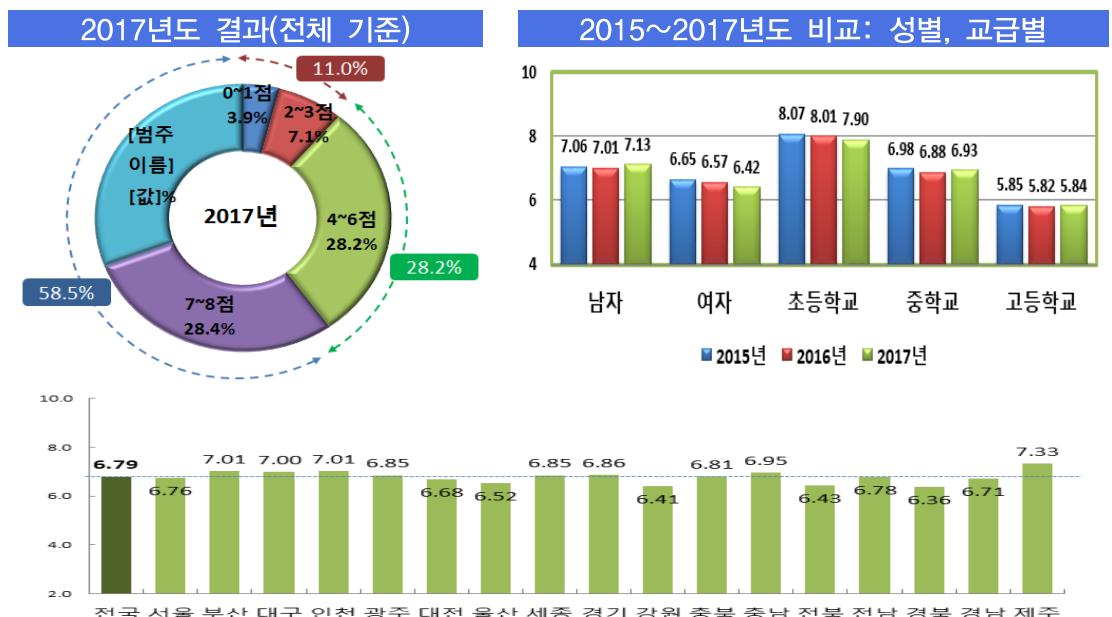
-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0.4%, 보통 19.9%, 부정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과 세종(4.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4.09), 제주(4.05), 전남과 충남(4.02) 순이었으며, 강원(3.82)과 경북(3.8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도(3.95)에 비해 16년도(3.90)는 감소했지만 17년도(3.96)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95	3.98	4.07	3.98	4.07	3.86	4.00	3.71	3.92	3.87	3.80	3.97	3.96	3.89	4.00	3.88	4.08	
16년	3.90	3.89	3.99	3.96	3.88	4.06	3.98	4.03	3.37	3.87	3.82	3.85	3.87	3.88	3.93	3.82	3.86	4.13
17년	3.96	3.91	4.09	3.98	4.13	3.97	3.91	3.87	4.13	3.98	3.82	3.87	4.02	3.98	4.02	3.83	3.89	4.05

(7) 활동영역 - ①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 전반적 청소년활동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7~10점)은 58.5%, 보통(4~6점) 28.2%, 부정 응답(0~3점)은 11.0%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3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7.01), 대구(7.00), 충남 (6.95) 순이었으며, 경북(6.36)과 강원(6.41)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전반적 청소년활동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86, 6.80,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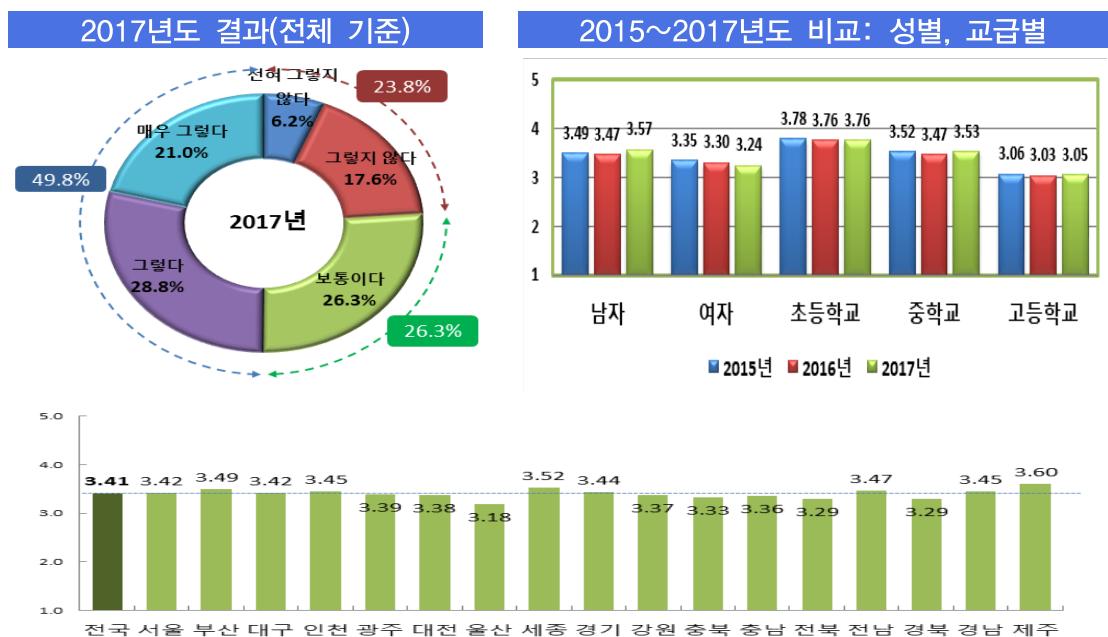
【그림 III-56】 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표 III-71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86	6.89	7.17	6.95	7.16	6.67	6.67	6.35	6.85	6.89	6.47	6.98	6.92	6.47	6.76	6.99	7.08	
16년	6.80	6.77	6.97	6.74	6.28	7.13	6.70	7.33	6.41	6.86	6.29	6.67	6.77	6.80	6.90	6.72	6.84	6.70
17년	6.79	6.76	7.01	7.00	7.01	6.85	6.68	6.52	6.85	6.86	6.41	6.81	6.95	6.43	6.78	6.36	6.71	7.33

(7) 활동영역 - ②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 여가활동 시간만족도에 대한 궁정 응답은 49.8%, 보통 26.3%, 부정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6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3.52), 부산(3.49), 전남(3.47) 순이었으며, 울산(3.18), 전북과 경북(3.29)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42)에 비해 16년(3.39)은 감소했지만, 17년(3.41)에 다시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7】 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표 III-72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2	3.47	3.45	3.49	3.49	3.28	3.38	3.24	3.48	3.33	3.19	3.35	3.52	3.18	3.25	3.43	3.46	
16년	3.39	3.40	3.46	3.40	3.22	3.52	3.30	3.47	2.78	3.44	3.22	3.28	3.35	3.46	3.36	3.28	3.33	3.28
17년	3.41	3.42	3.49	3.42	3.45	3.39	3.38	3.18	3.52	3.44	3.37	3.33	3.36	3.29	3.47	3.29	3.45	3.60

(7) 활동영역 - ③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 여가활동 공간만족도에 대한 궁정 응답은 51.4%, 보통 30.1%, 부정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3.6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3.59), 대구(3.55), 충남(3.54) 순이었으며, 전북(3.31), 강원(3.3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여가활동 공간만족도는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1, 3.46,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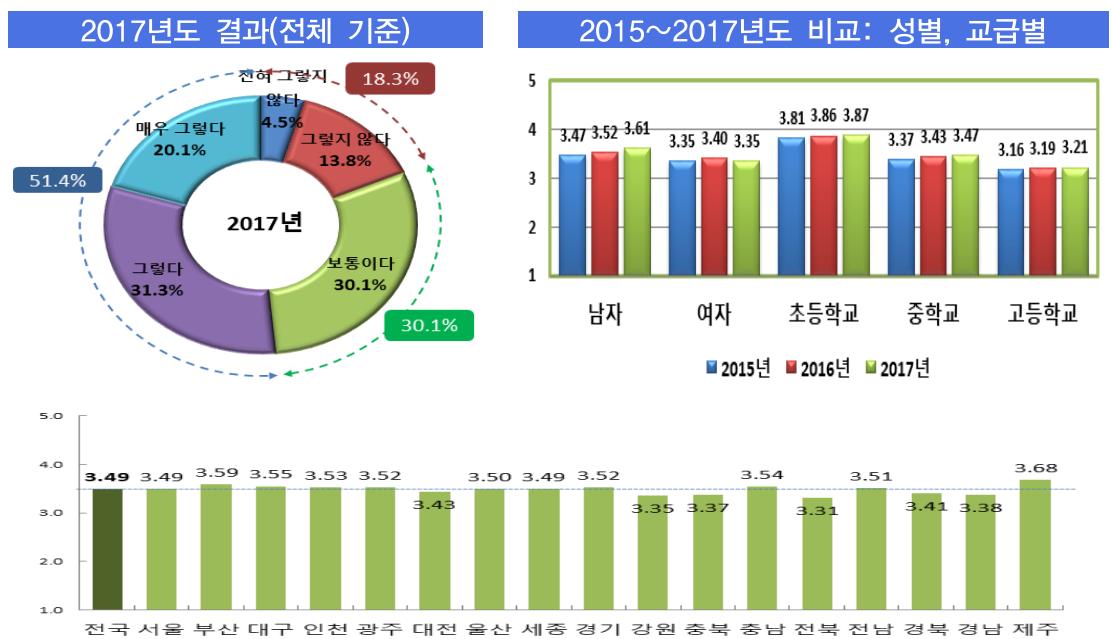


표 III-73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1	3.38	3.44	3.41	3.55	3.34	3.37	3.40		3.45	3.45	3.37	3.41	3.37	3.37	3.29	3.45	3.35
16년	3.46	3.40	3.60	3.47	3.34	3.70	3.45	3.79	3.18	3.52	3.22	3.45	3.38	3.48	3.39	3.34	3.40	3.33
17년	3.49	3.49	3.59	3.55	3.53	3.52	3.43	3.50	3.49	3.52	3.35	3.37	3.54	3.31	3.51	3.41	3.38	3.68

(7) 활동영역 - ④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 여가활동 용돈만족도에 대한 궁정 응답은 53.0%, 보통 28.2%, 부정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66)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62), 울산과 인천(3.58), 전남(3.57) 순이었으며, 대전(3.39), 경북과 경남(3.40)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는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4, 3.47,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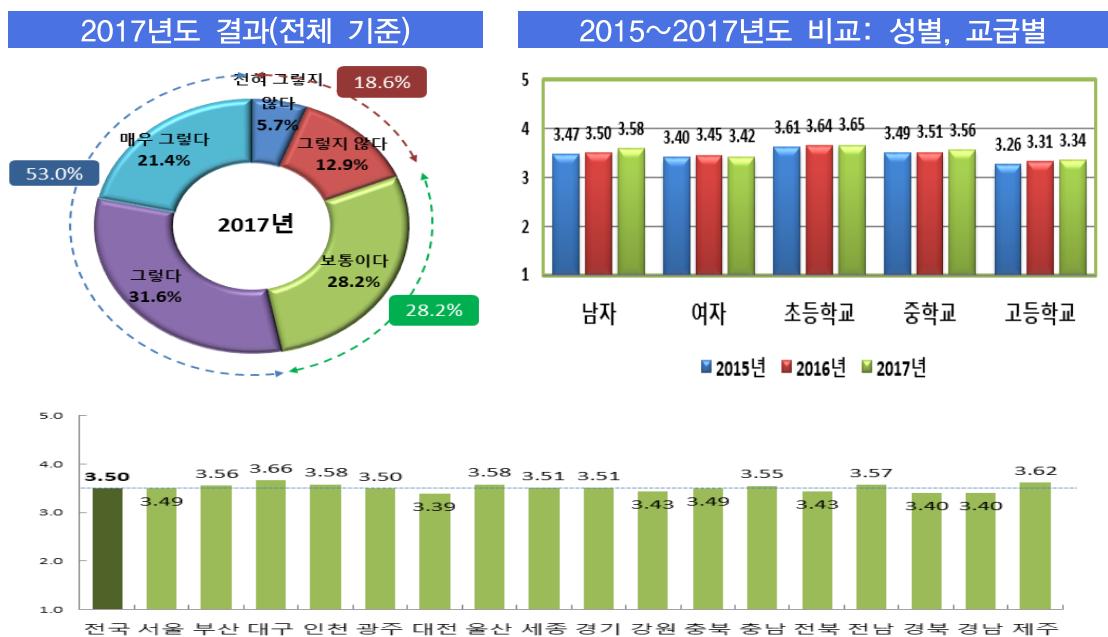


표 III-74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4	3.45	3.58	3.45	3.51	3.34	3.38	3.35		3.43	3.65	3.30	3.51	3.32	3.18	3.44	3.45	3.50
16년	3.47	3.49	3.63	3.48	3.36	3.56	3.57	3.52	3.22	3.39	3.45	3.56	3.51	3.42	3.47	3.48	3.55	3.37
17년	3.50	3.49	3.56	3.66	3.58	3.50	3.39	3.58	3.51	3.51	3.43	3.49	3.55	3.43	3.57	3.40	3.40	3.62

(7) 활동영역 - ⑤ 놀이친구 접근성

- ▶ 놀이친구 접근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54.5%, 보통 28.0%, 부정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16년에는 초등학교, 17년에는 중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3.6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3.65), 경기(3.62), 인천(3.61) 순이었으며, 전북(3.33), 강원(3.3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놀이친구 접근성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3.53)에 비해 16년(3.48)은 감소했지만 17년(3.54)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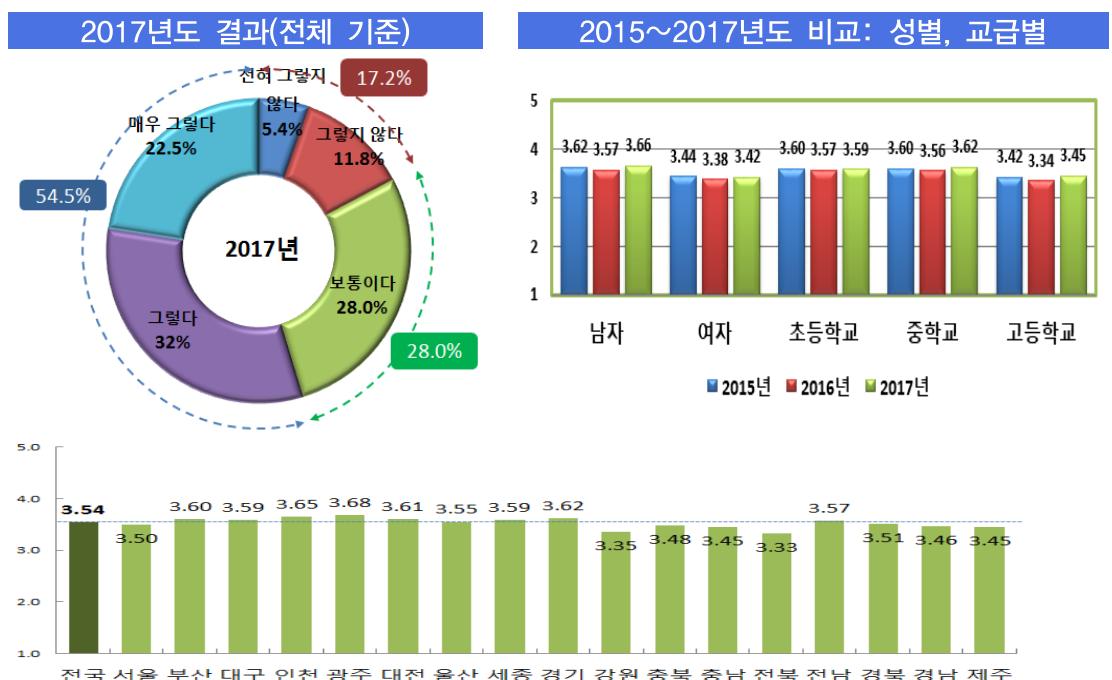


표 III-75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놀이친구 접근성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53	3.60	3.60	3.60	3.68	3.45	3.49	3.54	3.57	3.52	3.36	3.53	3.41	3.34	3.41	3.48	3.35	
16년	3.48	3.46	3.65	3.51	3.50	3.70	3.56	3.73	3.02	3.45	3.39	3.47	3.41	3.37	3.47	3.42	3.50	3.26
17년	3.54	3.50	3.60	3.59	3.65	3.68	3.61	3.55	3.59	3.62	3.35	3.48	3.45	3.33	3.57	3.51	3.46	3.45

(8) 경제영역 - ① 가정경제 만족도

- 가정경제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0~3점)은 69.7%, 보통(4~6점) 25.4%, 부정 응답(7~10점)은 4.7%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8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와 인천(7.82), 대전(7.63), 세종(7.62) 순이었으며, 경북(7.13)과 강원(7.15)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정경제 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32, 7.44,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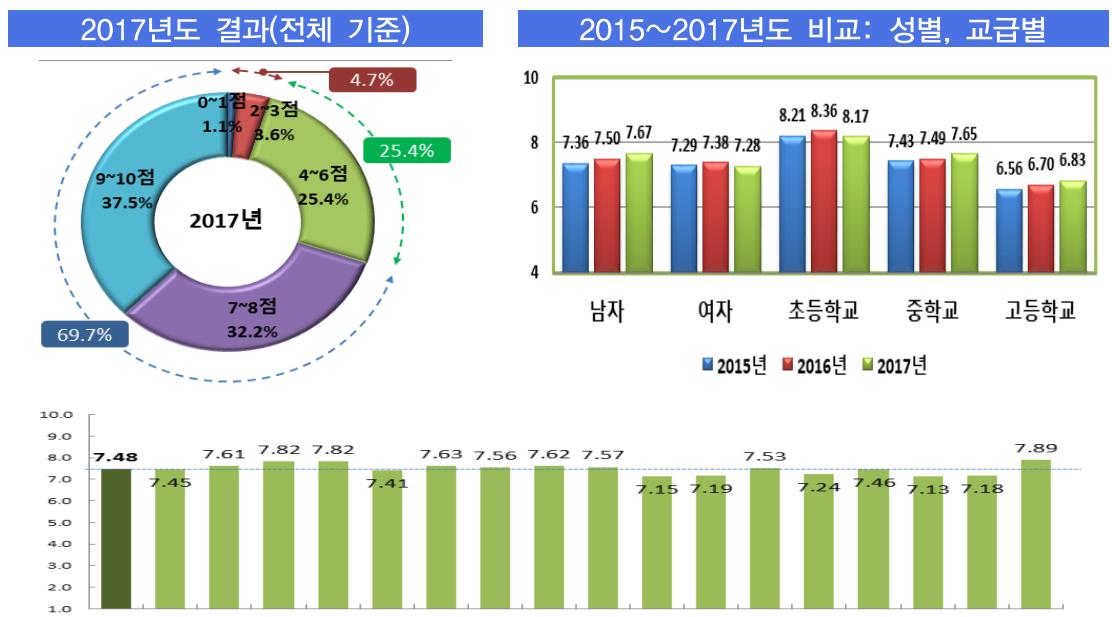


표 III-76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가정경제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7.32	7.41	7.58	7.26	7.53	7.26	7.30	7.38		7.22	7.47	6.95	7.68	7.10	6.82	7.28	7.37	7.57
16년	7.44	7.41	7.48	7.44	7.55	7.90	7.71	7.82	6.76	7.33	7.22	7.58	7.67	7.35	7.37	7.25	7.49	7.37
17년	7.48	7.45	7.61	7.82	7.82	7.41	7.63	7.56	7.62	7.57	7.15	7.19	7.53	7.24	7.46	7.13	7.18	7.89

(9) 환경영역 - ①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0~3점)은 61.0%, 보통(4~6점) 33.2%, 부정 응답(7~10점)은 5.6%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7.4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7.32), 부산과 세종(7.21), 울산(7.16) 순이었으며, 경북(6.57), 전북(6.62)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75, 6.84,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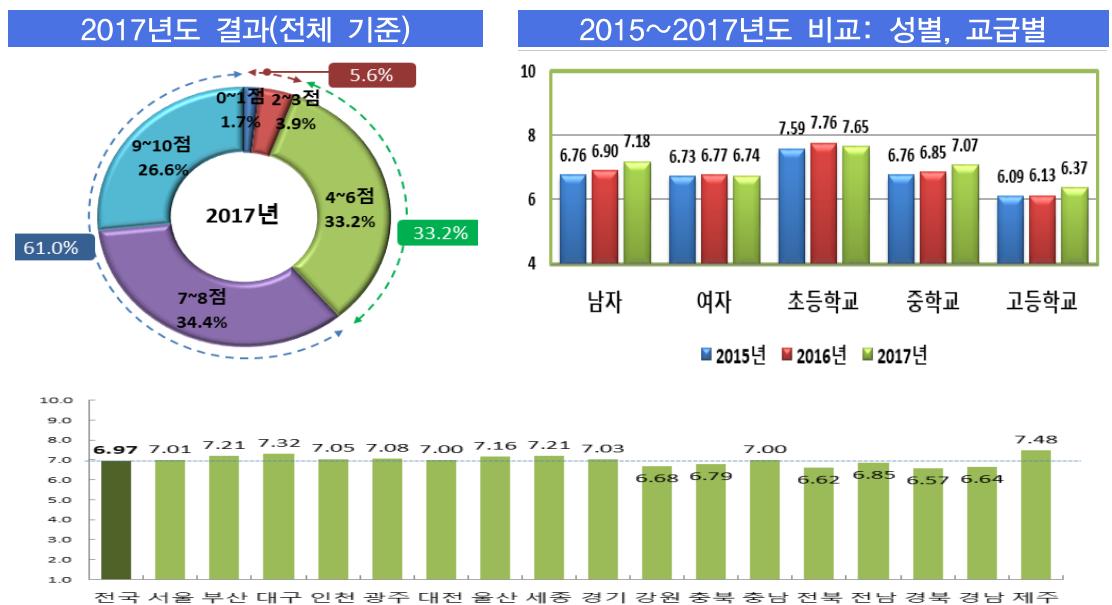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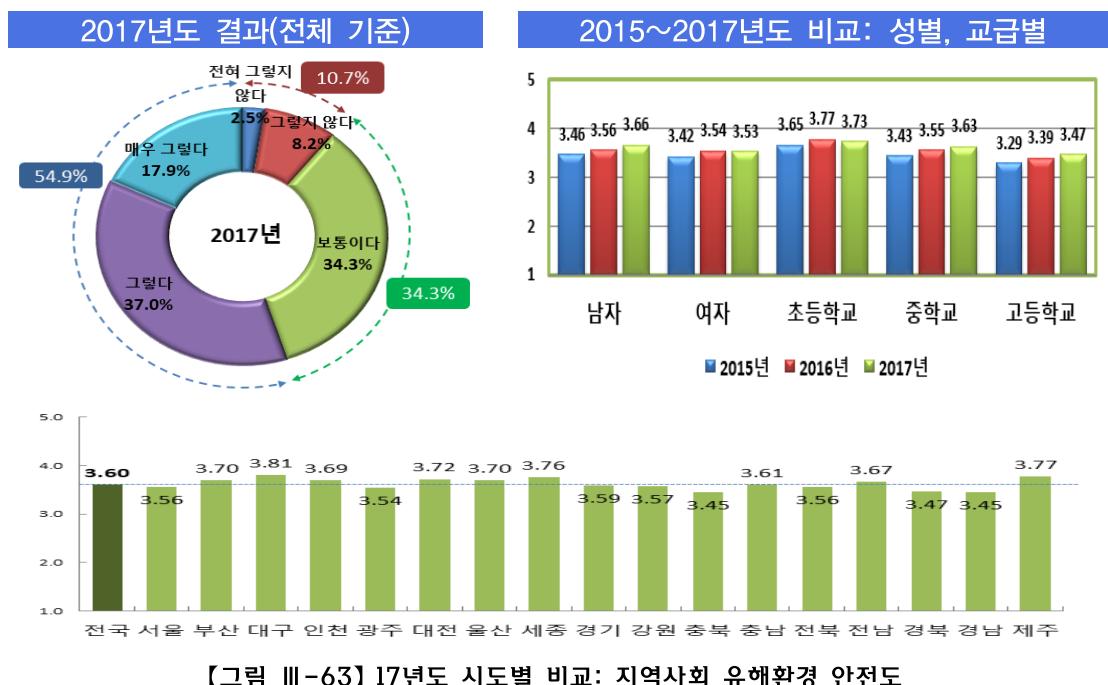


표 III-77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6.75	6.79	7.11	6.87	6.84	6.59	6.90	6.73	6.66	6.67	6.49	6.71	6.49	6.42	6.67	6.85	7.18	
16년	6.84	6.87	7.06	6.93	6.85	7.13	6.93	7.46	6.03	6.67	6.71	6.81	6.99	6.62	6.80	6.68	6.93	7.05
17년	6.97	7.01	7.21	7.32	7.05	7.08	7.00	7.16	7.21	7.03	6.68	6.79	7.00	6.62	6.85	6.57	6.64	7.48

(9) 환경영역 - ②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4.9%, 보통 34.3%, 부정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3.81)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3.77), 세종(3.76), 대전(3.72) 순이었으며, 충북과 경남(3.45), 경북(3.47)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해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44, 3.55, 3.60).

**표 III-78**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3.44	3.43	3.57	3.56	3.43	3.41	3.47	3.49	3.47	3.49	3.35	3.58	3.39	3.43	3.44	3.48	3.51	3.42	3.67
16년	3.55	3.59	3.70	3.55	3.53	3.59	3.65	3.74	3.52	3.49	3.56	3.41	3.58	3.41	3.58	3.55	3.53	3.70	
17년	3.60	3.56	3.70	3.81	3.69	3.54	3.72	3.70	3.76	3.59	3.57	3.45	3.61	3.56	3.67	3.47	3.45	3.77	

(9) 환경영역 - ③ 주택만족도

- 주택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9.1%, 보통 14.3%, 부정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는 15, 16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17년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구(4.3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4.29), 광주(4.28), 인천(4.27) 순이었으며, 강원(4.02), 전북(4.03)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택만족도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4.14)에 비해 16년(4.19)은 크게 증가하였고, 17년도(4.19)에도 동일한 평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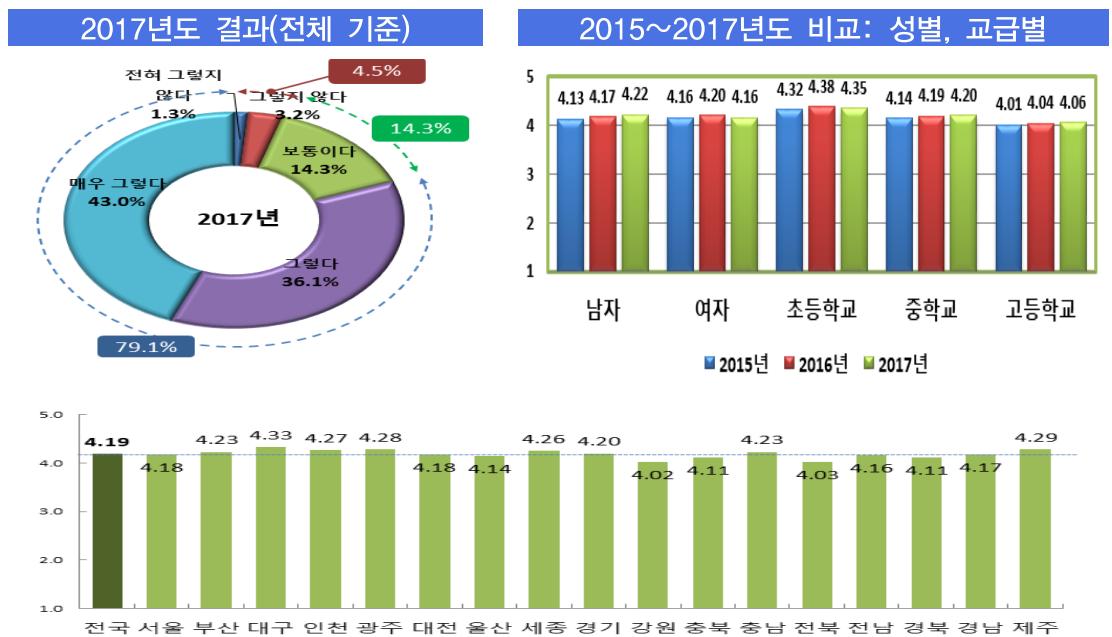


표 III-79 2015~17년도 비교: 시도별 주택만족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14	4.19	4.22	4.16	4.22	4.12	4.14	4.11	4.11	4.16	3.99	4.19	4.08	4.02	4.09	4.13	4.19	
16년	4.19	4.21	4.30	4.16	4.13	4.33	4.29	4.29	3.87	4.13	4.19	4.22	4.23	4.09	4.11	4.14	4.22	4.20
17년	4.19	4.18	4.23	4.33	4.27	4.28	4.18	4.14	4.26	4.20	4.02	4.11	4.23	4.03	4.16	4.11	4.17	4.29

(9) 환경영역 - ④ 주거지 형태

- 주거지 형태에 대한 응답 중 자가 비율은 46.5%, 비 자가는 18.1%, 모름은 35.2%로 나타났다.
 - 성별 비교에서 15, 16년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7년도는 반대로 나타났으며, 3개년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54.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53.8%), 전남(51.7%), 대구(51.5%) 순이었으며, 서울(41.7%), 강원(43.6%)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거지 형태에 대한 3개년 비교에서는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자가 비율이 15년도(46.6%)에 비해 16년도(47.4%)는 증가했지만 17년도(46.5%)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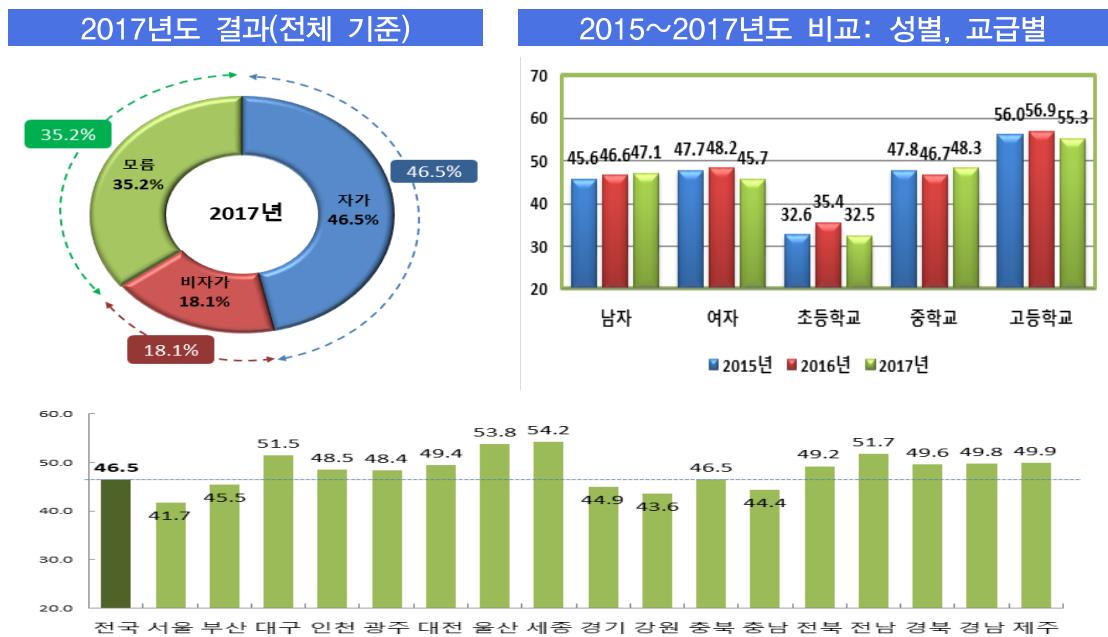


표 III-80 2015~17년도 시도별 비교: 주거지 형태(자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6.6	42.0	49.6	45.9	41.5	43.8	48.0	55.4	44.7	48.5	44.5	52.0	41.7	49.3	54.7	52.6	53.4	
16년	47.4	43.6	52.9	52.7	55.6	49.3	44.3	44.9	40.8	46.7	44.6	54.6	50.0	46.5	37.7	49.6	48.1	52.7
17년	46.5	41.7	45.5	51.5	48.5	48.4	49.4	53.8	54.2	44.9	43.6	46.5	44.4	49.2	51.7	49.6	49.8	49.9

2) 객관적 지표 조사결과

이 절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량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지표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객관적 지표의 경우 총 7개 영역(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계 및 환경 등), 31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3 참조>).

객관적 지표 조사는 주관지표와 달리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항목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지표의 형식과 특성에 따라 기존 통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시한 지표도 있고, 지표 정의서에 나와 있는 산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거나, 원자료를 제공받아 이 연구의 지표 형식에 맞추어 재분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제시 방식은 먼저 각 지표의 정의, 단위, 산식, 대상, 주기 및 구축년도 그리고 지표의 출처에 대한 지표 정의서를 제시하였고, 5개년(혹은 5회)의 조사주기를 기본으로 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조사주기에 따른 변화과정에 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표 산출 방식의 변화, 지표 항목의 변화, 해당 지표의 데이터 인출 당시 17년도 지표 결과의 미 산출 등 지표의 특성에 따라 1년(혹은 1회)부터 2~4년(혹은 2~4회)간의 결과만을 제시한 지표들도 있다.

17개 각 시도별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 출범된 도시이기 때문에 출범 초기 시기에는 일부 지표의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한 연도도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인구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구도심 및 신도심 간 격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표집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17년도 각 객관적 지표에 대한 연도별(혹은 조사 주기별) 비교 분석 뿐 아니라 도시 규모별(시지역/도지역)¹¹⁾ 및 6개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¹²⁾ 현황을 재분석하여 비교 제시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와 권역별 차이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7개 각 시도별 결과에 대한 차이를 그래프와 각 시도별 지도에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1) 도시규모 구분기준(■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권역별 구분기준(■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 제주)

(1) 건강영역

① 건강상태 - 가. 청소년 비만율(BMI)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비만율(BMI)은 12.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3.9%)이 시지역(12.5%)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15.3%), 영남권(13.6%) 순이었으며, 수도권(12.7%)과 충청권(12.5%)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이 15.9%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경북이 14.8%, 충남이 14.4%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세종은 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경기(11.1%), 광주(11.6%)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만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남(5.0%p), 경북(4.8%p) 지역이 가장 높은 비만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전북(1.1%p), 광주(2.7%p), 경기(2.8%p)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¹³⁾

표 III-81 청소년 비만율(BMI)

정의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위	%
산식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연도	1년, 2005~201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76~179.

13)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각 객관적 지표정의서의 정의, 산식, 출처 등 주요 내용은 분석결과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이 연구의 2차년도(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와 3차년도 연구(성윤숙, 홍성효, 2015)를 통해 개발된 내용을 기본 틀로 하였기에 이후 지표에서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음. 다만, 17년도에 변화된 지표의 경우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출처 등에 대해 해당지표에 별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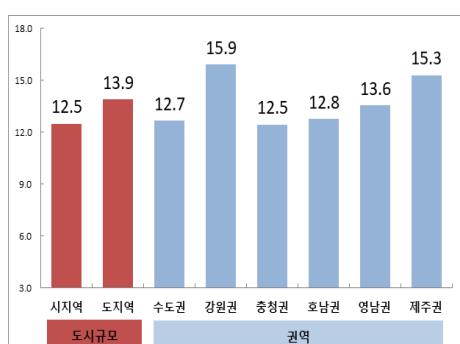
표 III-82 청소년 비만율(BMI)(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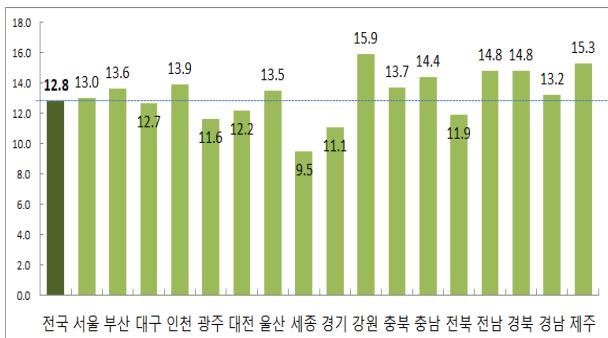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9.2	9.8	10.1	10.9	12.8	3.6
서울	8.8	9.2	9.9	10.7	13.0	4.2
부산	9.4	9.6	10.5	11.5	13.6	4.2
대구	9.3	9.6	10.2	10.4	12.7	3.4
인천	9.3	10.6	11.1	11.5	13.9	4.6
광주	8.9	9.4	9.2	10.1	11.6	2.7
대전	8.3	10.3	9.7	9.9	12.2	3.9
울산	8.8	10.4	10.2	11.1	13.5	4.7
세종				10.6	9.5	
경기	8.3	9.7	9.1	9.6	11.1	2.8
강원	12.9	10.3	11.8	12.4	15.9	3.0
충북	9.1	10.2	9.7	13.3	13.7	4.6
충남	9.8	10.1	11.3	12.1	14.4	4.6
전북	10.8	9.6	10.5	11.3	11.9	1.1
전남	9.8	7.9	9.7	12.2	14.8	5.0
경북	10.0	11.2	11.8	12.6	14.8	4.8
경남	9.1	10.0	10.0	10.9	13.2	4.1
제주	11.4	13.7	13.0	12.9	15.3	3.9



【그림 III-66】 청소년 비만율



**【그림 III-67】 도시규모별, 권역별
BMI(비만율, 2016)**



【그림 III-68】 청소년 비만율(2016)

① 건강상태 – 나. 청소년 자살률

2015년 우리나라 10만 명 당 전체 청소년의 자살자 수는 7.6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8.3명)이 시지역(6.9명)보다 1.4명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8.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8.2명), 수도권(7.6명), 호남권(7.6명) 순이었으며, 영남권(7.3명)과 강원권(7.2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이 가장 높은 11.7명을 나타냈고, 다음 순으로 충북(10.7명), 인천(8.7명), 부산(8.5명), 제주(8.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6.5명), 경남(5.9명), 세종(3.3명)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1년에서 2015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살자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울산의 감소폭(-4명)이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았고, 제주(1.6명), 충북(1.2명), 충남(0.1명)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83 청소년 자살률

정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단위	명(10만 명 당 자살자 수)
산식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인구) ×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 ~ 2015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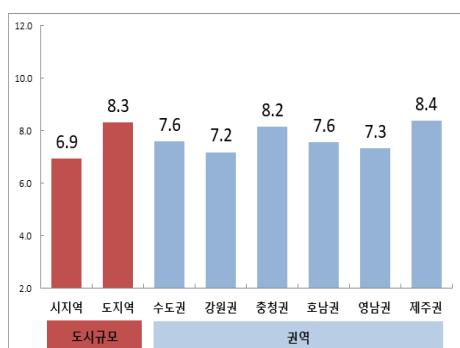
표 III-84 청소년 자살률 (2011~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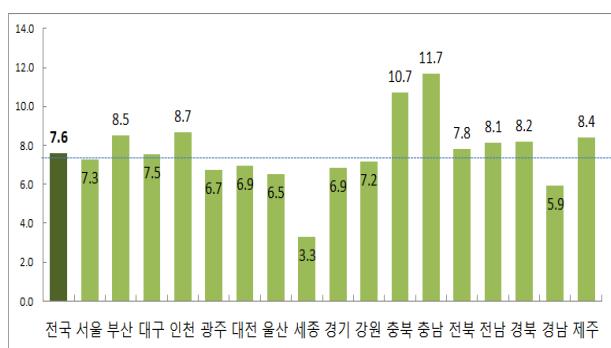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1
전국	9.4	8.4	8.2	7.8	7.6	-1.8
서울	8.4	7.9	9.4	8.6	7.3	-1.2
부산	9.6	10.0	7.2	8.1	8.5	-1.1
대구	9.2	6.4	7.4	7.5	7.5	-1.7
인천	11.1	10.4	6.8	6.3	8.7	-2.4
광주	9.5	10.4	8.4	7.2	6.7	-2.7
대전	10.6	10.7	8.2	8.7	6.9	-3.6
울산	10.6	8.2	6.3	11.5	6.5	-4.0
세종		11.3	5.0	4.3	3.3	
경기	8.9	7.5	7.5	6.9	6.9	-2.1
강원	10.0	9.0	7.3	6.7	7.2	-2.8
충북	9.5	6.9	7.0	6.1	10.7	1.2
충남	11.6	7.8	9.2	10.7	11.7	0.1
전북	10.6	8.2	7.0	7.9	7.8	-2.8
전남	9.6	12.0	13.1	10.0	8.1	-1.4
경북	9.9	9.5	8.8	8.6	8.2	-1.8
경남	9.1	6.1	8.7	6.1	5.9	-3.2
제주	6.8	13.6	9.3	7.6	8.4	1.6



【그림 III-69】 청소년 자살률



**【그림 III-70】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자살률(2015)**



【그림 III-71】 청소년 자살률(2015)

② 건강결정요인 - 가. 신체 활동 실천율

2016년 우리나라 신체 활동 실천율은 13.1%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3.1%)이 시지역(12.5%)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13.0%), 영남권(12.9%), 호남권(12.9%)순이었으며, 충청권(12.7%)과 제주권(11.8%)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북이 15.1%로 가장 높았고, 대구(13.9%), 서울(13.8%), 충남(13.5%), 전북(13.4%)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11.9%), 대전(11.8%), 제주(11.8%), 세종(10.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신체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북이 3.1%p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0.8%p), 대전(-0.6%p), 경남(-0.4%p), 인천(-0.3%p) 등의 지역은 오히려 신체 활동 실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85 신체 활동 실천율¹⁴⁾

정의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30-133.

14) 이전 연구에서는 지표명이 “평균운동 시간”이었으나, 이 지표의 데이터 출처에서는 ‘신체 활동 실천율’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출처의 지표명과 동일한 명칭으로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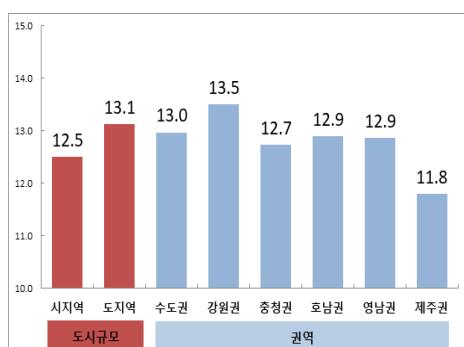
표 III-86 신체 활동 실천율 (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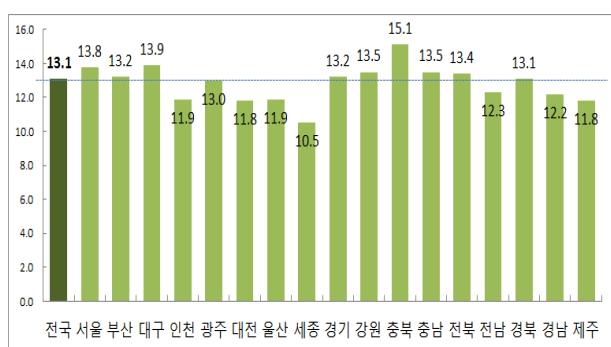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12.0	12.6	13.8	14.2	13.1	1.1
서울	12.5	13.1	14.9	15.3	13.8	1.3
부산	11.6	12.8	14.5	14.1	13.2	1.6
대구	12.5	12.8	14.4	14.9	13.9	1.4
인천	12.2	13.0	14.0	13.7	11.9	-0.3
광주	10.8	12.1	13.9	12.6	13.0	2.2
대전	12.4	14.7	12.2	13.3	11.8	-0.6
울산	12.7	12.7	13.1	13.3	11.9	-0.8
세종				17.6	10.5	
경기	12.1	12.2	14.2	14.4	13.2	1.1
강원	11.6	12.2	14.1	12.8	13.5	1.9
충북	12.0	13.0	12.2	12.8	15.1	3.1
충남	10.7	12.6	12.6	12.7	13.5	2.8
전북	12.6	12.0	12.9	12.4	13.4	0.8
전남	10.6	12.2	12.5	15.6	12.3	1.7
경북	11.1	11.0	11.0	14.0	13.1	2.0
경남	12.6	12.3	14.0	14.9	12.2	-0.4
제주	10.0	14.5	14.5	13.8	11.8	1.8



【그림 III-72】신체 활동 실천율



**【그림 III-73】도시규모별, 권역별
신체 활동 실천율**



【그림 III-74】신체 활동 실천율(2016)

② 건강결정요인 - 나. 평균수면시간

2016년 우리나라 평균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4시간)이 시지역(6.2시간)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6.6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6.4시간), 충청권(6.3시간), 수도권(6.3시간), 호남권(6.3시간)순이었으며, 영남권(6.2시간)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이 6.6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6.5시간), 충북(6.5시간)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6.0시간), 서울과 울산(6.1시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평균수면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인천, 경기지역은 0.1시간, 제주의 경우 0.2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강원, 충북, 전북은 2012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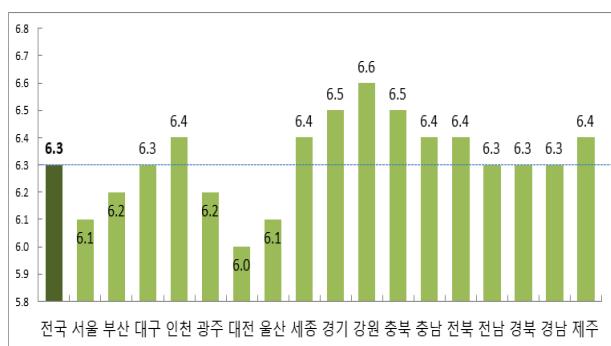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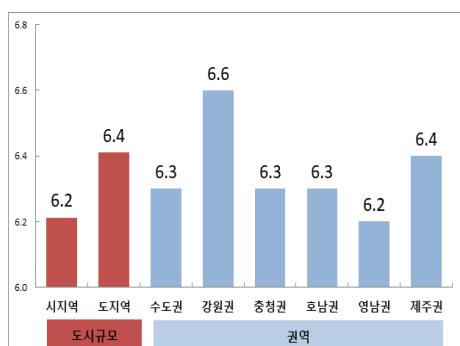
표 III-87 평균수면시간

정의	지난 주 주중(월 ~ 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단위	시간
대상	중 · 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26-229.

표 III-88 평균수면시간 (2012~2016)

(단위: 시간)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6.4	6.4	6.3	6.4	6.3	-0.1
서울	6.2	6.3	6.2	6.1	6.1	-0.1
부산	6.3	6.3	6.4	6.3	6.2	-0.1
대구	6.4	6.4	6.4	6.3	6.3	-0.1
인천	6.3	6.4	6.3	6.5	6.4	0.1
광주	6.2	6.2	6.2	6.3	6.2	0.0
대전	6.2	6.3	6.2	6.1	6.0	-0.2
울산	6.3	6.3	6.3	6.2	6.1	-0.2
세종				6.6	6.4	
경기	6.4	6.4	6.4	6.6	6.5	0.1
강원	6.6	6.7	6.5	6.6	6.6	0.0
충북	6.5	6.5	6.5	6.5	6.5	0.0
충남	6.5	6.5	6.6	6.5	6.4	-0.1
전북	6.4	6.5	6.4	6.5	6.4	0.0
전남	6.5	6.5	6.4	6.4	6.3	-0.2
경북	6.4	6.5	6.4	6.3	6.3	-0.1
경남	6.4	6.4	6.4	6.5	6.3	-0.1
제주	6.2	6.3	6.4	6.6	6.4	0.2



② 건강결정요인 - 다. 청소년 흡연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흡연율은 6.3%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8%)이 시지역(5.9%)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호남권(7.1%), 충청권(6.5%) 순이었으며, 수도권(5.9%)과 제주권(5.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강원이 7.4%로 가장 높았고, 경남(7.2%), 광주(7.1%), 전남과 경북(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5.1%), 제주(5.7%), 인천(5.7%)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낮았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강원(-10.3%p)지역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3.4%p)은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III-89 청소년 흡연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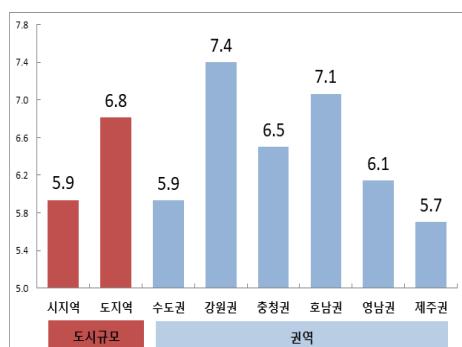
표 III-90 청소년 흡연율(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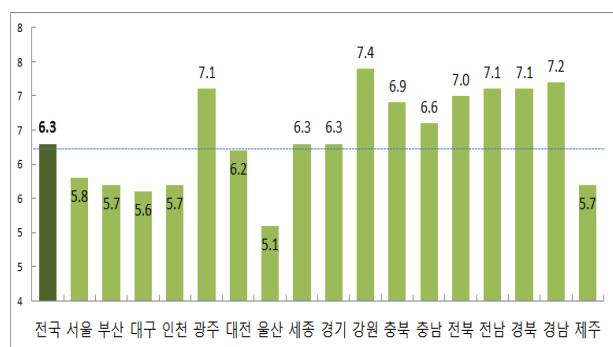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11.4	9.7	9.2	7.8	6.3	-5.1
서울	10.4	8.5	8.7	7.0	5.8	-4.6
부산	9.7	9.2	9.1	7.0	5.7	-4.0
대구	10.3	8.6	7.8	7.4	5.6	-4.7
인천	10.2	9.5	8.9	7.3	5.7	-4.5
광주	12.0	11.0	9.6	10.1	7.1	-4.9
대전	10.8	9.1	8.5	7.0	6.2	-4.6
울산	10.9	11.8	10.2	9.7	5.1	-5.8
세종				6.6	6.3	
경기	11.2	10.0	8.9	8.1	6.3	-4.9
강원	17.7	11.5	8.1	8.3	7.4	-10.3
충북	12.6	10.0	10.8	9.0	6.9	-5.7
충남	13.4	11.7	10.4	8.1	6.6	-6.8
전북	13.3	11.4	9.9	8.7	7.0	-6.3
전남	13.0	8.8	11.0	6.9	7.1	-5.9
경북	10.5	10.2	11.3	7.5	7.1	-3.4
경남	11.6	9.7	9.4	7.0	7.2	-4.4
제주	13.0	10.8	8.6	8.6	5.7	-7.3



【그림 III-78】청소년 흡연율



【그림 III-79】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흡연율(2016)



【그림 III-80】청소년 흡연율(2016)

② 건강결정요인 - 라. 청소년 음주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15.0%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5.8%)이 시지역(13.3%)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15.1%), 호남권(15.1%) 순이었으며, 수도권(13.9%)과 제주권(9.5%)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이 17.7%로 가장 높았고, 충북(17.1%), 경북(17.0%), 강원(16.9%), 경남(16.9%)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세종(12.5%), 인천(12.6%) 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주 지역(-9.2%p)이 2012년에 비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지역(-1.1%p)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 지표정의서

표 Ⅲ-91 청소년 음주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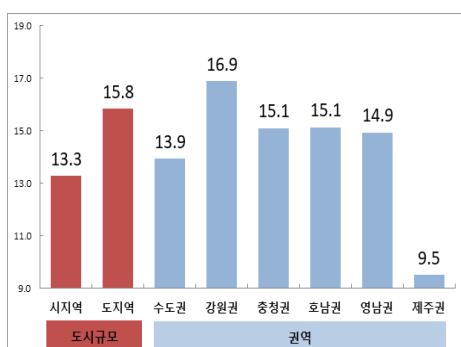
표 III-92 청소년 음주율(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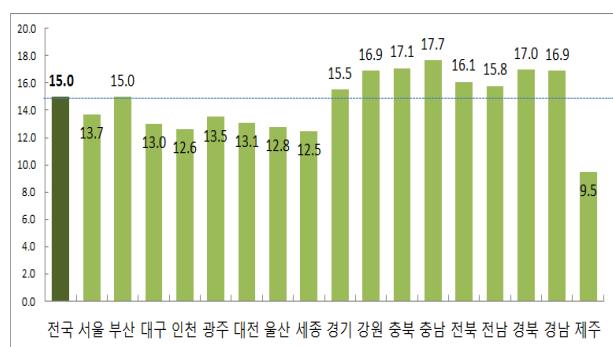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19.4	16.3	16.7	16.7	15.0	-4.4
서울	18.3	15.1	16.7	14.9	13.7	-4.6
부산	18.3	16.1	16.9	17.6	15.0	-3.3
대구	17.9	14.6	14.7	16.7	13.0	-4.9
인천	17.7	14.6	15.2	15.0	12.6	-5.1
광주	16.2	13.5	14.8	16.7	13.5	-2.7
대전	19.4	16.0	15.8	15.4	13.1	-6.3
울산	19.2	16.7	16.4	18.3	12.8	-6.4
세종				17.3	12.5	
경기	20.3	17.0	16.7	17.3	15.5	-4.8
강원	23.7	17.8	14.4	16.2	16.9	-6.8
충북	22.1	16.2	18.6	19.6	17.1	-5.0
충남	22.1	18.9	20.8	19.4	17.7	-4.4
전북	19.1	16.8	17.9	18.5	16.1	-3.0
전남	20.6	16.4	19.4	14.4	15.8	-4.8
경북	18.1	18.6	16.3	17.3	17.0	-1.1
경남	20.3	16.6	17.6	17.5	16.9	-3.4
제주	18.7	14.4	14.7	12.7	9.5	-9.2



【그림 III-81】 청소년 음주율



**【그림 III-82】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음주율(2016)**



【그림 III-83】 청소년 음주율(2016)

② 건강결정요인 - 마. 스마트폰 과의존율¹⁵⁾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30.6%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28.6%)이 도지역(27.0%)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31.2%), 영남권(27.2%) 순이었으며, 강원권(22.6%)과 제주권(20.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35.9%), 세종(35.1%), 경기(34.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14.1%), 제주(20.7%), 전남(20.8%), 충북(21.7%)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17개 시도별 결과를 보면, 대구가 가장 높은 6.9%p를 나타냈고 경기(5.5%), 서울(5.0%)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과 전북(0.4%), 울산(0.5%)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III-93 스마트폰 과의존율¹⁶⁾

정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단위	%
대상	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본 지표의 분석 대상 10~19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4~2016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원자료.

15) 2015년도까지 진행되어온 “인터넷중독 실태조사”가 2016년부터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로 조사명이 변경되었고, 조사척도는 기존 인터넷 과의존 척도(k-척도)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하였음.

16) 2016년 지표부터 조사 척도의 변경과 최근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 ‘인터넷 중독률’ 지표를 ‘스마트폰 과의존률’ 지표로 변경하여 분석·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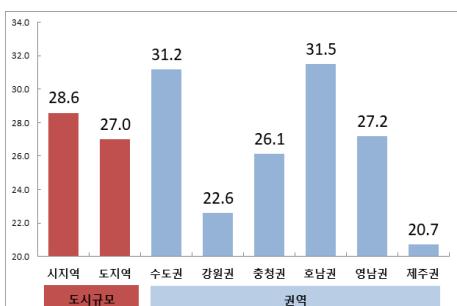
표 III-94 스마트폰 과의존율(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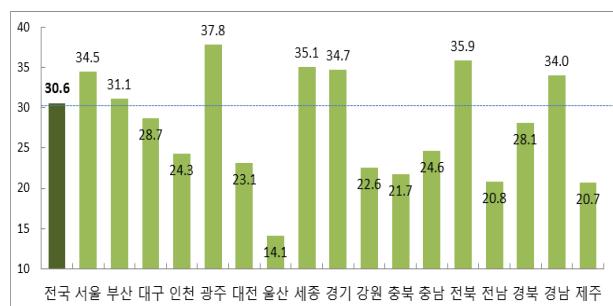
시도 전국	2016			
	일반 사용자군	과 의존율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과 의존율
전국	69.4	27.1	3.5	30.6
서울	65.5	29.5	5.0	34.5
부산	68.9	29.7	1.3	31.1
대구	71.3	21.8	6.9	28.7
인천	75.7	21.0	3.3	24.3
광주	62.2	36.8	1.0	37.8
대전	76.9	21.0	2.1	23.1
울산	85.9	13.6	0.5	14.1
세종	64.9	33.8	1.3	35.1
경기	65.3	29.2	5.5	34.7
강원	77.4	22.2	0.4	22.6
충북	78.3	19.8	2.0	21.7
충남	75.4	23.6	1.0	24.6
전북	64.1	35.4	0.4	35.9
전남	79.2	19.2	1.6	20.8
경북	71.9	25.3	2.8	28.1
경남	66.0	31.7	2.3	34.0
제주	79.3	20.7	—	20.7



【그림 III-84】 스마트폰 과의존율(고위험군)



【그림 III-85】 도시규모별, 권역별 스마트폰 과의존율(2016)



【그림 III-86】 스마트폰 과의존율(2016)

(2) 교육영역

① 교육기회 - 가. 학업중단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율은 0.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과 시지역이 0.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0.7%), 강원권(0.7%) 순이었으며, 호남권(0.6%), 영남권(0.6%), 제주권(0.5%)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1.1%로 가장 높았고, 경기(0.9%), 대전(0.8%), 부산(0.8%)등이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0.5%)와 울산(0.5%)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 대전, 울산이 -0.4%p로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 감소율을 나타냈고 모든 지역에서 -0.2%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95 학업중단율

정의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사망, 자살 제외)
단위	%
산식	$\text{학업중단율} = (\text{학업중단 학생 수}/\text{학생 수}) \times 100$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6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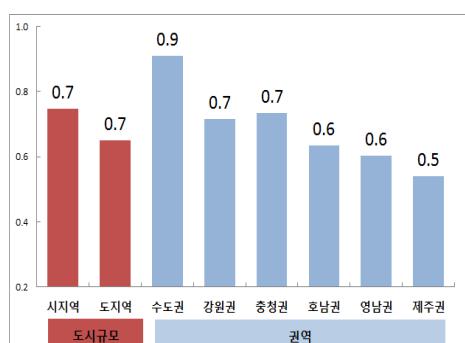
표 III-96 학업중단율(2012~20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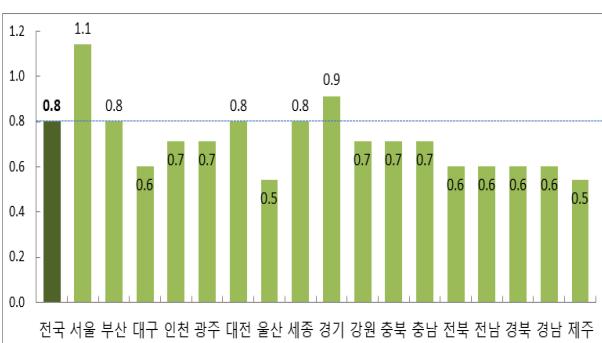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1.1	1.0	0.9	0.9	0.8	-0.3
서울	1.5	1.4	1.3	1.2	1.1	-0.4
부산	1.0	1.0	0.9	0.8	0.8	-0.2
대구	0.8	0.8	0.7	0.6	0.6	-0.2
인천	1.0	0.9	0.8	0.7	0.7	-0.3
광주	0.9	0.8	0.8	0.7	0.7	-0.2
대전	1.2	1.1	1.1	1.0	0.8	-0.4
울산	0.9	0.8	0.8	0.6	0.5	-0.4
세종			0.9	0.7	0.8	
경기	1.2	1.2	1.1	1.0	0.9	-0.3
강원	1.0	1.0	0.8	0.8	0.7	-0.3
충북	0.9	0.8	0.8	0.7	0.7	-0.2
충남	0.9	0.9	0.8	0.7	0.7	-0.2
전북	0.9	0.8	0.7	0.7	0.6	-0.3
전남	0.9	0.8	0.7	0.7	0.6	-0.3
경북	0.8	0.7	0.7	0.6	0.6	-0.2
경남	0.8	0.7	0.7	0.6	0.6	-0.2
제주	0.7	0.7	0.7	0.6	0.5	-0.2



【그림 III-87】 학업중단율



【그림 III-88】 도시규모, 권역별 학업중단율(2016)



【그림 III-89】 학업중단율(2016)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가.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6년 우리나라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평균 22.4명, 중학교는 평균 27.4명, 고등학교는 평균 29.3명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25.0명)와 중학교(29.7명)에서 경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고등학교에서는 광주가(33.0명) 가장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강원이 17.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세종이 각각 22.5명, 23.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초, 중, 고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대전이 6.3명으로 가장 많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대구(9.8명), 고등학교에서는 경기(6.1명)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97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정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단위	명
산식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학급 수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65~2016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표 III-9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2010~2016)¹⁷⁾

(단위: 명)

시도	2010			2012			2014			2016			2016~2010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국	26.6	33.8	33.7	24.3	32.4	32.5	22.8	30.5	30.9	22.4	27.4	29.3	-4.3	-6.4	-4.4
서울	27.8	33.9	34.4	25.5	32.0	32.8	24.3	30.2	30.9	23.4	26.6	29.7	-4.4	-7.3	-4.7
부산	25.7	33.1	33.0	23.7	31.7	31.1	22.0	29.8	28.9	22.0	26.9	27.4	-3.7	-6.2	-5.7
대구	27.6	36.2	35.2	24.6	34.1	34.2	22.3	31.2	32.1	22.6	26.4	30.2	-5.0	-9.8	-5.0
인천	26.5	37.5	33.7	24.5	34.6	31.6	23.2	32.5	30.1	23.0	28.7	28.4	-3.5	-8.8	-5.3
광주	28.0	36.9	36.9	25.2	34.4	35.6	23.4	32.4	34.7	22.4	27.8	33.0	-5.6	-9.1	-3.9
대전	28.0	34.6	34.5	24.8	32.8	34.0	23.1	31.4	32.7	21.7	28.6	30.8	-6.3	-5.9	-3.7
울산	27.5	34.0	36.3	24.9	31.8	34.8	22.8	29.8	32.6	22.8	27.1	30.6	-4.7	-6.9	-5.8
세종							20.0	23.1	25.0	21.6	22.5	23.3			
경기	29.5	35.9	36.1	27.0	34.6	34.3	25.2	32.1	32.0	25.0	29.7	30.1	-4.5	-6.2	-6.1
강원	22.5	30.8	29.9	20.3	29.9	29.5	18.6	28.3	29.4	17.9	24.8	28.1	-4.5	-6.0	-1.8
충북	25.5	31.8	33.2	22.3	30.6	32.6	20.8	29.0	31.5	19.7	25.9	29.7	-5.8	-5.9	-3.6
충남	23.8	31.2	31.2	21.7	30.8	31.3	20.6	29.3	30.6	20.4	26.9	29.4	-3.4	-4.4	-1.8
전북	23.1	31.1	30.3	21.3	30.4	30.1	19.7	29.7	29.3	19.3	27.4	28.2	-3.8	-3.7	-2.1
전남	21.6	30.0	28.6	19.8	29.5	28.5	18.8	27.9	27.7	18.6	24.8	26.6	-3.0	-5.1	-2.0
경북	23.3	30.0	30.4	21.8	29.1	29.6	20.7	27.8	28.5	20.5	24.0	27.0	-2.8	-6.1	-3.3
경남	25.7	32.2	32.7	23.3	31.1	31.8	21.7	30.1	30.3	21.2	27.9	29.2	-4.5	-4.3	-3.5
제주	26.3	35.5	35.0	24.0	33.7	34.8	22.1	31.9	33.3	22.0	28.4	32.2	-4.3	-7.1	-2.7



【그림 III-90】 전국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급당 학생 수(2010~2016)

17)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지표는 도시규모별·권역별 학생 수 비교를 위해 지도 및 2016년 초·중·고 지표는 생략함.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나. 학업 성취도

2016년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 이상 비율은 전체 81.3%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3.5%)이 도지역(79.3%)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영남권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84.2%), 충청권(81.0%) 순이었으며, 호남권(79.1%)과 강원권(75.4%)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이 89.1%로 가장 높았고, 대구(88.7%), 부산(85.3%), 대전(85.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77.2%), 강원(75.4%)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업성취도는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울산(4.2%p)지역의 학업성취도 증가폭이 가장 커졌고, 다음으로 대구 4.1%p, 강원이 3.2%p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의 경우 1.1%p만이 증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 지표정의서

표 III-99 학업성취도¹⁸⁾

정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이상 비율의 평균 결과
단위	%
대상	중3, 고2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교육부(2016)

18) 2015년에 성취수준 재설정으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가항목이 변경되어 2015년과 2016년의 2개년 자료만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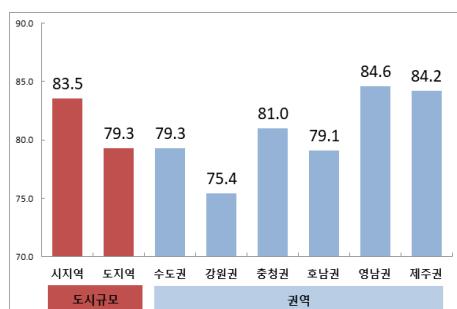
표 III-100 학업성취도(2015~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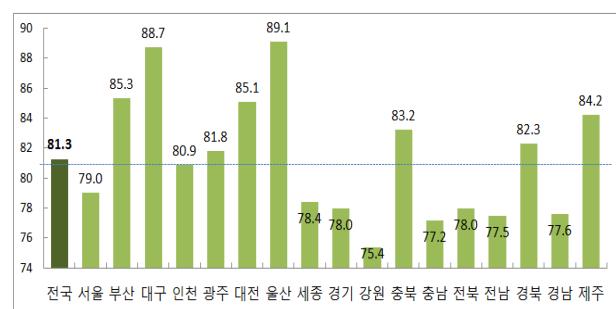
시도	2015 ¹⁹⁾	2016	2016–2015
전국	78.6	81.3	2.7
서울	76.5	79.0	2.5
부산	82.4	85.3	2.9
대구	84.6	88.7	4.1
인천	78.5	80.9	2.4
광주	79.3	81.8	2.5
대전	82.4	85.1	2.7
울산	84.9	89.1	4.2
세종	76.9	78.4	1.5
경기	74.8	78.0	3.2
강원	72.0	75.4	3.4
충북	82.1	83.2	1.1
충남	75.0	77.2	2.2
전북	75.3	78.0	2.7
전남	74.3	77.5	3.2
경북	80.4	82.3	1.9
경남	74.9	77.6	2.7
제주	81.1	84.2	3.1



【그림 III-91】 학업성취도



【그림 III-92】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성취도(2016)



【그림 III-93】 학업성취도(2016)

19) 2015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 재설정으로 인해 2015년 자료부터 보고서에 작성함.

② 교육의 조건과 과정 - 다. 사교육비 지출액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5.6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25.8만원)이 도지역(20.2만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28.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23.2만원), 제주권(22.6만원) 순이었으며, 호남권(19.5만원)과 강원권(18.4만원)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3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7.9만원), 대구(26.5만원), 대전(25.7만원)등의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16.2만원), 충남(17.7만원), 강원(18.4만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4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를 나타냈고, 경기(3.0만원)와 인천(2.9만원)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1만원), 경남(-0.3만원), 광주(-0.3만원), 경북(-0.2만원)은 사교육비 지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01 사교육비 지출액

정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만원
대상	초·중·고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9~2016
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l3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표 III-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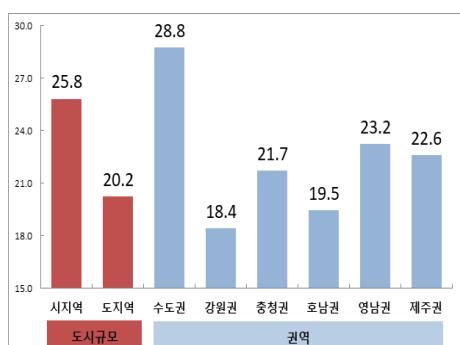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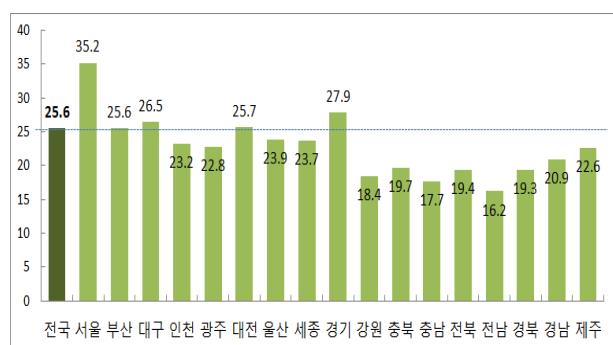
사교육비 지출액(2012~2016)

(단위: 만원)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23.6	23.9	24.2	24.4	25.6	2.0
서울	31.2	32.8	33.5	33.8	35.2	4.0
부산	23.0	22.9	22.7	23.4	25.6	2.6
대구	24.8	24.2	24.2	24.4	26.5	1.7
인천	20.3	20.8	21.1	21.3	23.2	2.9
광주	23.1	23.9	23.1	22.8	22.8	-0.3
대전	24.3	25.9	25.7	25.4	25.7	1.4
울산	22.4	22.4	22.2	21.9	23.9	1.5
세종			18.6	19.6	23.7	
경기	24.9	25.3	26.0	26.5	27.9	3.0
강원	18.2	17.2	16.7	17.1	18.4	0.2
충북	17.7	18.8	18.8	19.0	19.7	2.0
충남	17.7	17.4	18.1	18.0	17.7	0.0
전북	17.9	17.5	18.3	18.6	19.4	1.5
전남	17.2	16.8	16.4	16.5	16.2	-1.0
경북	19.5	18.7	19.1	19.0	19.3	-0.2
경남	21.2	20.8	20.3	20.4	20.9	-0.3
제주	20.3	19.6	19.9	20.1	22.6	2.3



【그림 III-94】 사교육비 지출액

【그림 III-95】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교육비 지출액(2016)

【그림 III-96】 사교육비 지출액(2016)

(3) 안전영역

① 사고 - 가.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은 2,206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242명)이 시지역(2,127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2,77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2,459명), 호남권(2,300명) 순이었으며, 충청권(2139명)과 수도권(1,928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2,802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2,795명), 강원(2,776명), 충남(2,621명)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서울(1,821명), 경남(1,737명), 세종(1,575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교통사고 사상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세종(1,004명)에서 가장 높은 사상자 수 증가를 나타냈고, 대구(488명), 제주(342명)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268명), 대전(-61명), 충남(-18명)은 교통사고 사상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정의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²⁰⁾
단위	명(10만 명 당 사상자 수)
산식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인구) ×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7~2016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연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7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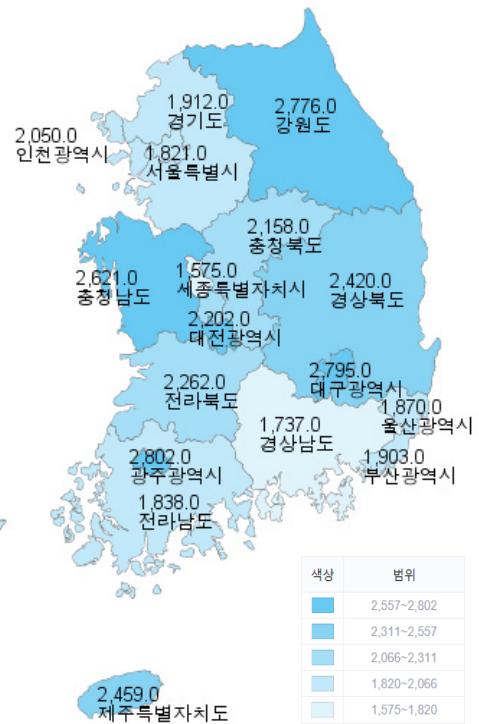
20) 지역 미상인 부상자수 6,261명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계산 시 포함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표 III-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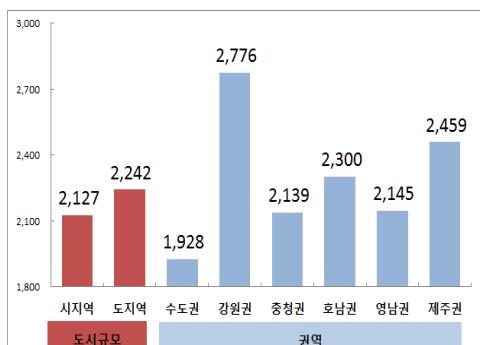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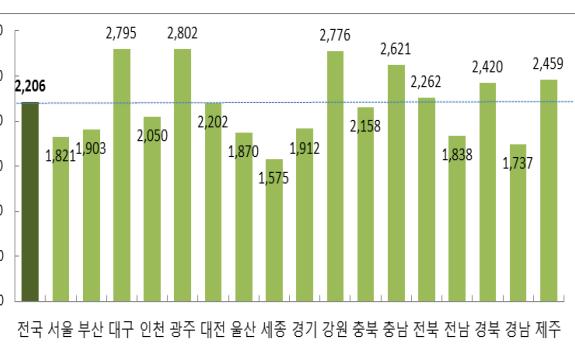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2~2016)

(단위: 명)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2,075	2,026	2,118	2,178	2,206	131
서울	1,711	1,619	1,733	1,749	1,821	110
부산	1,672	1,668	1,757	1,850	1,903	231
대구	2,307	2,264	2,512	2,634	2,795	488
인천	2,029	1,893	1,945	1,954	2,050	21
광주	2,514	2,616	2,582	2,774	2,802	288
대전	2,263	2,212	2,258	2,145	2,202	-61
울산	1,806	1,813	1,843	1,925	1,870	64
세종	571	586	827	1,157	1,575	1,004
경기	1,829	1,708	1,811	1,874	1,912	83
강원	2,695	2,634	2,694	2,686	2,776	81
충북	2,426	2,316	2,350	2,172	2,158	-268
충남	2,639	2,575	2,670	2,637	2,621	-18
전북	2,230	2,210	2,306	2,219	2,262	32
전남	1,821	1,805	1,866	1,901	1,838	17
경북	2,229	2,327	2,472	2,483	2,420	191
경남	1,700	1,660	1,794	1,801	1,737	37
제주	2,117	2,015	2,329	2,502	2,459	342



【그림 III-97】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그림 III-9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6)

【그림 III-99】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6)

① 사고 - 나.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5년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7.6명)이 시지역(5.4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1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호남권(7.3명), 영남권(6.8명) 순이었으며, 충청권(5.9명)과 수도권(4.6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1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8.7명), 충북(8.6명), 대전(7.9명)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세종(0.0명), 서울(3.8명), 인천(4.6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이 2011년 대비 2015년 결과에서 -6.2명으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5.9명)과 강원(-5.6명)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망자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3.2명), 대구(0.9명), 부산(0.7명)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반대로 증가하였다.

■ 지표정의서

표 III-105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정의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 ²¹⁾
단위	명(10만 명 당 사망자 수)
산식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인구) × 100,000
대상	10~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5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2016).사망원인통계 : 시도/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2000~)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2015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에서 2017년 7월 6일 인출.

21) 자살 및 타살은 제외

표 III-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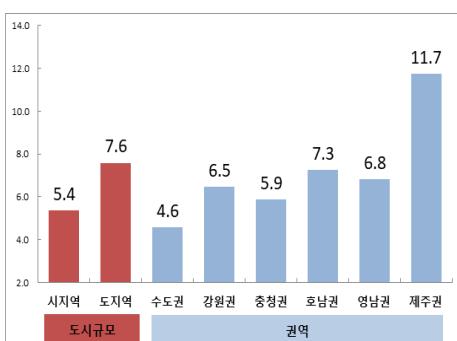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1~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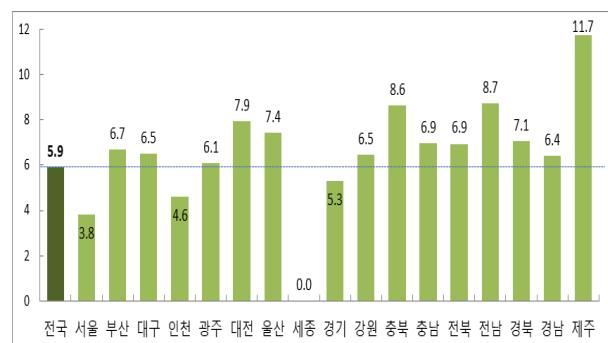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1
전국	8.2	7.3	6.6	7.1	5.9	-2.3
서울	6.0	4.6	4.0	4.8	3.8	-2.2
부산	6.0	7.8	6.3	4.9	6.7	0.7
대구	5.6	6.8	5.4	4.7	6.5	0.9
인천	4.7	6.2	5.2	7.2	4.6	-0.1
광주	8.2	8.0	6.2	6.3	6.1	-2.2
대전	9.6	7.2	4.4	5.8	7.9	-1.7
울산	9.4	6.6	10.8	9.4	7.4	-1.9
세종		11.3	5.0	8.6	0.0	
경기	7.2	7.1	7.1	8.9	5.3	-1.9
강원	12.0	13.1	9.8	8.8	6.5	-5.6
충북	12.7	9.9	9.0	8.1	8.6	-4.1
충남	12.9	10.0	10.1	5.2	6.9	-5.9
전북	9.2	8.0	7.5	9.1	6.9	-2.3
전남	14.9	8.0	7.0	8.6	8.7	-6.2
경북	12.0	9.5	9.7	7.8	7.1	-4.9
경남	10.1	8.8	6.4	6.9	6.4	-3.7
제주	8.5	11.9	11.0	10.9	11.7	3.2



【그림 III-100】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그림 III-101】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5)



【그림 III-102】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2015)

② 범죄 - 가. 청소년 범죄 피해율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3.2%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3.6%)이 시지역(2.7%)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3.6%), 수도권(3.2%) 순이었으며, 강원권(2.7%)과 충청권(2.1%)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이 6.9%로 가장 높았고, 서울(6.0%), 부산(5.7%), 전북(5.1%), 전남(4.8%)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0%), 충북(1.0%), 인천(1.6%), 광주(1.7%), 대전(1.7%)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07 청소년 범죄 피해율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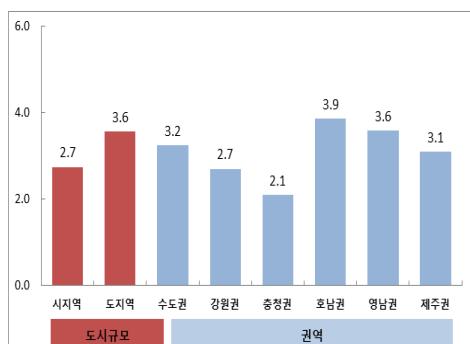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절도, 사기, 손괴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일반가구 및 14세 이상 가구원(본 지표의 분석 대상 14~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4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22) 범죄피해조사의 자료구축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2년도에 범죄피해유형이 대폭 변경되었고, 2014년도에도 이전 조사와 일부 다르게 분류·조사되어 본 지표에서는 2014년 조사결과만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조사 원자료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16개 시도별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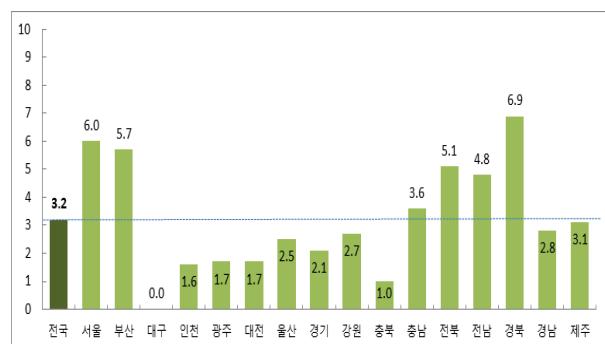
표 III-108 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단위: %)

시도	2014
전국	3.2
서울	6.0
부산	5.7
대구	0.0
인천	1.6
광주	1.7
대전	1.7
울산	2.5
경기	2.1
강원	2.7
충북	1.0
충남	3.6
전북	5.1
전남	4.8
경북	6.9
경남	2.8
제주	3.1

【그림 III-103】청소년 범죄 피해율²³⁾

【그림 III-104】도시규모, 권역별 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그림 III-105】청소년 범죄 피해율(2014)

23)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함.

② 범죄 - 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5년도 우리나라 전국 아동학대 피해 경험 수는 129.3건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91.4건)이 시지역(106.0건)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214.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202.9건), 호남권(200.4건) 순이었으며, 영남권(126.8건)과 수도권(94.6건)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이 268.3건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235.4건), 충북(227.5건)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75.9건), 대구(79.9건), 인천(84.5건)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북에서 170건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153.5건)과 강원(111.7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서울(29.1건)과 인천(41.8건)은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의 증가율이 낮았다.

■ 지표정의서

표 III-10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 ²⁴⁾
단위	10만 명 당 건수
산식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인구) × 100,000
대상	18세미만 아동·청소년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5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4월 13일 인출.

24) 연인구는 年央인 7.1일의 인구를 의미하며 캘린더의 7.1일 인구가 아닌 연초(1.1일)와 연말(12.31) 인구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여 계산된 인구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반올림 없이 그대로 사용(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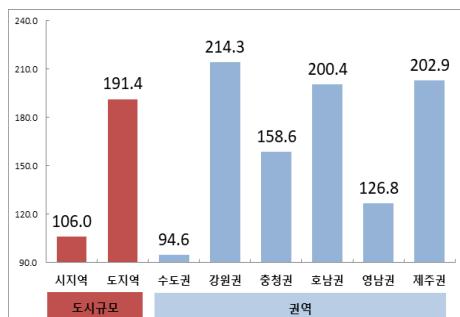
표 III-110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1~2015)²⁵⁾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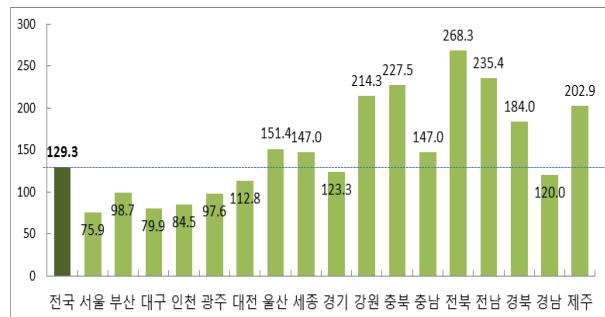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1
전국	60.4	65.4	71.2	107.9	129.3	68.9
서울	46.8	41.6	48.8	59.2	75.9	29.1
부산	48.1	59.3	52.1	71.6	98.7	50.6
대구	27.3	37.2	40.9	80.5	79.9	52.6
인천	42.7	60.1	62.3	92.6	84.5	41.8
광주	39.7	30.4	36.9	52.9	97.5	57.9
대전	51.7	46.2	66.4	94.0	112.8	61.1
울산	84.5	60.2	62.2	151.2	151.4	66.9
세종					147.0	
경기	55.1	58.8	60.6	101.9	123.3	68.2
강원	102.6	97.1	85.9	136.8	214.3	111.7
충북	129.6	141.9	128.7	155.8	227.5	97.9
충남	74.0	84.1	88.7	125.7	147.0	73.0
전북	98.3	109.9	181.5	272.4	268.3	170.0
전남	81.9	100.1	108.5	193.3	235.4	153.5
경북	92.7	100.3	101.0	135.7	184.0	91.3
경남	47.4	76.1	88.4	118.2	120.0	72.6
제주	119.9	114.6	109.6	232.5	202.9	83.0



【그림 III-106】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그림 III-107】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5)



【그림 III-10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5)

25) 세종시는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이여서 충남에 포함하여 산출함.

② 범죄 - 다. 학교폭력 발생률

2016년도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8.6%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9.2%)이 시지역(7.8%)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강원권이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9.2%), 호남권(8.9%) 순이었으며, 영남권(7.8%)과 수도권(7.8%)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충남이 13.0%로 가장 높았고, 강원(10.5%), 전북(9.5%), 서울(9.2%), 경남(8.9%)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5.4%), 부산(6.2%), 충북(7.1%), 경북(7.9%), 울산(7.9%)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11 학교폭력 발생률²⁶⁾

정의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욕설, 폭행, 왕따, 괴롭힘 등을 당한 학생의 비율
단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12년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6) 학교폭력 발생률은 2014년 지표 개발 당시 활용하였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16년부터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와 통합되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조사명과 내용이 일부 개편되었음)를 활용하였음. 그러나 조사 개편과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항목의 추가 및 내용의 변경으로 본 지표에서는 2016년 데이터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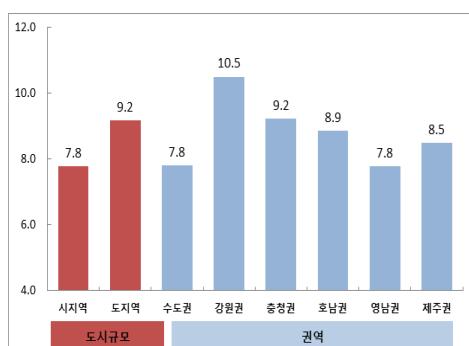
표 III-112 학교폭력 발생률(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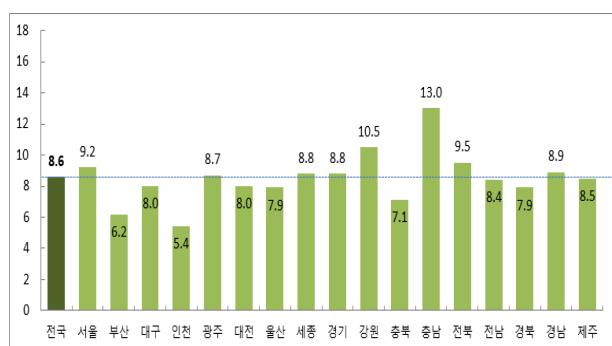
시도	2016
전국	8.6
서울	9.2
부산	6.2
대구	8.0
인천	5.4
광주	8.7
대전	8.0
울산	7.9
세종	8.8
경기	8.8
강원	10.5
충북	7.1
충남	13.0
전북	9.5
전남	8.4
경북	7.9
경남	8.9
제주	8.5



【그림 III-109】 학교폭력 발생률



【그림 III-110】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폭력 발생률(2016)



【그림 III-111】 학교폭력 발생률(2016)

(4) 참여영역

① 사회참여 - 가. 자원봉사 참여율

2015년도 우리나라 전국 자원봉사 참여율은 18.2%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0.4%)이 시지역(17.8%)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21.2%), 호남권(20.4%) 순이었으며, 수도권(17.0%)과 영남권(17.2%)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24.9%로 가장 높았고, 전남(24.4%), 강원(21.2%), 충북(21.0%)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15.5%), 인천(15.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경북이 -8.3%p로 나타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7.1%p)과 광주(-6.0%p)도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2.7%p)와 전남(2.0%p) 등은 오히려 수치가 증가하였다.

■ 지표정의서

표 III-113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²⁷⁾
단위	%
대상	13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5
출처	통계청(2015). 2015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l3 에서 2017년 5월 4일 인출.

27) 설문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해주십시오"로 질문되었고, 응답 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자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 예방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 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평균 시간으로 조사되었음(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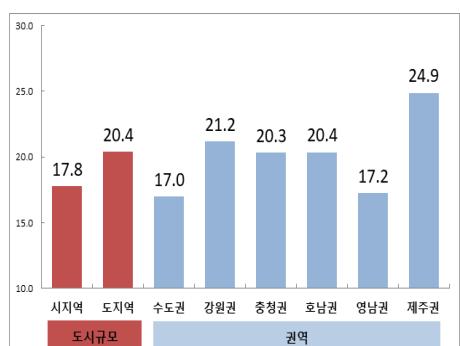
표 III-114 자원봉사 참여율(2011~2015)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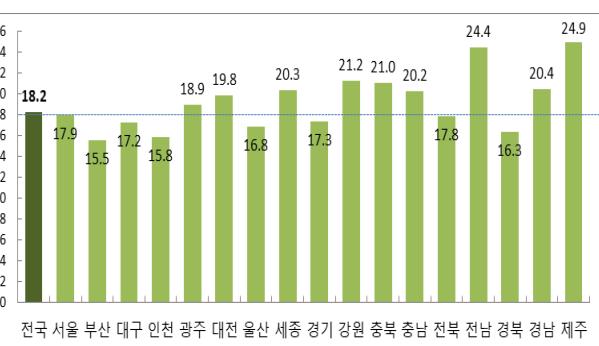
시도	2011	2013	2015	2015-2011
전국	21.1	19.9	18.2	-2.9
서울	19.3	17.7	17.9	-1.4
부산	19.9	18.7	15.5	-4.4
대구	20.1	19.0	17.2	-2.9
인천	19.4	18.6	15.8	-3.6
광주	24.9	23.5	18.9	-6.0
대전	20.3	24.8	19.8	-0.5
울산	23.9	21.5	16.8	-7.1
세종			20.3	
경기	20.8	19.7	17.3	-3.5
강원	20.0	19.4	21.2	1.2
충북	19.1	21.7	21.0	1.9
충남	22.9	23.0	20.2	-2.7
전북	18.3	18.0	17.8	-0.5
전남	22.4	22.1	24.4	2.0
경북	24.6	18.5	16.3	-8.3
경남	22.5	23.4	20.4	-2.1
제주	22.2	24.2	24.9	2.7



【그림 III-112】 자원봉사 참여율



**【그림 III-113】 도시규모별, 권역별
자원봉사 참여율(2015)**



【그림 III-114】자원봉사 참여율(2015)

(5) 활동영역

① 활동상태 - 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5년도 전국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84.9%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5.4%)이 도지역(83.2%)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권(85.0%), 영남권(84.6%) 순이었으며, 호남권(82.3%)과 강원권(79.5%)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87.8%로 가장 높았고, 인천(87.3%), 부산(86.9%), 서울(86.8%)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전남(75.4%), 강원(79.5%)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충북(17.1%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률을 나타냈고 부산(11.4%p)과 경남(11.1%p)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오히려 1.8%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15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정의	지난 1년 동안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13~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5
출처	통계청(2015). 2015 사회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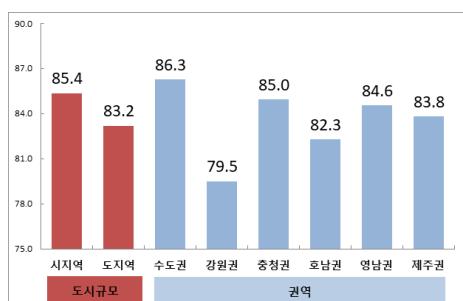
표 III-116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2015)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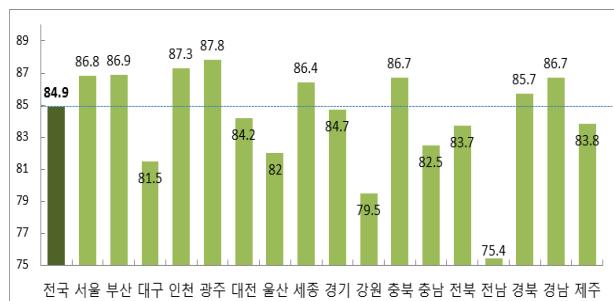
시도	2011	2013	2015	2015-2011
전국	79.2	84.0	84.9	5.7
서울	86.1	86.9	86.8	0.7
부산	75.5	86.9	86.9	11.4
대구	76.9	83.9	81.5	4.6
인천	77.1	81.1	87.3	10.2
광주	83.6	85.5	87.8	4.2
대전	73.6	92.7	84.2	10.6
울산	75.6	83.0	82.0	6.4
세종			86.4	
경기	81.3	84.5	84.7	3.4
강원	73.3	78.3	79.5	6.2
충북	69.6	75.1	86.7	17.1
충남	73.0	81.2	82.5	9.5
전북	80.4	84.9	83.7	3.3
전남	77.2	73.2	75.4	-1.8
경북	76.0	84.9	85.7	9.7
경남	75.6	82.4	86.7	11.1
제주	75.1	78.1	83.8	8.7



【그림 III-115】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그림 III-116】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5)



【그림 III-117】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5)

① 활동상태 – 나.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6년 우리나라 전국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142,000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44,600원)이 시지역(138,300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188,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161,800원), 호남권(151,700원) 순이었으며, 수도권(123,000원)과 충청권(115,000원)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경북이 20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188,000원), 대구(179,000원), 대전(170,000원)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충남(92,000원), 충북(94,000원)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여가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경북에서 98,000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대구(49,000원)와 강원(37,000원)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77,000원), 충북(-33,000원), 충남(-32,000원)등은 오히려 문화여가 지출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7 문화여가 지출비용

정의	한 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천원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6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p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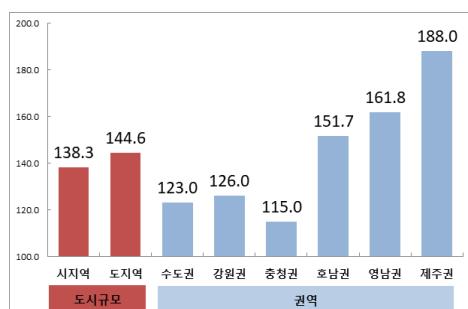
표 III-118 문화여가 지출비용(2012~2016)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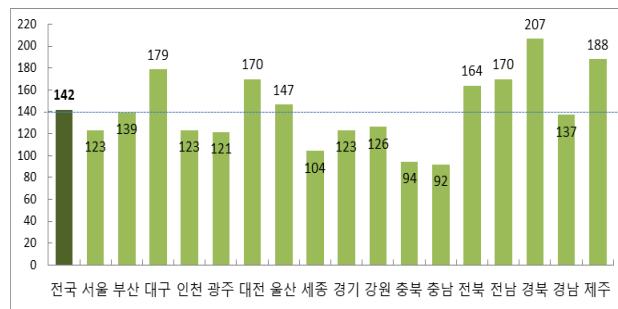
지역	2012 ²⁸⁾	2014	2016	2016–2012
전국	134	130	142	8
서울	134	123	123	-11
부산	141	113	139	-2
대구	130	141	179	49
인천	112	144	123	11
광주	128	129	121	-7
대전	147	146	170	23
울산	224	163	147	-77
세종		112	104	
경기	108	133	123	15
강원	89	138	126	37
충북	127	131	94	-33
충남	124	127	92	-32
전북	139	131	164	25
전남	143	89	170	27
경북	109	148	207	98
경남	116	124	137	21
제주	175	121	188	13



【그림 III-118】문화여가 지출비용



【그림 III-119】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여가 지출비용(2016)



【그림 III-120】문화여가 지출비용(2016)

28) (지난 1년) 한 달 평균 여가활동 지출비용

① 활동상태 – 다.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4년도 우리나라 전국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52.3%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55.7%)이 도지역(50.8%)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57.8%), 충청권(54.9%) 순이었으며, 수도권(52.3%)과 호남권(44.8%)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대전이 83.1%로 가장 높았고, 울산(68.8%), 제주(64.6%)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9.2%), 전북(40.3%), 전남(44.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동아리활동 참여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대전(63.7%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률을 나타냈고 울산(46.6%p)과 제주(46.3%p)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11.6%p)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19 동아리활동 참여율

정의	종교단체를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단위	%,
대상	9~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3년,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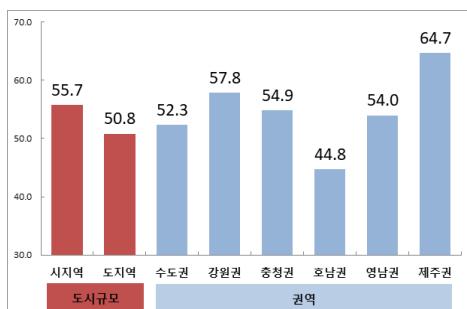
표 III-120 동아리활동 참여율(2011, 201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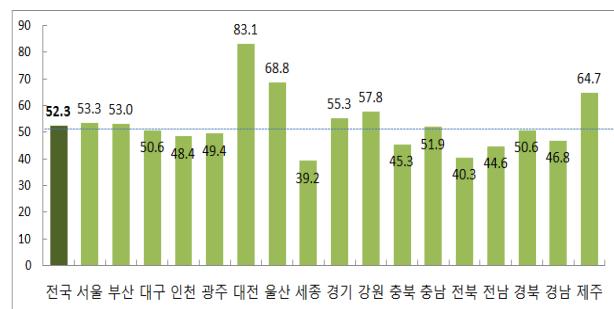
구분	2011	2014 ²⁹⁾	2014-2011
전국	24.2	52.3	28.1
서울	28.8	53.3	24.5
부산	16.5	53.0	36.5
대구	22.7	50.6	27.9
인천	23.6	48.4	24.8
광주	21.9	49.4	27.5
대전	19.4	83.1	63.7
울산	22.1	68.8	46.7
세종		39.2	
경기	26.0	55.3	29.3
강원	29.6	57.8	28.2
충북	18.4	45.3	26.9
충남	21.1	51.9	30.8
전북	28.7	40.3	11.6
전남	20.9	44.6	23.7
경북	28.5	50.6	22.1
경남	16.8	46.8	30.0
제주	18.4	64.7	46.3



【그림 III-121】동아리활동 참여율



**【그림 III-122】도시규모별, 권역별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



【그림 III-123】동아리활동 참여율(2014)

29) 해당 지표는 조사주기가 3년으로 2017년도 조사는 현재진행중에 있어 14년도 자료로 대체함.

① 활동상태 – 라.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5년도 우리나라 전국 문화예술시설 비율은 33.2개소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48.8개소)이 시지역(29.8개소)보다 문화예술시설 비율이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63.0개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61.5개소), 호남권(48.4개소) 순이었으며, 영남권(32.8개소)과 수도권(25.3개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63.0개소로 가장 높았고, 강원(61.5개소), 전남(60.4개소)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인천(24.1개소), 부산(25.0개소), 경기(25.7개소)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3.4개소)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제주(2.5개소)와 전남(2.4개소)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2.2개소)은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1 문화예술시설 비율

정의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 ³⁰⁾
단위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산식	문화예술 시설 수=(문화예술 시설 수/인구수)×100,000
대상	전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79~2016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지표, p.344-345.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인구연망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6월 28일 인출.

30) 공연장 수는 모름과 무응답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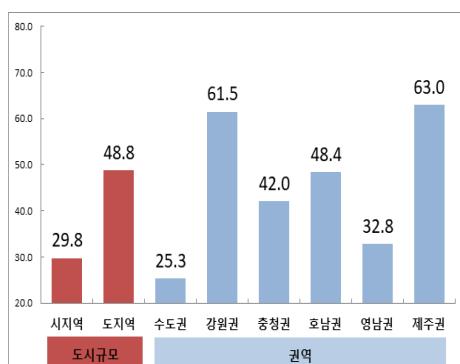
표 III-122 문화예술시설 비율(2011~2015)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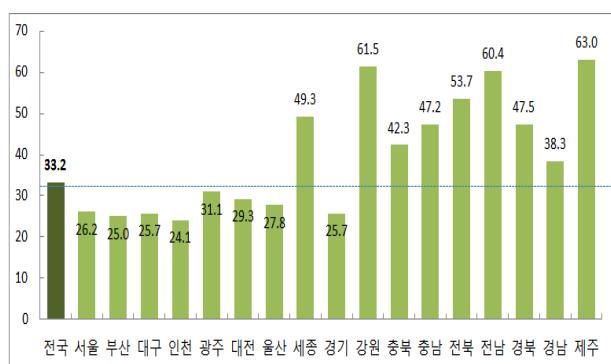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1
전국	33.0	33.2	32.2	33.1	33.2	0.2
서울	26.4	27.3	25.3	25.9	26.2	-0.2
부산	24.1	24.4	23.8	24.5	25.0	0.9
대구	25.4	25.4	24.7	25.1	25.7	0.3
인천	24.5	24.7	23.9	23.9	24.1	-0.4
광주	29.9	29.5	28.9	30.4	31.1	1.2
대전	31.5	31.8	28.3	28.7	29.3	-2.2
울산	27.2	26.8	26.2	28.0	27.8	0.6
세종		51.3	45.4	60.8	49.3	
경기	26.0	26.1	25.2	25.8	25.7	-0.3
강원	60.8	59.7	59.4	61.4	61.5	0.7
충북	43.5	42.2	41.0	42.5	42.3	-1.2
충남	48.1	47.4	46.9	47.0	47.2	-0.9
전북	50.3	50.5	50.6	53.2	53.7	3.4
전남	58.0	60.2	60.1	59.8	60.4	2.4
경북	46.9	46.6	46.1	47.1	47.5	0.6
경남	37.8	38.1	37.3	38.3	38.3	0.5
제주	60.5	60.9	59.9	66.1	63.0	2.5



【그림 III-124】문화예술시설 비율



【그림 III-125】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비율(2015)



【그림 III-126】문화예술시설 비율(2015)

① 활동상태 – 마.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797개소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18.6개소)이 시지역(4.3개소)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40.3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강원권(30.6개소), 호남권(12.1개소) 순이었으며, 영남권(8.0개소)과 수도권(5.2개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40.3개소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30.6개소), 충북(16.6개소), 전남(16.4개소)등의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3.2개), 서울(3.8개), 광주(3.9개), 울산(4.1개)등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3.8개소)과 제주(3.8개소)지역이 가장 많이 활동시설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세종은 오히려 -0.3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23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정의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³¹⁾
단위	인구 10만 명 당 개소
산식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대상	9~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1~2016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 429 – 430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31)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수를 의미함. 국립청소년시설 3개(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은 포함되었으며,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 통계 미포함됨. 자료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임(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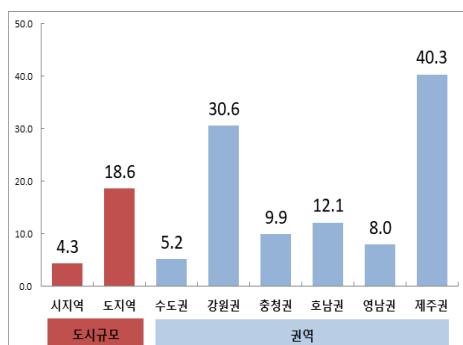
표 III-12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2~2016)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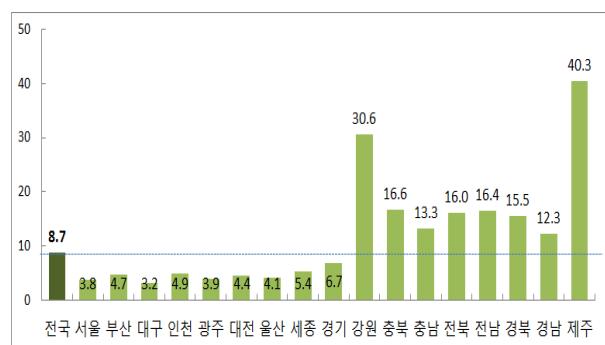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7.7	8.1	8.2	8.4	8.7	1.0
서울	3.3	3.6	3.6	3.6	3.8	0.5
부산	3.7	3.8	3.9	4.3	4.7	1.0
대구	2.5	2.8	2.8	3.1	3.2	0.7
인천	4.6	5.2	5.2	4.8	4.9	0.3
광주	3.4	3.4	3.4	3.8	3.9	0.5
대전	4.1	4.1	4.2	4.0	4.4	0.3
울산	3.7	3.3	3.4	3.9	4.1	0.4
세종	5.7	5.0	4.3	3.3	5.4	-0.3
경기	6.0	6.2	6.2	6.5	6.7	0.7
강원	28	30.3	30.7	29.8	30.6	2.6
충북	15.2	15.7	16.0	15.9	16.6	1.4
충남	13.2	13.0	13.2	13.6	13.3	0.1
전북	14.8	15.3	15.6	16.2	16.0	1.2
전남	12.6	13.9	14.2	15.4	16.4	3.8
경북	13.0	14.1	14.4	15.0	15.5	2.5
경남	11.1	11.3	11.4	11.5	12.3	1.2
제주	36.5	38.1	37.9	39.4	40.3	3.8



【그림 III-127】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그림 III-12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6)



【그림 III-129】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6)

① 활동상태 – 바. 청소년 지도사 비율³²⁾

2016년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지도사 수는 2.9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4.1명)이 도지역(2.0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3.2명), 호남권(3.0명) 순이었으며, 강원권(1.7명)과 제주권(1.2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5.3명), 광주(5.0명), 울산(4.6명), 경기(4.2명)등의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0.7명), 제주(1.2명), 전남(1.5명), 강원(1.7명)등이 상대적으로 청소년 지도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25 청소년 지도사 비율

정의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단위	명
산식	청소년 지도사 비율=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7).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³³⁾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p.429~430

32) 연도별로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기준이 다르고 15년도 이전년도의 경우 시도별 청소년지도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2016년도 자료만 지표에 제시함.

33) 한국수련시설협회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 지도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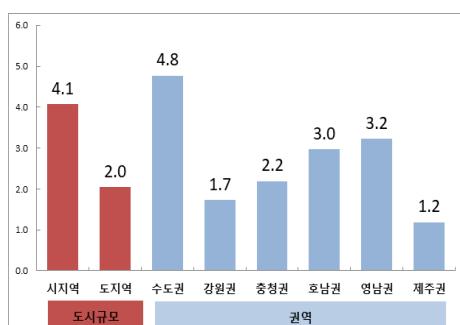
표 III-126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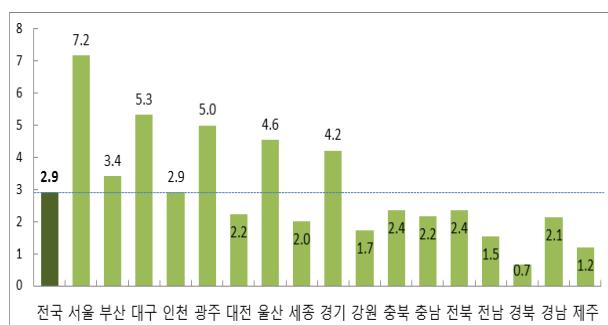
시도	2016
전국	2.9
서울	7.2
부산	3.4
대구	5.3
인천	2.9
광주	5.0
대전	2.2
울산	4.6
세종	2.0
경기	4.2
강원	1.7
충북	2.4
충남	2.2
전북	2.4
전남	1.5
경북	0.7
경남	2.1
제주	1.2



【그림 III-130】 청소년 지도사 비율



【그림 III-131】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그림 III-132】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6)

(6) 경제영역

① 소득/소비 - 가.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5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이 가장 높은 61.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 지역(32.6백만 원)이 시 지역(29.9백만 원)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34.7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34.3백만 원), 수도권(29.9백만 원) 순이었으며, 강원권(26.3백만 원)과 제주권(26.3백만 원)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울산이 61.2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48.6백만 원), 전남(37.4백만 원), 경북(35.8백만 원)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대구(19.9백만 원)와 광주(21.3백만 원) 등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5.8백만 원)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고, 충남(5.1백만 원), 경기(4.9백만 원), 제주(4.9백만 원)도 상대적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오히려 -1.1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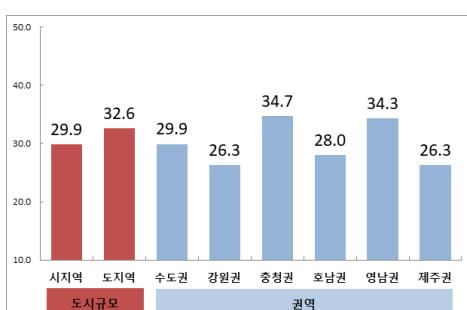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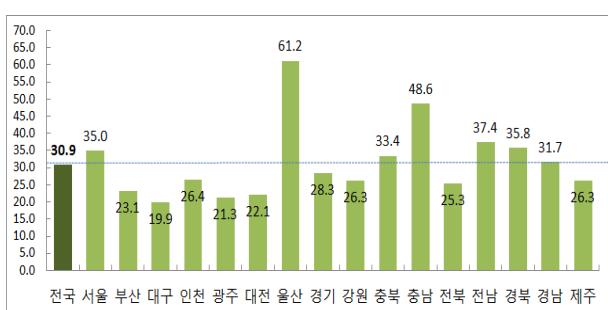
표 III-127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정의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단위	백만 원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3~2015
출처	통계청(2017).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13# 에서 2017년 09월 12일 인출.

표 III-128 지역경제수준(2011~2015)

(단위: 백만 원)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2011
전국	26.7	27.5	28.5	29.5	30.9	4.2
서울	30.3	31.4	32.1	33.2	35.0	4.7
부산	19.3	19.8	20.5	21.6	23.1	3.8
대구	16.8	17.4	18.2	18.9	19.9	3.2
인천	22.5	22.3	22.9	24.3	26.4	3.9
광주	18.5	19.2	19.7	20.6	21.3	2.8
대전	19.5	20.1	20.4	21.2	22.1	2.6
울산	62.2	63.4	60.6	58.9	61.2	-1.1
경기	23.4	24.1	25.8	26.8	28.3	4.9
강원	21.7	22.6	23.6	24.8	26.3	4.6
충북	27.6	28.2	30.4	31.8	33.4	5.8
충남	43.6	44.6	45.6	47.6	48.6	5.1
전북	22.2	22.5	23.6	24.6	25.3	3.1
전남	35.4	36.6	35.4	35.5	37.4	2.0
경북	31.2	32.3	33.8	35.1	35.8	4.6
경남	28.2	29.5	30.6	30.9	31.7	3.4
제주	21.4	22.7	23.2	24.2	26.3	4.9

【그림 III-133】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³⁴⁾【그림 III-134】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5)【그림 III-135】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015)

34)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함.

① 소득/소비 - 나. 지니계수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5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0.320)이 도지역(0.293)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0.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0.306), 강원권(0.303) 순이었으며, 충청권(0.287)과 제주권(0.274)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0.3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18~6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도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심함을 의미한다. 서울 다음으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도가 높은 곳은 대전(0.323), 부산(0.310), 경북(0.304)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충북(0.267), 충남(0.269), 인천(0.271)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니계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전(0.011p)이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제주(-0.027p)는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29 지니계수

정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단위	점
산식	$Gini = 1 + (1 / N) - [2/(m . N^2)] [\sum (N - i + 1) y_{-i}]$
대상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근로자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분기/반기, 2012~2016
출처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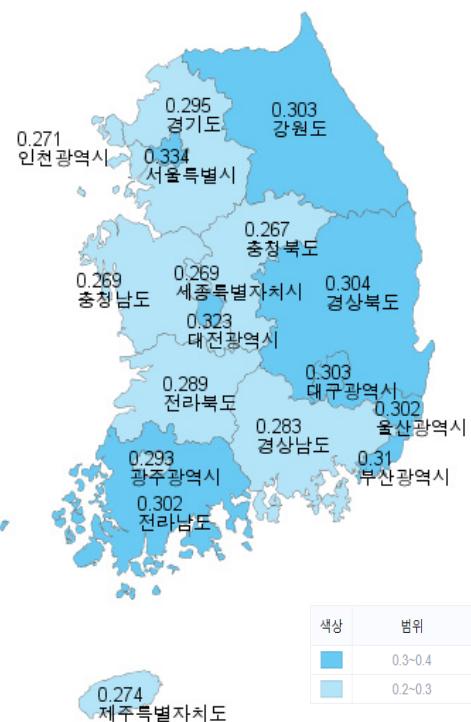
35) Stata SE 버전 13에서 “ineadeco”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였음.

자료는 ‘지역별 고용조사’ 중 2012년은 4분기, 2013년~2016년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고, 18~65세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근로자) 중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가중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제공하는 시도 및 전국기중치를 사용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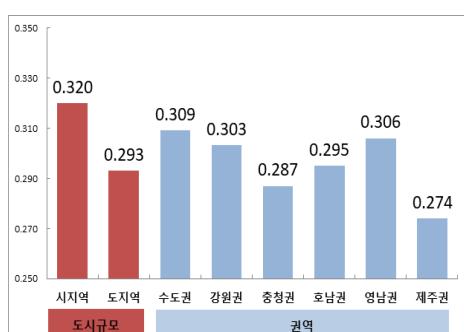
표 III-130 지니계수(2012~2016)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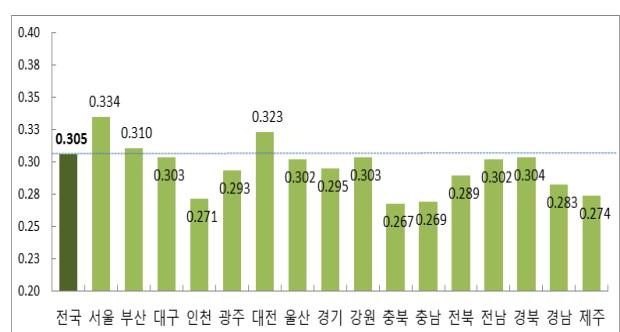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0.311	0.313	0.308	0.306	0.305	-0.005
서울	0.328	0.329	0.319	0.322	0.334	0.006
부산	0.316	0.322	0.313	0.310	0.310	-0.005
대구	0.312	0.311	0.309	0.306	0.303	-0.009
인천	0.283	0.282	0.273	0.271	0.271	-0.012
광주	0.292	0.291	0.302	0.299	0.293	0.001
대전	0.312	0.334	0.325	0.322	0.323	0.011
울산	0.298	0.306	0.308	0.304	0.302	0.004
경기	0.308	0.308	0.307	0.300	0.295	-0.013
강원	0.304	0.317	0.309	0.315	0.303	-0.001
충북	0.274	0.266	0.282	0.272	0.267	-0.007
충남	0.277	0.284	0.277	0.282	0.269	-0.008
전북	0.311	0.313	0.302	0.301	0.289	-0.021
전남	0.297	0.297	0.298	0.291	0.302	0.005
경북	0.312	0.313	0.302	0.301	0.304	-0.008
경남	0.281	0.275	0.281	0.283	0.283	0.002
제주	0.301	0.311	0.307	0.284	0.274	-0.027



【그림 III-136】 지니계수³⁶⁾



【그림 III-137】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니계수(2016)



【그림 III-138】 지니계수(2016)

36)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하였고, 표에는 별도 제시하지 않음.

② 복지 - 가.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6년도 우리나라 전국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2.1%)이 도지역(23.4%)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호남권(28.4%), 영남권(27.8%) 순이었으며, 제주권(21.0%)과 강원권(20.3%)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광주가 38.5%로 가장 높았고, 대전(36.9%), 서울(35.9%), 대구(35.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강원(20.3%), 제주(21.0%)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서울(11.7%p) 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광주(10.4%p)와 제주(9.5%p) 지역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의 경우 2.8%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1 사회복지지출 비율

정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 ³⁷⁾
단위	%
산식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 예산 규모) × 100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8~2016
출처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7년 6월 29일 인출.

37) ① 적용회계 : 일반회계

② 전국 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③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④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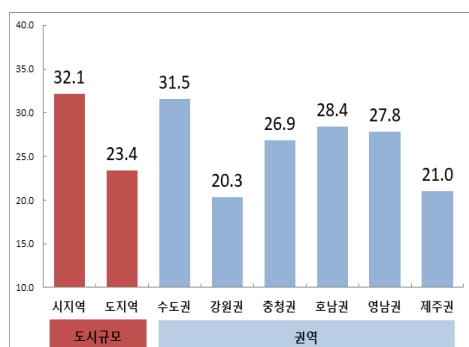
표 III-132 사회복지지출 비율(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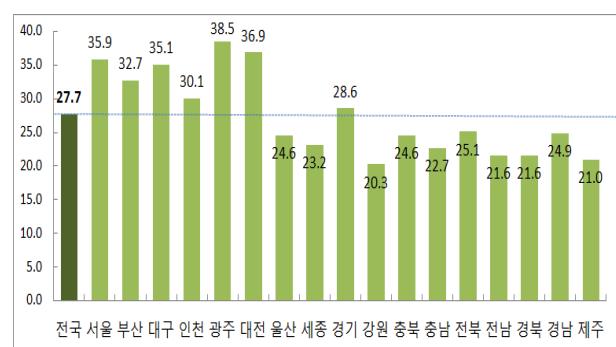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21.3	23.1	26.1	27.5	27.7	6.4
서울	24.2	29.7	31.8	34.1	35.9	11.7
부산	25.9	26.9	30.5	32.0	32.7	6.8
대구	27.7	28.4	32.8	34.6	35.1	7.4
인천	26.7	27.3	29.2	32.2	30.1	3.4
광주	28.1	28.6	32.5	36.3	38.5	10.4
대전	28.7	31.7	35.5	37.4	36.9	8.2
울산	19.1	20.8	23.7	25.7	24.6	5.5
세종		23.4	23.6	23.0	23.2	
경기	22.4	25.0	29.5	28.6	28.6	6.2
강원	17.5	17.8	19.8	20.1	20.3	2.8
충북	20.0	21.0	23.8	24.3	24.6	4.6
충남	17.7	18.1	20.9	22.9	22.7	5.0
전북	19.9	20.8	23.3	24.7	25.1	5.2
전남	16.3	17.0	19.5	21.5	21.6	5.3
경북	17.6	18.3	20.4	21.9	21.6	4.0
경남	19.2	20.6	23.7	24.8	24.9	5.7
제주	11.5	13.5	14.9	20.7	21.0	9.5



【그림 III-139】 사회복지지출 비율



**【그림 III-140】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6)**



【그림 III-141】 사회복지지출 비율(2016)

② 복지 - 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6년 우리나라 전국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4,555명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5,144명)이 시지역(4,770명)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호남권이 7,0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제주권(5,618명), 강원권(5,334명) 순이었으며, 수도권(4,120명)과 충청권(4,114명)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북이 7,937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6,990명), 대구(6,130명), 전남(6,091명)등의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울산(1,914명), 세종(2,583)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2,378명) 지역의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1,879명)과 전북(1,708명)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오히려 61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33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정의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단위	인구 10만 명 당 수혜자 수
산식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양인구)×100,000
대상	10세~24세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6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3월 31일 인출.

표 III-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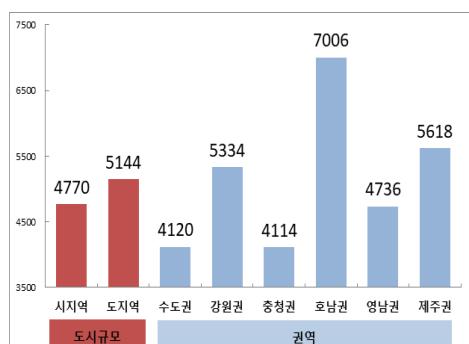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2~2016)

(인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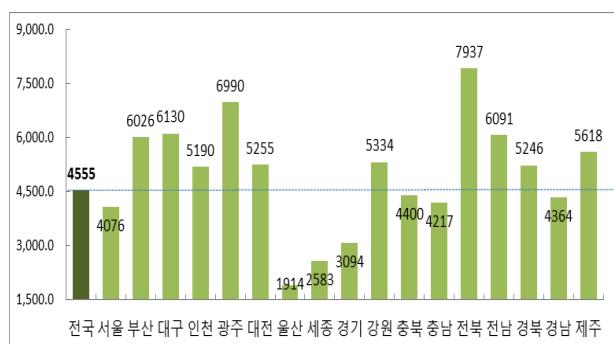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3,065	2,886	2,731	4,565	4,555	1,490
서울	2,197	2,154	2,124	3,742	4,076	1,879
부산	4,330	4,107	3,851	6,275	6,026	1,696
대구	4,813	4,602	4,307	6,698	6,130	1,317
인천	2,812	2,704	2,644	4,874	5,190	2,378
광주	5,521	5,404	5,197	7,234	6,990	1,469
대전	3,563	3,405	3,249	5,047	5,255	1,692
울산	1,322	1,244	1,188	2,763	1,914	592
세종	3,199	2,711	2,278	3,044	2,583	-616
경기	1,625	1,533	1,455	3,002	3,094	1,469
강원	4,282	3,969	3,754	5,175	5,334	1,052
충북	3,197	2,832	2,612	4,491	4,400	1,203
충남	3,117	2,861	2,657	4,322	4,217	1,100
전북	6,229	5,806	5,468	8,134	7,937	1,708
전남	5,241	4,652	4,256	6,360	6,091	850
경북	4,181	3,877	3,608	5,391	5,246	1,065
경남	2,875	2,653	2,494	4,496	4,364	1,489
제주	4,725	4,392	3,954	5,768	5,618	893



【그림 III-14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그림 III-143】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6)



【그림 III-14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6)

③ 고용 - 가. 경제활동 참가율

2016년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63.5%)이 시지역(61.6%)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제주권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도권(63.3%), 충청권(63.3%) 순이었으며, 호남권(61.3%)과 강원권(59.7%)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가 70.1%로 가장 높았고, 인천(64.8%), 경북(64.1%), 경기(64.0%), 충남(64.0%)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부산(58.3%)을 비롯하여 강원(59.7%), 광주(59.9%)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3.7%p)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2.8%p)와 대전(2.7%p)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의 경우 오히려 0.2%p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35 경제활동 참가율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³⁸⁾
단위	%
산식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9. 3/4 ~ 2017. 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13 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38)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무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표 III-136 경제활동 참가율³⁹⁾(2012~2016)

(단위: %, %p)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61.3	61.5	62.4	62.6	62.8	1.5
서울	62.3	62.3	63.2	62.6	62.8	0.5
부산	57.9	58.0	58.6	58.3	58.3	0.4
대구	60.2	59.6	60.7	61.3	61.7	1.5
인천	64.2	63.7	64.0	64.2	64.8	0.6
광주	57.8	58.7	60.4	60.1	59.9	2.1
대전	59.7	59.5	61.5	62.2	62.4	2.7
울산	60.8	60.0	59.5	60.4	61.0	0.2
경기	61.6	61.8	63.4	64.0	64.0	2.4
강원	58.2	57.3	58.3	59.4	59.7	1.5
충북	59.9	61.0	63.7	63.9	63.6	3.7
충남	62.9	64.6	64.6	64.6	64.0	1.1
전북	58.6	59.3	59.1	59.5	60.7	2.1
전남	63.6	63.0	62.8	63.1	63.4	-0.2
경북	63.6	63.7	64.7	63.9	64.1	0.5
경남	60.7	61.1	61.2	61.6	62.2	1.5
제주	67.3	67.1	68.0	69.2	70.1	2.8



그림 III-145]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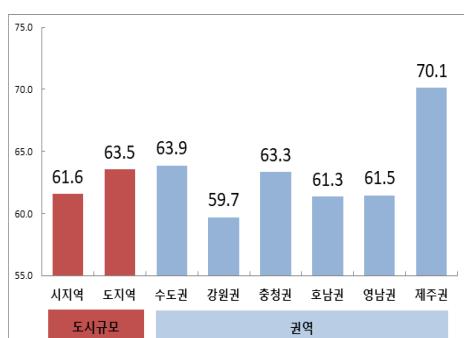


그림 III-146] 도시규모별, 권역별 경제활동 참가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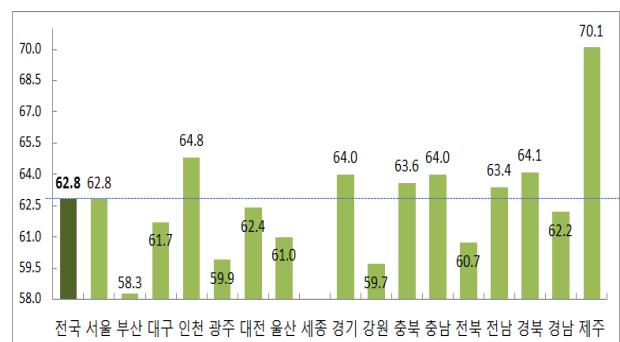


그림 III-147] 경제활동 참가율(2016)

39)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하였고, 표에는 별도 제시하지 않음.

③ 고용 - 나. 실업률

2016년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9%)이 도지역(2.9%)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3.7%), 충청권(3.0%) 순이었으며, 호남권(2.7%)과 제주권(2.2%)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이 4.9%로 가장 높았고, 서울(4.3%), 대구(4.2%), 부산(3.9%)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에 전북은 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2.2%), 충북(2.6%), 강원(2.9%)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대체로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전남과 경남이 1.4%p로 실업률 증가폭이 컸고, 대전은 오히려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37 실업률

정의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산식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단위	%
대상	15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분기, 1999.3/4 ~ 2017.1/4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7# 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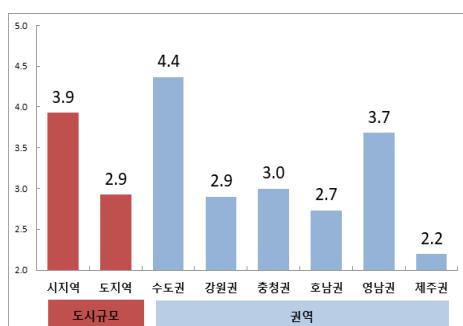
표 III-138 실업률(2012~2016)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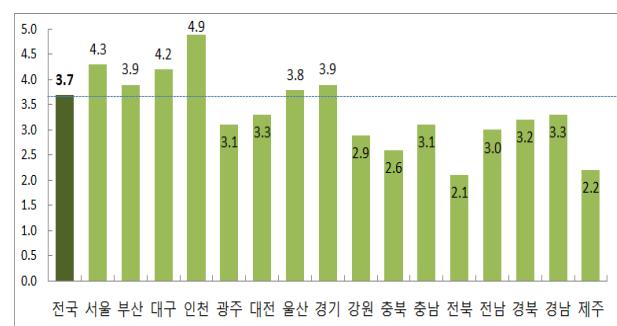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3.2	3.1	3.5	3.6	3.7	0.5
서울	4.2	4.0	4.5	4.2	4.3	0.1
부산	3.9	3.8	3.8	4.1	3.9	0.0
대구	3.3	3.3	3.9	3.5	4.2	0.9
인천	4.5	4.2	4.7	5.1	4.9	0.4
광주	2.7	2.9	2.8	3.0	3.1	0.4
대전	3.7	3.1	3.4	3.5	3.3	-0.4
울산	2.6	2.1	2.7	2.9	3.8	1.2
경기	3.3	3.0	3.4	3.9	3.9	0.6
강원	2.5	2.4	3.1	3.3	2.9	0.4
충북	2.0	2.1	3.0	2.6	2.6	0.6
충남	2.3	2.8	3.4	3.5	3.1	0.8
전북	2.0	2.0	2.5	1.7	2.1	0.1
전남	1.6	2.1	2.9	2.5	3.0	1.4
경북	2.5	3.1	2.9	3.1	3.2	0.7
경남	1.9	2.1	2.5	2.6	3.3	1.4
제주	1.6	1.8	2.0	1.9	2.2	0.6



【그림 III-148】 실업률(40)



【그림 III-149】 도시규모별, 권역별
실업률(2016)



【그림 III-150】 실업률(2016)

40) 세종특별자치시는 자료에 구분되어있지 않아 지도에 충남과 같은 값으로 표시하였고, 표에는 별도 제시하지 않음.

(7) 환경영역

① 주거기반 - 가. 통학 소요시간

2015년 우리나라 전국 통학 소요시간은 32.8분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시지역(31.9분)이 도지역(26.3분) 보다 더 길었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수도권이 39.0분으로 통학소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남권(29.4분), 제주권(27.3분) 순이었으며, 충청권(25.4분)과 강원권(22.9분)은 다른 권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인천이 41.2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38.2분), 경기(37.4분)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통학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22.9분), 전남(23.5분), 세종(24.2분) 등의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통학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한편, 2010년과 2015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통학 소요시간은 모든 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천(3.0분)의 통학 소요 증가가 가장 커졌고, 다음으로 대구(2.8분)와 울산(2.0분) 지역도 통학 소요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0.1분)과 경북(0.1분)은 통학 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III-139 통학 소요시간

정의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 ⁴¹⁾
단위	분
대상	12세 이상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2010~2015
출처	통계청(2017).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 소요시간 및 각급 학교별 통학 인구(12세 이상)-시도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41) 통학/통근시간은 자료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각 계급값의 중간값을 계산하였음.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하였음. 단, 통학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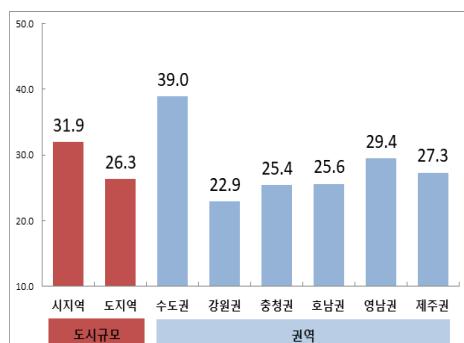
표 III-140 통학 소요시간(2010, 2015)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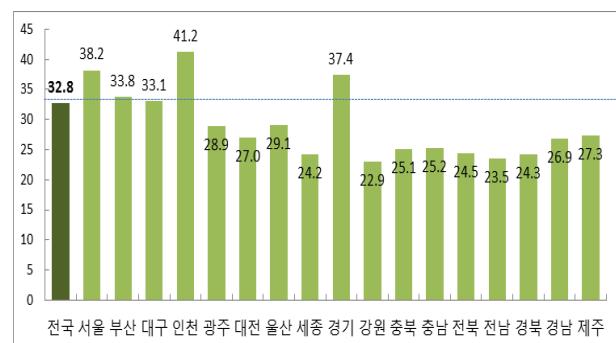
구분	2010	2015	2015–2010
전국	31.5	32.8	1.3
서울	36.3	38.2	1.9
부산	31.9	33.8	1.9
대구	30.3	33.1	2.8
인천	38.2	41.2	3.0
광주	27.1	28.9	1.8
대전	26.0	27.0	1.0
울산	27.1	29.1	2.0
세종		24.2	
경기	36.0	37.4	1.4
강원	22.1	22.9	0.9
충북	24.1	25.1	1.0
충남	24.7	25.2	0.6
전북	24.1	24.5	0.4
전남	23.4	23.5	0.1
경북	24.2	24.3	0.1
경남	25.9	26.9	1.0
제주	25.4	27.3	1.9



【그림 III-151】 통학 소요시간



**【그림 III-152】 도시규모별, 권역별
통학 소요시간(2015)**



【그림 III-153】 통학 소요시간(2015)

① 주거기반 - 나. 녹지 접근성

2016년 우리나라 전국 녹지 접근성은 11.9m^2 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비교에서는 도지역(23.0m^2)이 시지역(13.8m^2) 보다 더 높았으며, 권역별 비교에서는 충청권이 39.4m^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호남권(14.8m^2), 강원권(11.7m^2)순이었으며, 영남권(11.4m^2)과 제주권(4.0m^2)은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비교에서는 세종이 115.5m^2 로 가장 높았고, 전남(21.6m^2), 충남(17.2m^2)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4.0m^2), 대구(6.8m^2)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녹지 접근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충남과 전남이 5.9m^2 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5.1m^2)과 경북(4.6m^2)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의 경우 오히려 79.9m^2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정의서

표 Ⅲ-141 녹지 접근성

정의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단위	m^2
산식	도시 공원 조성면적/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인구
대상	전 연령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 ~ 2016(결정면적), 2012~2016(조성면적)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7년말 도시공원현황 2017년 9월 12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6년 주민등록인구연망인구. http://kosis.kr/ 에서 2017년 9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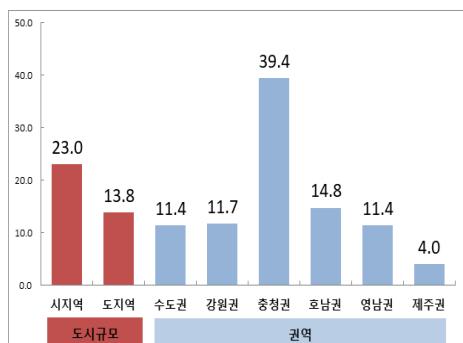
표 III-142 녹지 접근성(2012~2016)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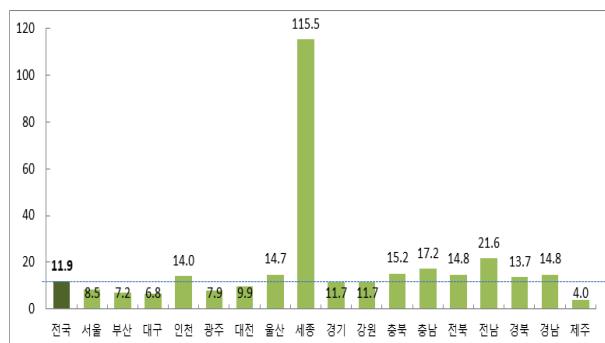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2012
전국	10.3	11.0	11.0	11.4	11.9	1.6
서울	9.0	8.8	8.8	8.7	8.5	-0.5
부산	7.0	7.0	7.9	7.8	7.2	0.2
대구	6.0	6.4	6.4	6.4	6.8	0.8
인천	11.7	6.9	9.0	10.9	14.0	2.3
광주	7.5	7.5	7.8	7.9	7.9	0.4
대전	9.2	11.6	11.5	9.8	9.9	0.7
울산	15.2	16.4	16.5	16.8	14.7	-0.5
세종	195.4	227.7	176.5	137.4	115.5	-79.9
경기	10.5	10.6	9.6	11.0	11.7	1.2
강원	7.9	9.5	10.2	11.0	11.7	3.8
충북	10.1	12.6	12.4	14.3	15.2	5.1
충남	11.3	15.7	15.4	15.7	17.2	5.9
전북	11.1	14.2	14.2	15.0	14.8	3.7
전남	15.7	21.7	26.1	22.4	21.6	5.9
경북	9.1	12.1	12.2	12.5	13.7	4.6
경남	12.0	13.8	14.1	13.7	14.8	2.8
제주	7.6	8.2	5.2	4.1	4.0	-3.6



【그림 III-154】녹지 접근성



【그림 III-155】도시규모별, 권역별
녹지 접근성(2016)



【그림 III-156】녹지 접근성(2016)

6. 소결

3장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 먼저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행복 수준을 직접 조사를 통해 산출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에 대한 정량적 측면을 행정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제시 방법은 먼저 주관적 지표의 경우 17년도 결과 뿐 아니라 15년(지표항목에 따라 16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지표는 2개년 결과만 제시)부터 3개년에 걸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도별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지표에 대해 성별 및 교급별 비교·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 역시 각 지표에 대해 5개년 간(지표의 특성에 따라 1년 혹은 2~4개년 간의 결과를 제시한 지표들도 있음)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주관적 지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도시규모별 및 권역별 비교를 함으로써 각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았고, 각 시도별 결과의 제시와 함께 17개 시도별 현황을 지도에 시각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지표는 크게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웰빙은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정서상태, 유데모니아, 성격특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징적인 점은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및 유데모니아 지표는 전년도의 평균이 비교적 유지되었으나 불안, 슬픈 및 우울 등 부적 정서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편,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부적정서는 높고, 정적정서나 삶의 만족도 및 유데모니아 지표에서의 평균 점수는 더 낮았다. 그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적정서가 높아지고 정적정서나, 만족도, 유데모니아 등의 지표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지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제주, 충남, 세종, 대구 등의 지역이 긍정적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지표에서는 낮은 평균을 보였다. 한편, 강원, 전북, 서울, 대전 등의 지역은 반대의 응답 경향을 나타냈다.

관계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관계 만족도(전반적 관계 만족도, 가족, 부모, 교우, 교사, 이웃 등) 지표들에 대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교급별 차이에서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도별 비교에서는 대체로 전년도 평균이 유지되거나 조금씩 상승하였다.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학교선생님, 이웃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종교단체, 대중매체,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 및 중앙정부) 역시 교급이 높아질수록 신뢰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높았으나 부모(보호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았다. 연도별 비교에서는 친구들, 이웃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 신뢰도 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 외 가족 간의 대화시간은 여학생이 더 높았고, 담임교사의 면담 횟수와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서는 15년과 16년은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17년도는 교급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관계 만족도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인천, 대구, 제주, 전남 순으로 높았고, 강원과 전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영역(전반적 건강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아침 식사율, 질병 유무 등)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이 증가할수록 건강영역 지표들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냈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건강 만족도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제주, 인천, 대구 등의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강원, 전북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직업교육·체험참여 정도,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 만족도 등), 직업교육·체험 참여정도를 제외한 다른 지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다른 영역의 지표들과 같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징적인 점은 최근 자유학기제 등의 영향으로 직업교육·체험 참여 정도에 있어 16년도와 17년도 결과에 있어 중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대구, 부산, 제주, 인천 등의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강원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전반적 안전 만족,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범죄피해 위험 인식, 위기상황 대처, 사회안전망 시설 구축 인지정도 등)에서는 성별 비교에서 범죄피해 위험 인식 정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다른 지표에서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기준으로 제주, 대구, 부산 전남 순이었으며, 강원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참여영역(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 아동권리, 인지, 징계 소명권, 학칙개정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에서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및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 운영에서 참여의 적극성을 보였고, 그 외 징계소명권이나 학칙개정권에서는 15년에 여학생들이 높았으나 16년부터는 남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도 남학생들보다 보다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 외 지표에서는 모두 남학생들이 더 높았다. 한편 교급별 비교에서는 타 지표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고, 특히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의 만족도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학생들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학교를 비롯해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전반적 참여권리 보장 만족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제주가 가장 높았고, 인천, 대구, 충남 순이었으며, 경북과 강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동영역(전반적 청소년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 공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놀이친구 접근성 등), 경제영역(가정경제만족도), 환경영역(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등)등 3가지 영역 모두 대체로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 청소년 활동 여건 만족도의 감소폭이 타 지표에 비해 커다. 시도별 비교에서는 제주, 인천, 대구, 충남 지역에서 전반적 청소년활동 여건 만족이 높았고, 경북과, 강원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관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행복감 수준이 여러 지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별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행복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평가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급이 올라질수록 대부분의 지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 지표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높아진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에 비해 우리 사회가 아직 청소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 교육, 체험 및 참여 등의 영역에서 교급에 따른 청소년들의 욕구와 인식 수준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지역별 결과에서는 특정 지역들의 결과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게 나타났고, 반대로 일부 지역들은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지역별 결과와 나타나는 차이를 근거로 지역별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비교결과를 보면, 행복과 관련되는 긍정지표들에서 해가 지남에 따라 일부 지표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약간의 하락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표들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상승 곡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 정서경험 지표(예컨대, 불안, 슬픈, 우울 등의 정서 및 스트레스 등)들도 동시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긍정적 정서경험의 증진과 함께 부정적 정서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 지표는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및 환경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건강영역(비만율, 자살률, 신체 활동 실천율, 흡연, 음주, 스마트폰 과의존율 등)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12년 대비 16년도 3.6%p 증가)한 반면, 신체 활동 실천율의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났다(12년 대비 16년도 1.1%p 증가). 그러나 자살률, 흡연률, 음주율 등 청소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 건강 영역에서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년 처음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30.6%의 과의존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은 3.5%에 이르고 있어 학교에서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율은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감소율이 낮으나(2012년 대비 2016년 결과, 0.3%감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비율은 낮지 않으며, 특히 학업중단 학생 수로 나타내면 학업중단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학교 내 교육과정이나 환경 역시 변화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 환경 개선과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들의 영향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학업성취도나 사교육비 지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영역과 관련하여,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질서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상률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교통안전과 관련되어 보다 강화된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결과이다. 한편,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활동영역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2016년 자료만 제시) 등 증가폭에서 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지표항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영역과 관련된 지표 결과에서는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고, 다만 실업률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치는 작으나 증가하고 있어 유의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역과 관련하여 통학 소요시간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녹지 접근성 역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세종시의 경우 1인당 녹지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세종시의 인구변화 특성에 따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제 IV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1. 연구개요
2.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3. 응답자 특성
4. 분석결과
5. 소결

제 I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분석

이 장에서는 연령-기간-코호트에 따라 청소년들의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음의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철수] 어렸을 땐 마냥 놀 수 있어서 좋았는데, 고3 되고 나니까 공부한다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고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연령에 따른 차이).

[영희] 에이 철수야, 요즘엔 다 힘들어. 최근 들어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부터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킨다잖아(기간에 따른 차이).

[철수] 하긴 그러네. 그리고 보면 요즘 어린애들은 우리 또래보다 훨씬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코호트에 따른 차이)

위의 예에서는 본 장의 핵심인 연령효과, 기간효과, 그리고 코호트 효과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맨 처음 철수는 본인이 어렸을 때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고3이 되면서 본인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져 그 이전과는 달리 충분히 놀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연령효과이다. 이에 대해 영희는 기간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입시가 덜 중요했던 이전 기간과 최근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시기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기간효과는 고3인 철수뿐만 아니라 초중고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코호트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본인 또래와 요즘 어린 세대를 비교할 때 세대 간의 차이, 즉 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에 따라 행복도가 변할 때 그것이

* 이 장은 염유식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가 집필하였음.

같은 아이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행복도가 변하는 것인지(고3인 철수와 고3 이전의 철수의 차이: 연령효과), 기간에 따른 차이인지(입시를 덜 중시했던 이전과 입시가 매우 중요해진 최근의 차이: 기간효과), 혹은 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와 어린 세대의 차이인지(지금 고3인 세대와 지금 초등학생인 세대의 차이: 코호트효과)를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 둘의 차이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같은 문항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수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aging effect와 cohort effect를 구분하여 아이들의 행복도 변화가 나이가 들에 따라 변하는 것과 세대가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4장의 주된 목표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각 영역 별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나이가 들에 따라, 그리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에서는 총 9개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도를 3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해당 9개 영역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9개 영역

순번	영역	지표
1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2	관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3	건강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
4	교육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5	안전	평소 생활 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
6	참여	사회에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
7	활동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
8	경제	가정형편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
9	환경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

본 장에서는 위의 총 9개 영역에 대해서 크게 두 단계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연령과 코호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령 - 코호트 - 기간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연령과 코호트,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계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연령, 코호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분석을 9개 영역에서 각각 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령효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총 세 개의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 둘째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 요인 모두 학생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써, 이 요인들에 따라서 연령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1) 연령-기간-코호트 효과

시간에 따른 청소년들의 행복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연령효과(age effect), 기간효과(period effect), 그리고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효과(age effect)란 다른 연령대에 있는 그룹 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데, 나이를 먹음에 따라 생기는 생리적 변화, 사회적 경험의 축적, 혹은 지위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는 서로 다른 연도에 출생이나 입학 등을 겪음으로써, 다른 시기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코호트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생애 과정에 걸쳐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다른 코호트와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편, 기간효과(period effect)는 사회적, 문화적, 혹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시기에 모든 연령대, 모든 코호트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Robertson, Gandini, and Boyle 1999; Glenn 2003).

2) 식별의 문제

연령-기간-코호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식별의 문제(identification problem)이다. 식별의 문제란 “연령 = 기간 - 코호트”로 세 개 값이 서로 완전한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모수를 하나의 예측모형에서 동시에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Fienberg and Mason 1979). 다시 말해, 세 변수 간에 완전 공선성(perfect collinearity)이 존재하므로, 모수를 예측하는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

(1) Constrained Generalized Linear Models (CGLM)

Fienberg & Mason(1979; 1985)는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선형 모형에서 제약을 주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두 단위의 기간이 결과 값에 주는 영향력이 같다고 할 때 두 단위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만들고 모형에 제약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약을 주게 되면 완전 공선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유일한 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법의 경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두 단위의 기간이 주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제약을 주는 방식을 인위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제약을 주느냐에 따라 예측 값이 민감하게 변한다는 문제가 있다(Yang & Land, 2008).

(2) Intrinsic estimator (IE)

Fu(2000)는 앞서 살펴본 Constrained Generalized Linear Model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델로서 IE를 제안하였다. IE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는데(Tu et al., 2012; Yang et al., 2004), 이는 추정 함수(estimable function)와 비정칙치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모수의 제약 없이도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Fu 2000). 이러한 방법의 경우, 제약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인위적인 선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해 CGL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IE를 사용하여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Carstensen(2007)이 제안한 바와 같이 기간과 코호트 효과에 대한 spline basis 벡터에서 행렬 변형을 실행함으로써 식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Restricted 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연령-코호트-기간 모델을 추정하

는 경우,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연령대와의 상대적인 비율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절대적인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Carstensen 2007). 본 분석에서는 Carstensen(2007)가 제시한 것과 같이 응답자들의 생일을 사용하여 만 연령과 생년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생일을 기준으로 만 연령을 측정하였으며, 현재 속해있는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이 속한 코호트 그룹을 변수화 하였다. 기간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도를 기준으로 변수화 하였다.

3) 분석 결과 보고 양식

연령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 학생들 중 각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코호트와 기간효과에 대한 결과는 relative risk의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기간효과의 경우 준거 기간과 비교했을 때의 relative risk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경우 준거 기간에서의 각 코호트 효과가 평균적으로 1이 되도록 하여(로그 단위에서 평균적으로 0이 되도록 하여) 해당 코호트에서의 relative risk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삶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특정 코호트의 relative risk가 1.2로 나왔다면, 이 코호트는 모든 코호트를 포함한 평균과 비교할 때 삶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1.2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추정에 있어서 준거 기간은 2016년도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기간효과에 대한 부분이다. 기간효과의 경우 측정된 기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3개년밖에 되지 않아 기간에 따른 차이로부터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분석 소프트웨어

분석에는 연령-코호트-기간효과에 대한 Carstensen(2007)의 모델을 STATA에서 분석 가능하게끔 구현한 Rutherford, Lambert, & Thompson(2010)의 커맨드를 사용하였다.

3. 응답자 특성

3차년도에 결친 조사 대상자 총 30,352명 중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해 하나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였다. 1,084명이 제외되어 총 29,268명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 학생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2 4장 분석 대상자 특성

		2015년		2016년		2017년	
		사례 수 (명)	비율 (%)	사례 수 (명)	비율 (%)	사례 수 (명)	비율 (%)
성별	남	5,289	50.29	5,034	50.96	4,506	50.79
	여	5,229	49.71	4,844	49.04	4,366	49.21
학년	초4	977	31.04	1,193	34.32	862	33.29
	초5	1,046	33.23	1,164	33.49	876	33.84
	초6	1,125	35.74	1,119	32.19	851	32.87
	중1	1,043	30.87	1,068	32.03	917	33.66
	중2	1,149	34.00	1,121	33.62	903	33.15
	중3	1,187	35.13	1,145	34.34	904	33.19
	고1	1,283	32.15	1,002	32.66	1,164	32.71
	고2	1,379	34.55	1,090	35.53	1,207	33.91
	고3	1,329	33.30	976	31.81	1,188	33.38
지역	수도권	4,624	43.96	4,537	45.93	4,019	45.30
	강원도	296	2.81	384	3.89	284	3.20
	충청권	1,281	12.18	1,208	12.23	1,116	12.58
	영남권	2,858	27.17	2,224	22.51	2,299	25.91
	호남권	1,171	11.13	1,216	12.31	866	9.76
	제주도	288	2.74	309	3.13	288	3.25
지역 규모	대도시	4,579	43.53	3,812	38.59	3,554	40.06
	중소도시	4,515	42.93	4,980	50.42	4,102	46.24
	농산어촌	1,424	13.54	1,086	10.99	1,216	13.71
계		10,518		9,878		8,872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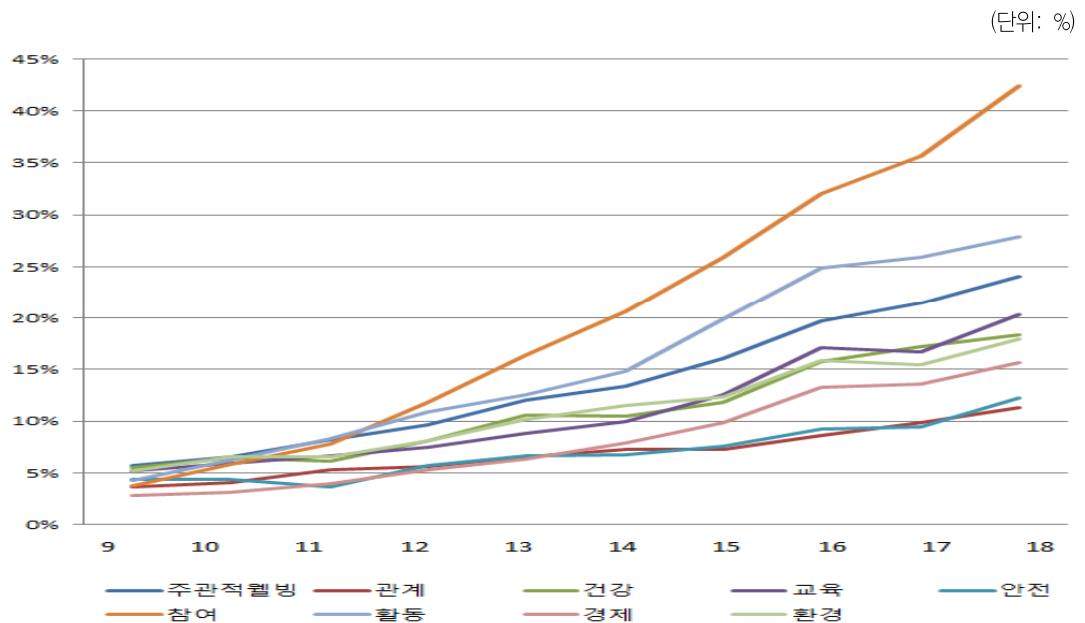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하여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분석은 총 아홉 개의 영역에 대해서 연령, 코호트, 기간에 따라 각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아홉 개의 영역은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한 아홉 개의 영역으로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이다.

각 영역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 중에서 본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응답하였다. 총 11점 척도 중에서 0점~4점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 영역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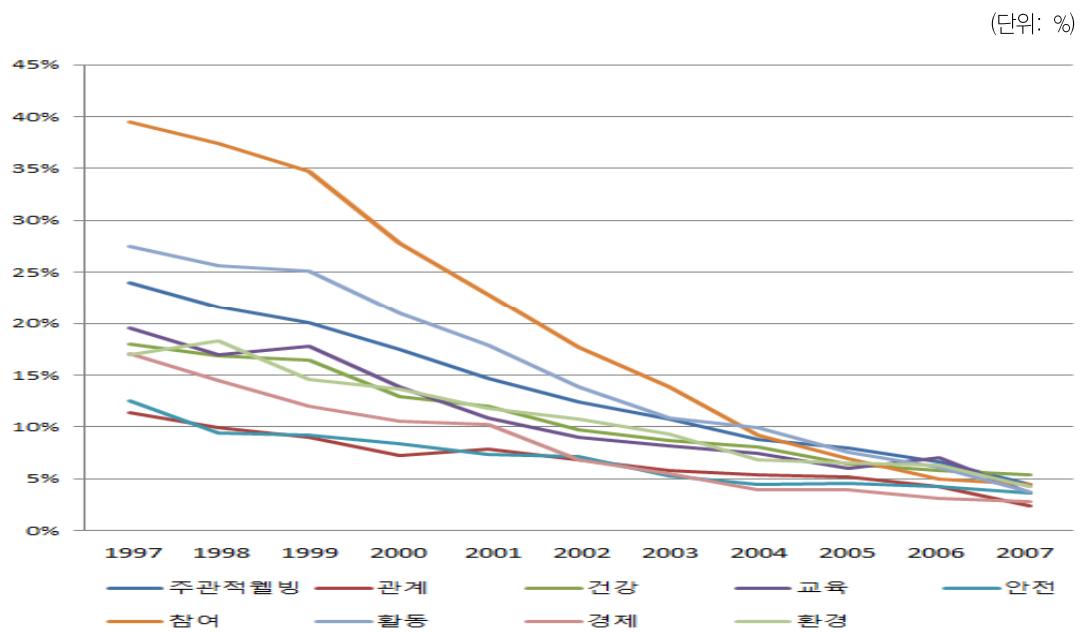
1)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

우선 본격적인 연령-기간-코호트 모델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연령, 기간, 코호트 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다른 요인을 보정하지 않고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연령별로, 각 코호트별로, 각 기간별로 각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아래 세 개의 그래프와 같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의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아홉 개 영역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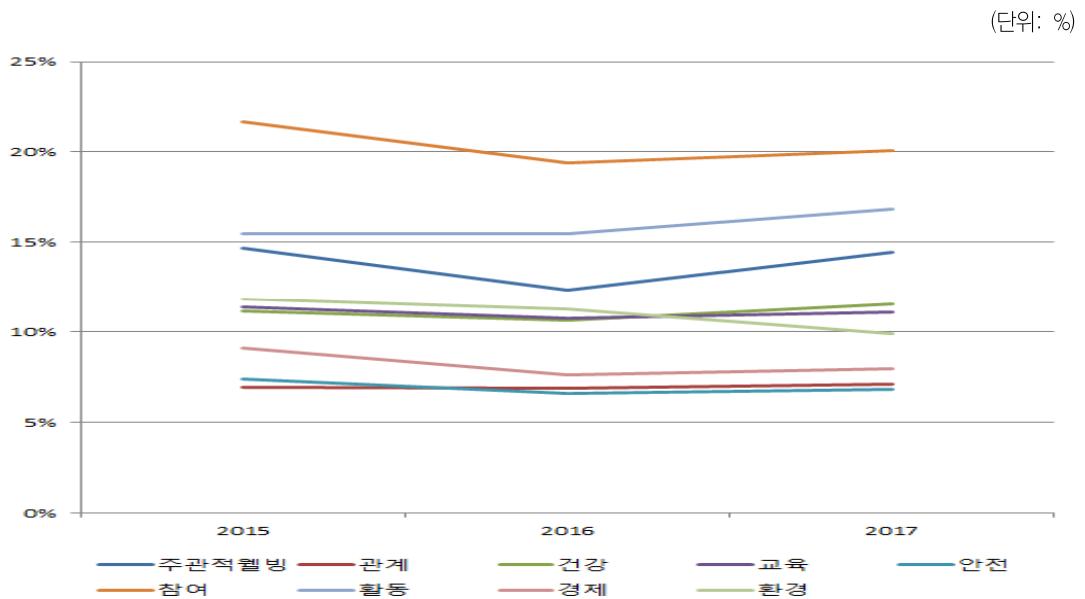
출생 코호트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일찍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간효과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2016년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1】 만연령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기간과 코호트를 보정하지 않음)



【그림 IV-2】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연령과 기간을 보정하지 않음)



【그림 IV-3】 조사 기간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연령과 코호트를 보정하지 않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다른 시간 요인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기간에 따른 효과는 연령효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코호트 효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기간효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흔히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분석의 경우 연령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코호트와 기간의 효과를 보정하지 못했고, 코호트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연령과 기간의 효과를 보정하지 못했으며, 기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연령과 코호트의 효과를 보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각 요인의 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결과이다.

2)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한 분석 결과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의 분석 결과는 연령효과의 경우 각 연령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비율로 보고하였다. 코호트효과와 기간효과의 경우 상대적 불만족 정도(relative risk)를 계산하여 보고하였다. 즉 모든 코호트, 혹은 모든 기간에서의 평균을 1이라고 할 때 각 코호트와

기간에서 불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평균보다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보고하였다. 가령 특정 코호트에서의 값이 1.1이라고 한다면 이는 전체의 평균과 비교할 때 해당 코호트에서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1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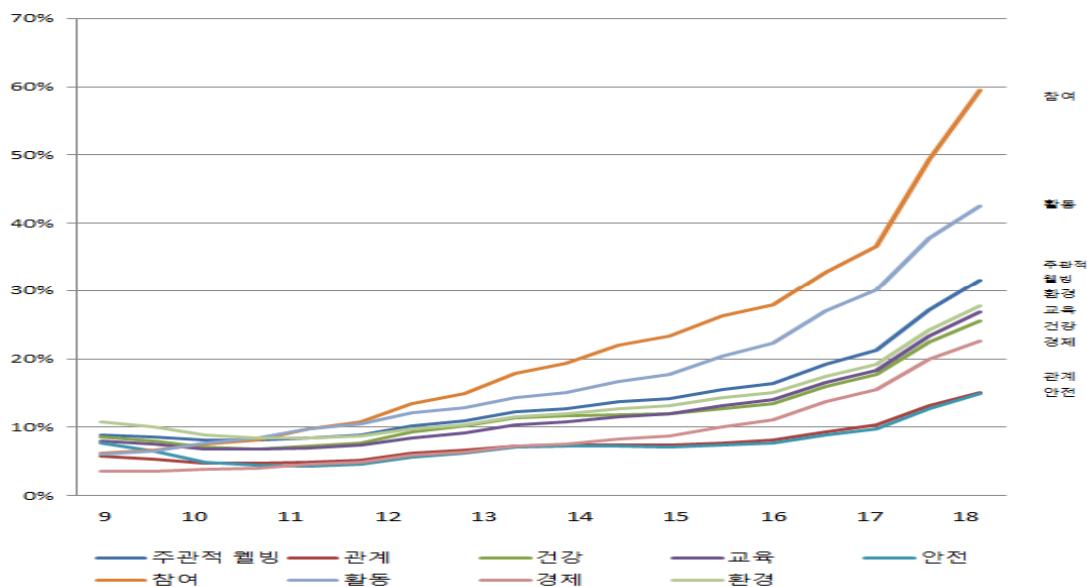
(1) 연령효과

다음에 제시한 [그림 IV-4]는 아홉 개 영역에서의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을 코호트 효과와 기간효과를 보정한 상태에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코호트와 기간의 효과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조금씩의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아홉 개의 영역에서의 세부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그림 IV-5]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주관적 웰빙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연령효과를 분석한 결과, 만 10세에서 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들어남에 따라 점점 불만족 비율이 높아서 만 17세에서는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아진다는 방정환재단에서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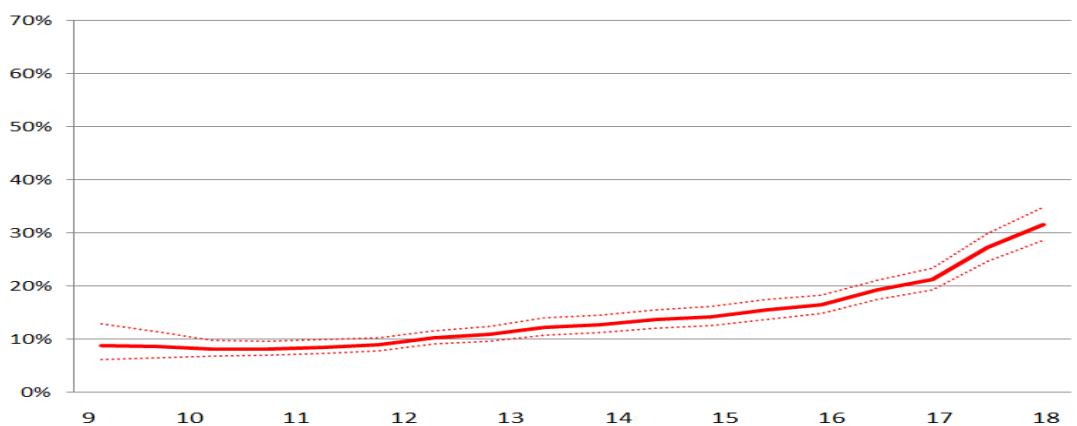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나머지 여덟 영역에 대해서 연령효과를 분석하였다. 코호트와 기간효과를 보정했을 때,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계, 안전, 경제, 건강, 교육, 환경, 활동, 참여 순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덜 나는 관계, 안전, 경제, 건강 영역에서의 연령효과를 제시하였고, [그림 IV-7]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교육, 환경, 활동, 참여 영역을 제시하였다. 연령의 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 관계의 경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10세에서 5%, 가장 높은 17세에서 15%로 나타나 차이가 10%p밖에 나지 않았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경우 활동 영역(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6%p, 참여 영역 (사회에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에서는 53%p까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 %)



【그림 IV-4】 만연령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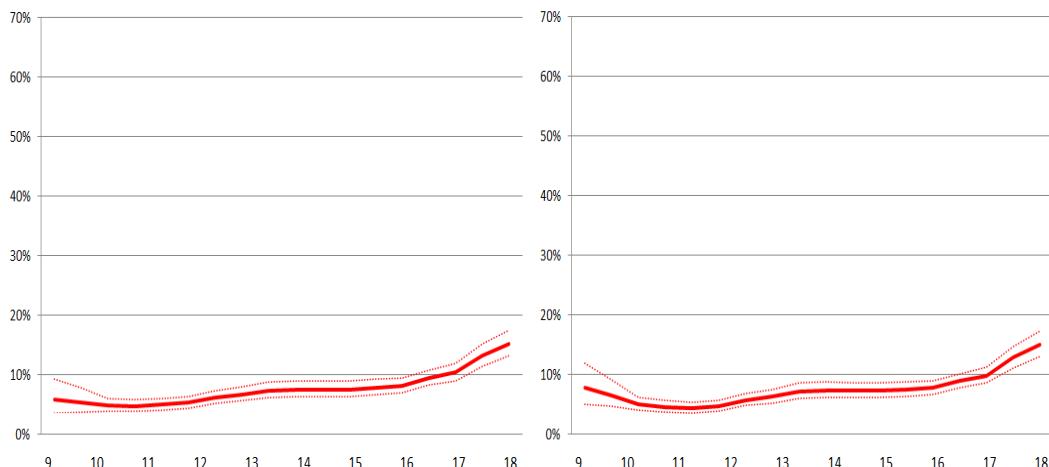


【그림 IV-5】 만연령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굵은 선: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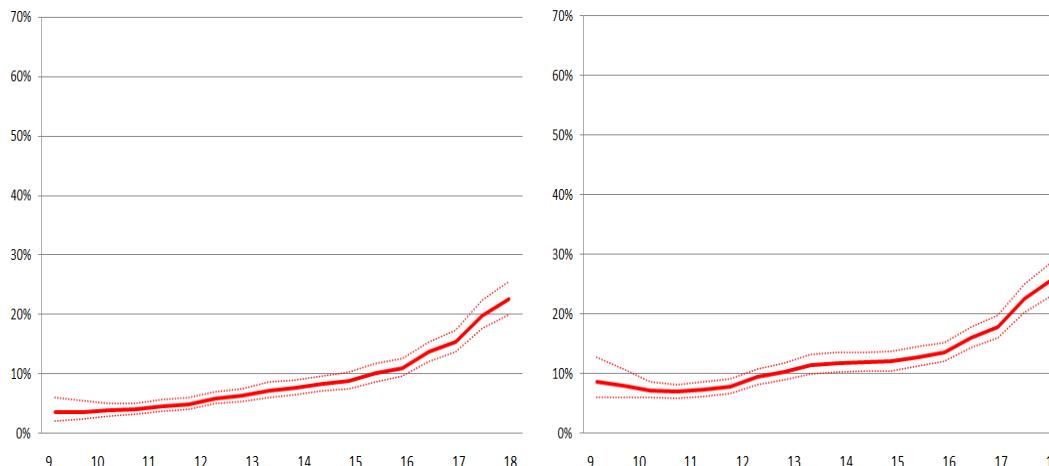
(단위: %)

만연령에 따른 관계 영역 불만족 비율 (%)



만연령에 따른 안전 영역 불만족 비율 (%)

만연령에 따른 경제 영역 불만족 비율 (%)



만연령에 따른 건강 영역 불만족 비율 (%)

【그림 IV-6】 만 연령에 따른 관계, 안전, 경제, 건강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굵은 선: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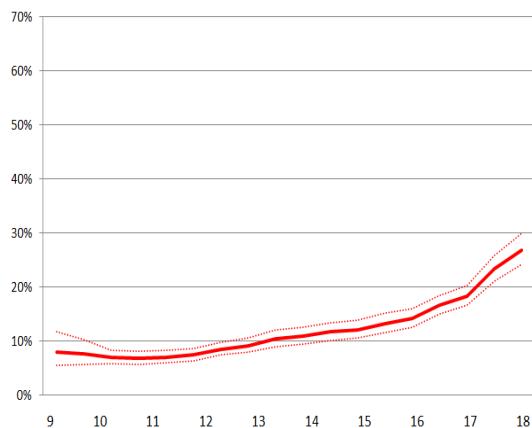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좌축 상단: 관계 영역 / 우축 상단: 안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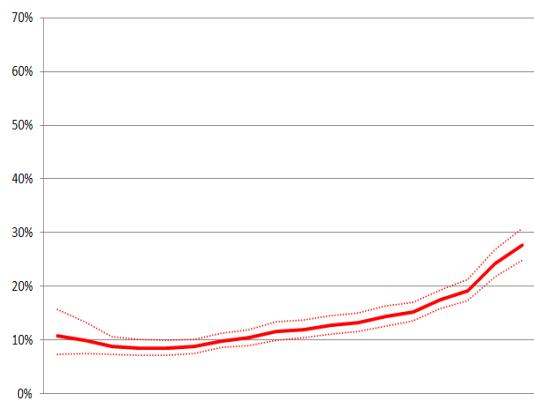
좌축 하단: 경제 영역 / 우축 하단: 건강 영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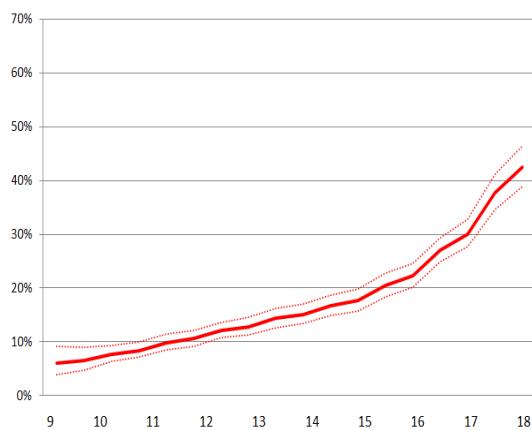
만연령에 따른 교육 영역 불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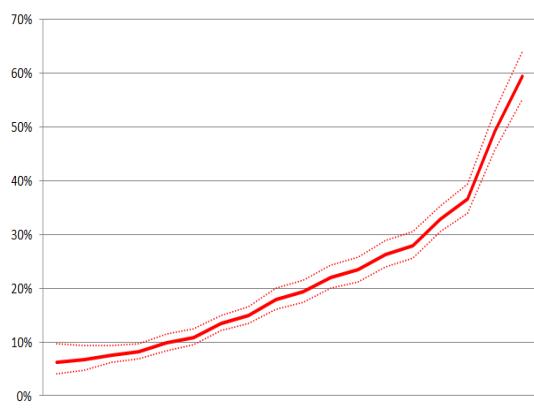
만연령에 따른 환경 영역 불만족 비율 (%)



만연령에 따른 활동 영역 불만족 비율 (%)



만연령에 따른 참여 영역 불만족 비율 (%)



【그림 IV-7】 만 연령에 따른 교육, 환경, 활동, 참여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굵은 선: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좌축 상단: 교육 영역 / 우측 상단: 환경 영역
 좌축 하단: 활동 영역 / 우측 하단: 참여 영역

위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며 유의해야 할 부분은 설문에서 조사한 문항은 말 그대로 해당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활동 영역, 혹은 참여 영역의 경우에 실제 활동이나 참여 영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 여건이나 그들 스스로 참여하는 권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연령효과가 작게 나타난 영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관계 영역이나 안전 영역과 같은 경우 연령이 높아져도 불만족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관계 영역이나 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아져도 크게 불만족 정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10대 후반의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관계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방정환재단에서 2016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한 가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생각해볼 때 위 분석 결과에서 관계, 안전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에 차이가 크지 않고, 활동, 참여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에 차이가 큰 것은 순수한 불만족 정도와 동시에 해당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코호트 효과

다음은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이 코호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즉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각 영역에서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값은 상대적 불만족 비율(relative risk)을 계산한 결과로서, 모든 코호트에서의 평균을 1이라고 할 때 (엄밀하게 말하자면, log 스케일에서의 평균이 0이라고 할 때) 각 코호트에서 불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평균보다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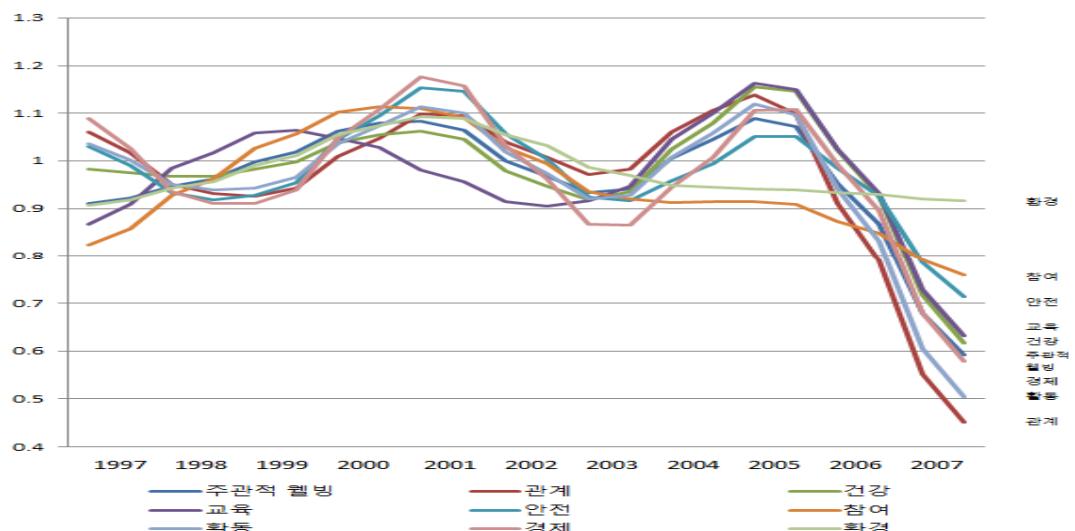
[그림 IV-8]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9개 영역 모두에서의 코호트 영역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세 가지 특징적인 추세가 전반적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다른 시간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그림 IV-2])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IV-2]에서는 코호트가 지남에 따라 불만족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을 보인 것은 연령효과가 매우 강해 그 효과만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2006년생, 2007년생 코호트에서 불만족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영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2000년생~2001년생, 그리고 2005년생 코호트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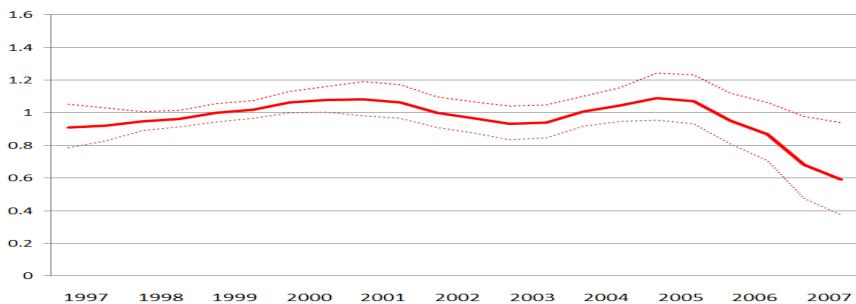
세부 영역에 따라 코호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IV-9-12]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코호트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청소년들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2001년생과 2005년생에게서 상대적 불만족 정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고, 2007년생에게서는 상대적 불만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평균과 비교할 때 2001년생과 2005년생들은 평균의 1.08배, 2007년생들은 평균의 0.6배로 나타났다.

나머지 여덟 개 영역은 대략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유독 2005년생에게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교육과 건강 영역이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2005년생뿐 아니라 2001년생들도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관계, 활동, 경제이다. 마지막으로는 2001년생에서만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안전, 참여, 환경 영역이다.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서의 코호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림 IV-10], (첫 카테고리), [그림 IV-11], (두 번째 카테고리), [그림 IV-12],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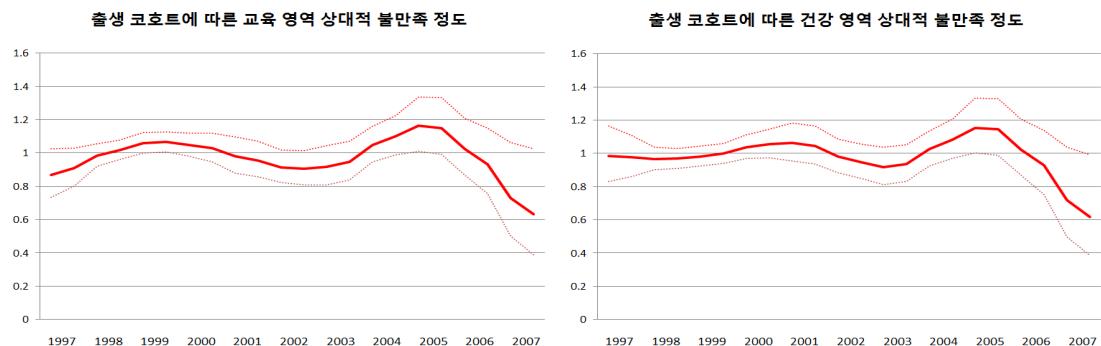


【그림 IV-8】 코호트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APC모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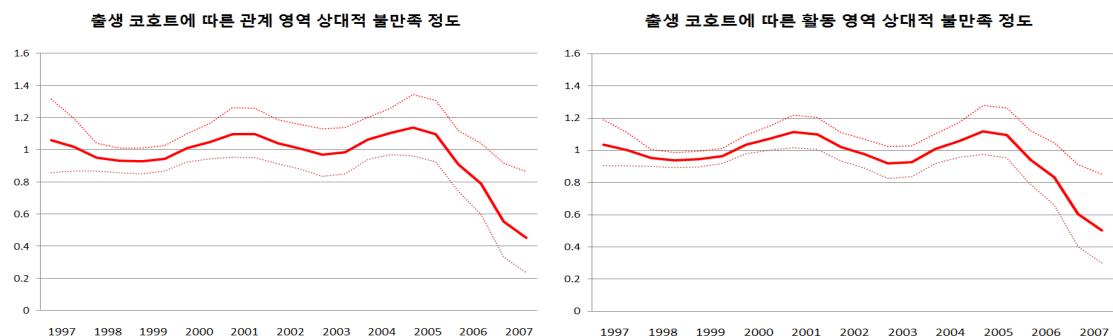
【그림 IV-9】 코호트에 따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APC모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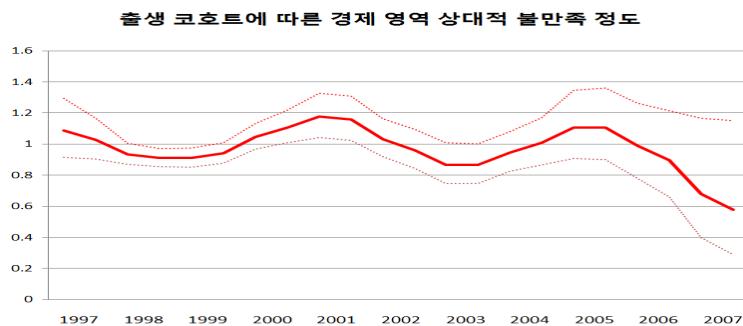
굵은 선: 코호트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그림 IV-10】 코호트에 따른 교육, 건강 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 (APC모델 사용)

굵은 선: 코호트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좌측: 교육 영역 / 우측: 건강 영역





【그림 IV-11】 코호트에 따른 관계, 활동, 경제 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APC모델 사용)

굵은 선: 코호트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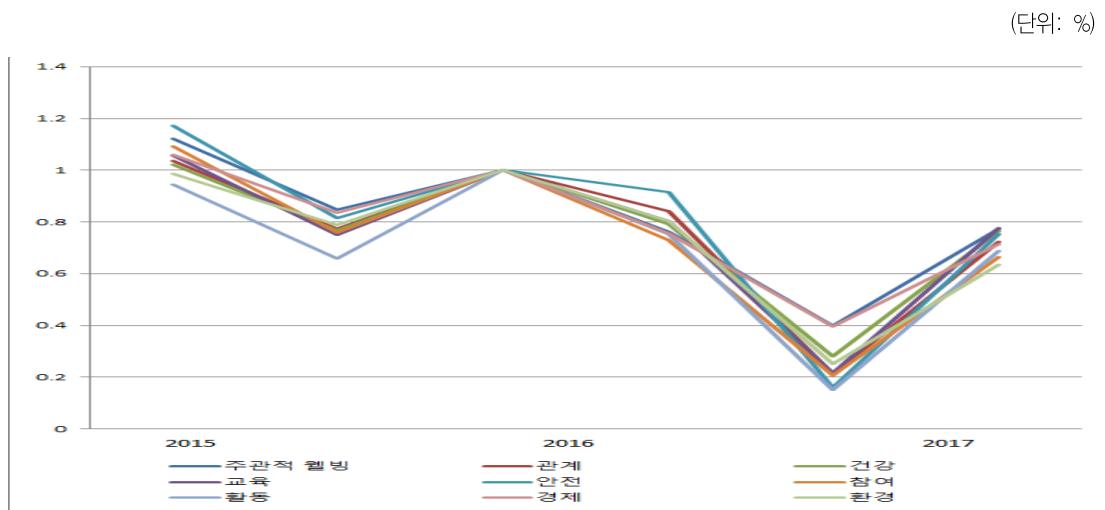
【그림 IV-12】 코호트에 따른 안전, 참여, 환경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APC모델 사용)

(3) 기간효과

마지막으로 기간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기간효과는 조사를 한 기간에 어떠한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조사를 하는 모든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뜻한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반부터 대입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스트레스가 강화된 것은 대표적인 기간효과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간효과의 경우 준거 기간을 2016년으로 설정하여 이때와 비교할 때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하였다. 9개 영역에서의 기간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V-13]과 같다. 기간효과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 IV-3]과 같이 연령과 코호트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기간효과의 경우 이를 해석을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3개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짧은 조사 기간 때문에 분석 결과 나타난 기간의 효과가 실제 기간의 효과인지, 노이즈에 의한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향후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기간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IV-13】 조사 기간에 따른 9개 영역에서의 상대적 불만족 정도(APC모델 사용)

3) 연령과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수록 삶에 만족하는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는 성적, 부모관계, 친구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어떤 연령대에 특히나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연령대에 따라서 성적이 특히 중요한 나이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가 특히 중요한 나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방정환재단의 2016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차 감소했던 반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의 경우 연령, 기간, 코호트를 나눈 상태에서의 연령효과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령-기간-코호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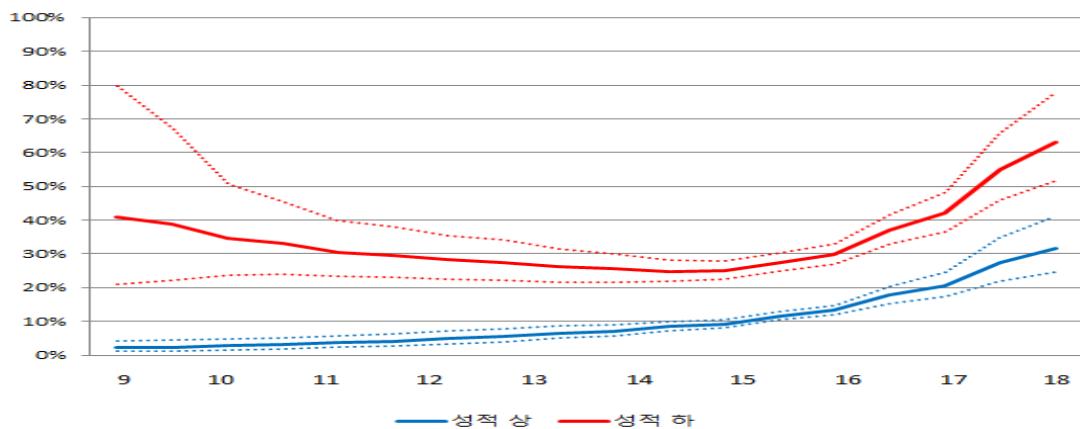
(1) 학업 성적과 연령

첫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학업 성적이다.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업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어떤 시기에 특히 성적에 따른 삶에 만족도 차이가 두드러지느냐는 것인가이다.

본 장에서 살펴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앞서 살펴본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앞의 절에서와 동일하게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0점에서 4점인 경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학업 성적의 경우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못하는 수준” ~ 5점 “매우 잘 하는 수준”)로 응답을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1~2점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 성적이 “하” 인 것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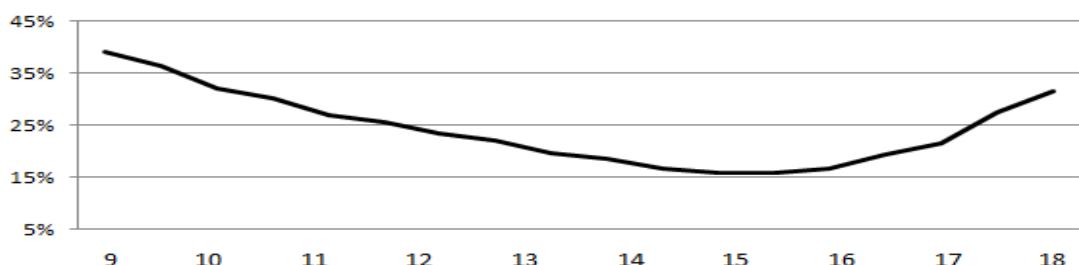


【그림 IV-14】 학업성적과 연령에 따른 삶에 불만족 비율(APC모델 사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 그룹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 그룹보다 삶에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그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본 절의 핵심질문으로 돌아가 어떤 연령대에서 특히 성적 상 그룹과 성적 하 그룹의 차이가 두드러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성적이 하인 그룹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에서 성적이 상인 그룹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뺀 결과를 [그림 IV-15]와 같이 살펴보았다. 즉 [그림 IV-14]에서 빨간 선에서 파란 선을 뺀 만큼의 값인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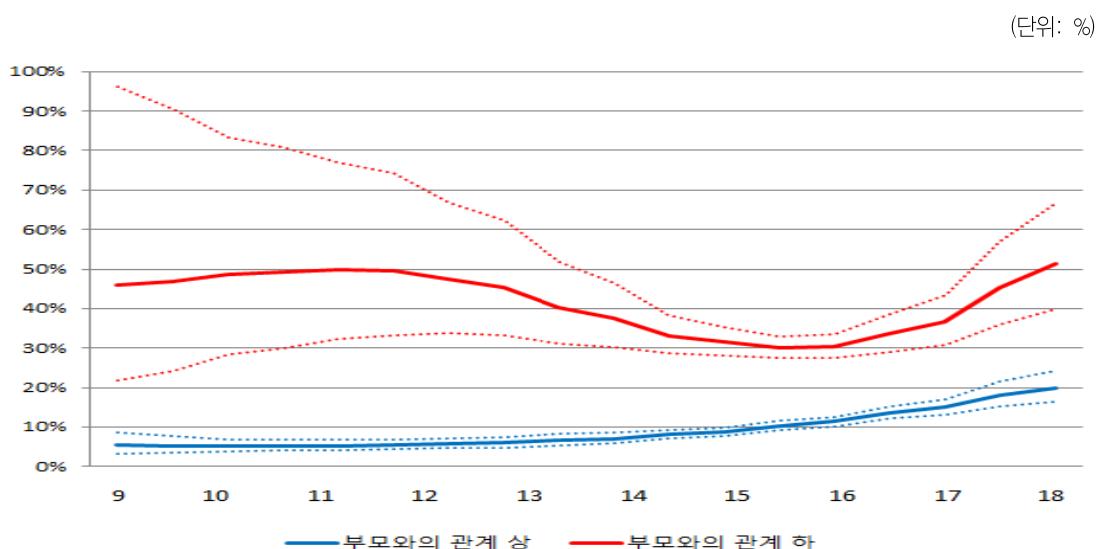
【그림 IV-15】 연령에 따른 성적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아주 어린 연령대에서 성적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 중학생 때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만 16세 이후로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학 입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들보다도 초등학생들이 성적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그림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연령대에서는 그 변량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단언하기에는 세부적인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는 특기할 만하다.

(2) 부모와의 관계와 연령

연령의 효과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는 문항에 대해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에서 1~3점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하”인 것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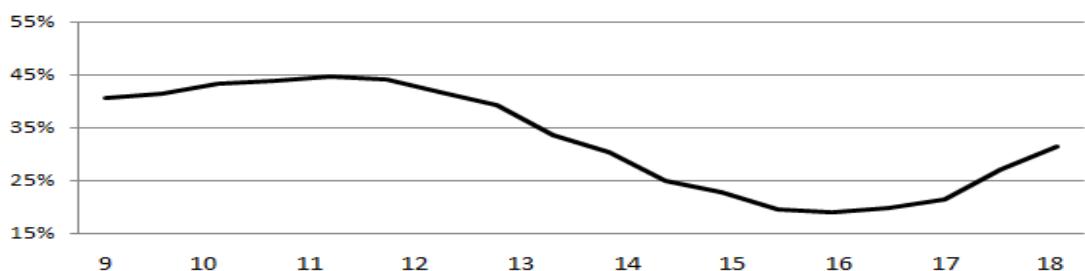


【그림 IV-16】연령에 따른 성적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굵은 선: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분석 결과는 성적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에 걸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보다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IV-1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그룹과 좋지 못한 그룹 사이의 차이는 성적에 따른 차이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가 40%p 가량 차이를 보이며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 만 16세 정도에 이르러서는 20%p 차이 정도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여 30%p까지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다. 즉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차이를 낼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점차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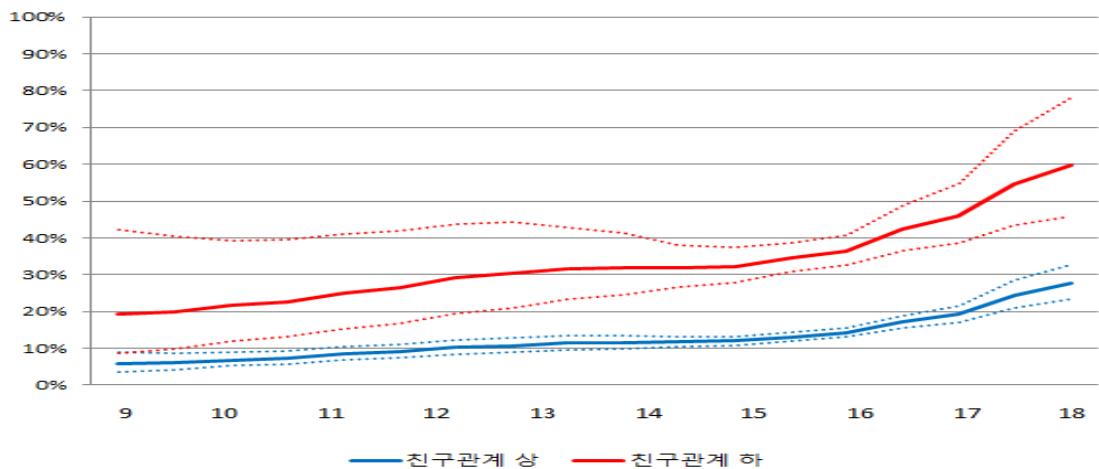
【그림 IV-17】연령에 따른 부모관계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3) 친구 관계와 연령

마지막으로는 친구 관계와 연령의 상호작용에 따라 삶에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라는 설문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를 한 결과 중에서 1~3점에 해당하는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코딩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요소들과 유사하게, 친구 관계가 좋지 못한 그룹보다 친구 관계가 좋은 그룹에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 관계에 따라 두 그룹을 나누었을 때에 두 그룹간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앞서 살펴본 두 요소와는 다른 패턴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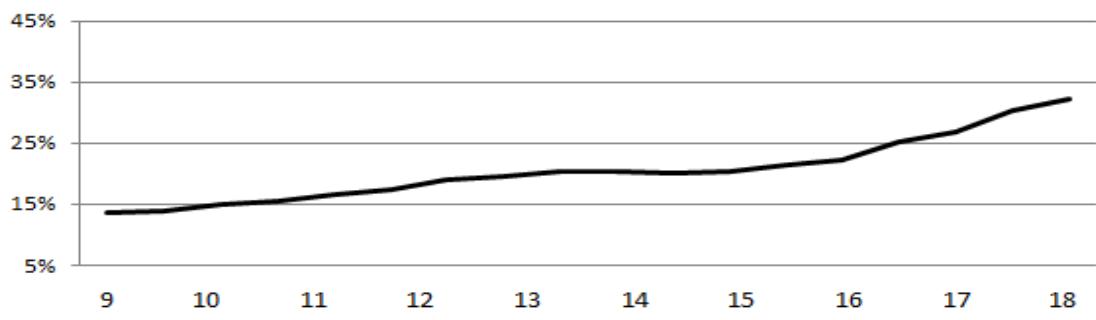
(단위: %)



【그림 IV-18】 친구 관계와 연령에 따른 삶에 불만족 비율 (APC모델 사용)

굵은 선: 연령에 따른 불만족 비율 예측 값
가는 점선: 예측 값에 대한 상, 하위 95% 신뢰구간

(단위: %)



【그림 IV-19】 연령에 따른 친구 관계 상 그룹과 하 그룹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 차이

앞서 살펴본 두 요소에서는 어린 시절에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가, 점차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감소하고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에 가서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그림 IV-1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였다. 즉 한국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 친구 관계의 중요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해 연령-코호트-기간 모델에 기반하여 시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9개 영역에서 연령과 코호트와 기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삶의 각 영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참여 영역과 활동 영역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안전과 관계 영역에서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다음으로는 출생 코호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1997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다른 코호트와 비교할 때 2001년생과 2005년생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생에게서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3개년도 데이터밖에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은 힘들지만,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본 분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세부적인 그룹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 그룹에서는 낮은 학생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관계가 좋은 학생들 그룹에서는 좋지 않은 그룹보다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가 좋은 학생들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보다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다면 연령에 따라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 성적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의 경우 만 15~16세 정도까지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구 관계가 좋은 그룹과 좋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이 결과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에 있어서 친구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학업 성적과 부모와의 관계는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그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에 따른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상이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에 대해서 획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에 기반을 두어 과학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부담과 이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행복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어떤 집단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흔히 예측하는 바와 같이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 교우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그 차이가 조금씩 상이하였고, 이에 따라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높은 학생들에 비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연령대가 만 9~12세 정도로 아주 어리거나 혹은 만 17~18세로 높은 두 집단에서 학업 성적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만 9세에서 13세로 낮은 경우에 특히 불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에 있어서 학업 성적, 부모 관계, 교우관계 모두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연령대에 따라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의 어른” 이 아닌 “청소년 그 자체”로서의 행복이 중요하다. 연령에 따른 차이 중에서 특히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참여와 활동 영역이다. 즉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청소년 활동 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낮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연령대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치를 봐도 만 18세에서 참여 영역의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0%, 활동 영역에서 43%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준의 논의들은 청소년을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집중하였다(Qvortrup, 1999).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는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을 소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대조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이른바 “well-becoming” 뿐만 아니라 “well-being”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Ben-Arieh 2007).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존재이고 이들의 주체적인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장의 분석 결과와 같이 참여 영역과 활동 영역에서의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을 소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호트에 따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같은 나이에 태어난 학생들은 생애 과정에 따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나이에 태어나고 어느 나이에 학교를 입학 했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생 코호트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코호트에 맞춤형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 중 특히 2005년생과 2001년생에서 불만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2007년생 코호트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불만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코호트 간의 이러한 차이는 모든 학교 혹은 지역 사회 내에서 코호트에 따른 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역에 따라서 코호트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 있고, 덜 나는 영역이 있었는데, 교육, 건강 영역에서는 2005년생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관계, 활동, 경제 영역에서는 2001년생과 2005년생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안전, 참여, 환경 영역에서는 2001년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역에 따라서 코호트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즉 코호트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V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운영

1. 2017 시범사업 추진 개요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3. 목포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5. 시사점

제 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운영*

1. 2017 시범사업 추진 개요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시범사업Ⅲ」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제3차년도 사업이다. 시범사업 응모 기관은 사전에 공지된 영역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과 프로그램 명칭은 지역과 참여 대상자를 고려하여 가능하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사업 기획 및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공모 내용에 명시하였다.

추진과정은 전국 단위 공모절차와 전문가 그룹 심사과정을 거쳐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연구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017. 4~2017. 9(6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하였다. 실시과정에서 단위사업별 추진과정을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리 및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사업 진행 절차는 <그림 V-1>과 같으며, 사업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서와 참여효과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취합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사전사후 인식변화에 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V-1】 시범사업 공모 및 운영 절차

* 0이 장의 1절은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은 오성우 국장(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 3절은 김민재 팀장(목포시청소년수련관)이 4절은 박근수 박사(순천향대)가 집필한 원고를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사업 영역은 제1차년도 3개(경제, 참여, 관계)를 포함하여, 2016년도에 추가한 2개 영역(건강·복지, 활동)에 2017년도에 2개 영역(청소년의회 운영, 청소년이 상상한 마을 디자인) 등 <표 V-1>과 같이 총 7개 단위 사업을 기본 모델로 제시하였다.

표 V-1 2017년도 시범사업 모델

사업명	사업내용	실행방안 제언
지방자치체 단위의 ‘청소년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원회 운영: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청소년 참여아카데미 운영 아동참여예산제: 어린이날 행사 등 예산편성에 참여 권리모니터링: 아동권리옹호, 움브즈맨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금천구, 군산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 참조(2016보고서 및 인터넷 검색) 유럽 어린이·청소년의회[핀란드, 영국, 유럽연합(EU) 등](2016 본 보고서)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도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의견과 아이디어 수집 안내 및 아카데미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올해의 상상마을[도시]’로 선정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유사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읍면동 단위 마을 수준에서 실시 성남시: ‘상상지 프로젝트’[청소년 클라우드 펀딩으로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개발 및 창업 등을 실천]
청소년 상설프리마켓 (지역협동조합 운영방식 적용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상설 프리마켓을 지역별로 운영(지역의 유무형의 자원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봉사활동과 연계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판매 등 경제활동과 문화행사 병행 추진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판매 적극 권장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들과 연계하여 공간 협조와 운영 노하우 공유 <p>★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1절 설립 15조(설립신고) 참조</p>
청소년 움브즈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된 문제점을 토론과 조사 활동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지자체에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기구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자율성 부여
청소년-어르신 동반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단위 복지시설이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통합의 공간 및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벼운 프로그램부터 시작(예: 봉사활동, 장기자랑 등) 적극적인 활동팀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취약계층·다문화 ·아주배경 아동·청소년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기초학습지도를 포함하여 청소년기의 정체감과 또래관계 등의 발달과입에 대한 고민을 공유 및 지원 기간은 6개월~1년 단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지도자 및 은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능기부와 봉사기회를 제공함 중·고등학생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시전교육실시 및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관리 필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및 창업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함양과 직업체험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와 창업 교육 실시, 나아가 창업 공간과 예산 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일자리 은행’ 및 ‘상설 프리마켓 운영’ 등과 연계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구축 및 지역사회 특화 산업 발굴 지역 내 기업체와 후원계약 체결 및 현장교육과 인턴제도 운영

참조: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공모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2. 군산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1) 추진 개요

금년도 시범사업 기관 중 하나인 '(사)들꽃세상 군산시청소년자치연구소'는 2015년과 2016년에 연속하여 2017년에 3년차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아동과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하여 시범사업 실천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들을 지난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여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축약하였다.

군산시 청소년 인구(10-24세) 현황은 남 26,053명, 여 23,492명으로 전체 49,545명이다. 학교현황은 초, 중, 고등학교 87개교이며 학급 수는 1,305학급이며 학생 수는 32,912명이다.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 4개교로 126학과 17,939명으로 군산시 전체 학생 수는 50,851명이다(군산시청, 2016).

참가자 모집 계획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카카오채널 및 밴드(BAND)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다. 또한 본 사업 대표자가 SNS전문가로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 중인 들꽃청소년세상 전북 지부인 청소년자치연구소 카페 회원(8,440명)을 중심으로, 운영자 페이스북 프로필 친구 회원(5,000명 및 팔로워 2,714여명),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네트워크 그룹 페이지 회원(7,062명), 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3,397명), 연구소 카카오채널(459명) 등 본 사업 운영진과 연계된 직접적인 홍보 가능한 회원 수는 2만 7천 명 정도이다.

한편,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2016)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행복상태를 비롯하여 3가지 영역(친척·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10대 그룹(10세~19세)의 평균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간 군산시와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영향과 군산시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의 실태조사(군산대학교, 2016) 결과에서는 군산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역시 전국과 단순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군산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전국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군산 아동실태조사(2016)에서는 15.0%의 응답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업 운영 계획

(1) 2017년 시범사업 목표

- 청소년의 자율성이 바탕이 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친화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 및 정책제안을 위한 청소년 주도의 실질적 사업 모델링

(2) 세부 프로그램 일정 및 운영 목표

군산시에서 2017년도에 운영된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 및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영역	세부 사업	시행 일정
달그락 Youth Market	○ 참여자 모집 및 홍보(청소년 소셜셀러 ⁴²⁾ 모집)	3월
	○ 청소년 소셜셀러, 진로지원 위원회, 자원활동가 조직화	4~5월
	○ 청소년 소셜셀러를 위한 경제 아카데미	5월
	○ 청소년 소셜셀러 팀별활동과 전체회의	5~9월
	○ 청소년 진로지원 위원회	4~9월
	○ 청소년 진로지원 자원활동가	4~9월
	○ 실내 달그락 Youth Market	5~8월
	○ 중간 평가회	6월
	○ 선진 프리마켓 탐방기	7월
	○ 야외 달그락 Youth Market	8월
청소년의회 운영	○ 청소년 소셜셀러의 지역사회공헌활동	8~9월
	○ 최종 평가회	9월
	○ 청소년참여아카데미	5월
	○ 청소년 의회 정기 활동 지원	5~9월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청소년 참여예산 워크숍	8월
	○ 조례 제안 및 평가회	9월
	○ 참여자 홍보 및 모집	4월
	○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5월
	○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활동	6~9월
	○ 상상 캠프	8월
	○ 청소년 참여포럼	9월
	○ 보고서 작성 및 제안	9월
	○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9월

42) 소셜셀러(social seller)는 본 사업에서 명명한 것으로써, 이는 사회적 판매자로서 사회적 경제활동의 주체를 뜻한다.

① 달그락 Youth Market(3-9월)

- 청소년 중심의 경제활동 기획과 추진을 통한 청소년 주체성 강화
- 지역 내 사업체와 청소년간의 협력 및 연대 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
-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동시에 지향하며 도전의식과 남다른 발상을 갖춘 기업가정신 함양
- 경제·경영 관련 실질적인 청소년 진로 탐색 기회 확대

② 청소년의회 운영(5-9월)

-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 청소년 의회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 강화
-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 의회 활동의 활성화

③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안한 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확보
- 지역사회 마을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제안점 도출

3)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1) 달그락 Youth Market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모집 및 홍보	경제활동 기획 아카데미 진행 및 활동 참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4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공문발송 - 지면 홍보(시정 홍보지, 지역 정보지 등) - 온라인 홍보(온라인 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웹 전단 개재) - 길거리 홍보(학교 등학교 시간을 중심으로 전단지 배부) - 교사 대면홍보(진로, 진학,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중심, ○○여자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 -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홍보(청소년이 홍보지 제작 및 학교 내 게시, ○○여자고등학교) 	공문 발송 33회 지면 홍보 2회 보도 자료 1회 온라인 공유 4회 대면 홍보 17회 청소년 30명 모집 멘토 7명 모집	
청소년 소셜셀러 활동 도리엔테이션	주체적인 팀 구성 및 공동체의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3월31일, 4월1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 - 각 자치기구 분야 및 연간 계획 발표 - 신규 청소년의 자치기구 결정 - 각 자치기구 별 회의 진행 	오리엔테이션 2회 청소년 40명	
청소년 소셜셀러 경제&진로 아카데미	아카데미 기획진행을 통한 청소년 주체성 강화 및 경제활동 기획과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월28일, 6월17일 • 장소 : 달그락달그락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교육 내용 욕구 확인,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 역할 담당 및 준비 - 교육 프로그램(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와의 만남: 청소년 프리마켓, 어디까지 알고 있니?(○○○, ○○○, ○○○, ○○○) . 진로 아카데미: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고창 문화원 음악 감독) . 기업가정신 아카데미: 경영의 첫걸음(○○○, GS3 대표) - 교육 프로그램(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아카데미(○○○,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홍보 아카데미: 홍보, 넘나 중요한 것(○○○, 청소년진로지원위원회 위원장) . 창업 아카데미: Youth Market, 성공할 수 있을까?(○○○, 꿈끼지 쿠키아트창의연구소 대표) - 팀별 연간 계획 공유 및 연계 논의 - 팀별 연간 계획 발표 - 활동 내용에 따른 연계 논의 	2회 교육/6차시 청소년 60명 (연인원)	
제 V 장	청소년 소셜셀러 단체회의 및 팀별 활동	청소년경제 활동의 전문성과 추진력 향상 및 청소년 지지체계 형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진로 지원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5월~9월 • 장소 : 달그락달그락, 야외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팀 조직: 기획자치기구, 불꽃길 스네일 달달베이커리, 달케티 어트랙티브, 메카 트로니스트 - 청소년자치기구 회칙 제정 - 팀별 연간 계획 구성 - 상품 기획 및 아이디어 회의 - 청소년경제활동의 전문성 확보 및 청소년 지지체계 형성 위한 팀별 멘토 연계 활동 - 쿠키·빵 제작 팀은 시연회를 통해 맛 평가 및 가격 책정, 제작 방법 습득하고 	전체 회의 10회/100명 임원회의 5회/35명 팀별 회의 10회/20명 멘토 7명 연계 시연회 4회 진행 /청소년 28명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 진로지원 위원회	지역 내 사업가와 청소년의 협력으로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5월~9월 장소 : 달그락달그락 및 각 사업장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자치기구 상품 및 판매 계획 마련 도구 대여 및 상품 기획 지원 아카데미의 강의를 통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전달 및 적절한 강사 추천 청소년들이 마켓 컨셉 구성, 홍보 등 총괄적인 기획이 가능하도록 지원 	회의 4회 활동지원 20회 위원 30명
청소년 진로지원 자원활동가	지역 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5월~9월 장소 : 달그락달그락 등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청소년 경제활동 등을 이해하는 스터디 진행 청소년 셀러를 위한 진로&경제 아카데미 지원 각 자치기구 회의 및 활동 준비 지원 선진 마켓 텁방 시 동행 지원 	회의 6회 활동지원 10회 자원활동가 50명
선진 마켓 텁방	경제활동의 동기부여 형성 및 임원 관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7월22일 장소 : 전주 남부시장, 소셜캠퍼스온 팀별 주요 활동 : - 임원 청소년들의 사전답사(7월13일) - 강의: 청소년 경제활동의 의미(○○○, 전주남부시장 단장) - 경제활동 기획 및 운영 관련 질문 작성 및 청년사업가와의 인터뷰 진행 - 청년사업가와의 간담회 진행 - 청소년 작가단과의 달그락 Youth마켓 연계 논의 및 임원 평가회의 	사전답사 1회 (청소년 3명) 청소년 15명 자원활동가 3명 청년사업가 20명
중간평가회 1	경제활동 진행 과정 확인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8월6일 장소 : 달그락달그락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그락 Youth마켓 최종 점검 및 주의사항 전달 달그락 Youth마켓 오픈식 공동 기획 및 영상 촬영 	청소년 30명
달그락 Youth 마켓 기획단 활동	청소년 중심 경제활동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7월~8월 장소 : 달그락달그락 등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마켓 기획 · 운영 전반의 권한을 청소년에게 부여 총괄 · 기획팀: 각 섭외, 홍보 이벤트 팀의 교류 및 추진을 지원 섭외팀: 지역 내 청소년 프리마켓 운영에 적절한 장소 조사 및 분석, 장소 섭외 홍보팀: 활발한 소비자 유입을 위해 홍보 전략 수립 및 진행(포스터 작성 SNS 업로드 및 공유 이벤트 진행) 이벤트팀: 마켓 판촉 및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공유 이벤트, 락지락기 등) 참가자관리팀: 경제활동 외부 팀을 모집, 신청서 제작 및 작성 지원, 문의 및 상담 	회의 11회 (청소년 60명) 섭외 요청 3회 (청소년 15명) 지역 내 홍보 8회 (청소년 60명)
달그락 Youth 마켓 운영 (실내, 야외)	청소년 중심 마켓 운영 및 실제 경제 활동 진행을 통한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8월9일~10일(실내)/8월12일, 13일(실외) 장소 : 달그락달그락(실내)/케스트하우스 책방(실외)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식 기획 · 진행(각 자치기구 활동 과정 및 상품 안내, 멘토 초대하여 감사장 전달, 렌웨이) 청소년 주도의 마켓 운영 오리엔테이션 진행(배치지도 및 일정, 주의사항 안내, 역할 규정) 물품 판매(드라이클리어, 벗지, 책갈피, 팔찌, 음료, 빵, 쿠키, 어망봉, 팔찌,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외부 동아리 및 청소년 3팀 연계(기방 고리, 액세서리, 음료 등) 홍보활동(현수막 걸기, 전단지 배포, SNS홍보) 금전 출납 정리 이벤트 진행(포토존에서 사진촬영, SNS공유, 상품추첨) 평가회의를 통한 수정 및 보완 	4회/24시간/ 청소년 150명 자원활동가 10명 (연인원) 마켓 방문자 수 400명(연인원)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중간평가회2	중간평가를 비탕으로 차후 활동의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8월18일 장소 : 달그리달그락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마켓 준비 및 기획, 운영 등 활동 전반 평가 -미션 비전, 목적 평가, 과정 및 만족도 평가 진행 -긍정, 강점, 실용평가 진행 -지역사회 기여활동 논의 일정 계획 -지원 해준 지역 성인에게 감사인사 논의 	1회/청소년 25명
최종평가회 및 워크숍	지역 내 성인과 청소년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차후 지역사회 기여 활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9월30일 장소 : 시민예술촌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동 진행 -지역사회 기여활동에 대한 교육 및 논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기획팀 구성 -최종평가 진행 	청소년 20명 지원활동가 7명 위원 5명
지역사회 기여활동 (예정)	지역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인지 및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10월30일 장소 : 동국사길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중심의 문화 축제 기획·진행 -지역 내 상가 방문 및 교류 활동 -지역 시민에게 문화 활동 제공 	회의 5회 청소년 100명 지원활동가 50명 위원 20명

(2) 청소년 의회 운영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 의회 정기 활동 지원	청소년이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를 <u>스스로</u>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5월 27일, 6월20일, 6월24일, 8월19일, 9월16일, 9월23일 장소: 군산시청, 군산시립도서관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의회 발대식 -임명장수여, 멘토 위촉, 리더십 특강 등 -멘토단 회의 -어린이 청소년의회 상임위 토론 제안, 군산시 청소년 정책 방향성 토론 -아동권리광장 조성 제안 안건 회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연계) -전국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류 포럼 참여(광주) -상임위원회 활동(임시회의) -교육, 복지, 안전 영역 지역 청소년 정책분석 등) -정기회의 -복지-교육-안전 상임위별 정책 제안 및 토론 -본회의 정책 안건 상정 각 주무부처 논의 안 토론 	6회 180명(연인원)
청소년참여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 의회 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3일 장소 : 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 이해와 청소년 의회 발전방안(○○○위원장,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지방의회 운영 및 청소년 의원 활동(○○○ 행정복지위원장, 군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의 역할과 사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활동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1회/5시간 30명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 참여예산 워크숍	청소년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제안 할 수 있는 기회로 정책제안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7월 15일 장소 : 달그락달그락 내용 : - 군산시 예산분석의 사례 및 방법(○○○국장, ○○참여자치시민연대) - 청소년 참여예산의 이해와 의회의 역할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어린이청소년의원 상호 토론 (○○○간사, 청소년자치연구소) 	1회/5시간 50명
조례 제안 및 평가회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0월~12월 장소: 미정 - 어린이 청소년 정책창안 대회(12월) 기획 논의 - 의회 활동 중간 평가 및 하반기 활동 계획 - 청소년 참여예산 조례(안) 논의 	3회 90명(연인원)

(3)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정책 개발을 위한 분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11일 장소 : 달그락달그락 내용 : - 청소년 상상마을 프로젝트 이해 및 참여활동을 통한 지역 변화 사례파악 - 지역사회 모니터링의 이해 및 방법 -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한 안건을 바탕으로 집중 주제 선정 및 분과 나눔 - 토론 및 발표 	1회/5시간 60명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활동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6월12일, 6월24일, 7월8일, 7월22일, 9월19일, 9월30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과 상상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한 청소년 연합 추진회의 내용: - 개발된 청소년 친화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 자료집을 차년도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 임원진 정기회의(월1회) -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12개 이상의 자치기구 활동 공유와 연계 논의 -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홍보 및 기획부서 논의 - 청소년 참여포럼추진위원회 논의 - 상상캠프추진위원회 논의 및 구성 	6회/180명(연인원)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의 주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명 : 봉지의 상상 (복지·인전분과, 달봉이와 기지단의 상상) 목적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예약을 통해 역할 분담 및 정체인간에 대한 자료조사(관련법 타 자체 시례) · 관련 전문가 인터뷰(000여명 대표 : 군산 시내버스 준공공체 도입 제안) ·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 진행 ·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 및 일바 살피에 대한 기획보도 및 DYBS 청소년 SNS 방송국 패널을 통한 청소년 일바 살피 뉴스 송출 	10회/ 350명(연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명: 미소의 세상 (교육 진로 분과) 목적: 획일화되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만들기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적인 보통학습 폐지와 이간지율학습의 자율 선택과 비용 최소화에 대한 논의 · 대학교의 수강 교류 · 교내 학생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7회/ 70명(연인원)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 상상 행복미을 만들기 추진활동	<p>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확보</p> <p>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자체와 공유 및 제안한 사항을 반영 토대 마련</p> <p>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안한 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5월 ~ 9월 장소: 달그락달그락, 군산시립도서관 등 5개 분과(청소년인권참여, 경제, 문화, 교육진로, 복지안전) 청소년 활동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정기회의(청소년인권참여, 경제, 문화, 교육진로, 복지안전) - 청소년자치단 작가단, 경제활동자치기구, 인권자치기구 등 12개의 청소년 자치기구원들 중 정체개발을 위한 청소년 분과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7월26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 (1차) '청소년 인권과 참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선언 및 취지안내 (○○○ 위원장,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 기조발제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의 몇 가지 이슈 (○○○ 조사관, 전북교육청학생인권센터) · 지역사회청소년인권 (○○○ 시의원, 군산시의회) · 폭력과 학교 (○○○ 변호사, ○○○ 법률사무소) · 청소년 참여활성화 (○○○ 청소년,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 청소년 인권보장(○○○ 청소년, 달그락 인권자치기구, 2017 군산시 청소년의회) - 전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9월8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 (2차) '청소년 문화관점과 정책대안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선언 및 취지안내 (○○○ 위원장, 청소년위원회) - 기조발제: 청소년문화의 관점과 정책 방향 (○○ 교수, 순정향대학교)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청소년 문화 활동 제안(○○○ 촌장, 시민예술촌) · 군산의 청소년문화관점(○○○대표, 매거진군산) · 청소년 문화 정책제안 과정 (○○○ 청소년, 청소년 정책개발 문화분과) · 청소년들의 문화정책 제안사항 (○○ 청소년, 청소년 정책개발 문화분과) · 군산시 청소년문화정책 (○○○ 의원, 군산시의회) ·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 대표, 복합문화공간 띄움) - 전체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9월16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 (3차) '청소년 경제 관점과 정책대안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선언 및 취지안내 (○○○ 부위원장, 청소년 진로지원 위원회) - 기조발제: 청소년 경제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 교수, 고신대학교)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생각해야 할 경제의식 (○○○ 위원, 청소년위원회) · 군산시 청소년 경제정책 (○○○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 국제 청소년 경제 활동 (○○○ 대표, 한국비트남 비즈니스센터 / 주) 투어엔비디아 · 청소년 경제 활동의 의미 (○○○ 청소년 대표, 달그락 경제활동 자치기구) · 청소년들의 경제정책 제안 사항 (○○○ 분과장 달그락 청소년 친화정책개발 경제분과) - 전체 토론 	<p>각 분과별 회의 진행</p> <p>1회/ 70명 참여/ 전문가 5명/ 보도자료 3회</p> <p>1회/ 60명 참여/ 전문가 6명</p>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상상 캠프	청소년이 상상하는 지역사회 모습을 정리하고 정책안건으로 만들어 내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4일, 5일 • 장소: 목포청소년수련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 및 체험활동 - 분과별 상반기 활동내용 공유 및 토론 -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지도그리기 1,2차 (우리 분과가 생각하는 청소년 행복 마을에 대한 목표설정, 행복자체 요소 찾기, 정책안건 재분류 및 아이디어 논의) - 발표와 토론 - 청소년 진로토크 콘서트 - 세월호 유가족 만남 및 선언문 전달 	1회/ 70명 참여/ 보도자료 2회
청소년 참여포럼	지역사회 마을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 및 제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활동 • 일시: 8월15일, 20일, 27일, 9월3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회의 - 1차: 추진위원장, 부추진위원장 선출, 참여포럼 계획서 작성 - 2차: 포럼 토론내용 선정 및 내용 구성, 진행, 홍보, 기획 TFT 팀으로 나누어 활동 - 3차: 책자 구성 및 분과별 토론문 작성 - 4차: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지도(안) 제작 	4회/ 80명(연인원)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9월9일, 9월23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준비/ 진행 평가 - 청소년 정책제안 방안 논의 (청소년 정책을 표시한 상상행복마을 지도 구성) 	2회/ 20명 참여 (연인원)
보고서 작성 및 제안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월~11월 중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방법 논의 및 추진회의 - 포럼내용을 바탕으로 한 군산시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정책 지도 구성 - 정책 간담회 - 정책의제 설문조사 시행 - 청소년 참여포럼 안건 정책제안서 작업 	3회 120명(연인원)

4)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

(1) 달그락 Youth Market 영역

① 모집·홍보 및 청소년소셜셀러 활동 오리엔테이션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모집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활동했던 자치기구 청소년 회원의 홍보 및 모집 활동으로 작년 활동과 연속성 청소년자치연구소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는 SNS 내용을 통해 외부의 청소년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사 및 동아리 담당 교사 등 청소년 경제 활동과 관련된 교사 등을 목록화하여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온라인 공간 내 청소년들과 교류 및 소통 필요 이는 차후 활동 청소년 모집 연속성 등에 도움
청소년소셜셀러 활동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간 자기소개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치기구 회원들의 친목도모 청소년의 주도로 자치기구 활동 소개 신규 청소년 유입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시작부터 청소년들에게 역할과 책임 부여를 통해 활동의 동기부여 분야는 다르나 공동 사업 기획·진행하는 것을 사전 공지 필요

② 청소년소셜셀러를 위한 경제&진로 아카데미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프리마켓 어디까지 알고 있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활동 청소년들의 강의로 청소년 경제활동을 실제적으로 이해 담당자 및 강사의 청소년들 욕구 사전 파악 시청각 자료, 핵심 키워드 및 내용 전달 방식으로 단시간에 효과적인 강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의 간담회는 교육적 효과 있음 마켓 기획 시 선배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는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 준비 및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피악
경영의 첫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및 기초 경제 강의로 청소년들이 경제 개념을 효과적 이해에 도움 이론 중심의 강의 방식이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피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교육 및 경제활동의 체험을 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진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방식의 강의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 진로에 대한 생각 및 관점 이해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및 소통방식의 강의 형식이 중요
홍보, 넘나 중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의 중요성 및 구체적인 홍보 방법 실습으로 이해 및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구체적인 홍보 방식 및 계획 구성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대해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적용해보는 실습 방식을 적극 활용이 필요 강의 이후 각 팀의 홍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드백 및 지도 병행 필요
Youth Market, 성공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운영의 실패 및 성공 사례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효과적 그러나 내용 전달 방식의 한계로 일부 청소년들에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및 피드백 교류의 교육 콘텐츠 필요
차후 프리마켓 활동 계획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전반의 계획 논의를 통한 소통 및 교류의 효과 이를 통해 성인조직(위원회, 자원활동가)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효과적 효과적인 공동 계획 구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초기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활동의 추진력 향상

③ 청소년소셜셀러 활동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물품제작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멘토와의 자속적으로 예비물품을 만들면서 제작 능력 향상 각 팀마다 상품기획 혹은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적 실사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인 상품기획 및 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필요 긴 준비기간으로 청소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활동 필요 	
청소년소셜셀러를 위한 경제와 진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전반적인 아카데미 기획과 진행을 통해 기획력 및 자기효능감 향상 기획 및 섭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기획 및 강사 섭외에서 어려움 보임 학원 등의 이유로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사례 있음 사전에 강사와 담당자가 청소년 활동 과정 등을 공유하여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직접 섭외할 수 있는 강사 및 강의내용 목록이 필요 기획 과정에서 임원 청소년들 간의 긍정적 관계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이 필요 임원 청소년들이 아카데미 기획에 집중하기 위해 구체적인 역할 부여가 필요 	
멘토(위원회)와 연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실무자가 사전에 위원회 및 멘토를 구성 후 청소년들이 직접 연락 및 방문 등의 섭외 활동을 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성 향상 멘토의 프리마켓에 참여하여 경제활동 기획 및 운영을 수정·보완 연계한 전문 멘토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진로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축되어 체계적·자속적인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실무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섭외활동 지원 및 사전에 멘토와 소통 경제활동 멘토와의 활동 및 만남 횟수를 사전에 결정 	
청소년 진로지원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성인조직) 내 경제활동 및 홍보 경험이 있는 위원이 강사로 섭외되어 경제활동 진행에 실제적인 도움 제공 아카데미 강사 섭외 시 위원회(성인조직) 위원과의 네트워킹으로 적절한 강사 섭외 교육 이후 자치기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위원들과 논의함으로써 구체적인 청소년 활동 계획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들이 청소년과 공동 기획·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 	
청소년 진로지원 자원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진로 및 교육 등 스터디 및 토론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가치 및 철학 고민 교육 프로그램 및 야외 행사에 지도자로 참여하여 청소년들과의 친밀 관계 형성 청소년 자치기구들을 자원활동가들이 각각 담당하는 방법은 체계 구성에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활동가의 자속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대안필요 개별적으로 한 자치기구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자원활동가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기회 제공 	
선진 마켓 팀방	사전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답사 리스트표로 체크 및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준비 임원 청소년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준비단계에 대한 책임감 형성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했으나 일방적인 강의 방식으로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와 함께 청소년과 강사가 고민 및 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 소통하는 형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인터뷰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사업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활동 준비에 자문을 받으며 실제적인 도움 받음 청년사업가의 경영 마인드를 통해 청소년 소셜셀러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을 들고다며 이야기며 공유 혹은 진열 및 운영식 등의 궁금증을 유발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도 좋은 것으로 판단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달그락 Youth 마켓 기획단	총괄 ·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와 함께 축제 아이디어 회의를 실시하여 정보탐색 및 회의 방식을 습득에 효과적 • 총괄 · 기획팀 청소년들이 각 팀의 지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이해 • 오리엔테이션, 오픈식 등 총괄 · 기획팀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기획 ·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 • 향후 이벤트 관련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아외 마켓에 필요한 공간을 찾아보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며 입지 선정의 중요성 인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프리마켓 홍보방법을 청소년들이 직접 논의하여 진행함.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청소년들이 SNS에서 마켓 홍보 포스터 공유하여 주변 청소년들의 접근성 및 홍보 효과 높임.
	외부 참가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상품 제작, 판매 등이 가능한 청소년 또는 단체에 홍보 • 참가자 신청서 제작으로 참가자들의 정보 및 상담에 활용 • 달그락 활동 청소년이 참가 청소년과의 연락 및 대면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실시

④ 달그락 Youth마켓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중간평가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주도로 오리엔테이션 기획 및 진행 외부 참여 팀 청소년들이 달그락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선택권 및 발언권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크레이션을 통한 분위기 형성 등 참여 청소년들 간의 친목 필요 각 기획단 청소년 대표들이 활동에 대한 설명 필요
오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해 오픈식 기획 멘토 및 관련 사람들을 초대하여 감사장과 편지 전달 런웨이 방식으로 차트기구를 소개하며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행 마켓 준비과정 영상으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 형성 필요 오픈식 초대장을 제작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
실내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 · 기획 청소년들이 활동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개요 파악 진행 담당 청소년의 부재로 이벤트 진행의 어려움 청소년셀러, 매니저 등 명찰을 착용하여 소속감 형성 및 금전출납부를 작성으로 본인 팀의 예산 상태 확인 손님 접대에 익숙하지 않아 판촉활동이 출발하지 않음 SNS와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홍보효과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님 접대 방법 및 판촉 활동에 대한 교육 및 실습 필요 자인 초대, 라디오 혹은 전단지 홍보범위 극대화 등 다양적인 홍보방법 모색 기존의 달그락의 위원, 지원활동가 등 기관과 관계된 사람들 모집 중요
야외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 · 기획 청소년들이 활동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개요 파악 야외 프리마켓에서 실제로 판매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경제 활동 경험 긴급 상황 시 대표 청소년들이 모여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실천하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지역 축제와 일정을 맞춰 축제 장소에서의 마켓 진행은 손님 유치 및 홍보에 효과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가는 과정과 기회 마련이 중요 지역 축제나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야외에서의 경제활동은 청소년들이 실제 경제활동 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
평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별로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 및 다음 프리마켓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주체성 인식 마켓 기획단 각 팀장들의 활동 소감을 나눔으로써 활동의 의미 및 감동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회의 안건의 적극적인 반영은 청소년들의 주도성 인식에 큰 도움 장시간의 활동 이후 평가는 집중력 저하 및 불만 등을 조리할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진행
중간평가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청소년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관점 논의 및 차후 활동의 역할 규정 차후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활동, 마켓 준비와 운영을 지원한 지역사회 내 성인에게 감사표현에 대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 중심의 분석적 평가를 실시하여 이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제공 기획 및 진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
최종평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과 강점 중심의 평가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 조성 및 차후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별 목적 및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로 개별 평가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시작 단계부터 개별 목적 · 목표 달성을 확인 가능한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자신의 활동 방향성을 모색
지역사회 축제를 위한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차트기구와의 연계활동으로 연대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지원활동가와 위원회의 공동 참여를 함으로써 소통 및 교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긍정적 관계 기반 마련참여하고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긍정적 관계 형성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활동가와 위원회가 주도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고 청소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지원

(2) 청소년 의회 운영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참여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사회참여 및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 및 차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시 청소년 의회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청소년 의회의 구체적인 활동 및 역할에 대해 고민 의회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공동체 활동 부재로 라포 형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의원들의 역할 설정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제안하여 연간계획 수립이 필요 사전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활동 중 보수교육 필요 1박2일 과정으로 임원선출과 차후활동계획 등 집중적인 교육개설로 주제적으로 의회 활동 구성 필요
청소년 참여예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회의 전 워크숍 개최로 옐로우 카펫 증대, 학교시설 보수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임위원회마다 정책 안건을 구성 어린이 및 청소년 의원이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다보니, 워크숍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음 이동·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아이디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및 청소년 의원들의 참여예산 워크숍을 각각 개최 군산시의 협조를 통해 실제 이동청소년 예산을 분석 및 제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어린이 및 청소년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동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조사 및 의견개진을 하여 자자체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권한을 청소년 의회에 부여해야 함
청소년의회활동 정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 및 참여예산학교 강사 등으로 실무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동 내용 구성 및 진행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멘토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어린아청소년 의회의 발전방향 토론 및 의장단과의 논의 체계 형성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 주무부처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많은 활동 진행 청소년지치연구소 청소년기자단과 청소년의회 안건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지역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군산시 청소년 의회 활동을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원회 별로 자료 조사 및 의견 수렴 활동을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활발한 토론에 도움 됨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가 운영비 이상의 예산 확보 및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년 정책 개발이 가능해야 함 자자체 예산과 정책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적인 예산을 제안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각 주무부처와 시의회에서 청소년 정책 형성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 필요 군산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요구 조사 및 공청회, 참여예산 확보 등의 권한을 청소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조례 제안 및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장단 내에서 청소년 의회를 통해 청소년 참여 예산 관련 조례 제안 및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제안 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회의 안건 상정 전에 청소년 참여예산제 제안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조례(안)를 구성 혹은 예산 확보에 대해 자자체와 논의 필요

(3)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영역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 상상행복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2년간 참여포럼을 통해 토론한 정책안건을 군산시에 필요한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인력, 정책 요구사항으로 분석하면서 청소년 정책제안의 중요성을 깨달음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 변화사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으로 지역사회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성 인식함으로써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 정책 발굴의지 향상 청소년 자치기구별 혹은 관심사에 따라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 5가지 영역으로 분과 형성 및 참여의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군산'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연간 자치기구 활동계획 수립 지원 필요 준비모임을 실시하여 자치기구 연합회 활동으로써의 청소년들의 참여 독려 및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의 참여 구조가 필요 분과장을 미리 선출하고 그 청소년들의 사전모임 또는 정책제안 활동에 대한 교육 및 논의 필요 청소년 기획단의 마을 만들기 혹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지역 변화 사례를 발표할 전문 강사 지원 및 청소년 발표가 있었다면 활동에 대한 이해 및 동기 부여가 더욱 되었으리라 사료
청소년 상상행복 마을 만들기 추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1회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임원회의와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여 청소년 정책개발 및 각 자치기구의 연합활동을 기획하고 논의하게 마련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이슈 취재, 청소년 인터뷰, 프리마켓 진행 등 각 자치기구 활동을 공유 상상행복마을 아카데미, 참여포럼 등 청소년 주도적으로 기획 및 역할 분담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의 가능 자유롭게 소통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제작을 위한 회의 안건 공지 및 회의록 공유 추진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장기계획보다는 회의기간에 가까운 연합활동 및 연간활동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 임원진 회의 이전에 각 자치기구 및 분과별 사전회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건을 모으거나 임원회의에 올릴 인건 준비가 필요 30여명 규모의 임원회의와 각 5개 분과 임원회의를 통해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에 대한 연간 계획 및 교류활동 지속적으로 실시 장단기 과제를 논의하는 체계 형성 및 활동 진행 평가 실시 현재 구축된 페이스북 그룹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자치기구 내에 홍보 및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 정책개발 진행상황, 자치기구 활동 등을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분과별(청소년 인권과 참여, 경제, 문화, 교육 진로, 복지안전)로 청소년 정책을 분류 필요한 정책 토론을 위한 정기회의, 자료조사, 인터뷰 및 기획기사 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 및 활동 현재 시행 정책과 2018년도 시행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파악 및 의제 형성 기존에 진행되었던 자치기구 활동과 회의시간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분과원들은 참석률이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분과별 활동 공유를 통해 분과활동 영역을 변경 및 정책안건 발굴의 효율성 높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분과장 및 부분과장 임원들의 리더십 트레이닝 등의 교육체계 필요 각 분과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및 자문 시스템을 체계화 하여 정책 안건에 예산 및 진행 내용 등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딜릴포럼 (1~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회복지청소년 현장 전문가, 의료계 교육계 등 전문가 토론 및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제시 분과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패널로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논의했던 정책내용을 전문가, 청중들과 공유 할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 현장답사 등의 실시로 정책 안건에 대한 준비성을 높였음 청소년 기자단의 기획 취재로 전라북도 전역에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에 대한 내용을 공유 및 이후 포럼 참여자를 모집 하는 데에 효과적 한 분과 당 10명~30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딜릴포럼에서는 2명의 청소년만이 시간적 한계로 발표를 해야 하는 이슈들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조발제자 및 패널의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여 정책안건 첨언 및 전체토론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 제공 필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의 뒷받침 필요 달달포럼 추진에 대한 청소년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포럼 기획을 하면서 다수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분과에서 대부분의 분과원이 발표 자료를 공동으로 구성 및 토론 준비 청소년들이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이 정책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활용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상상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 구체화 각 분과내용을 공유하여 청소년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재확인 및 새로운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지도그리기 1차에서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과 각 분과에서 생각하는 분과별 목표 작성으로 행복마을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토론에 원활하게 참여 할 수 있었음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강의 및 상상행복마을 지도그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워크북을 구성하여 1박2일간의 과정 점검 및 기록 2박3일 캠프를 추진하여 친목도모, 각 자치기구 내용 공유, 공감대 형성의 시간 필요
청소년 참여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데미, 상상캠프에서 토론한 정책안건 시각화 및 각 분과별 활동을 공유 각 분과활동을 했던 청소년들 외에 새로운 청소년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제언 추가 표지제작, 상상행복마을 지도 제작, 산청서 구성 등 포럼 관련 자료 구성에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참여 17명의 청소년 주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의견이 담긴 포럼 진행 분과토론 시간은 정책안건을 공간,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 충분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주제와 안건을 관련부서에 미리 보내 토론에 집중할 주제를 고민해보게 하는 것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평가 실시. 이를 통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 필요 각 분과별로 향후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분과장이 참여포럼 내용을 주도적으로 알리고 평가 리허설을 2회 이상 진행하여 시간분배 및 준비사항을 점검 분임(분과)토론이 계획보다 빨리 끝나는 분임(분과)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사전에 제시
평가회 및 차후활동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간담회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포럼 안건을 각 지자체 주무부처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제안된 정책안건 이후에 정책 발굴 갈 수 있는 체계(혹은 시스템) 마련(예: 차후 활동 세부 계획 수립, 역할 분담 등)
보고서 작성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도 형태로 표현 각 분과별 포럼을 통해 정리된 청소년 정책 내용 및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제안서 책 발간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에서 나온 청소년 정책 의제를 언론 및 온라인 (SNS)을 통해 자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 정책안건에 대한 학교별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지자체와 공유 및 반영 과정 필요

5) 종합제언

(1) 달그락 Youth Market 영역

달그락 Youth마켓 활동은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경제 및 진로 활동을 지향하고, 청소년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상품 콘셉트(concept) 기획, 상품 제작, 멘토(전문가) 섭외, 시연회, 판매 활동, 홍보 및 마케팅, 회계 및 재무 등과 같은 실제적인 경제 활동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Youth마켓 기획단을 구성하여 마켓 운영 공간 섭외와 홍보, 이벤트 진행과 참가자 관리, 총괄, 기획, 진행 등의 실제 경영·운영 요소를 청소년들이 담당하게 하며 청소년 중심의 경제 활동을 지향하고자 했다.

이처럼 본 달그락 Youth마켓 활동은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중심의 경제활동이라는 핵심을 염두에 두며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경제 활동은 ‘경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수반이 된 활동이어야 한다.

경제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이 시대를 극복 할 수 있는 도전정신으로서 ‘청소년기업가정신’이 언급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형식보다는 실제에 다가가려 하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상상한 것을 실천해보고, 실패를 피드백 삼아 발전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경제를 수익창출 및 부의 축적 등과 같은 단편적인 경제 개념으로만 확대·집중하려는 경향의 사회 환경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제활동은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바라보며 기업가정신이 바탕이 된 경제활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달그락 Youth마켓의 운영기획을 담당하는 임원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및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작년 청소년 프리마켓에 이어 진행한 달그락 Youth마켓은 작년 활동에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임원 청소년 중심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합활동의 강화였다. 주로 일부 청소년 및 자치기구로 마켓이 기획·운영된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각 자치기구마다 임원 청소년들과 실무자는 지속적으로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고, 그들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활동을 위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자치기구의 임원 청소년들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활동에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경제 및 진로활동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경제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은 멘토와의 교류활동을 통해 전문가가 어떤 가치관으로 경제활동을 준비·운영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진로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진로는 직업적인 부분과 함께 삶의 방식, 생각의 관점, 가치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은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진로 가치관 등을 정립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과 멘토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은 긍정적인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진로가치관 형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경제 및 진로활동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활동을 기획·운영하는 청소년들은 공동체, 경제, 기업가정신, 수익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활동 초창기에 경험에 없는 일부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을 계획·진행하려니 막연함과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교육과정 중 멘토와 전반적인 경제활동 계획 컨설팅의 기회를 통해 방향성을 잡게 되고 추진력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교사(멘토)와의 경제 스터디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은 활동의 자신감과 관련 지식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경제활동 준비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본 활동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과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선 제언에서 언급된 경제와 기업가정신, 그리고 관계와 공동체, 기획 능력 등이 경제활동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이해가 수반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이 선행 되어야 한다. 한편, 일방적인 강의방식은 청소년들의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소통적인 방식 또는 직접 체험하거나 참여해보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적·금전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달그락 Youth마켓의 경우 본 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위원(사업가)의 지원을 통해 공간(사업장)을 빌려 경제활동이 가능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공간 지원이기에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 상설시장과 다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교내 매점 운영의 주체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학교도 있고, 실제 교내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체제작 상품 또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마켓인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도 존재한다. 이렇듯 청소년의 주된 삶의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공간을 지원한다면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지지하는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의회 운영 영역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 강화,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 강화,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 의회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임시회의 토론을 통한 정기회의 안전 상정과 안건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의견 교환, 아동권리광장 조성 아이디어 제안 등이 있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지원한 활동으로는 멘토단 회의, 의장단 회의, 관련 주무계 담당자 면담, 상임위원회 활동, 청소년기자단의 청소년 의회활동 정기 보도 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뜻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의회는 철저히 청소년 의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의원들은 의원 간 토론,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회의 역할을 설정하거나 상임위원회의 활동 제안 등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활동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조례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로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어린이 청소년 의회 관련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체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이에 청소년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의회의 운영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청소년 자치 활동(또는 참여 활동)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청소년 의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 청소년 의회 활동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의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실제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과, 공간지원, 행사 등과 같은 운영 측면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었으며,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 비용, 정책개발회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회의비 등의 활동지원비가 미비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활동비 및 정책제안 안건에 대한 예산 확보는 청소년 의회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기반의 체계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셋째, 어린이 청소년 의회, 지자체 관련 주무부처와 시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청소년 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을 시의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런 과정(process)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3주체(어린이·청소년 의회, 지자체 관련 주무부처, 시의회) 간 소통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예컨대,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3주체(어린이·청소년 의회, 지자체 관련 주무부처, 시의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청소년 의회에 군산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 예산을 모니터링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정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연 2회), 이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정책수정을 다음 년도 예산 설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청소년 의회에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주도하에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조사 및 의견개진(좋은 예산, 나쁜 예산, 신규 발굴)을 하고 추경예산 편성 및 다음 년도 청소년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영역

청소년 상상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 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정책안건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군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조사하고 5개 분과(청소년 인권과 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개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6월 발대한 공동추진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준비하였다. 5회에 걸쳐 분야별 포럼과 청소년 실태 및 제안조사,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서 제안된 정책들을 취합해서 ‘청소년 친화 정책 제안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제안서는 내년 시장 후보자, 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하거나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반영할 계획 중에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을 구성은 청소년자치활동, 교육 과정, 조사 활동, 참여 활동 (캠프, 참여포럼)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연합활동은 그 토론의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주체성과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며 이에 따른 활동은 청소년들이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프로젝트 구성 초기부터 청소년 임원진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 구조는 그 활동 전반에 걸친 타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의 요구를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찾아내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자의 목표를 가진 자치활동이나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을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분석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책 분석 활동은 청소년 정책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군산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는 점과 정책의 수혜 지역과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점 등을 발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야간 귀가 택시 지원, 청소년 정책공모전 등의 제안을 생각해내며, 이를 지역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등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 정책들은 그들의 참여수준을 높일 것이며, 청소년들의 욕구가 실제로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담보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성인 지원 조직과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달달포럼은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성인조직 및 현장 전문가, 관련 연구자, 시민, 청소년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청소년 정책 실제화를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이다. 달달포럼은 사회복지 및 청소년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문화 예술 계열 등의 다양한 전문가 토론과 참여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가 포함한 청소년정책들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청소년과 수평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정기회의, 간담회 등)하여 정책안건 관련 예산 확보 및 연구, 정책개발 진행 내용 자문 등과 같이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관련 활동의 과정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의 협력도 함께 수반된다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목포시 시범사업 진행 및 주요 활동 내용

1) 추진 개요

금년도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목포시의 청소년 인구(90-24세) 현황은 남 27,592명, 여 25,280명으로 전체 52,872명이다. 목포시 학교현황은 2017년 3월 현재 초·중·고등학교 70개교이며, 학급 수는 1,320학급이며 대학교는 국립 1개교와 사립 5개교로 147학과 24,147명으로 목포시 전체 학생 수는 37,761명이다.

목포시청과 청소년수련원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지원청 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협약사항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번	기관 및 단체명	분류	역할
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기관	사업 홍보 및 연계
2	목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기관	사업 연계 및 진행
3	상동초등학교	초등교육	대상자 연계
4	상동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대상자 연계
5	목포시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사업 연계
6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부스연계 및 교육
7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아동복지	부스운영
8	신안1004자유학기제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	부스운영
9	목포자유학기제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	부스운영
10	대한치어리딩협회 전남지부	문화·예술	공연연계
11	목포YMCA	시민단체	부스운영
12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연계 및 협력
13	목포시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복지	연계 및 협력
14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사업 진행 및 연계
15	상동주공아파트 경로당	노인복지	사업 진행 및 연계
16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복지	연계 및 협력

2) 시범사업 진행일정

(1) 2017년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진행일정

사업영역	세부사업	시행시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 조사	• 설문조사-초·중·고등학생용	5월~9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	• 청소년행복자치위원 시범운영 • 청소년행복자치위원 확대운영	4월 5월~9월
청소년의 자율성을 비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	• 동네한바퀴 청소년행복의견함(오프라인) • 동네한바퀴 청소년행복의견함(온라인)	4월~9월 6월~9월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축제 '청양고추'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 청소년 100명, 어르신 100명 소통하모니	9월 7월~8월 9월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 청소년 행복 징검다리 지정	6월~9월 6월~9월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 청소년행복공간 'Youth Happy Zone' 구성 • 지방의원(시의원, 도의원)과의 토크콘서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6월 9월 미정

3) 시범사업 운영 과정 및 주요활동 내용

(1)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모집 및 홍보	청소년 행복자치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4월 • 장소 : 상동행정복지센터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행정복지센터 협조 요청 - 시청 담당부서 통해 연계협조 - 온라인 홍보(페이스북, 블로그 등) - 오프라인홍보 및 면접관 	<p>공문발송 3회 보도자료 1회 온라인공유 5회 키움위원(초등학생)20명 빛길위원(중고등학생)10명 세움위원(대학생)10명</p>
인원 선발 및 면접심사	공개모집과 추천을 함께하여 균등과 자발적 참여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 구성 및 소외계층청소년 우선선발 • 활동의지, 적극성 관심도 등 평가 면접 	<p>서류심사 1회 면접심사 1회</p>
청소년 행복자치위원	인원 구성 및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행복자치위원 • 행복+자치 • 청소년 스스로 행복 다스리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청소년 	연 20회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관계성 회복 및 참여의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4월~9월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 및 아이디어 회의 - 참여방안 모색 및 지역연계 - 관내 청소년 지원방안 확대 	<p>청소년 40명 15회</p>

(2)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

활동명	사업목표	주요내용	성과
동네한바퀴 청소년행복 의견함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9월 장소 : 상동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의견을 통한 정책반영 - 오프라인 청소년 의견함 제작 - 온라인 청소년 의견함 제작 	오프라인 의견 78건
SNS	온라인 정책제안을 통한 지역 현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정책 생산 온라인 홍보 활동 	온라인 의견 211건

(3)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청소년증 발급 증대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8월 장소 : 목포지역 - 청소년증 발급 지원방안 연계 -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 홍보(청소년) 	청소년 89명
청소년 행복징검다리	청소년 연계방안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 공존 및 소통 확대 진행 청소년증을 활용한 유관기관 인센티브 제공 	유관기관 및 상가 20곳

(4)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지방의원과의 토크콘서트	청소년들의 제안활동이 지역 청소년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9월 장소 : 목포시의회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 - 의원과의 간담회 - 청소년정책 토크콘서트(000국회원 000 도의원 000시의원) 	청소년 및 주민 300명 1회

(5)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과
양을산 마을대잔치	마을축제를 통한 주민 소통의 장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0월 • 장소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잔디구장 특설무대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노래자랑대회 - 초등학생 장기자랑대회 - 먹거리마당 - 체험부스 운영 	청소년 및 주민 500명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주도적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7월~8월 • 장소 : 상동주공아파트 1단지 경로당, 2단지 경로당, 3단지 경로당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마사지, 발마사지 자원봉사활동 - 네일아트 자원봉사활동 - 포옹해드리기 - 이야기 들려 드리기 	청소년 160명 4회
청소년 100명, 어르신 100명 소통하모니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월 • 장소 : 청소년수련원 급식실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벗자원봉사 - 안마, 미용 지원봉사활동 - 팔찌 만들기 	청소년 및 주민 200명 총 2회
청소년행복공간 'Youth Happy Zone'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으로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8월 • 장소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 행복 공간 마련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주민 소통공간 - 접근성 확보 	청소년 및 주민 158명 총 10회

4)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 및 제언

(1)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활동명	과정평가	개선방안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매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하고 활동적인 홍보활동 진행 청소년행복지자원원의 학급 구분으로 내실화를 갖추어 활동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됨 지역연계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지역이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초에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업 진행시기에 대해 조정하여 보다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 특정지역이 아닌 목포 전체를 배경으로 한 사업 운영으로 확대 필요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의견함' 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개선에 도움을 줌 SNS를 활용한 '청소년 마을 만들기' 홍보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창구 개발을 위한 확대 필요 연령별, 세대별로 사용하는 소통창구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방식 고민이 필요
청소년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증 홍보 실시 청소년행복징검다리를 통해 지역과 유관기관이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사회공동체 실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행복징검다리를 확대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상가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청소년 복지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대잔치를 통해 인근 지역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홍보의 계기가 됨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지역 상 가의 활성화에 청소년들이 기여를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 간의 소통 및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위해 마을축제 확대 운영 필요 관 주도의 행사위주의 축제가 아닌, 청소년 정책을 생산하는 창구로의 활용이 필요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원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책제안 활동을 실시 및 실제 생산이 가능한 정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 청소년들의 정책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정책콘서트를 진행하여 실제 조례 및 정책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5) 종합제언

(1) 시범사업 추진 내용과 방향에 관한 견해

목포지역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중 첫째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 청소년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의견 제안 및 반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 정책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기반 구축 단계를 진행하며, 2018년 확대 단계를 통해 사례 전파 및 지역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2019년 도약 단계를 통해 청소년행복 자치에 관한 목포시 조례 개정 및 전국단위 확대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둘째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행복한 지역참여 활동을 지향하고 정책제안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온·오프라인 소통 의견함을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접수하고 수렴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의견은 지역 정책 및 현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같은 기구인 청소년교육문화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도시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동반 관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마을축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어르신 100명과 청소년 100명의 소통하모니, 행복프리마켓, 행복마을노래자랑, 행복먹거리마당, 우리마을영화제 등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나눔의장을 구현하여 우리 마을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의 멋과 낭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넷째로 찾아가는 1세대 3세대의 어울림을 통해 행복한 마을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지역의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근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네일아트, 안마봉사, 공연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행복징검다리를 지정하여, 청소년증을 통해 서점, 마트, 미용실, 커피숍, 사우나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상점들과 협의하고 제휴하여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을 위해 청소년 행복 공간 ‘youth happy zone’ 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구상하는데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향후 사업 추진 의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법제화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된다면, 청소년 행복권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 예산은 653,505,046천원이며, 그 중 청소년보호육성예산은 1,417,049천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0.2%에 해당되며,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1,031,059천원, 청소년수련시설은 151,750천원에 해당된다(목포시청, 2016).

사업을 통해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 청소년행복의견함, 청소년행복마을축제, 청소년행복징검다리 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의 진행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의원⁴³⁾과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지역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행되었다.

또한 사업의 방향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도약 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과 같이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다른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3)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은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

4. 시범사업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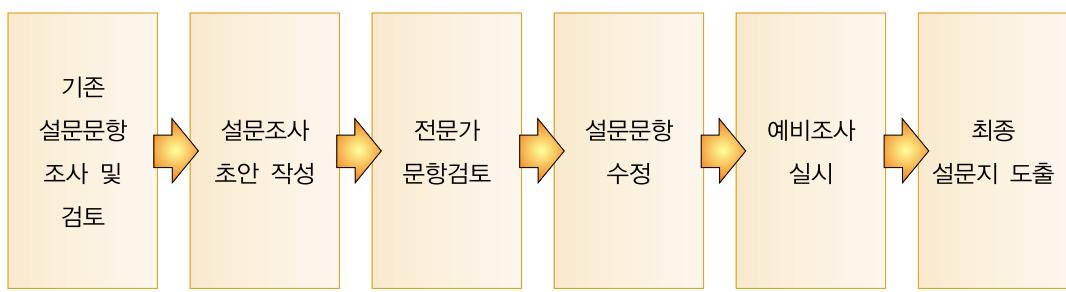
1) 조사개요

시범사업 활동 효과 분석을 위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목포지역의 경우 사전조사는 2017년 4월 중, 사후검사는 2017년 9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검사는 2017년 5월 중, 사후검사는 2017년 10월 중에 각각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설문 개발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조사항목과 세부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사도구 개발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으로 조사대상 및 분석결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조사도구 개발 절차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그림 V-2]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오해섭 외, 2015)’, ‘청소년 활동역량 검사지(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를 조사 및 검토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 설문지는 전문가의 문항 검토를 통해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사후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만족도 문항은 ‘청소년글로벌역량지표(오해섭 외, 2008)’를 활용하여 문항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활동역량의 측정 요소는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이었으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그림 V-2】 조사도구 개발 절차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분석 영역은 배경 변인,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및 시민성 역량 등으로 구성하였고,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된 설문 세부 내용은 <표 V-2>와 같다.

표 V-2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세부 항목

영 역	세 부 항 목		문항 번호	적합도 및 신뢰도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급별 수준, 성별, 거주 지역 		1, 2, 3	
행복 지표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삶의 가치성,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인 자기 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 사고 	4, 5, 6, 7	.83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미시체계(가족, 부모님, 친구)에 대한 만족도 	8, 9, 10	80% 이상 (4점이상)
활동역량 지표	문제해결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의 적극성,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력 	11, 12, 13, 14	.83
	성취동기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성취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정확한 목표지향성, 내재적 동기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력 	15, 16, 17, 18, 19	.75
	리더십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성, 명료한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자신감 	20, 21, 22, 23	.81
	시민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호혜적인 협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력,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자발성, 자신의 사회적 권리표현에 대한 적극성 	24, 25, 26, 27	.88

① 배경 변인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문항으로 문항 1~3번에 그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부문항으로는 학교 급별 수준, 성별, 거주지역 등으로 설문하였다.

② 청소년의 행복지표

청소년의 행복지표 문항은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설문지에서 일부 인용 및 재구성하였다(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삶의 만족도 문항 4~7번, 인간관계 문항 8~10번에 내용을 포함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OECD(2013)의 주관적 웰빙 측정 지표 중 현재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평가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을 추출하였다(김지경 외, 2014). 세부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성,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를 세부내용으로 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나 적합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인간관계 문항은 가족, 부모님, 친구와 같은 미시체계에 대해 청소년이 느끼는 만족도를 세부내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합도 80%이상(4점)으로 나타났다.

③ 청소년 활동역량지표

청소년 활동역량지표는 2009년 ‘청소년의 활동역량 지표 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청소년활동역량검사지’의 8개 역량 중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 4개의 역량을 인용 및 재구성하였다(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문제해결 역량 문항 11~14번은 문제를 인식 및 직면 하였을 때 인과관계의 체계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역량 문항 15~19번은 무엇을 하려는 의지의 발현능력, 자신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능력, 학습된 내용을 통해 자신의 지적인 부분에 적용하려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리더십 역량 문항 20~23번은 목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이를 끝까지 이행하려는 능력,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능력, 일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에서의 선택능력,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태도능력, 타인 앞에서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1$ 로 나타나 문항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성 역량 문항 24~27번은 자신이 해야 할 업무나 일에 대해 굳건히 이행하는 능력, 적극적 참여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표현능력과 적극성을 갖춘 의식, 타인의 지원을 위해 이타적 봉사를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나 문항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명(23.7%), 고등학교 87명(76.3%)이고, 이들 중에 초등학교는 목포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성별에서 남자는 63명(55.3%), 여자는 51명(44.7%)으로 남학생 비율(10.6%)이 높았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실험집단 전체 114명 중 군산지역이 39명(34.2%)이었으며, 목포지역은 75명(65.8%)으로 나타났다. 효과분석에 활용된 사업 참여자의 분포는 <표 V-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실험집단	학 교	초등학교	27	
		고등학교	87	
	성 별	남자	63	
		여자	51	
	지 역	군산	39	
		목포	75	
전 체		114	100	
비교집단		23	16.8	
실험집단, 비교집단 전체		137	100	

3) 지표 영역 분석 결과

(1)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

청소년들이 자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실험집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94$)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32$)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 전보다 사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38)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4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	3.83	.80	4.65	.45	-4.94***
		고등	3.97	.69	4.22	.61	-3.43***
	성별	남자	4.06	.70	4.43	.61	3.78***
		여자	3.79	.72	4.19	.57	-3.84***
	지역	군산	3.97	.80	4.05	.73	-1.01
		목포	3.92	.68	4.47	.47	-5.70***
	전 체		3.94	.72	4.32	.60	5.39***
	비교 집단		4.16	.93	3.70	1.02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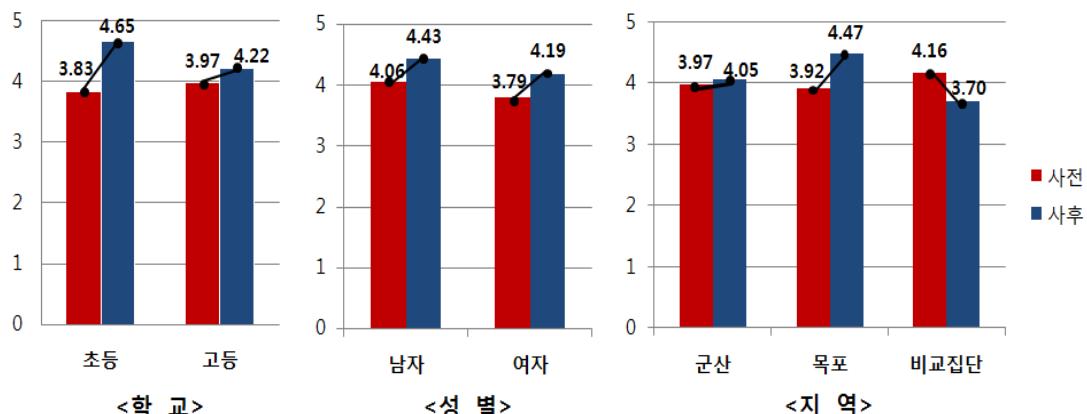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83$)에서는 ‘그렇다’ 보다 낮지만, 사후검사($M = 4.65$)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82)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97$)에서는 ‘그렇다’ 보다 낮지만, 사후검사($M = 4.22$)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25)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삶의 만족도가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의 사전검사($M = 4.06$)에서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43$)는 ‘그렇다’ 보다 높으며, 변화도(0.35)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사전검사($M = 3.79$)에서 ‘그렇다’ 보다 낮지만, 사후검사($M = 4.19$)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40)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의 청소년은 사전검사($M = 3.97$)에서 ‘그렇다’ 보다 낮고, 사후검사 ($M = 4.05$)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조금 더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전검사($M = 3.92$)에서 ‘그렇다’ 보다 낮지만, 사후검사($M = 4.47$)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55)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군산지역의 실험집단은 변화가 미미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감지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는 군산지역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여학생, 목포지역 집단이 사업진행 전에 비해 사업 진행 후에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3】 학교, 성별, 지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2) 인간관계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4.17$), 사후검사($M = 4.50$)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사업 진행 후의 인간관계가 발전함(0.33)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전검사($M = 4.37$)에서 ‘그렇다’ 보다 높지만, 사후검사($M = 4.04$)는 ‘그렇다’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V-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5 인간관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	4.13	.69	4.79	.39	-4.35***
		고등	4.18	.69	4.41	.63	-2.77**
	성별	남자	4.27	.62	4.62	.52	-4.42***
		여자	4.05	.76	4.35	.66	-2.26*
	지역	군산	4.31	.65	4.33	.79	-.18
		목포	4.10	.70	4.59	.45	-5.10**
	전 체		4.17	.69	4.50	.60	-4.40***
	비교 집단		4.37	.81	4.04	.86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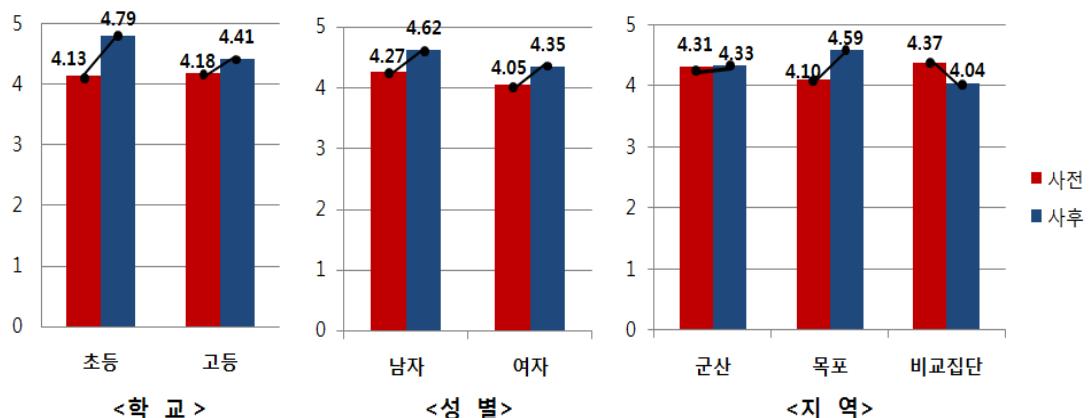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13$), 사후검사($M = 4.79$)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높아짐(0.66)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18$), 사후검사($M = 4.41$)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인간관계(0.26)가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인간관계의 형성이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는 사전검사($M = 4.27$), 사후검사($M = 4.62$)가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높아짐(0.35)을 보여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자는 사전검사($M = 4.05$)는 ‘그렇다’에 가깝게, 사후검사($M = 4.25$)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사업 참여 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0.20)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사업 참여 후에 인간관계의 발전이 여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31$), 사후검사($M = 4.33$)의 차이를 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목포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10$), 사후검사($M = 4.59$)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인간관계 형성이 발전됨(0.55)을 알 수 있고,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인간관계 형성이 사업 참여 전에 비해 좋아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 인간관계 형성이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가족과 부모, 친구들과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초등학생, 남학생, 목포지역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4】 학교, 성별, 지역별 인간관계 변화 추이

(3) 문제해결 역량

청소년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57$), 사후검사($M = 4.09$)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사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52)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전검사($M = 3.81$)에서 ‘그렇다’에 가깝지만, 사후검사($M = 3.40$)는 ‘보통’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6 문제해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학교	3.27	.74	4.50	.45	-7.32***
		고등학교	3.66	.65	3.96	.70	-3.67***
	성별	남자	3.65	.65	4.18	.70	-4.70***
		여자	3.47	.72	3.98	.67	-4.16**
	지역	군산	3.75	.62	3.76	.80	-.20
		목포	3.48	.70	4.26	.56	-7.52**
	전체	3.57	.69	4.09	.69	-6.31***	
	비교 집단	3.81	.93	3.40	.84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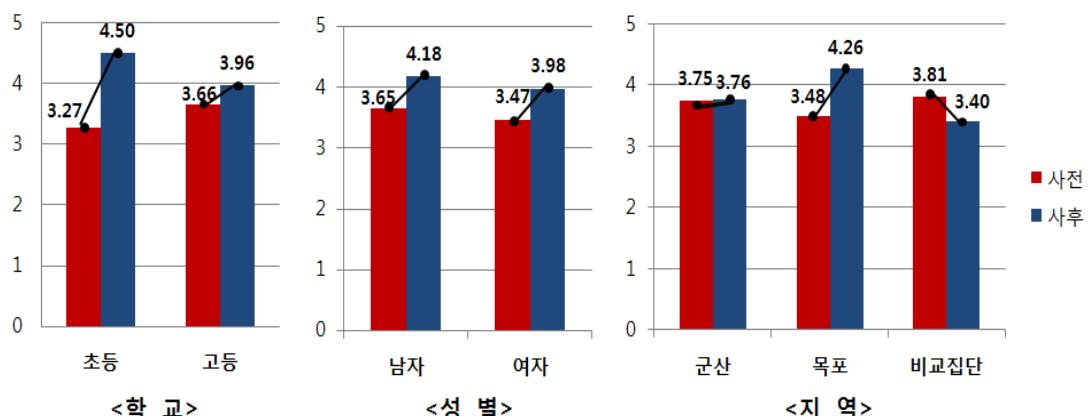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교 학생은 사전검사($M = 3.27$)에서 ‘보통’에 가깝지만, 사후검사($M = 4.5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1.23)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66$), 사후검사($M = 3.96$)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0.30)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는 사전검사($M = 3.65$)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18$)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53)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사전검사($M = 3.47$), 사후검사 ($M = 3.98$)가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51)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75$), 사후검사($M = 3.76$)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들의 문제해결 역량은 사전 사후에 변화는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전검사($M = 3.48$)는 ‘보통’ 보다 높지만, 사후검사($M = 4.26$)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높아짐(0.78)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군산지역의 경우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점수가 조금 상승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포지역 청소년의 경우 사전검사에 비해 사업 후 진행한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급에서는 초등학생,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사업 참여 후에 문제해결 역량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5】 학교, 성별, 지역별 문제해결 역량 변화 추이

(4) 성취동기 역량

청소년들이 성취동기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85$)는 ‘그렇다’에 가깝지만, 사후검사($M = 4.26$)는 ‘그렇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사후에 성취동기가 높아짐(0.41)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전검사($M = 4.05$)보다, 사후검사($M = 3.60$)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7 성취동기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	3.63	.76	4.56	.40	-5.06***
		고등	3.91	.53	4.17	.61	-3.67***
	성별	남자	3.91	.56	4.38	.54	-5.34***
		여자	3.76	.65	4.12	.62	-2.97**
	지역	군산	3.95	.60	3.98	.72	-.41
		목포	3.79	.60	4.40	.45	-6.56**
	전 체		3.85	.60	4.26	.59	-5.80***
	비교 집단		4.05	.62	3.60	.66	2.7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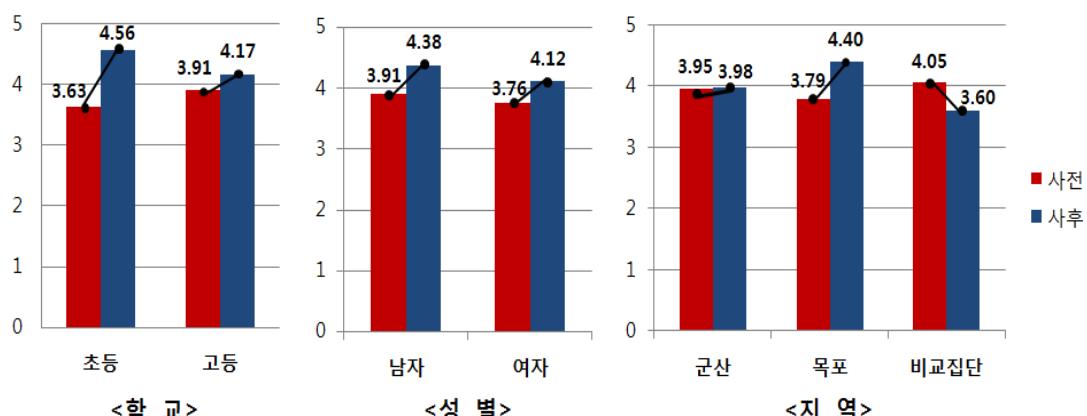
초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63$)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고, 사후검사($M = 4.56$)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93)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동기부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91$)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17$)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문제해결 역량(0.25p)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사업 참여 후에 성취동기가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는 사전검사($M = 3.91$)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38$)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47)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사전검사($M = 3.76$)에서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12$)가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36)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95$), 사후검사($M = 3.98$)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들은 성취동기 역량이 사전이나 사후의 변화가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목포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79$)는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났고, 사후검사($M = 4.4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61)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군산지역 청소년의 실험집단은 변화의 폭이 작았고 비교집단은 성취동기 역량이 오히려 더 낮지만, 초등학생, 남자,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성취동기 역량이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6】 학교, 성별, 지역별 성취동기 역량 변화 추이

(5) 리더십 역량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91$)는 ‘그렇다’에 가깝게, 사후검사($M = 4.30$)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이 증가(0.39)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역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8 리더십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	3.49	.81	4.60	.36	-6.27***
		고등	4.04	.60	4.20	.57	-2.23*
	성별	남자	3.94	.68	4.35	.59	-3.92**
		여자	3.87	.72	4.23	.50	-2.96**
	지역	군산	4.12	.65	4.04	.65	.92
		목포	3.80	.69	4.43	.44	-6.37***
	전 체		3.91	.69	4.30	.64	-4.91***
	비교 집단		4.14	.73	3.64	.76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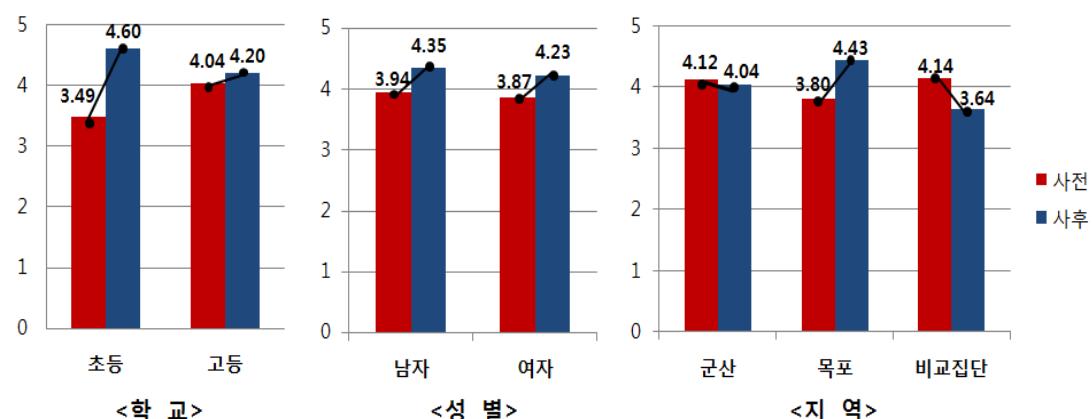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49$), 사후검사($M = 4.60$)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리더십 역량이 강화됨(1.11)을 보여주고,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04$)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20$)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리더십 역량(0.16)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한 초등학생의 리더십 역량 강화는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의 사전검사($M = 3.94$)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35$)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리더십 역량의 강화(0.41)를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자의 사전검사($M = 3.87$)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23$)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리더십 역량의 강화(0.36)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12$)는 ‘그렇다’보다 높고, 사후검사($M = 4.04$)는 ‘그렇다’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리더십 역량은 사전보다 사후에 낮아짐(0.08)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80$), 사후검사($M = 4.43$)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삶의 성취동기 역량이 높아짐(0.63)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군산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업 참여 후 전반적인 리더십 역량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으나, 초등학생, 남학생,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리더십 역량이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7】 학교, 성별, 지역별 리더십 역량 변화 추이

(6) 시민성 역량

청소년들의 시민성 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검사($M = 3.90$)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26$)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보다 사후에 시민성이 강화됨(0.36p)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전검사($M = 4.25$)보다, 사후검사($M = 3.58$)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성 역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9 시민성 역량 사전-사후 검증 결과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 집단	학교	초등	3.50	.96	4.54	.50	-5.01***
		고등	4.02	.67	4.17	.66	-1.68
	성별	남자	4.00	.75	4.38	.60	-3.15**
		여자	3.77	.79	4.10	.66	-2.45*
	지역	군산	4.08	.79	4.00	.75	.71
		목포	3.80	.75	4.39	.54	-5.04**
	전 체		3.90	.77	4.26	.64	4.00***
	비교 집단		4.25	.74	3.58	.93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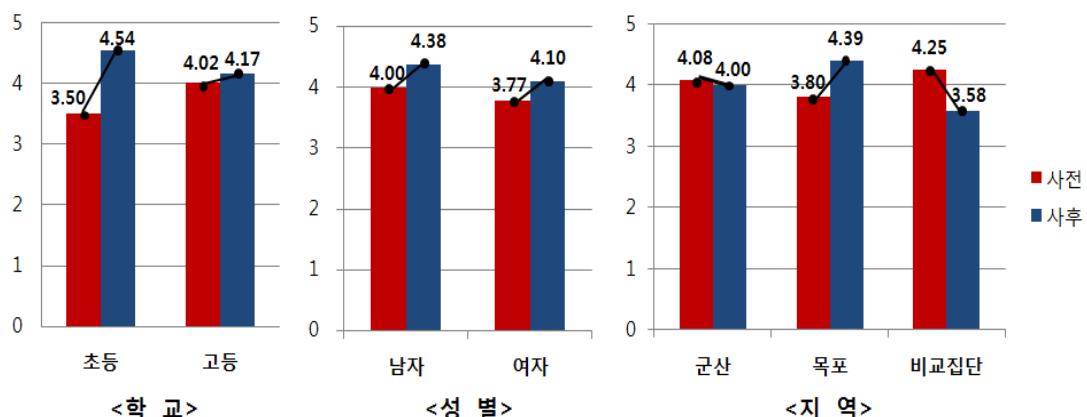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3.50$), 사후검사($M = 4.54$)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이 강화됨(1.04)을 보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의 사전검사($M = 4.02$)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 ($M = 4.17$)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0.15p)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시민성 역량 강화는 고등학교 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보면 남자의 사전검사($M = 4.00$)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38$)는 ‘그렇다’보다 높지만, 이들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이 강화(0.38)됨을 보이고,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사전검사($M = 3.77$)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10$)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의 강화(0.33)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4.08$), 사후검사($M = 4.00$)는 ‘그렇다’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시민성 역량은 사전보다 사후에 미미하게 낮아지고, 통계적 유의하지 않았다. 목포지역 청소년의 사전검사($M = 3.80$)는 ‘그렇다’에 가깝고, 사후검사($M = 4.39$)는 ‘그렇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전보다 후에 시민성 역량이 높아짐(0.59)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군산지역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 전반적인 시민성 역량이 오히려 더 떨어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초등학생과 남학생 그리고 목포지역 청소년은 사업 참여 후에 시민성 역량이 사업 전에 비해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V-8】 학교, 성별, 지역별 시민성 역량 변화 추이

5. 시사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군산과 목포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사업 수행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교급별, 성별, 지역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 리더십 및 시민성 역량 등 모든 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업 진행 후의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도 시민성 역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녀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목포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사업 시행 전보다 사업 시행 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반면 군산지역은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문제해결 역량, 성취동기에서는 미미하지만 점수가 상승하였고, 리더십과 시민성 역량은 오히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한 영역과 하락한 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특징적인 점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비해 사업 경험의 성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사전점수는 고등학생들에 비해 낮았으나, 사업 후는 오히려 고등학생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의 문제는 추적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연령이 어릴수록 사업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성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사전점수에서도 높았고,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여학생들보다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며 사업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비교에서는 목포지역이 군산지역보다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사업 참가자 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목표지역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사업에 참가하였지만, 군산지역의 경우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한 초등학생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군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진행 방식의 차이나 구성원간의 협력도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VI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현장 면접조사 및 특화모형 개발

1.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 면접조사 결과분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특성화 요인 도출과 논리모델 개발

제 V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현장 면접조사 및 특화모형 개발*

1.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운영 현장 면접조사 결과분석

1) 면접조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체계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인하고 분석 단위별로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사업의 공통점과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지역별 논리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사례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짚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havelson & Townes, 2002; Robert, 2008, 재인용). 이를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패턴 매칭 논리(pattern-matching logic)를 적용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주요 정황조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패턴 매칭 기법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미리 예측했던 패턴을 비교하는 논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Robert, 2008). 관찰된 패턴의 독립변인이나 핵심변수 등이 사전에 예측한 패턴과 일치 및 유사정도에 따라 그 사례연구의 내적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례연구의 유형에 따라 예측 패턴과 관찰 패턴에 포함되고 비교되는 내용과 변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단순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요하는 연구라면 독립변수로서의 원인과 종속변수로서의 결과 및 효과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증거자료를 근거로 비교할 수 있다.

* 이 장은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비교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2016년 연구에서 제시된 ‘전국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사례분석 내용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단위의 마을 만들기 정책분석에서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조례, 관련 계획 및 사업, 운영주체, 운영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유무 등을 주요 변인으로 비교하였다.

둘째,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5)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요인들은 주민 인식변화 및 역량 강화 노력, 지도자의 협신적 역할,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채널 개발, 지역 내 자원 활용,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발굴,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등이다.

셋째, 2015년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서울시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65개 사업을 생존권(11개), 보호권(19개), 발달권(30개), 참여권(5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내용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단순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를 구분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반면,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진단 보고서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한 성공요인을 분석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패턴 매칭 논리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영역 및 면접질문 문항은 <표 VI-1>과 같다.

표 VI-1 조사영역 및 중요 질문 문항

단위	분석 요인	주요 질문 문항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지역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시행계획, 지침서, 매뉴얼의 준비정도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정도는? ● 아동친화도시의 어느 부분(영역)에 관심이 높은가?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정된 시행령이나 조례는 무엇이 있는가? ● 조례 및 시행령의 특징 및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전담부서의 존재? ● 전담부서의 인력배치, 인원구성, 업무분담 정도는? ● 업무 전달 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아동의 권리 및 복지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변화된 점은?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실천 방안은? ●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는?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및 활동은 어떠한가? ●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 청소년에게 의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 정도는? ● 민관 협력 후원네트워크의 활동 정도는? ●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가?(어떠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가?)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과 태도는 어떠한가? ● 주민의 관심과 태도는 어떠한가? ●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과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가? ●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프로그램은? ●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마을 리더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마을의 운영의 중심 기구는?
	지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마을에서 지도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 지도자의 마을 경영전략은? ● 지도자로서 겪는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 주민들의 주로 이용하는 소통 방식은? ● 의견수렴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하는 주된 자원은 무엇인가? ● 해당 자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인적 · 물적 자원 활용으로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마을과 연계된 네트워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네트워크를 통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해당 마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사업)은 무엇인가? ● 타 지역과의 연계활동은 어떠한가?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력들이 해당 마을에서 맡은 역할은? ● 젊은 인력을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젊은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은?

참조: 오해설, 김세광(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3) 조사 기간 및 방법

금년도 현장 면접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개 지자체와 전국의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사전에 해당 기관과 일정 및 면담 참석자 등을 협의한 후 질문 내용을 미리 전달한 다음 2~4명의 연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사전에 전달된 질문지를 토대로 1~2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부대시설과 활동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실시에 앞서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4) 면접조사 지역 현황 및 개요

(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전담부서 및 인구 현황(9~24세)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개 지자체의 전담부서 및 인구 현황은 <표 VI-2>와 같다. 6개의 지자체 모두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며, 청소년 인구수는 송파구가 116,76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북구(79,045명), 도봉구(60,551명), 군산시(50,922명), 금정구(43,702명), 완주군(15,410명) 순이었다.

표 VI-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전담부서 및 인구 현황(9~24세)

(단위: 명)

지역	전담부서명	9~24세 인구수	남자	여자
서울 도봉구	아동친화도시팀	60,551	31,292	29,259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친화팀	79,045	39,591	39,454
서울 송파구	청소년정책팀	116,765	59,773	56,992
전북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	50,922	26,783	24,139
전북 완주군	청소년아동친화팀	15,410	8,198	7,212
부산 금정구	아동친화팀	43,702	23,083	20,619

자료: 행정안전부(2016. 12. 31.). 주민등록인구통계.

(2)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개요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한 6개의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의 경우 충북 단양, 인천 강화군, 서울 마포구 등에 위치하였으며 모두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면접조사 결과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VI-3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개요

마을공동체명	주소	특징	대표사업
핸드미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핸드미길 37	• 체험활동 및 농촌유학 운영으로 귀농자 증가	• 마을체험 • 농촌유학 • 숙박 및 캠핑
산마을고등학교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02번길 73-29	•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는 대안학교	• 씨미켓 • 카페 협동조합
마포구 성미산마을공동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체 • 각 영역마다 지도자가 있는 집단지도 체제	• 공동육아어린이집 및 미을학교 • 공동주택 • 미을축제
공릉동 꿈마을공동체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나길 10	• 미을회의 매달 개최 • 구립도서관을 같이 운영	• 미을축제 • 시작된 변화(청소년 미을 프로젝트) • 청소년죽기페
시흥행복 교육지원센터	경기 시흥시 소래산길 11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오뜸관 306호	• 미을지원 발굴 • 학교와 교육청 간의 허브(Hub) 역할	• 시흥청년체험학교 • 미을교육과정
시흥참이슬 마을학교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번길 9 참이슬아파트	•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참여로 마을학교 및 마을공동체 운영	• 평생학습마을학교 •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

5)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⁴⁴⁾ 면접조사 결과분석

금년도에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6개와 마을공동체 6개 총 12개 지역에 대한 현장 면접조사 내용을 2016년 연구에서 도출한 영역별 성공요인을 중심을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 및 마을 단위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전에 설계된 연구방법에 따라 패턴 매칭 접근방식에 의한 논리모형과 매트릭스를 연구진이 1차로 개발한 다음 해당지역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44)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송파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1) 서울시 도봉구(아동친화도시팀)

①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년 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권리 교육 교사 양성 및 인권수업 실시, 아동인권 워크북 교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학교에 파견하여 인권 수업을 실시하고, 아동인권 워크북 교재를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②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

“지자체 단체장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동친화도시팀’을 만들었다. 구청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아동친화도시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어요”

④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재 ‘아동친화도시팀’이 전담부서이고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동친화 예산서에 제시된 관련 사업의 숫자만 감안하더라도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한 점이 다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⑤ 아동의 권리·복지정책 확대 및 어려운 점

“도봉구의 지역이 가구 구성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많아 복지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팀 하나만으로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팀으로만 꾸려나가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⑥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2017년 초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30명을 정원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59명이 지원해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의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원 구성을 40명으로 확대하였다.”

⑦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

“교육청, 학부모 대표, 교수, 교사, 관내 구립어린이집 원장, 학교관계자 등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청이 주도하고 위원회에게 많은 자문을 받아 그 아이디어들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은데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있다.”

⑧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제고 노력

“주로 SNS와 BAND 등을 통해 소통합니다. 학부모, 학생, 학교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시면 담당자와 전문가를 연결하여 응대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⑨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다. ○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며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성력이 좋다. ○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위해 SNS 및 BAND를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운영 시 한계를 경험한다. ○ 실무전문가의 자문을 행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절되는 것들이 많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 연계 및 협력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많다. ○ 혁신교육지구로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도가 높다. ○ 서울시로부터 강사뱅크, 예산확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내의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낮다. ○ 지자체 특성 상 취약계층이 많아 아동친화도시의 적극적인 운영 및 추진이 어렵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전문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SNS와 BAND 등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 및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반면 전담부서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시설, 학교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 서울시 성북구(아동청소년친화팀)

①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아동의 놀 권리와 4대 권리 증진, 마을 방과 후 종합 지원체계 구축, 성북구만의 혁신교육도시, 아동 보호,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4년 동안의 정책과제를 준비했습니다.”

②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

“지자체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아요. 우리 과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56개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간주하고 있어요.”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야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 100명이 모여서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해 토론을 해요.

‘아동동행카드’는 연간 10만원을 제공하고 자유학기제를 하는 중학교 1학년들한테만 지급해요.

아동·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회, 구정참여단 등의 정기적인 회의를 교육 및 멘토링으로 연간 10번 정도 실시합니다. 어린이의회는 주로 필요한 사안들을 토론하고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동교동락 사업’을 젊은 학부모들, 교사들 등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듣고 같이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④ 전담부서 현황

“아동청소년친화팀으로 총 5명 있습니다. 두 명은 아동친화팀이고 세 명은 청소년 정책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어려운 점

“작년에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권에 대한 인식 정도와 아동 관련 정책의 참여율도 낮은 편이었어요.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수립·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고 관계자 및 주민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⑥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관련 팀이 많다보니 외부에서 민간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동청소년센터고, 성북구 아동친화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는 아동친화팀이 직접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민간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아동·청소년분과를 만들지요. 또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민간거버넌스 16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야마다 내용이 다르다보니 협치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요.”

⑦ 주민들과의 소통

“올해의 사업이 정해지면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실무자들과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등이 승인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⑧ 사업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특히 협치의 경험이 공무원도 없고 주민도 없다보니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하는지 늘 고민하죠. 행정은 조정자 역할이라고 정리해서 올해만 120번 정도 주민과 회의를 진행 했어요.”

⑨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 지자체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관심이 많다. ○ 거버넌스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왔다. ○ 관련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 업무분담이 되어있다. ○ 아동·청소년의 수준에 따라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중심으로 사업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 ○ 학부모, 활동가 등이 성북구의 혁신도시 및 아동 친화도시에 관심이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하기 때문에 장소여건, 환경적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구청의 56개과 중에서 핵심부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은 ‘행정은 조정자 역할’이라는 입장에서 매년 1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과의 협치 과정을 거친다. ○ 반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행정기관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기증될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아동 및 청소년시설에 사업 위임 및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3) 서울시 송파구(청소년정책팀)

①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송파구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2016-2018)」를 근거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들 지원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또래울’ 운영과 축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에요. 권리교육, 친화도시 홍보 확대와 아동·청소년들의 활동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② 지자체장의 관심의 정도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아주 강하세요. 구청장님께서 인권변호사를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청소년 관련 회의나 정책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직접 전해주시는 등 의지가 매우 강하십니다.”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야

“가장 대표되는 것이 휴가폐의 전신인 또래울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의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꿈드림센터를 저희가 유일하게 단독 건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을축제인데, 축제를 하면서 10년~20년 된 몰랐던 인적자원들이 발굴되었어요. 네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퍼카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상담을 하는 ‘유레카’가 있어요. 대표 사업으로 ‘또래울’은 울타리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울타리가 없는 공간을 의미해요. 자유쉼터, 커뮤니티 동아리 공간 등을 의미합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제과제빵 등 직업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학교에 가서 직접 피업하고 있습니다.”

④ 전담부서 현황

“청소년과는 학교 밖의 아이들 대상이고 교육협력과는 일반학생들,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에 대해 중요하다 생각하는 송파구의 의지인거죠.”

⑤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매달 한 번씩 정기회의와 방학 때 워크숍을 실시해요.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참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에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정책 참여 학교’를 운영합니다. 행정에서 먼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도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도 제공합니다.”

⑥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

“‘또래울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은 건전한 문화 활동을 위한 정책의 필요를 느껴서 공모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었어요.”

⑦ 아동청소년정책 조정실무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와 연관되는 부서가 36개부서 중에 24개입니다. 그러다보니 협조체계의 필요성을 느껴서 구청장님 의지로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부청장님을 위원장. 위원들을 과장님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이 매우 높다. ○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활동가를 발굴 및 활용한다. ○ 청소년과, 교육협력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한다. ○ 정책제안, 피드백 등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권 관련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너무 적다.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들 간에 구축된 연계망이 다소 미흡하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참여 및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었다. ○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송파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전담부서로 ‘청소년과’와 ‘교육협력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정책관련 22개 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업무협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화하였다. ○ 송파구 아동친화도시추진 팀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참여권 예산과 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책 및 활동 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전라북도 군산시(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

① 중장기 계획의 여부

“어린이행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매년 발전계획과 장기목표 수립이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비전과 목표는 있지만 3~5년씩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② 지자체장의 관심의 정도

“지자체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타부서와의 협조는 시장님 핵심공약 중 하나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므로, 다른 부서에 비해 훨씬 업무 협조가 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야

“기존의 놀이터 활성화와 아이들에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안전활동가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안전활동가를 양성하고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봅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안전교육’은 시의 핵심 사업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예요. 기관별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을 통합해서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예요.”

④ 전담부서 현황

“아동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어린이지원계하고 어린이정책계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정책계는 팀장 1명에 팀원 4명이고, 국 전체의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⑤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의회 시작 전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의회의 기능,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아카데미를 실시한 후 개회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를 시의원과 함께 논의하여 발의를 했어요. 관련 예산 계획수립에 어린이·청소년 의장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⑥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

“시장님의 핵심공약을 만들고 발표할 때 당 소속 의원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조와 네트워킹이 원활하고 사업 진행이 용이합니다. 학교 및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는 ‘인재양성과’가 있어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잘 되고 있다.”

⑦ 위원회 구성

“어린이 행복도시 민간추진위원회가 행정부서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주고 저희는 그걸 수렴해서 정책을 펑니다. 추진위원회 부분은 공약사업이었어요.”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장이 어린이 행복에 관심이 높고 아동친화도시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 높다. ○ 관련 전담부서를 시청의 주무부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타 부서와의 협조가 매우 용이하다. ○ 민간추진위원회, 행정과 어린이청소년의회 간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 및 예산을 결정한다. ○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를 제정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라 추상적 개념으로 인해 종장기 계획 수립과 행복 수준 조사 실시의 곤란함을 느낀다. ○ 아동친화도시 전담과 주무부서 이기 때문에 인력수급 요청 시 타 부서에 지원을 하여 부서 내 인원 변동으로 업무분담에 변동이 있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 로드맵 및 평가에 어려움을 느낀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논의를 거친 핵심공약사업으로 인해 민간과의 네트워크가 용이하다. ○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연계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아카데미 실시와 정책 참여 기회가 확장됐다. ○ 인재양성과가 있어 교육청과의 연계가 수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이전에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련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인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 참여, 활동 등에 관한 아카데미와 토론 등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시의원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관련된 조례 등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 군산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어린이행복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담당자들이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연간 및 종장기 계획 수립과 행복 수준 조사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애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요구에 적절한 활동 공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기관 및 시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 전라북도 완주군(청소년아동친화팀)

① 중장기 계획의 여부

“이번에 맡겨서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② 지자체장의 관심의 정도

“군수님께서 뜻이 강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팀원은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또 우리 팀에는 아동분야를 전공한 박사를 민간전문가로 채용하여 전문성이 강화되었어요.”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역량 평가, 지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NGO단체 등 민간과 연계하고 있어요. 정책 수립이나 예산 계획에 아이들과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은 카페를 만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기고 진로직업에서 배웠던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④ 전담부서 현황

“팀은 5명인데, 군 단위기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해요. 중앙정부로부터의 매뉴얼 외의 업무가 많아서 넉넉하지는 못해요.”

⑤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대학의 관련 학과들과 연계하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대학교 교수님들의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한다. 기자단 혹은 분과를 나눠서 도시계획 어떤 꾸미고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요.”

⑥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어서 학교와 기관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저희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인 ‘온누리교육공동체’ 등이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도 있고, 인재개발관, 진로직업센터 등이 있어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형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⑦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인식

“어린이날 등 행사나 읍면 이장 회의에서 아동친화도시 발언대를 하고 홍보 책자 등을 배포하고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있어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관심 및 담당부서 전문성 제고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 민간전문가로 아동 전공 박사를 아동친화도시 업무부서에 채용하여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 지역 내 대학 교수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 ○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므로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는 인적물적 자원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교육청과의 네트워킹과 협치가 원활하다. ○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 협동조합 혹은 협의체 형태로 직접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상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의 사업에 지원해야 하는 행정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담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완주군은 2016년 12월말 현재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인증을 획득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다소 적은 ‘농어촌지역 아동친화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 완주군은 지리적 혹은 인력 운용상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법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각종 아동 영향 평가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특히,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와 지속성 유지를 위해 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민간전문가인 아동전공 박사를 채용하여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 완주군은 전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장애와 귀농귀촌의 증가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교육통합지원센터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의 독특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소규모 지자체에 주는 정책적 대안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부산시 금정구(아동친화팀)⁴⁵⁾

① 중장기 계획의 여부

“「아동친화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근거로 관련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지자체장의 관심의 정도

“해외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참여권 보장 사업 추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자리에 참석합니다.”

③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야

“‘아동 권리 주간’ 행사를 매년 개최해서 아동이 행사의 주체로서 부스도 운영하고 행사를 구상합니다. 유니세프부산사무소와 연계하여 청소년 총회를 2회 개최했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권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공유하고 해당부서가 검토한 결과들을 청소년들과 공유합니다.”

④ 전담부서 현황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친화팀으로 직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아동친화팀 아동친화업무 전담 직원의 정원은 2명이나 결원인 상태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⑤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해서 발대식, 워크숍, 소모임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결된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활동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 및 사교육 일정으로 아동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⑥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

“작년에는 굿네이버스, 올해는 금정청소년수련관과 연계(민간이전사업)하여 ‘청소년참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 직원들 대상 ‘아동권리교육’과 ‘부모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련한 사업 추진 시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로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45) 이 부분은 김세광 교수(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가 인터뷰 실시 및 정리하였음.

⑦ 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 1~2회 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⑧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인식

“홈페이지에 ‘어린이 구청’ 탭을 만들어서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알리고 있어요. 또 ‘아동친화도시’ 탭을 개설해서 아동의 권리, 아동을 위한 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및 직원들, 구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부모교실을 운영했어요.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와 어린이날 행사에 아동권리 체험 부스 운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요.”

⑨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이해가 민·관 불문하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인력과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⑩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이 해외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 ‘아동권리주간’, ‘청소년총회’와 같은 지역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팀 업무 전담직원이 현재는 사업 규모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 아동참여 관련 기반이 미비하고 주민과 어린이청소년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 담당자 외에 아동친화사업의 이해가 부족하여 부서 간 협조체제가 용이하지 않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내 대학 및 관계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평가 및 음부즈피슨’과 같은 사업은 기초지침 단체가 시행하기에는 표준매뉴얼과 모델이 없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해외 우수사례에 관심이 높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마인드와 더불어 다양한 아동의 참여권 보장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자세는 비전과 실천을 겸비한 새로운 지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기회요인으로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실’ 등을 포함하여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와 같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가 인적자원 관리와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은 매우 권장할 만한 추진체계로 볼 수 있다. ○ 반면 아동친화팀 업무 전담직원의 부족, 타 부서 공무원들의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서 간 협조체제가 어려운 점, 사업단위 별 표준매뉴얼과 운영모델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6)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결과분석

(1) 한드미마을(충북 단양)

①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우리 마을은 한드미 영농조합 법인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조합원 총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어요. 그 외에 마을총회, 대동회, 운영위원회 모임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어요.”

② 지도자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마을 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방안을 찾고, 마을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방법을 찾다가 농촌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이곳이 거점이 되어서 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오기도 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고 있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등은 제약이 많아요. 정부에서는 시설 단위의 지원이 많은데 우리는 프로그램 단위이다 보니 지원이 없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죠.”

③ 지역 내 인적 · 물적 지원 적극 활용

“박쥐가 살고 있는 동굴에서 동굴타기를 하거나 여름에는 물놀이, 뗏목타기를 실시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삼굿구이’로, 옥수수, 감자 등을 땅에 묻어 쪄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④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휴양마을협의회, 도농상생연대 등이 있고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 권역을 묶어 실시하는데 타 지역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⑤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상근직원은 20명 정도이고 그 중 40대 이하의 젊은 직원들은 8-9명 정도예요. 이외에 비상근 직원과 외부 강사도 있어요. 인건비는 농촌유학, 기숙시설, 체험사업, 음식과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귀농을 오시는 분들은 자녀를 농촌유학 보내시면서 부모님들이 펜션, 민박, 아로니아 재배 등 생업을 준비하셔서 오십니다.”

⑥ ‘농촌유학’ 과정과 확산 시킨 방법

“현재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있어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방과 후 활동도 하지만 중학생은 그 방법이 어려워서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농촌유학을 해요. 초등과정 생은 26명, 중등과정 생은 9명, 유치원생은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관부서 없이 자생적으로 모델을 만든 후에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했고, 자문을 받고 자연스럽게 농림부 담당 국장의 관심으로 농촌아이들 복지문제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⑦ 향후 계획 및 목표

“노인문제, 아이들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퇴임하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식당, 카페, 로컬푸드 판매장을 마을 내에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충북에 소재한 대안학교인 ‘은여울학교’ 대안학교를 모델로 삼아 청소년 대안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체험사업, 음식·농산물 판매 등으로 젊은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 지도자의 철학과 이념으로 농촌마을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공동체를 복원하였다. ○ 친환경 농법, 농약사용억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하였다. ○ 친환경 농산물로 식당운영 및 약선 음식을 판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청소년 사업 실시에 한계점이 있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 농촌유학 및 대안학교에 대한 지지체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남한강, 계곡, 동굴, 소백산, 연탄창고, 계곡 등 풍부한 물적 자원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악화로 인한 농촌유학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마을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마을공동체 발전 속도가 더디다. ○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드미 마을은 마을공동체 조성과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농촌유학과 같은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복원하였다. 또한 공동체 운영진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를 토대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을 중심을 귀농인구가 늘어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당 운영 및 약선 음식 판매와 같은 지역 특색의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마을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산마을고등학교(강화도 진강산마을공동체)

① 학생들이 주도하여 자율협동조합 운영

“청소년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요.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마켓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사업팀은 진동위(진강산공동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카페팀은 마을 입구 2층에 있는 카페,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팀은 주제를 바꿔 공부하며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② 지도자의 역할

“저(교장)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근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대표로서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③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채널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진강산공동체(이하 진공)를 만들었어요. 수요주점, 마을학교, 사랑방, 장터, 도서관 등 단독, 복합적 사업 아이템을 통해 소통을 해요. 일요일마다는 ‘나들길 걷기’로 근처를 산책하고, 장터는 씨마켓을 열어서 물품판매, 공연, 전시, 강연 등을 했어요. 마을학교는 상설로 오픈되는데 마을서당, 학부모 아카데미 등 공동체 교육이나 사진특강, 인문학 교실 등을 실시해요.”

④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교장을 포함해서 교사는 10명이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5년 이상씩 근무를 해요. 마을 주민들은 학교나 진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학교 주변에서 벼농사, 밭농사를 해서 식량을 자급하고, 태양열과 지열을 받아서 냉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식량과 에너지 자급률이 50% 정도는 될 거예요.”

⑤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학교가 지역사회 활동과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교사들은 수업준비, 행정업무,

학생 상담 등을 하면서 교류를 위한 타 지역과의 회의가 쉽지 않아요. 올해 진행했던 지역 내 초등학생들과 ‘구워먹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있으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추진하는 게 어려워요.”

⑥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력유치의 지속성이 떨어져요. 졸업 후에도 여기에 남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처럼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또한 아이들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어야 해요.”

⑦ 향후 계획

“학교는 ‘살아있는 마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지역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 정의위원회와 함께 방향을 정하고 내실을 키우면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수업과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되는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50%를 자급한다. ○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씨마켓, 마을학교 등 사업 아이템이 다양하다. ○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다양한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체험활동, 계기교육 등 학생 중심의 행사활동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 마을 내에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인력이 부족하다. ○ 지역의 학교, 행정기관, 청소년시설과의 연계활동이 미흡하다. ○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와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마을 특성 상 젊은 인력 유치가 어려워 마을 발전에 한계가 있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도 산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강산공동체는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활동을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젊은 인력 유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다양한 공동체 사업과 활동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조성과 외부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성미산마을공동체(서울 마포구)

①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주민들 사이에 연령차가 나다보니 서로가 별명 혹은 애칭을 부르기로 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수시로 실시하고, 전에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강좌가 있었어요.”

② 지도자의 역할

“개최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모두 별도로 운영 되요. 마을 단위의 행사 혹은 축제가 있을 때에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별도의 위계적인 형태보다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③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어린이집을 계기로 지금은 사업장이 70개 정도로 확대됐어요. 얼마 전부터 월세가 계속 올라가서 활동 공간이 없어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중이에요.”

④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다양한 70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엮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락체계예요. ‘사람과 마을’이라는 단체가 흩어져있는 모임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⑤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공동육아를 하니까 애를 함께 키우고, 가치관이 비슷한 친구가 생겼다는 위안, 내가 집을 비울 때 애를 봐주고 마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친지가 마을 안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서 마을에 한 번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어요.”

⑥ 공동체 내의 교육시스템과 경제활동

“교육시스템은 공동육아협동조합으로 출발했고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마을의 경제활동은 협동조합, 마을 기업형태, 사회적기

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되요. 1200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국내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도 있고 유기농 비누 생산 및 판매 매장, 반찬가게를 시작했고 보리출판사, 서점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터로 도시락 배달 업체와 케이터링 사업이 있고 이런 단체 지원하기 위한 금고를 운영하고 지역 화폐도 발행하고 있어요.”

⑦ 지역 내 문화 활동 및 마을 행사

“해마다 마을축제를 개최해요. 그리고 성미산 오케스트라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악기 강습을 받으며 단원이 될 수 있어요. 또 마을 극장이 있어서 공연도 해요. 마을 운동회, 동아리 축제도 있고 연말정보소통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⑧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공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인간관계예요. 관계를 잘 풀지 못하면 공동체는 안 되더라고요.”

⑨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주민들 간의 소통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 협동조합이 다양하고 활발하며 각 협동조합 성격에 따른 개별적인 정관이 있다. ○ 다양한 배움터 및 사업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자치활동이 부족하다. ○ 특정 인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 구성원 간의 갈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함께 민관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 ○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이 높다. ○ 마을 내 각 협동조합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의 관심 있는 인구유입 상승으로 인적 자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값 상승으로 인한 공동체 활동 및 협동조합 공간이 부족하다. ○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수의 영세 사업장들이 운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은 공동체 내에 다양한 배움터와 사업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공동체의 지속성과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과의 갈등 및 특정 구성원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동체 활동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4)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서울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중심)

①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한 달에 한 번 마을 공동체 정기 회의가 열려요 그리고 사업이나 강좌 등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해드리면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 게 역량 강화이지 않을까 해요.”

② 지도자 역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마을 어른들이 먼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신념하에 마을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청소년 활동도 마을 지향, 마을 공동체 지향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센터장님이 마을로 나가셔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번 같이 하시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마을 분들이 찾아오셔서 건의하시면 ‘우리 힘 합쳐서 이런 것도 해보자’하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③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자원활동가분들이 센터와 마을을 이어주는 다목적 조직단체로 되살림 가게를 만들어 기부 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청소년들에게 수익금으로 주시는 활동을 하세요. 또 청소년 휴카페라고 꽃다방에서 자원활동가들이 카페를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거나 기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축제는 전원 마을 축제 후원금. 동네 주민 분들이 후원해주시는 돈으로 실시되고요. 도서관이 같이 있어서 좋은 게 아동과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리스타나 손바느질 등 주민들이 청소년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④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특별히 교육청하고는 연계되어 있는 건 없어요. 축제 할 때 (학교와) 연계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읽기 부진아 특수반 아이들이 있어서 반 선생님이 먼저 도움을 청하면 저희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 지전가(지역사회교육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육복지대상 찾아서 멘토링 사업을 하거나 후원하기도 하고 학교랑 같이 공동으로 진로간담회, 자유학기제를 해요.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 마을 참여활동인데 저희 센터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노원구까지 확대시킨 사업이에요. 아이들이 ‘우리가 이 마을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고 실천해요.”

⑤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이번에 청년마을활동가인턴사업을 따냈어요. 마을 청년 8명을 모아서 마을과 연관된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청년 인턴 선생님들은 각자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⑥ 공동체 내의 프로그램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파트너쉽을 위한 활동이 있나요?) 정기적인 것은 없고, 마을 축제 2개가 핵심. 1년에 두 번 5월에는 어린이날 꿈잔치 9월에는 꿈나르샤 두 가지를 하는데 이때 어른들과 청소년이 다 채워줘요. 기획부터 아이들이 직접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놀이단이 돼서 아이들과 직접 놀아주고 뛰어다니고, 먹거리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정리도 도와주고, 카페라 찍는 것도 다 청소년 동아리가 들어와서 해주고 이런 일들을 자치적으로. 청소년 진로 같은 부분도 마을 동아리나 단체랑 연관시켜서 많이 하거든요. 마을에 마을 여행단 해설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릉동 꿈마을 여행에 학급단위로 많이 옵니다.”

⑦ 인터뷰 결과에 대한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히 마을 공동체 정기 회의를 실시한다.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공하고 독려한다. ○ 마을공동체와 청소년 활동을 함께 이뤄나가는 데에 센터장의 적극성이 있다. ○ 자원활동가 그룹이 있어서 센터와 마을을 이어 주는 다목적 역할을 수행한다. ○ 마을주민이 멘토가 되어 청소년 진로체험을 실시한다. ○ 학교와 활발한 연계로 진로간담회, 자유학기제 등이 가능하다. ○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사회참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많은 마을 주민들과 단체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이 있어 지원기회가 많다. ○ 시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다. ○ 구립 도서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원구 공릉마을 공동체는 지역 내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마을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청소년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추진하려는 시도가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사회참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가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청 및 학교들과 긴밀한 협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경기도 시흥시)

① 주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처음에는 혁신지구 시즌 1때는 23개의 학교만 했어요. 이 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를 계기로 전체 시흥시에 시즌 2가 시작되었고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은 상태예요.”

② 지도자의 역할

“혁신교육지구 계획서를 쓸 때, 저희 시장님이 거의 준교사 수준에 교육에 전문적인 식견과 활동과 철학과 관심이 있으셨어요. 교육혁신지구 계획서를 쓸 때 교육청과 교사들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것을 요청했죠. 교사들은 초등교육연구회, 교사연구회에 9년 내지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들이 처음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로 협치를 시작했죠.”

③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 적극 활용

“기존에 시흥에 탄탄한 교육교사연구회조직이 있었고 이 연구회 조직의 교사들이 각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들을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추진해왔어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면서, 마을활동가들하고도 계속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학교가 주축이 되면서 마을활동과 마을의 유지와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④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초창기에 교사와 공무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혁신교육지구 시즌1 당시에는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게 되었고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시장, 부시장, 각 부서장, 교육청소년과 팀원 모두가 같이 공부했어요.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축제와 창의체험학교, 그리고 꿈의 학교 등을 꼽을 수 있어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관 간의 협조와 교통통제 등의 문제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결하고 있어요. 창의체험학교는 지역 내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터를 시청이 발굴을 주체적으로 했죠. 장소를 체험하고 그 곳에 계신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죠. 아이들은 방문 장소를 사전에 수업을 통해 공부를 하고 와서 체험 한 후 토론도 하고 정책제안도 해요.”

⑤ 공동체 내의 프로그램

“마을교육과정은 마을에 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 기관이 공모를 해서 마을사람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줘요. 매칭을 해주면 이 선생님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시고 비용은 다 시흥시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⑥ 향후 계획 및 궁극적인 목표

“원래 센터는 허브(Hub)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으면서 각각을 조율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목표로 해요. 근데 이제 교육청소년과 밑에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들이 꺼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센터가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⑦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교육청, 교사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다. ○ 센터의 허브(Hub)역할로 효율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마을 행사 진행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교육 콘텐츠(장소) 발굴 및 전문가 발굴이 우수하며, 학교에서 교과통합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를 활용한다. ○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 발굴, 경력직 교사의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등의 이유로 고등학생 참여와 활동이 미흡하다. ○ 타 지역의 기관 및 체험시설 간의 연계망 구축이 미흡하다. ○ 다양한 동아리 및 체험활동에 비해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자치활동이 부족하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열의와 의지로 효과적인 협치가 가능하다. ○ 오래된 교육교사연구회가 학교 활성화에 도움을 제공하여 네트워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역량에 따라 교육 콘텐츠 활용도 및 학습 성과에 있어 격차가 크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자치단체장의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 공무원과 교사연구회 간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주축이 되어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와 마을 유지 및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 내 체험현장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관과 담당자들 간의 사업 이해 부족으로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장과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점은 매우 인상적인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 향후에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의회 혹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실습 등을 통한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참이슬마을학교(경기도 시흥시)

① 주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현재 20~2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진행해요. 참여도나 성취도가 높아요. 정관도 다 있죠. 정관에 의해서 마을학교가 운영이 다 되는 거고, 마을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시스템이 정착되어 팀제로 운영을 해요.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총괄 운영팀, 북카페, 독서팀, 공정여행팀, 에너지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각 팀 별로 회의한 걸 토대로 전체 회의를 진행해요.”

② 지도자의 역할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주민으로부터 시흥시에서 공동체 사업공모에 대한 내용에 관한 전화를 받았어요. 공모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거죠. 노인회장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실행했어요. 시흥시가 평생학습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시범마을이 됐고 인큐베이팅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주민과의 갈등,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 내부적인 피곤함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 위기를 극복했죠.”

③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마을 운영은 모두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주민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갈등 요소도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면서 입대위에서 인정을 해주었어요.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북카페 운영 등이 순환되면서 외부지원과 내부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④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마을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요. 향후 과제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든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⑤ 공동체 내의 프로그램

“축제, 벼룩시장 운영, 마을 콘서트,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을축제와 콘서트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단한 행사입니다. 벼룩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5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소등행사도 매월 진행해요. 마을학교 운영과 함께 북카페, 독서실 등을 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또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와 지원의향을 전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정 단체에서 30인조 오케스트라를 무료로 해주셨어요. 마을행사나 축제에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참여해요.

마을공정여행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하고, 마을여행 콘셉트로 점점 키워서 지금은 ‘랄랄라 시홍투어’, ‘청소년 창의체험학교’를 여기서 다 진행을 해요.”

⑦ 향후 계획 및 궁극적인 목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역의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도 해보고 스스로 계획도 짜보고 실행도 해보고 그런 공간을.”

⑧ 인터뷰 결과에 따른 SWOT분석 및 소결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의 오랜 마을공동체 운영 노하우가 있다. ○ 팀 운영 방식으로 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 매년 초등학교와 협약서를 맺는 등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있다. ○ 강사양성, 독서실 및 북카페 운영 등을 통해 마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스, 농구 등의 문화 활동 외에는 청소년 활동이 부족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한다.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다. ○ 오케스트라 등 외부에서 문화재능 기부를 한다. ○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젊은 부모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비교적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소외지역이다.
소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 ‘참아슬마을학교’는 2007년 사업 시행 당시 입주자 대표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위사람들과 해결방안을 고민한데서 출발하였다. 특히 운영 방식에서는 공동체 사업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 했으며, 다양한 문제들을 주변 분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중요시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 또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역별 팀제를 도입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 반면, 프로그램이 주로 댄스, 농구 등의 문화활동 외에 청소년 활동이 부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별 활동가와 지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대상 면접조사가 주는 시사점

현장 방문 면접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SWOT분석은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의 현실파악 및 문제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은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은 편으로 파악되어 활발한 홍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 주민 및 아동·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의 용이성을 높여야 하며 더 나아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피드백 체계를 두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행정기관과民間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앞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전담 조직과 인력배치 등 정책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권리와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 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 설명회 및 교육과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 재원 확보와 더불어 그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기획부터 실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아동청소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자체별 아동과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개발과 실행 체계 마련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평가를 토대로 연차보고서 혹은 백서를 발간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군산시와 송파구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 행정기관이 민간단체 및 시설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인적 및 물적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인 포럼과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특성화 요인 도출과 논리모델 개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 등을 공통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이순형, 1989; 오혁진, 2014:89 재인용). 지역공동체는 단지 일정한 지역의 공유에 의한 연대감만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면서 그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 다른 의미로 지역공동체는 활동의 종류와 참여자들의 성향에 따라 ‘관심공동체’와 ‘생활공동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범위를 마을, 도시,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하면서 구성원들이 지역의 역사화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오혁진, 2014:91-92).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는 “기존의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의 모임과 일련의 활동과정(안전행정부, 2013:14)”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주제이면서 핵심 용어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는 마을(도시) 혹은 공동체의 범위를 포함한 다소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협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행복마을(도시)’, ‘청소년행복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용어가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단위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오해섭, 김세광. 2016).

2) 특성화 요인 도출 및 논리모델 개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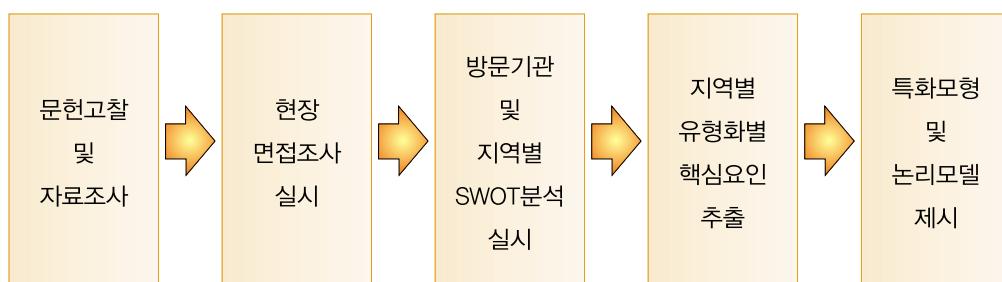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이상적인 모형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 및 조직들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조례 등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과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체계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인하고 분석 단위별로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의 공동점과 특이사항을 토대로 사례분석 단위별 특성화 요인 분석과 논리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먼저 논리모델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패턴 매칭 논리(pattern-matching logic)를 적용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주요 정황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패턴 매칭 기법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과 미리 예측했던 패턴을 비교하는 논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Robert, 2008). 관찰된 패턴의 독립변인이나 핵심변수 등이 사전에 예측한 패턴과 일치 및 유사 정도에 따라 그 사례연구의 내적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례연구의 유형에 따라 예측 패턴과 관찰 패턴에 포함되고 비교되는 내용과 변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단순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요하는 연구라면 독립변수로서의 원인과 종속변수로서의 결과 및 효과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증거자료를 근거로 비교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특성분석과 추진과정에 대한 논리모델 구성 절차는 [그림 VI-1]과 같이 먼저 이론적 고찰과 사전 자료조사를 토대로 현장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방문기관 및 지자체별 현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인터뷰 항목별로 정리하고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요인에 근거하여 특화모형과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VI-1】 지역별 특화모형과 논리모델 개발절차

3) 청소년 행복마을 추진 유형별 특화모형과 논리모델 구성

(1)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지자체

지자체 단위 아동친화도시 중심이 특성화모형 구성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 지자체(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송파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를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주요 구성 요소는 법·제도 및 사업계획, 조직 및 운영체계, 재정확보 방안,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및 성과 관리 등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대상 현장방문 면접조사 주요 항목은 <표 VI-4>와 같다. 사전 조사와 현장면접, 수집된 자료와 녹취록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 단위 특성화 요인 및 논리모델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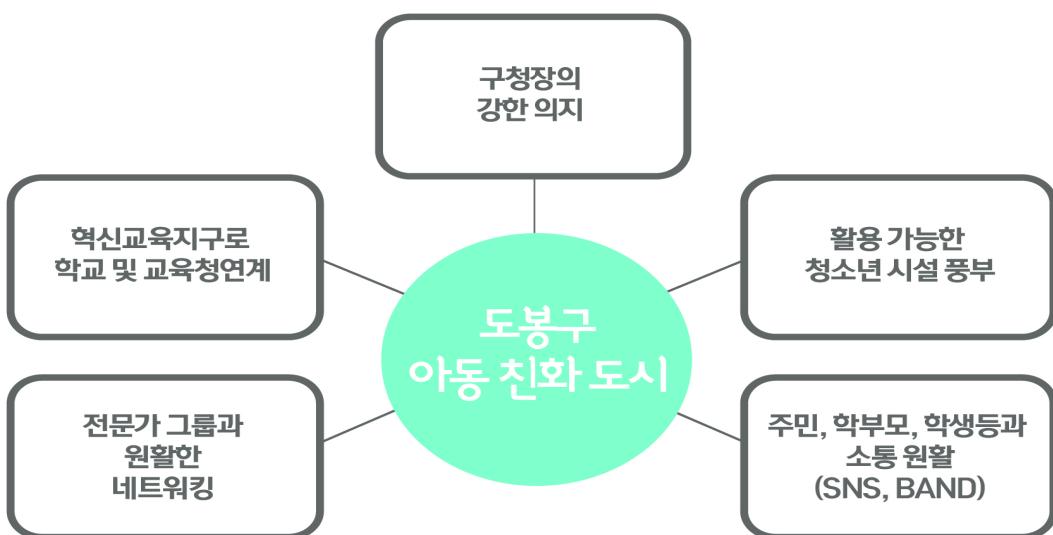
표 VI-4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항목

구성요소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 전략
법·제도 및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 조례, 시행령 기본계획 및 운영 지침 마련 중장기 추진 로드맵 설정
조직 및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조직 및 역할 사업 및 활동에 따른 인원확보와 전문성 지역단위 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지정 전문가+청소년+지원기관+후원회+지역주민+학교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소통 기구 운영
재정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조례 제정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운영기금 조성 방안 마련 지역 내 후원회와 기업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유치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핵심역량 활동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관련단체 및 기관 간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지역 단위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연구포럼 운영 행정기관, 민간후원단체,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프로그램개발 및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 사업영역별 성과관리 방안 마련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우수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참조: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정책제언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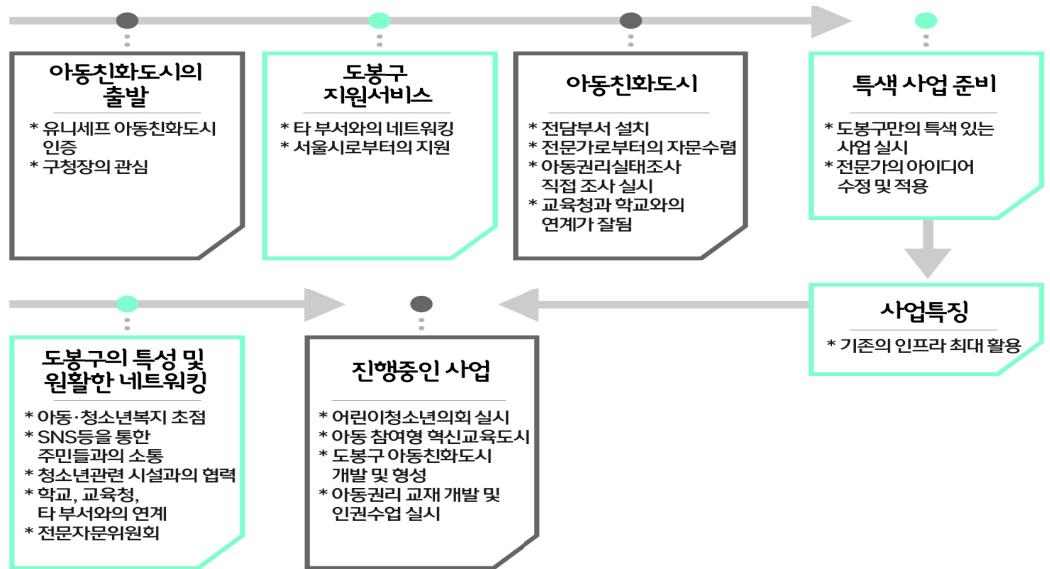
① 서울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서울시 도봉구는 구청장이 지역 내 어린이 보호와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해 SNS 및 BAND를 활용하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아 활동 장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더불어 전문가 그룹과 원활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지역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로 학교 및 교육청 연계 학교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치 실현으로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VI-2】 서울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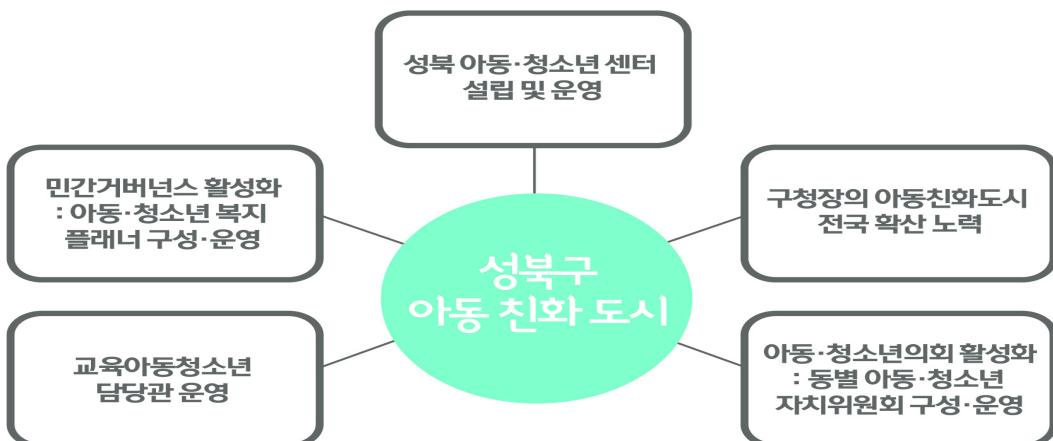
이러한 특성화 요인을 토대로 2016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아동권리실태를 구청이 주도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아래의 [그림 VI-3]과 같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아동 참여형 혁신교육도시, 아동권리교재 개발 및 인권수업 등과 같은 특색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VI-3】 서울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② 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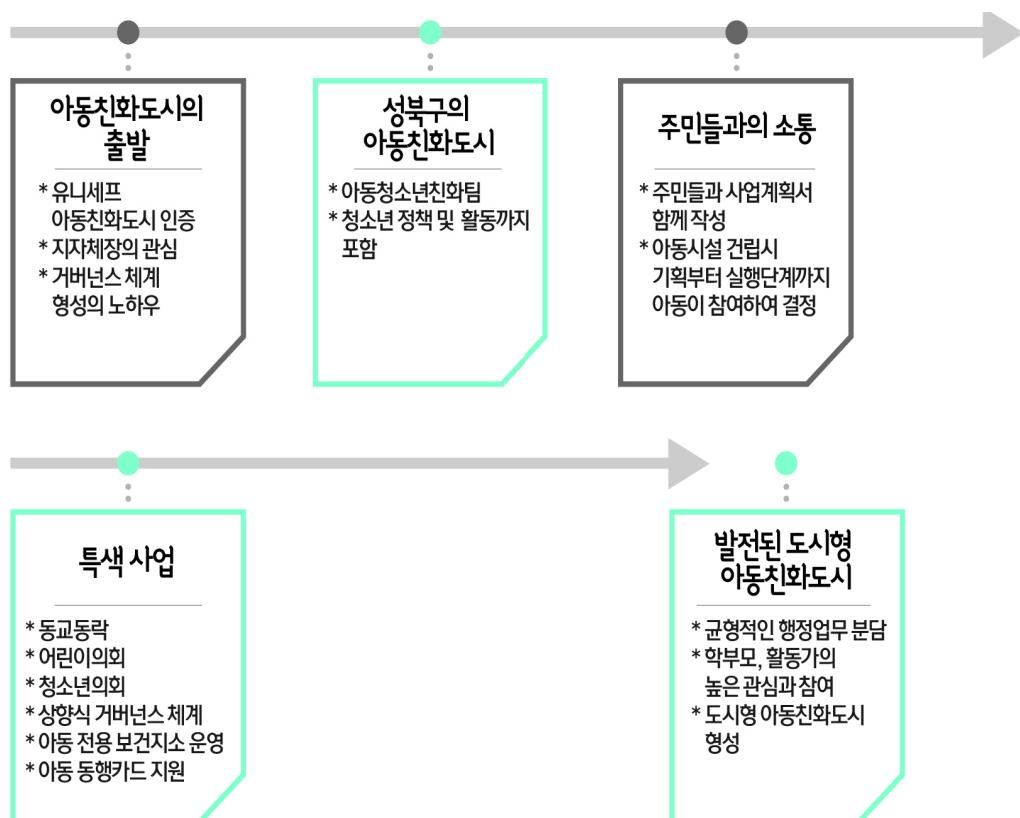
성북구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과 협력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상향식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림 VI-4】 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핵심인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아동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격상하여 구청의 56개중 핵심부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인 만큼 전담부서와 아동청소년 정책 및 관련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정책 결정과 시설 건립 과정에서도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인상적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은 [그림 VI-5]와 같이 동교동락(1개 동에 1개 학교 연계),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별도 운영,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아동 동행카드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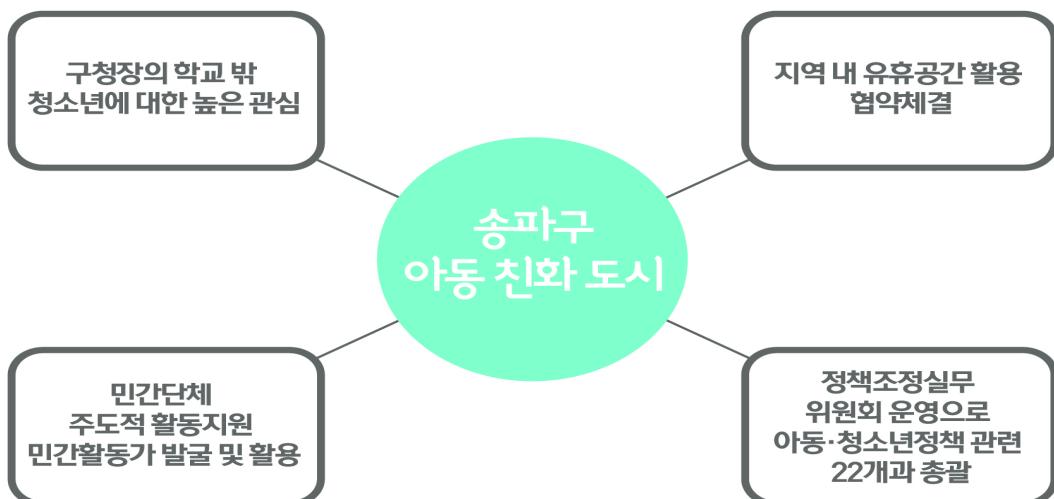


【그림 VI-5】 서울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③ 서울시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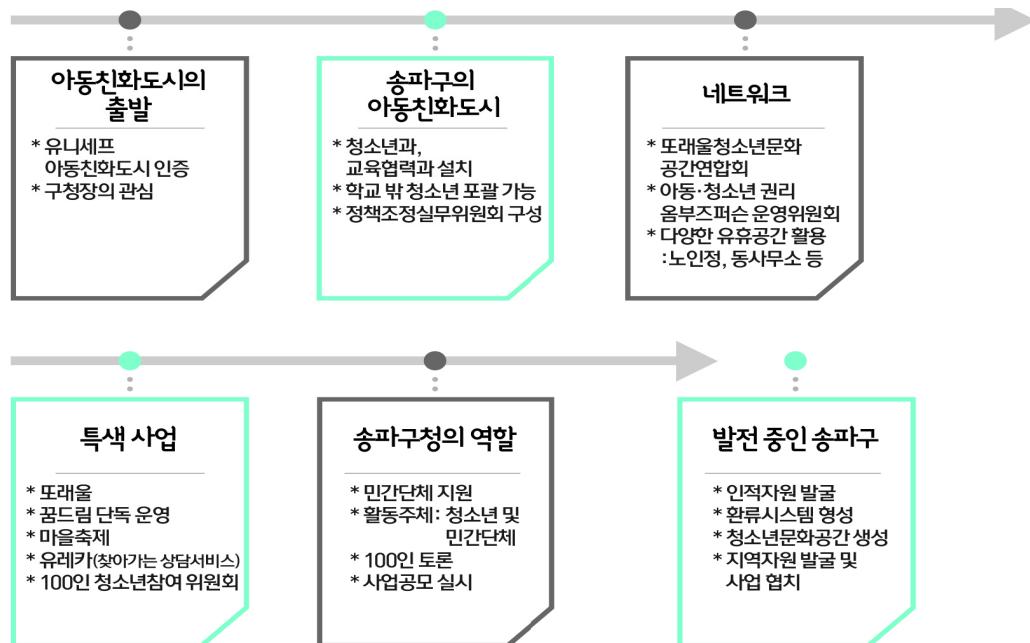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상의 특성화 요인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림 VI-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담부서를 ‘청소년과’와 ‘교육협력과’로 구분하여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 협약체결로 아동친화도시 활동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활동가를 발굴하여 아동친화도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관련 22개 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VI-6】 서울시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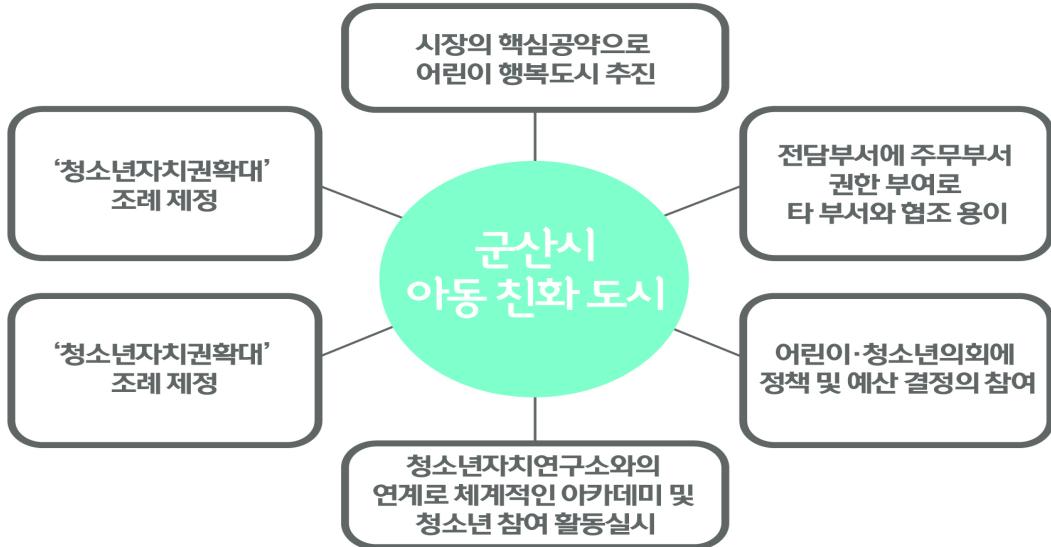
송파구는 특히 청소년정책과 사업 실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매우 높아 ‘청소년과’를 전담부서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다. 특색사업으로 또래울(또래들 간의 활동울타리), 꿈드림, 마을축제, 유레카(찾아가는 상담서비스), 100인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민간단체 주도적인 활동 지원과 민간 청소년활동가 발굴 등으로 지역 환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VI-7】서울시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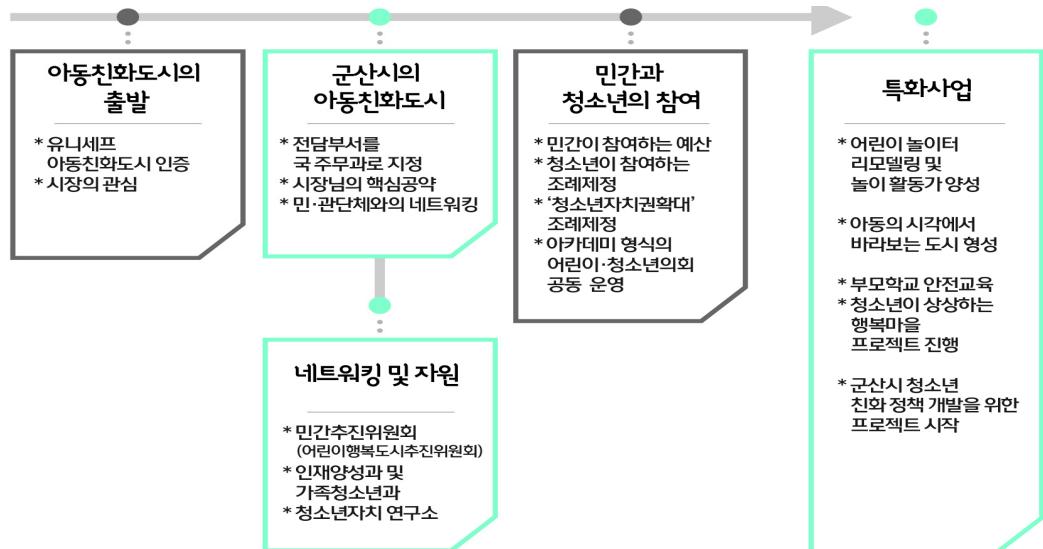
④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특성화 요인은 [그림 VI-8]에서와 같이, 먼저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라는 점이다. 동시에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타 부서의 협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현재는 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가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히 민간단체인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동기부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로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논의 및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자치권확대’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림 VI-8】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운영 과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시청의 어린이 행복과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민간단체인 ‘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 참여, 활동 등에 관한 아카데미와 토론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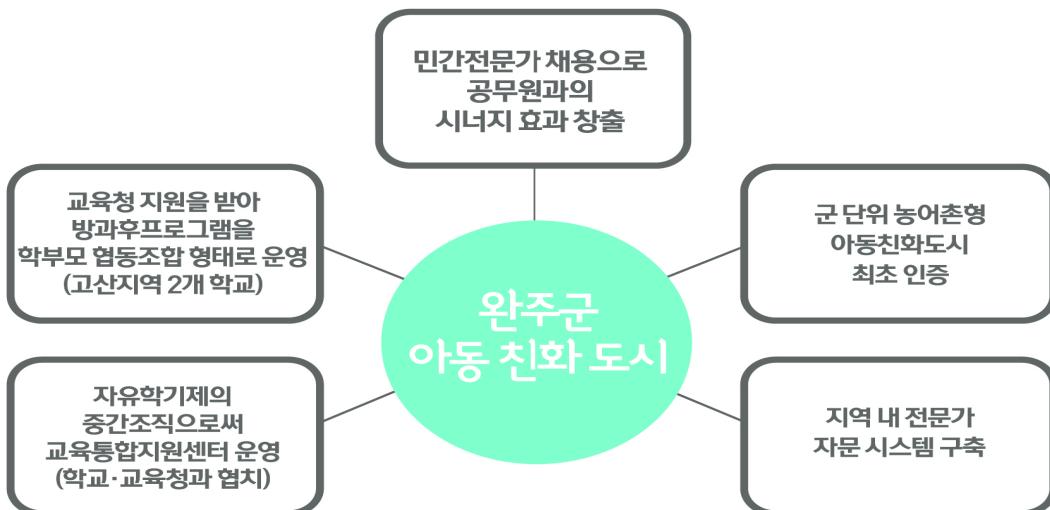


【그림 VI-9】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또한 시의원과 행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관련된 조례 등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천하고 있다. 군산시 아동친화도시의 특색사업은 [그림 VI-9]와 같이 「청소년자치권확대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대상 정기적인 포럼과 아카데미 운영, 어린이 놀이 활동가 양성,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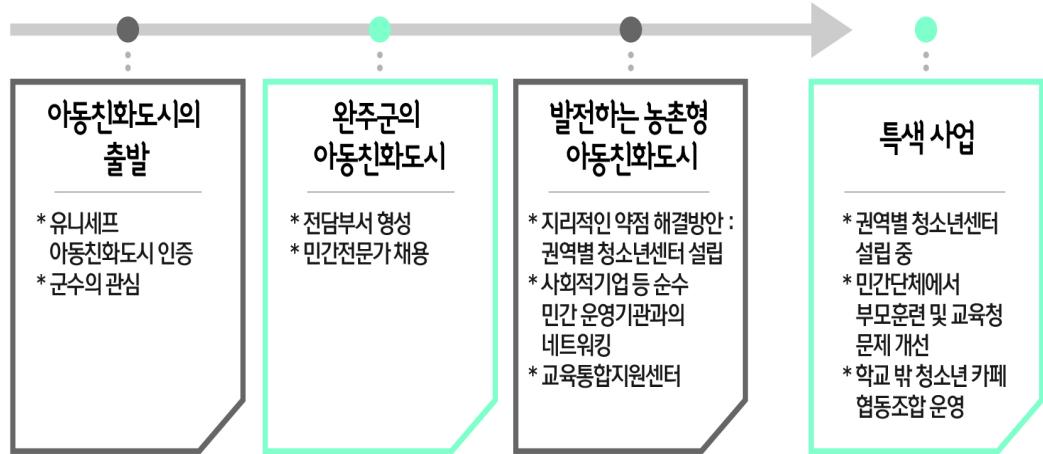
⑤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전라북도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특성화 요인은 [그림 VI-10]과 같이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민간전문가인 아동전공 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공무원들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은 군 단위 농어촌형 아동친화도시의 최초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역 내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와 교육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를 시작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VI-10】완주군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완주군은 전주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장애와 귀농귀촌의 증가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교육통합 지원센터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의 독특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소규모 지자체에 주는 정책적 대안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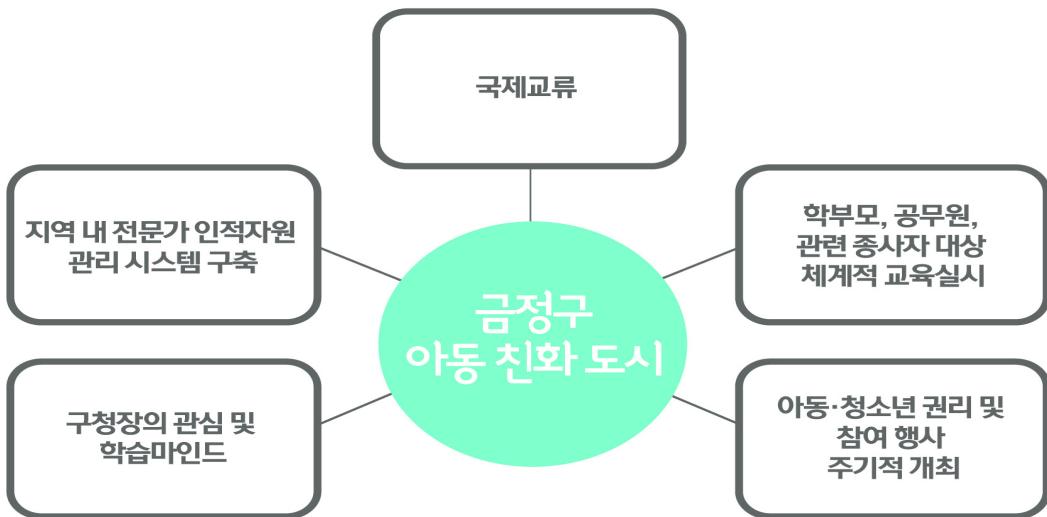


【그림 VI-II】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⑥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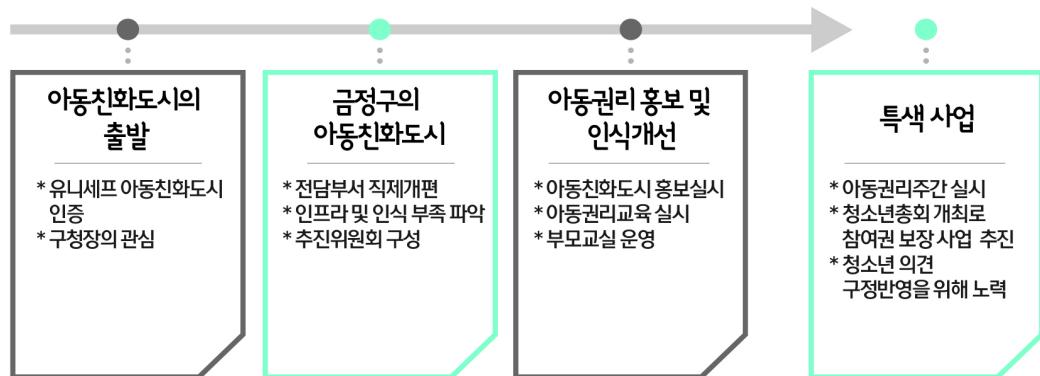
부산시 금정구의 아동친화도시 운영의 특성화 요인은 [그림 VI-12]와 같이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전 세계 청년들이 9박10일을 함께하는 국제워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시민교육의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 전문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학부모, 공무원,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해외 우수사례에 관심이 많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마인드가 있다. 참여권 보장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지도자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 관련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과 이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림 VI-12】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특성화 요인

아동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시 금정구가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은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전문가 인적자원 관리와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은 매우 권장할 만한 추진체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권리주간 실시와 청소년총회 개최 등으로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VI-13】 금정구 아동친화도시 논리모델

(2)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현장 조사는 2016년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5)과 지자체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청소년수련 시설중심 공동체 운영사례 등에 대한 사전 고찰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 항목은 <표 VI-5>와 같이 주민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 노력, 지도자의 헌신적 역할,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채널 가동, 지역 내 자원 활용,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발굴,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등이다.

현장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요인과 논리모델은 6개 마을공동체를 지역 특성화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3개 유형(대도시 청소년 활동 시설 및 주민 주도형, 중소도시 마을학교와 행복마을지원센터 주도형, 농산어촌 대안학교와 농촌유학 마을공동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VI-5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면접조사의 주요 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혹은 노력 주민들 간의 이해를 돋는 노력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마을 리더의 노력 마을 운영의 중심 기구
지도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마을에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마을 경영전략 지도자로써의 마을 운영의 어려움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과의 소통 방법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주민들의 소통방식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방법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된 주된 자원 자원 활용 방법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된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마을의 특색 프로그램(사업) 타 지역과의 연계활동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인력들의 마을 내 역할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젊은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방법

참조: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가. 대도시 청소년 활동 시설 및 주민 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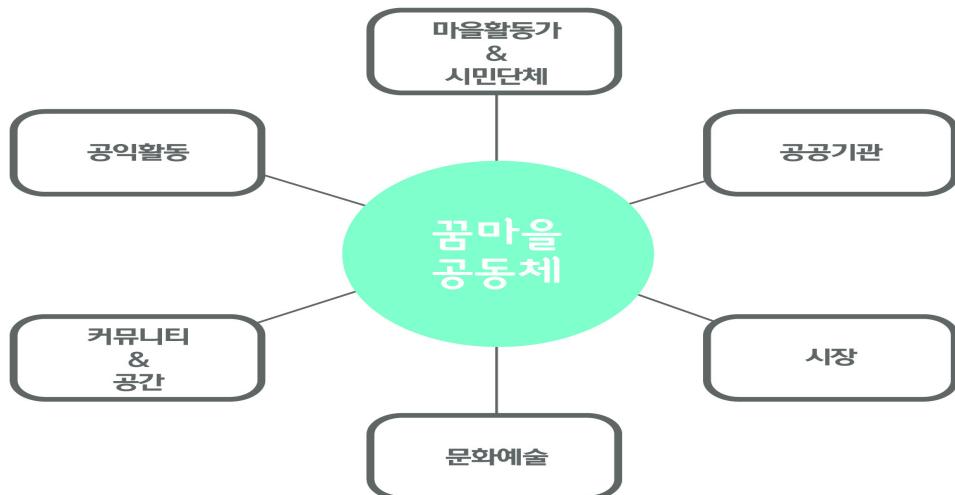
① 서울시 공릉동 ‘꿈마을공동체(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중심)’

서울시 공릉동 ‘꿈마을공동체’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과 추진 활동 내용은 <표 VI-6>과 같다. 참여 범주는 마을활동가와 시민단체, 공익사업체, 시장, 공공기관, 지역 커뮤니티 및 공간, 문화예술 단체 및 시설 등이다.

표 VI-6 꿈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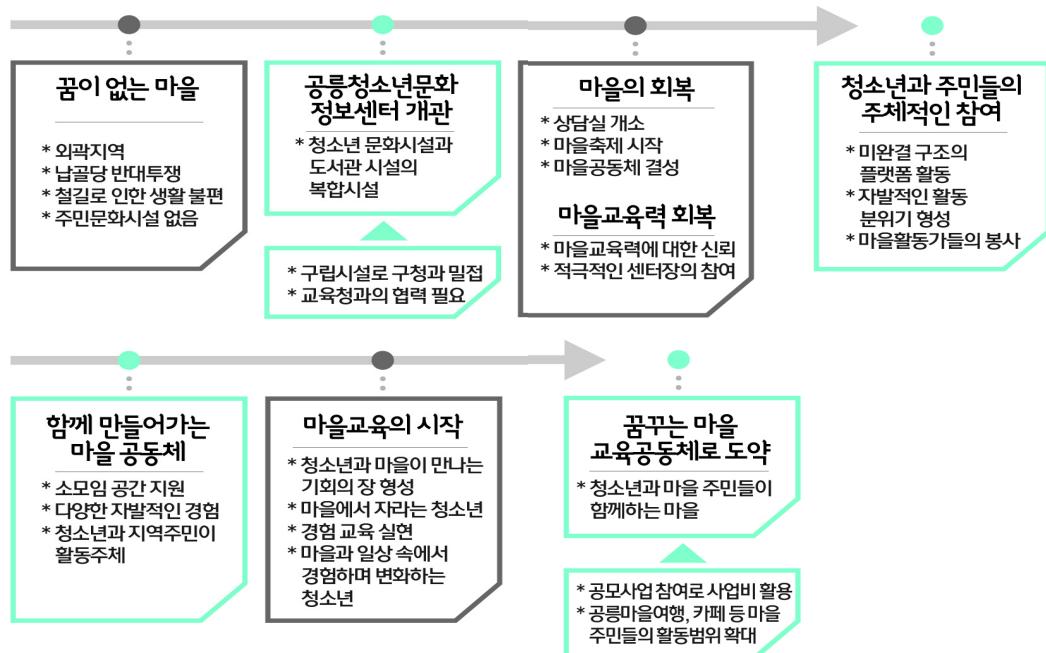
범주	네트워크명	내용
마을활동가 & 시민단체	든든한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학교와 ‘너나들이’에서 〈든든한 보따리〉를 꾸리는 자원 활동가 단체이다. ‘와글와글 어린이 축제’를 처음 시작했으며 꿈마을공동체를 뒷받침하는 허리와 같은 단체이다.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태계복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빗물과 퇴비를 이용하여 옥상에 꽃과 나무, 텃밭을 만들어 푸른 옥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노원나눔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물래 산타’ 활동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주민들이 나눔을 통해 소통하는 활동을 펼치며 꿈마을 풍물패를 운영한다.
공익사업체	아름다운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을 나누는 재순환을 통해 친환경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 동네, 희망의 기증 보따리〉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인정시장이 된 노원구의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단속반을 피해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 불렸다.
공공기관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수백 명의 주민들이 드나드는 공릉동의 가장 문턱이 낮은 기관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노원여성인력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제 자립을 위해 직업 훈련과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취업,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노원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릉동의 역사문화가 궁금할 때 먼저 찾는 곳, 지역문화와 향토사 연구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아스피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 해결형 벤처기업 창업센터. 환경교육 등 사회문제를 7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는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 공간	도서관일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 도서관이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어머니 사서 모임으로 〈놀러온 데이〉, 〈북소리〉, 〈한책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과마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인 ‘문화창작소 마디’는 청년 직원협동조합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다.
	북카페 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숙사 건물 1층의 북카페 다락은 마을 사랑방 북카페로 독서바느질 모임 등이 열리는 작은 공간이 있다. 2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카페, 교육, 회의 등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공릉동꿈마을 꿈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구 해피브레드 협동조합 과자점으로 꿈나르샤 축제 때 판매하는 꿈빵 수익금은 마을 청소년 기금으로 쓰인다.

범 주	네트워크명	내용
문화예술	전통연희 연구소 예천	• 전통 연희의 맥을 이어가는 전문예인집단으로 경복궁 등에서 연희를 펼치며, '공연재능기부'로 꿈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사)나우온	• 슬로건은 스포츠문화 그리고 교육연대로 노원(Nowon)을 거꾸로 한 나우온(NowOn)은 '지금부터'라는 뜻으로 스포츠를 통해 마을문화를 변화하려 한다.
	두루모와와 나누우리	• 두루모아는 공예체험전문 강사교육을 하는 협동조합이며, 나누우리는 버려지는 물건으로 공예작품을 만드는 나눔과 환경 치유를 목표로 한다. • 두 곳 모두 네킨아트, POP 등 토텔 공예 전문가 단체이다.
	즐거운사람들 (극단)	• '연극으로 즐거운 사람, 즐거운 사회, 즐거운 국가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꿈마을공동체의 주축이다.



【그림 VI-14】 꿈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특성화 요인

공릉동 마을공동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려는 마을활동가 출신의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장의 노력과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꾸준히 마을 공동체 정기회의 개최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원활동가 그룹이 있어서 센터와 마을을 이어주는 다목적 역할을 수행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에서 마을주민이 멘토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센터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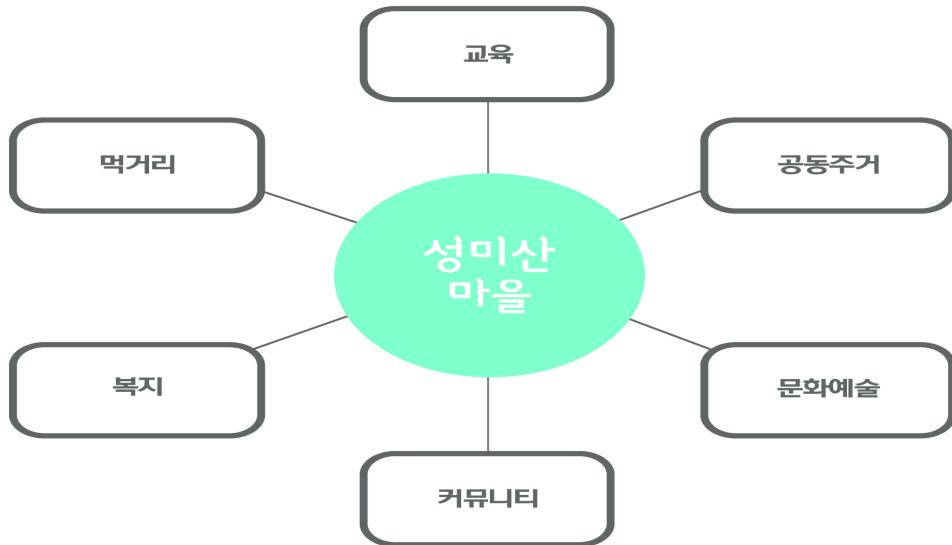
【그림 VI-15】 꿈마을공동체 논리모델

② 성미산마을공동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마을공동체’ 운영상의 특성화 요인으로 먼저 어린이집과 성미산학교 등을 주축으로 새로운 대안적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예술, 먹거리, 주민복지 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주거를 시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생적 마을공동체로의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성미산마을공동체의 구체적인 운영 영역과 활동 내용은 <표 VI-7>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VI-7 성미산마을공동체 운영 영역 및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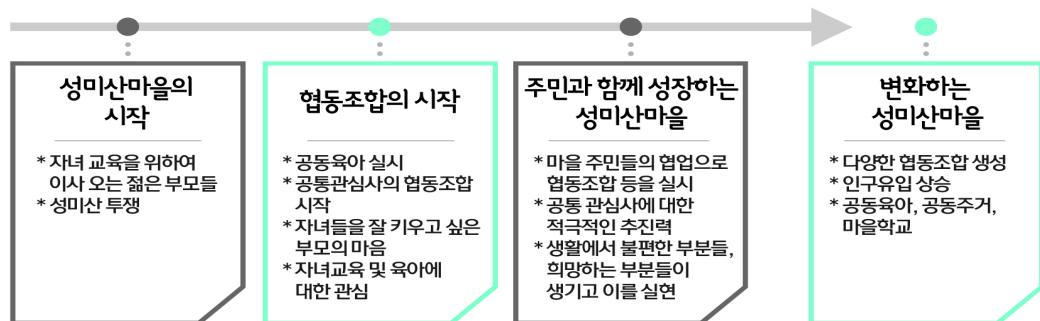
영역	네트워크명	내용
교육	어린이집	• 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5개의 유치원이 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운영한다.
	도토리 방과후	• 대표적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
	성미산학교	•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 만들기' 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	마을카페 작은나무	• 협동조합 카페로서 소통의 공간, 작은 음악회 등을 여는 마을의 작은 사령방 역할을 한다.
	좋은날 협동조합	• 더치커피 공방으로 장애인 고용, 장애인 가족 돌봄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한다.
	성미산공방	•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밀랍초, 양모펠팅 등 수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이다.
	두더지 실험실	•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10대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먹거리	울림두레 생활협동조합	• 안전한 먹거리 공급, 지역 돌봄 사업 실현, 일공동체 지원, 마을 만들기 활동참여 등 활동을 한다.
	성미산밥상	• 건강한 재료로 운영되는 친환경 마을식당이다.
	동네부엌	• 생활협동조합의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유기농 반찬가게 조합원들의 공동출자로 만들어졌다.
	소풍가는 고양이	• 혁신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청년들이 창업한 도시락 가게이다.
마을복지	마포 희망나눔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형성된 주민복지단체이다.
	되살림 가게	• 기증물품을 파는 자원 순환 가게로 현금, 마을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마포 의료 생활협동조합	• 건강, 의료, 생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공동주거	소행주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이란 뜻으로 공동주택이다. 현재 4호까지 설립하였다.
문화예술	성미산마을 극장	• 주민들의 놀이터로,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포FM	•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라디오 방송으로 마포구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춤의문 발레하우스	• 공동육아 아이들과 표현발달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현대무용(즉흥무용) 수업도 진행한다. •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 자신감을 성장시켜나가는 아이들의 춤 놀이터이다.
	예술놀이터 별별동	•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 할 수 있다.
	풍물굿패 살판	• 풍물굿, 탈춤, 소리, 극 등 종체적 예술형태를 구현하며 예술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꿈터	• 택견교실, 자전거 타기와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릴라힐링엔 아트	• 둥글게 앉아 예술과 성찰을 통해 '나' 를 만나는 공간으로, 4~8인의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한땀두레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 바느질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메밀 베개와 생리대를 판매한다.
	비누두레	• 숙성비누, 아로마 생활용품을 만드는 두레생활협동조합 생산자이다.



【그림 VI-16】 성미산마을 협동조합 네트워크 특성화 요인

성미산마을은 공동체 내에 다양한 배움터와 사업장을 만들어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지원 및 공동체의 지속성과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은 타 공동체에 권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같은 지역 내에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과의 갈등 및 특정 구성원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동체 활동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림 VI-17】 성미산마을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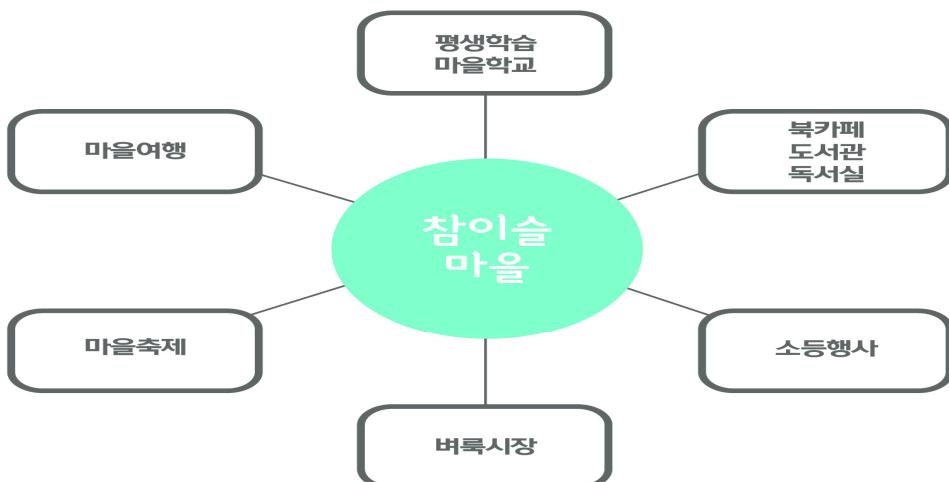
나. 중소도시 마을학교와 마을지원센터 주도형

① 참이슬마을공동체

시흥시 ‘참이슬마을공동체’의 주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북카페, 도서관, 독서실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행사는 <표 VI-8>과 같이 소동행사, 벼룩시장, 마을축제, 마을여행 등을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VI-8 참이슬마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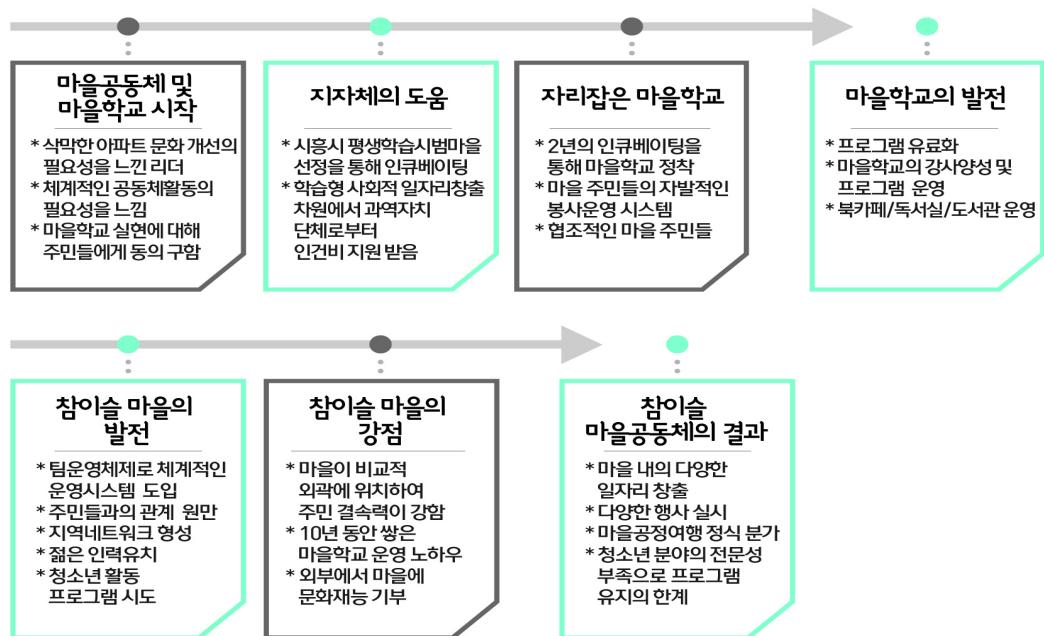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평생학습 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강좌를 통해 강사를 양성한다. •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들의 희망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북카페, 도서관, 독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났다. • 마을 주민 및 청소년들의 공간이며 시흥중앙도서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동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며 10분 간 모든 가정이 소동을 실시한다. •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시장을 열어 소동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친목도모의 장을 형성한다.
벼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며, 청소년들도 참여하여 물건 또는 음식을 판매한다.
마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마을 주민 및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 및 운영한다.
마을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정식 분가되었으며, ‘랄랄라 시흥투어’ 및 창의체험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그림 VI-18】 참이슬마을 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시흥시 참이슬마을공동체는 그 출발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도자의 오랜 고민과 준비과정이 있었다. 또한 시흥시평생학습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공동체 형성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마을 활동팀을 구성하고 강사양성, 독서실 및 북카페 운영 등을 통해 마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최근에는 매년 초등학교와 협약서를 맺는 등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이 주로 댄스, 농구 등의 문화 활동 외에 청소년 활동이 부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별 활동가와 지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VI-19】 참이슬마을 논리모델

②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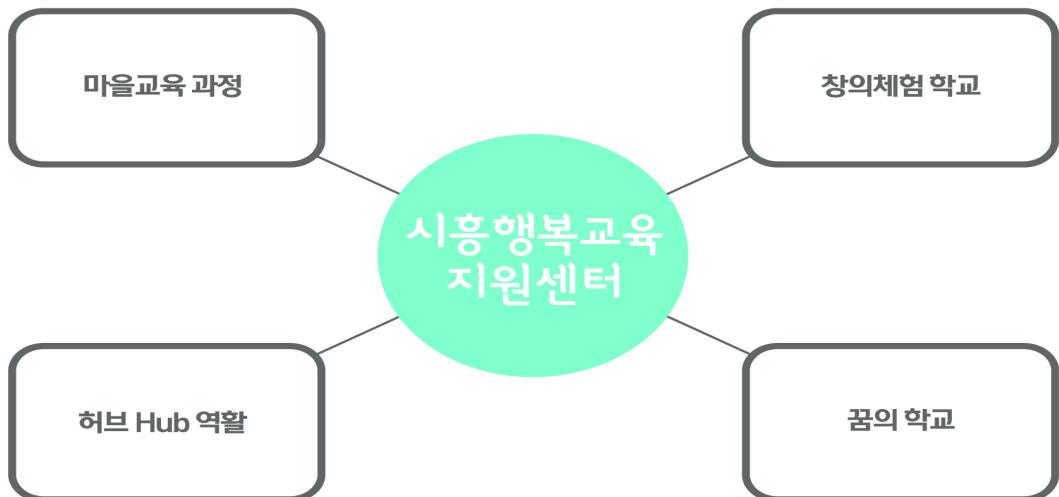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마을 내의 다양한 콘텐츠와 학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축제에 적절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표 VI-9>와 같이 ‘마을교육과정’과 현장체험 콘텐츠와 학교교육과정을 연계한 ‘창의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꿈의 학교’를 특색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표 VI-9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실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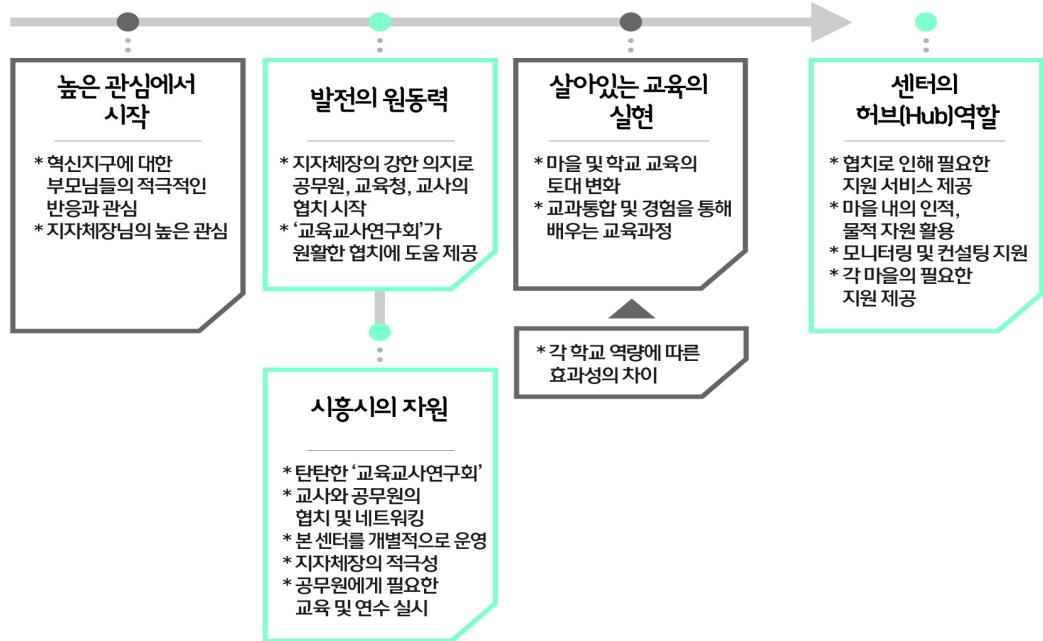
사업명	내용
창의체험학교	• 체험 콘텐츠 및 학교교육과정을 연계한 현장학습 교육으로 초중등학교 학급단위별로 실시한다.
마을교육과정	• 센터에서 마을선생님의 수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 마을 내에서 강사를 발굴함으로써 정교사와 마을선생님이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꿈의학교	•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어 실시되며,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허브(Hub)역할	• 센터는 마을 내의 다양한 콘텐츠와 학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축제에 적절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림 VI-20】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실시 사업 특성화 요인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장의 마을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시청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사연구회 간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가 주축이 되어 교사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와 마을 유지 및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 내 체험현장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마을교육 교사와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이 곧 학교라는 교육의 토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향후에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의회 혹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실습 등을 통한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VI-21】 시흥시행복교육지원센터 논리모델

다. 농산어촌 대안학교와 농촌유학 마을공동체 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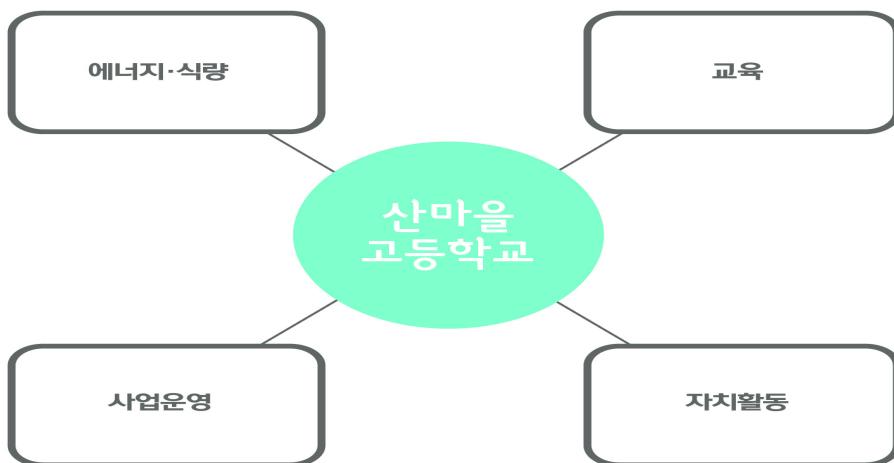
① 산마을고등학교(진강산마을공동체)

강화도 산마을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모두가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학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안성균, 2015: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 재인용).”

산마을고등학교를 주축으로 구성된 진강산마을공동체의 특화프로그램은 <표 VI-10>과 같이 친환경농산물 및 쌀을 자급하고 있으며, 지열/태양열광 사용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교사,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계시민 교육과 특성화교육과정 등을 교육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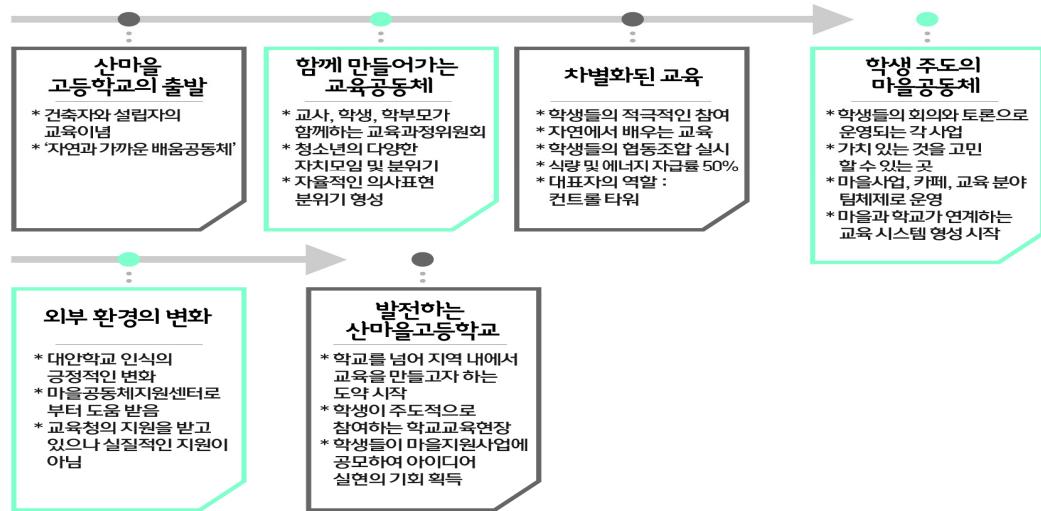
표 VI-10 산마을고등학교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에너지/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논과 밭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및 쌀을 자급하고 있으며, 지열/태양열광 사용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세계시민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등으로 교육이념을 실현한다.
자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학생회, 동창회, 각종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철학을 실현한다.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카페사업, 마을사업, 교육사업, 문화 사업을 학생들이 기획 및 운영한다.



【그림 VI-22】산마을고등학교 특화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산마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근 구성된 ‘진강산마을공동체’는 자연과 가까운 배움 공동체 및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량 및 에너지 자급, 협동조합 운영,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은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에 젊은 인력 유치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양한 공동체 사업과 활동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조성과 외부의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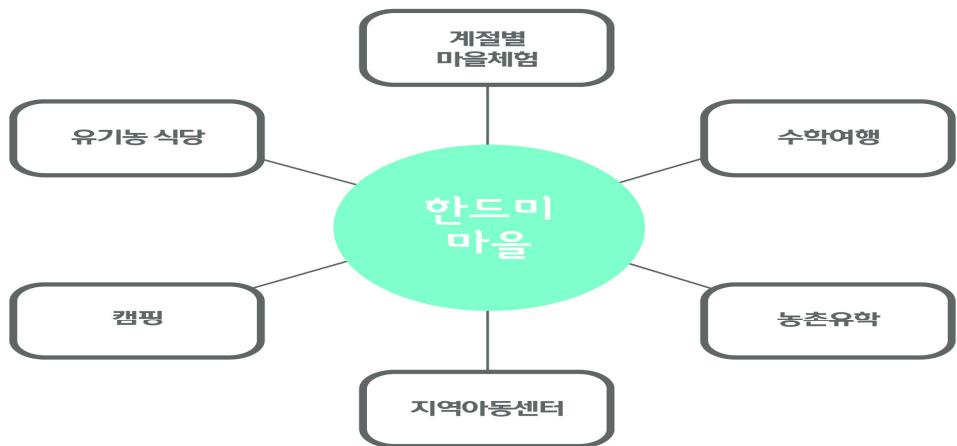
【그림 VI-23】산마을고등학교 논리모델

② 한드미마을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한드미마을은 폐교위기의 초등학교를 농촌유학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 마을공동체의 특화프로그램은 <표 VI-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주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계절별 마을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과 수학여행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식당과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소비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도자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마을에서 젊은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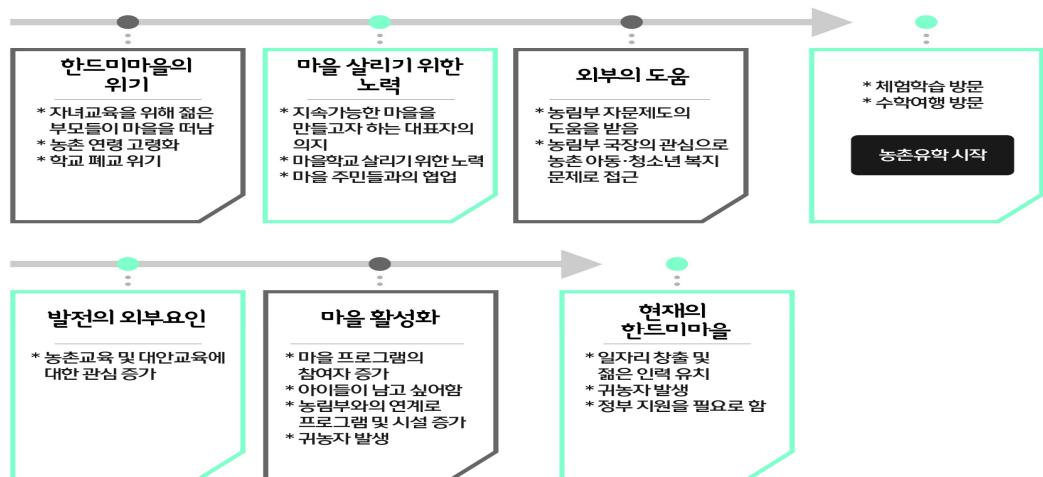
표 VI-11 한드미마을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계절별 마을체험	• 마을 주변 자원을 활용한 동굴체험, 활 만들기, 계곡물놀이 등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학여행	• 농촌체험 및 역사체험 두 가지 중 주제를 선택하여 1박2일 혹은 2박3일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농촌유학	• 현재 초등학생 26명, 중학생 9명이 농촌유학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학교를 살리며, 자연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호기심과 감수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 농촌유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캠핑	•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의 일부로, 캠핑장 및 펜션의 숙박시설로 관광객들 유치하고 있다.
유기농식당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천연조미료 등을 통하여 시골밥상을 제공한다.



【그림 VI-24】한드미마을 특화프로그램 특성화 요인

한드미마을은 마을공동체 조성과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농촌유학과 같은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공동체를 복원하였다. 또한 공동체 운영진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농인구가 늘어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식당운영 및 약선 음식 판매와 같은 지역 특색의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마을의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25】한드미 마을 논리모델

4) 소결 : 공동체 유형별 매트릭스를 통한 특성화 요인 패턴 매칭 비교 분석

패턴 매칭 기법은 연구방법론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관찰된 패턴의 특징 변수들에 대한 사전에 예측한 패턴과 일치 및 유사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금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연구’의 한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행복마을 모형 개발’ 과정에 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2016년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전국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3개 유형의 중 광역단위를 제외한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2개 유형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금년도는 6개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와 6개 ‘마을공동체’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특성화 및 성공 요인 도출과 SWOT을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특화모형을 개발하고 투입요소와 추진과정 및 핵심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사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지역 조사결과를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2개 유형별 총괄 매트릭스를 통해 사전 예측 요인들과의 일치 및 유사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의 경우 사전 예측에서 제시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관심정도’ <표VI-12>와 같이 6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사실로 일치도가 매우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방식과 역할 정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은 6개 지자체 모두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례」를 제정하였다. 특히 전북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와 「군산시청소년상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지원조례」를 확보하고 있었다.

전담부서 관련 요인으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6개 지자체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그 명칭과 부서의 지위, 전담인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성북구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배치하고 아동청소년친화팀에 6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는 청소년정책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권리 및 복지 관련 요인으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정책 확대’는 6개 지자체 모두 아동의 권리에 역점을 두는 공통적인 양상이 보였으나 정책 및 사업 내용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 군산시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 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울시 송파구는 또래울을 운영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자율쉼터 등의 공간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를 확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참여기회 관련 요인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참여하는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및 전북 군산시에서 아카데미 형식의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시 성북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를 수준에 맞게 각각 구성함으로써 관련 사업 및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으로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는 6개의 지자체 모두 활발한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열린 행정 실현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송파구는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구청 내의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래울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를 구성하여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주민 및 공무원의 인식 관련 요인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제고 노력’은 6개 지자체 모두 주민들에게 아동친화도시 인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형식에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주민들과 함께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전전략 관련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는 6개 지자체 모두 중장기 계획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중점 사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북구는 놀 권리, 4대 권리 증진, 아동 보호,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둔 4년 정책 과제를 준비하였으나, 전북 군산시의 경우 중장기 목표를 준비하고 있으나 ‘어린이 행복’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장기목표 구체화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지역과 차별된 분야요인으로 ‘프로그램 및 콘텐츠’는 6개 지자체 전북 완주군의 경우 아동 분야 전공 민간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보였고, 권역별로 청소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였다. 서울시 성북구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교동락 결연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및 학교 주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VI-1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운영 특성화 요인 비교

구 분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취약계층 청소년에 관심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강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어린이·청소년의 정책참여기회 제공 •아동친화도시 확산 기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 •지역 내 청소년활동 공간 활용 및 청소년참여 위원회 활성화에 중점	•어린이행복도시 조성 관심 •어린이청소년시정참여 제도 기반 조성 중점	•지역인재 육성에 높은 관심 •군청 직영 어린이청소년 시설 확보에 역점	•아동의 권리 향상 및 교육에 높은 관심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및 홍보에 역점
지원조례 및 시행령 제정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양평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금정구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팀 총 3명	•아동청소년 친화팀 총 6명	•청소년 정책팀 총 4명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과 총 4명	•청소년 아동친화팀 총 4명	•아동친화팀 총 4명
아동의 권리 및 복지정책 확대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아동인권 유타북 교재 개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또래을 운영을 통한 자유 스타터 향성 •또래을 버스 운영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 발의	•대학생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정책 제안 요청 •어린이청소년 대상 활동으로 다소 부족	•인프라 및 인식 부족 •아교육 및 학교 일정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다양한 방법 시도
아동청소년 참여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의회 참여 기회 제공	•아동 참여기구 •청소년 참여기구 •관련 사업 및 정책 등 직접 간접 참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 정책 참여 학교 운영 (아카데미)	•아카데미형식의 어린이 청소년의회 •예산 편성 계획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역할 참석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참여 •어린이청소년 참여 다소 부족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아동권리주간운영
민관 협력과 후원 네트워크 확보	•지문위원회구성 •활발한 협력 네트워크	•행복기반 중심으로 지역 내 민관단체 및 관련 사회기의 네트워크 운영 •적극적인 주민회의 개최로 열린 행정 실현	•또래을청소년 문화공간 연합회 •정책조정실무 위원회 •다양한 기관 및 민간 단체와 연계	•인재양성과 별도 운영 •민간주진위원회 •청소년자치연구소	•교육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운영기관 •매개자 교육으로 부모 훈련 실시	•인프라 및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인식 부족 •유니세프와 협력 •아동권리교육 실시 •부모교실 운영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제고 노력	•주민들과 SNS 및 BAND로 소통 •주민들에게 홍보 필요	•지속적인 거버넌스 형식 고민 •공무원과 주민의 활발한 협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아동친화도시를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음 •홍보 등에 대한 정보 인터뷰 및 자료 확인 불가	•아동친화도시 발언대 행사 혹은 홍보 •홈페이지 통한 아동친화도시 인식 관련 설문조사 실시 •아동권리주간축제	•홈페이지로 홍보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계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 실시 •홍보물 배부 •아동권리주간 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수립 여부	•증장기 계획 있음	•4년 정책 과제 : 놀 권리 4대 권리 증진 등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지원 사업 단계적 증진 •또래을 운영 •권리교육 및 친화도시 홍보	•총상적인 행복의 개념으로 장기 목표 구체화의 어려움을 겪음	•실천로드맵 준비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실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동행카드 •청소년참여 예산제 •아동·청소년 자치위원회 •어린이의회 •동교동학사업	•지역 내 유튜브 활용 체험활동 : 또래을 •꿈드림 운영 •마을축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 유레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및 놀이 활동가 양성 •어린이 눈높이 도시 디자인 •부모학교 안전교육	•민간전문가 채용 및 활용 •권역별 청소년센터 건립	•인터뷰 및 내부자료 확인 불가

(2)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먼저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의 경우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표 VI-13>과 같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6개의 마을공동체의 노력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은 각 마을공동체별로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의 경우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포구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주민들 간의 연령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명을 사용하는 특징이 보였다.

지도자 관련 요인으로 ‘지도자의 역할’은 대부분의 마을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및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포구 성미산마을공동체의 경우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닌 영역별로 지도자를 둔 집단 지도 체제가 특징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과의 소통 관련 요인으로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채널’은 6개의 마을공동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와 시흥시 ‘참이슬마을학교’의 경우 마을축제 등의 활동을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 및 실행하였으며, 마포 성미산마을공동체의 경우 마을 사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적·물적 자원 활용 관련 요인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은 각 마을공동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양 한드미마을의 경우 물적 자원을 체험활동 및 농촌유학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의 경우 자원활동가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네트워크 관련 요인으로 ‘지역네트워크 연계’ <표 VI-13>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의 허브(Hub)역할로써 가장 활발하게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강화 산마을고등학교와 단양 한드미마을의 경우 지역적 특성 및 대안학교 혹은 농촌유학의 특징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 특성화 사업 관련 요인으로 ‘특성화 사업’에서는 각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콘텐츠와 청소년 및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의 경우 청소년들이 마을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여 마을 활동 참여에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단양 한드미마을의 경우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유학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젊은 인력 유치 관련 요인으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은 시흥참이슬마을학교의 경우 마을 내에 다양한 행사 및 사업유치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마포구 성미산마을공동체의 경우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장의 다변화 양상을 보여 청년창업 등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13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특성화 요인 비교

구 분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마포구 성미산 마을공동체	시흥시 참이슬 미을학교	시흥행복교육 지원센터	강화 산마을 고등학교 (진강산마을공동체)	단양 한드미마을
주민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한 번 미을공동체 정기회의 개최 • 장기적으로 주민교육 실시 • 주민들에게 역할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 간의 연경차이 극복 위해 별명 사용 • 교육 강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사업 팀제로 운영 및 회의 • 주민들의 요청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자구사업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학교 수요주점 니들길 걷기 등 다양한 사업 실시 • 카페팀 교육팀 지역사업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드미 영농조합 법인 • 일주일에 한 번씩 조합원총회 개최 • 미을총회 등 분기마다 실시
지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요청 • 주민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을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마다 전문기를 배치한 집단 지도 체제 •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적으로 미을학교 및 식건 및 미인드 미을공동체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공동체 운영의 핵심 역할 • 청교육 및 미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속가능 미을 조성 사업 개발 및 예산 확보 • 젊은 인력 유치 및 전문 역량 강화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기획·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별 협업 및 협동 조합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미을주민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교육자구에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강산마을공동체 구성 • 학교협동조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센터 운영 및 체험 활동에 주민 참여 유도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활동 그룹 • 꽃다발(청소년 휴카페) • 흙원금 • 센터 내 유스카페, 도서관, 사업팀 등 운영 • 미을교육공동체 • 꿈마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의 공동 육아 및 대인학교 운영 • 협동조합 운영 • 다양한 사업체 운영 • 청년창업 시도 • 공간 활용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봉사 • 지역 내 체험활동 발굴 • 교육교사연구회 • 지역 내 체험활동 발굴 • 주민들의 공동체 실현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주민들 참여비 • 설립자의 교육 이념 계승 • 학습과 생산 및 판매활동 병행 • 주도적자율적인 학생 참여 교육 실현 • 수령 및 애너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굴, 및 계곡 등 자연환경 • 한드미 영농조합 법인 • 농촌유학센터 •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 	
지역 네트워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연계 • 지원활동과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여 개 사업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초등학교와 프로그램 운영협약 매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공동체의 하브(Hub) 역할 • 시·교육청·교사 협치 네트워크 • 기관 및 참여 그룹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교사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학교와 아외체험 프로그램 실시 • 타 기관과 연계 다소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연계 활동은 다소 취약
특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된 변화 (청소년 지지 프로젝트) • 미을축제 • 진로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축제 • 미을대안학교 • 동아리활동 • 협동조합 • 배움터 및 사업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학교 • 체험프로그램 • 북카페 운영 • 독서실 운영 • 미을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을교육과정 • 미을축제 • 꿈의 학교 • 청의체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마켓 • 미을학교 • 동네마을 지율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수학여행 유치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발굴 • 지역 내 다양한 사업체와의 연계로 주민 및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협동조합을 기본으로 인력유치 • 사업장 다변화 • 청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사 및 사업 유치로 미을활동가 및 봉사자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영역별 미을 내 인력 지원 발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지원 기반 부족으로 인력유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 및 직원 채용 과정을 통해 젊은 인력 양성 및 유치

제 VII 장

.....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1. 정책추진 방향
2. 정책과제 및 활용 방안

제 VII 장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1. 정책추진 방향

최근 들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화와 세부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이후 2016년 6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2017년 10월 현재 1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44개 지자체는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공동체’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 혹은 자생적 마을공동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비록 아직은 아동과 청소년활동 중심의 공동체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의회’활동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앞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마을학교’, ‘교육나눔공동체’, ‘청소년 행복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아동·청소년 조직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사회 주체들 간 협치를 통한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킨다.

셋째, 지역 내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유용한 공간 자원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넷째,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포럼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다섯째,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문화 활동 및 지역축제를 활성화 시킨다.

여섯째, 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이 장은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2. 정책과제 및 활용방안

2017년도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의 행복 수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17개 시·도별 비교와 3개년 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연령-기간-코호트별 효과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3년차 시범사업을 2개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추진과정의 개선방안과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아동친화도시’ 6개 지자체와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6개 지역에 대한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화 요인 도출 및 논리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토대로 제안한 정책영역과 각 영역에 대한 과제를 다음 <표 VII-1>에 제시하였다.

표 VI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을 위한 정책 영역과 과제

정책 영역	정책 과제	비고
1)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Evidence-Based Policy) 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각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추진 청소년 행복관련 지표의 시계열 자료 축적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정성정량적 조사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th Market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과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청소년마을축제 개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Youth Happy Zone(청소년행복공간)으로 운영 지자체 청소년의회에 청소년정책 개발 및 예산심의 권한 확대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 작성 	2개 지역 시범사업 근거
3)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운영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강한 추진의지 및 역할 강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주무부서의 지원 부여 아동과 청소년 활동 지원과 공간 이용을 위한 민간협의체 활성화 지역 주민과 행정 담당자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6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근거
4)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 청소년간의 협업체제 구축 지역 내 자원 활동가와 자원봉사 인력 적극 활용 마을공동체 단위의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확대 	6개 마을공동체 근거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마을전체를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학습장으로 조성 아동과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위한 ‘청소년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운영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중앙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포럼, 워크숍, 정책연구협의회

영역1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Policy) 정책 추진

2017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이하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해 17년도 조사 결과제시와 함께 15년부터 17년까지의 3개년 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17개 시·도별(도시규모별 포함) 비교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한편, 행정통계나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과 관련된 정량적 측면을 검토해 보았다.

청소년 행복과 관련하여 정성·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안한 정책영역은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으로 제안하였다. 추진과제로는 ① 청소년 각 하위 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②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추진 ③ 청소년 행복관련 지표의 시계열 자료 축적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등의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VII-2 17개 시·도별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주) ●: 평균점수 상위 1~5위 시·도 / ○: 평균점수 중위 6~12위 시·도 / ▲: 평균점수 하위 13~17위 시·도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의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정책 실수요자들이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그 변화과정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에 따른 환류(feed-back)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자료는 향후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I-2>와 <표 VII-3>은 청소년 행복지표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직접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표이다. 분석은 각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세부지표별 결과는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VII-3 일반현황에 따른 주관적 행복지표의 영역별 결과 요약

		주관적 웰빙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성별	남	7.22	7.77	7.57	7.34	7.52	6.56	7.13	7.67	7.18
	여	6.69	7.27	7.15	6.87	6.95	6.04	6.42	7.28	6.74
교급별	초	7.80	8.03	7.97	7.86	7.99	7.48	7.90	8.17	7.65
	중	7.05	7.58	7.48	7.30	7.32	6.44	6.93	7.65	7.07
지역 규모	고	6.28	7.11	6.82	6.40	6.62	5.33	5.84	6.83	6.37
	대도시	6.97	7.59	7.42	7.18	7.37	6.35	6.84	7.58	7.09
	중소도시	7.05	7.58	7.42	7.19	7.29	6.38	6.91	7.54	7.04
가족 유형	읍면	6.75	7.24	7.08	6.70	6.80	5.98	6.33	7.07	6.44
	양부모	7.02	7.58	7.41	7.16	7.28	6.33	6.82	7.59	7.01
	한부모	6.45	7.02	6.86	6.59	6.82	5.98	6.41	6.32	6.38
	조손	6.73	7.11	7.00	6.87	7.03	6.39	6.67	6.99	6.92
부모직업 유무	기타	7.07	7.47	7.41	7.13	7.33	6.56	6.96	7.50	7.24
	부모모두	6.99	7.55	7.37	7.13	7.21	6.30	6.78	7.52	6.97
	한쪽부모	7.02	7.60	7.45	7.19	7.39	6.38	6.87	7.65	7.06
	모두없음	6.57	6.99	7.17	6.46	7.09	6.33	6.41	6.02	6.47
	기타	6.39	6.87	6.84	6.57	6.77	5.93	6.38	6.05	6.41
학업 성적	안 계심	6.87	6.24	5.92	6.67	6.77	7.05	7.91	6.87	5.61
	상	7.58	8.00	7.80	7.69	7.71	6.67	7.21	8.10	7.42
종교 유무	중	6.97	7.49	7.41	7.11	7.22	6.36	6.81	7.50	6.99
	하	6.18	6.99	6.74	6.37	6.68	5.76	6.21	6.66	6.34
종교 유무	없음	6.89	7.45	7.28	7.03	7.18	6.20	6.69	7.44	6.91
	있음	7.09	7.66	7.50	7.24	7.34	6.47	6.93	7.54	7.05

주) 1) 무응답 결과는 제외하였음. 3) 코호트별 분석결과는 4장의 내용을 참조 바람.

과제: 1-1) 청소년 각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현안사항:** 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다양한 하위 집단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결과가 더 많이 도출되었다. 또한 도시규모, 가족유형, 부모의 직업유무, 학업성적, 종교유무 등 특정 하위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개발과 추진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추진방향:** 청소년의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각 하위 집단의 특성과 관계없이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통요소의 충족도 필요하지만, 각 하위집 단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의 적용이 중요하다. 즉 대상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회·환경적 요소가 각 하위집단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집단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각 하위 집단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과 각 하위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반영한 정책과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각 하위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정책욕구 연구 청소년행복증진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시 각 하위 집단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효과성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신규 정책·프로그램 개발·적용 <p>● 추진단계: ① 하위집단별 특성연구와 욕구조사 ② 하위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③ 효과성 검증과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신규개발 ④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관리·개선</p>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별 및 하위 집단별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특정 집단의 소외 없는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지원
추진 근거	<p>■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다문화가족, 이주배경, 저소득장애인어촌, 한부모 및 조손가정, 정서적행동적 장애, 취약계층 청소년 등), 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p>

과제: 1-2)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추진

- 현안사항:** 청소년정책의 계획과 수립은 무엇보다 실증자료에 근거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실증자료의 구축과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전국단위 지표는 여러 관련기관에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과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시행은 미비하다. 또한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일부 청소년들만을 표집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항목의 개발과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수행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와 환류(feed-back)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과 전담공무원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공통지표 이 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과 DB 구축 행복관련 지표자료 분석에 기반을 둔 예산수립과 정책영역의 우선순위 설정 지자체별 시행계획 및 성과에 대한 정책평가와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추진단계: ① 지자체 내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 배치관련 제도개선 ② 지자체 단위 특성화 지표 반영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③ 지자체 시행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 ④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송파구청은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업무 독립 조직인 '청소년과' 설치 및 운영 완주군청의 경우 청소년전문연구인력을 임용하여 정책영향 평가, 각종조사 등 정책연구 업무에 활용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센터 운영(지자체 시행계획 점검 및 성과 분석)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 정책계획과 성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 내용의 근거 마련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5-1-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5-3-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5-3-2.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5-3-3. 정책분석 · 평가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과제: 1-3) 청소년 행복관련 지표의 시계열 자료 축적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 현안사항:** 청소년 행복관련 조사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일부는 주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지표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단회로 진행된 조사가 많다. 설령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라 하더라도 청소년에 특화된 조사내용으로 구성된 조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비슷한 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다. 한편,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여러 한계가 있다.
- 추진방향:** 청소년 행복지표 조사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행복관련 DB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특화된 지표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을 추적 조사하여 자료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패널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종 조사와 지역별 행복지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행복관련 DB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전국단위 공통지표와 지자체별 특화지표 DB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 지원 청소년 행복지표 패널 자료 구축과 지역별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단계: ① 행복지표 조사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② 청소년행복지표 지표 표준안 개발 및 DB 통합관리 ③ 횡단조사 및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④ 전담기구 혹은 담당주체 설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통계개발연구원(국민 삶의 질 지표 제공 및 운영,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 한국방정환재단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 아동청소년행복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삶의 질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 보고서 다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축적을 통한 정책 활용 가능성 증대 및 효과성 제고 정부예산 지출의 중복 예방과 효과성 있는 행복관련 예산 지출 확보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5-3-2.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5-3-3. 정책분석 · 평가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영역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2017년도 2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관련 5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과제: 2-1) Youth Market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 **현안사항:**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시대를 극복 할 수 있는 도전정신으로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실험과 도전정신을 핵심 기조로 추구하고, 이론보다는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 **추진방향:** 청소년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증진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Youth Market(청소년마켓) 프로그램은 매우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주체적인 경제 및 진로 활동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 기획과 실행을 통한 경제관념 체득,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함양, 진로탐색,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구성원 간 협력의식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경제 교사 및 사업체 운영자 초청 강의 실시 •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연계 • 지역 내 관련 사업체와 연계하여 체험기회 제공 • 추진 단계: ①경제전문가 섭외, ②경제기초교육, ③멘토 지정, ④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⑤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학교-청소년시설-사업체 네트워크 구축 • 기획재정부(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한국은행(어린이 경제마을), 중소기업청(BizZool)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관련 스터디와 컨설팅을 통해 마켓 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신감 확보 •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 제고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창업교육) :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신설 2015.2.3] [시행일 2015.5.4.]

과제: 2-2) 청소년과 주민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청소년마을축제’ 개최

- **현안사항:**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수혜자라는 인식이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이 주도한 마을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마을축제가 일회성의 행사 기획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는 축제가 마을과 지역의 특성과 전통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전체 주민이 참가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땅히 관이 주도하는 행사위주의 축제가 아닌 청소년과 주민의 아이디어와 삶의 방식을 의미 있게 표출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추진방향:** 신세대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마을축제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마을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비롯하여 인접 마을에도 ‘청소년이 주도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라는 의미를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마을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상가들에게 후원 협조 요청 및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안 논의 소통하모니, 행복마을노래자랑, 행복먹거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마을의 멋과 낭만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제작 및 시 낭송 대회 개최 추진단계: ①추진협의회 구성, ②마을주민과 청소년 간담회, ③ 예산, 운영, 프로그램 기획 ④운영진 구성 및 자원봉사자 모집 ⑤축제 홍보, ⑥행사 개최 및 평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릉동 ‘꿈마을공동체’ 축제, 완주군 아동권리주간 축제, 성미산 마을축제 목포시 “청·양·고·추(청소년이 양을산에서 만드는 고품격 감성과 추억이 있는 마을축제)”
기대효과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 회복과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세대 간 갈등해결과 통합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확보: 지자체 지원 요청, 지역사업체 광고, 시설단체 후원금, 기부금 모금 등

과제: 2-3)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행복공간(Youth Happy Zone)’ 지정 운영

■ **현안사항:** 행정기관의 민간단체의 협조로 지역 내 유휴공간들을 ‘청소년 행복공간(Youth Happy Zone)’으로 지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공간 소유주들의 협조, 지자체장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2018년 6월 전국단위 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남은 기간 지방의원들과의 청소년정책콘서트 혹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여 ‘청소년활동 전용 공간 및 거리 지정’ 관련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지역 내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다양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시간대 별로 ‘청소년 행복공간(Youth Happy Zone)’으로 지정 ·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아동과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노인정, 도서관 등의 공간을 시간대별로 이용하기 위한 자원맵(Resource Map)을 작성하고 ‘공간이용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거리와 놀이터 등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청소년행복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과 청소년 시설의 특정한 공간과 거리를 지정• 청소년들의 관심이 있는 활동 공간 및 작업장 설치• 청소년지도자 및 활동기를 중심으로 대화의 장 마련• 추진단계: ①모범사례 탐방, ②지역 공간 자원맵 작성, ③타당성 검토, ④운영방안 협의 ⑤공간이용 협약체결, ⑥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파구 ‘또래을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지자체 청소년 휴카페, 청소년 문화존• 목포시 청소년행복공간(Youth Happy Zone)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다양한 시설에 상시적인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소속감 제고
추진 근거	지자체 청소년 휴카페(서울특별시 미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청소년 문화존(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과제: 2-4) 지자체 '청소년의회'에 청소년정책 개발 및 예산심의 권한 확대

- 현안사항:** 지자체의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관련 주무부처에서 청소년 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을 시의원들과 공유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의회, 지자체 관련 주무부처, 시의회 간 소통과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향:**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의 주도하에 아동과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개진하고 추경예산 편성 및 차년도 청소년 정책형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의회 활동은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모니터링과 예산활동 관련 조례 이행 여부 공개 요구 청소년의회가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한 조사와 의견 개진 추경예산 편성과 차년도 청소년정책 개발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추진단계: ①청소년의회 조례 및 기능 파악, ②정책개발과 예산 심의 과정 체험 및 실습 ③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방의회에 요청, ④활동 내용 공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 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청소년의회의 직간접적인 참여기회 보장 군산시 예산계획 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의 참석 기회 제공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청소년의회의 주도성과 역할 강화를 통한 청소년의회 활동 활성화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 및 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등

과제: 2-5)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 작성

■ **현안사항:** 현실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기초의회 의원, 청소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위원회 구성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관련 조례제정과 더불어 위원회 기반조성, 위상정립, 청소년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 기능과 같은 중장기 실천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추진 방향:**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자치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단위 혹은 마을공동체 단위의 ‘청소년행복자치위원’ 혹은 유사 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초청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지역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이 참가한 간담회 개최 추진절차: ①사례지역 탐방 및 조사,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강 작성 ③관련 조례 제정 ④위원회 활동 및 위상 정립, ⑤위원회 역량개발 및 모니터링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도성과 현장성 강화
추진 근거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예산: 지자체 일반회계(시민적 권리와 참여 예산)

영역3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운영모델

금년도 현장면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친화도시’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이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표 VII-3>과 같이 8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추후에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의 44개 지자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면서 그동안 추진된 중앙정부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제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 연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표가 일맥상통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연구의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표 VII-4 전국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및 추진 현황

구분	2016년 12월(6개 지자체)	2017년 1월 ~ 10월 현재(8개 지자체)	인증 추진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지자체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송파구 부산시 금정구 전북 군산시 전국 완주군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오산시 전북 전주시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수원시 충북 충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44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금년도 연구결과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6개의 지자체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향후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의 운영 모델과 단위 사업에 구체적인 실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성과평가를 위한 준거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구체적인 정책영역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 3-1) 자치단체장의 아동친화도시 운영 역할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확대

■ **현안사항:**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6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이후 2017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8개 지자체가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여, 현재 14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또한 현재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의 44개 지자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실천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기구인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추진방향:** 금년도 면접조사 대상 6개 지자체 모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커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특성상 지자체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제도 도입의 관심과 추진의지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제도와 기구구성 및 접근 방식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역할이 담보되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주민과 아동청소년 토론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미인증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단계: ①‘아동친화도시’ 우수 지역 탐방, ②‘아동친화도시’운영 담당자 초청 강의 ③ 자치단체장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마련 ④ 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를 비롯하여 조사대상 6개 지자체 공통• 2017년 8개 인증 획득 지자체 모두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친화도시 미 인증 지자체의 인증절차 추진 및 아동청소년 정책실현과 기반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와 선의의 경쟁 추구

과제: 3-2)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및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련 조례 제정

- **현안사항:**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혹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기본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군산시는 「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 「군산시청소년상조례」,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성북구의 경우도 「아동·청소년동행카드지원조례」와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추진방향:** 지자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전담부서와 함께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10개 영역(참여, 법체계, 권리, 전담기구, 영향평가, 예산, 실태보고, 권리홍보, 대변인, 안전)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관련 조례들과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례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포럼과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담당공무원, 기초단체의 원들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 대상 권리 및 시민성 함양 포럼 운영 • 어린이, 청소년, 공무원, 기초의원 등이 함께 조례제정 논의 •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지속적 보완 및 개정 추진 • 추진단계: ①아동친화도시 이해 교육실시, ②청소년의 참여와 역할 논의 ③청소년,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조례 내용 협의, ④관련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상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와 「군산시청소년상조례」 • 성북구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지원조례」와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 근거 마련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과제: 3-3)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주무부서의 지위 부여

■ **현안사항:**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팀’, ‘아동청소년친화팀’, ‘어린이행복과’ 등의 명칭으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북구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조직도 상위에 배치하여 부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어린이 행복과」에 주무부서 지위부여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송파구는 「청소년정책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서별 아동과 청소년 정책 조정과 협조를 위한 「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추진방향:** 지자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한 10개 원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원칙 제4항 「아동권리 전담기구」에서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지한 내용은 전담기구의 운영 형태가 지자체 별로 인력과 부서의 지위 정도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주무부서 지위를 부여하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당위성 확보• 지역인재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미래 인재 양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반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배치, 군산시 어린이 행복과 주무부서 지위부여• 송파구의 청소년정책팀 별도 설치 및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조와 역할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10가지 기본원칙, 각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과제: 3-4) 아동과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구성

- 현안사항:**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지자체 행정 담당부서와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와 기관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지역협의체’ 등을 발족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추진방향:**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을 비롯하여 민간조직의 후원과 협력이 뒷받침 된다면 활동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와 시설 및 단체의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휴 공간 활용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수와 시설 및 단체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후원회 결성 •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한 열린 행정 운영 •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및 아동청소년 시설과의 유휴 공간 활용 협약서 체결 • 추진단계: ①운영 탐방, ②지역 유휴시설 자원맵 작성, ③타당성 검토, ④운영방안 협의 ⑤시설이용 협약체결, ⑥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 전문가자문위원회, 성북구 열린 행정 실천, 송파구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 군산시 민간추진위원회,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금정구 부모교실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으로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과제: 3-5) 지역 주민과 행정 담당자들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현안사항** : 아동동친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행정담당 공무원과 주민들 모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뭇데?”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포함한 정책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동영향평가와 옴부즈피언’과 같은 사업은 시행 매뉴얼이 없어 지자체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 **추진방향** :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법체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영역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방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이해시켜야 한다. 부산시 금정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탭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아동의 권리, 아동을 위한 사업 등을 소개하여 구가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료의 공유가 자유로운 온라인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과 공무원 대상 아동권리와 청소년 정책 설명회 및 홍보주민, 청소년, 전문가,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아동권리 주간 및 청소년 주도 마을 축제 개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봉구 SNS & BAND 활용 주민과 소통, 송파구 주민설명회 개최, 성북구 공무원과 주민 협치 실현완주군과 금정구 아동권리주간 운영 및 축제 개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 확대 예상

영역4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모델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마을공동체는 <표 VII-5>와 같이 11,724개(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로 2013년 5,885개(행정안전부, 2013)에 비해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국가지원과 자생공동체를 합쳐 서울시가 3천 개 이상으로 제일 많고 경기도가 2천 개, 전라북도가 1천 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혹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VII-5 전국 17개 지자체별 지역 및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2016)

구분	지역공동체 현황		
	계	국가지원	자생공동체
서울특별시	3,074	93	2,981
부산광역시	414	126	288
대구광역시	206	54	152
인천광역시	258	6	252
광주광역시	650	76	574
대전광역시	143	59	84
울산광역시	68	29	19
세종특별자치시	48	29	19
경기도	2,106	443	1,663
강원도	856	348	508
충청북도	314	218	96
충청남도	350	331	19
전라북도	1,046	424	622
전라남도	741	500	241
경상북도	525	445	80
경상남도	316	262	54
제주특별자치도	609	97	512
계	11,724	3,540	8,164

출처: 한국지역진흥재단(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p.28

금년도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에 관한 6개 공동체에 대한 분석 및 모형개발 결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요인과 논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과정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과제: 4-1)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 **현안사항** :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마을공동체와 자생공동체는 2016년 말 현재 1만개 이상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마을공동체 지도자들은 사업개발 및 예산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발전시켜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 **추진방향** :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중요한 역할로 제시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핵심적인 요인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마을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포구 성미산마을공동체의 경우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닌 영역별로 지도자를 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사례를 토대로 현실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자체가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 교육 참여• 젊은 인력 유치 및 영역별 활동 지도자 양성 노력• 추진단계: ①마을공동체 지도자 현황 조사, ②지도자 연수 기관 지정, ③연수 내용 수요조사, ④권역별 연수 실시, ⑤연수 효과 분석, ⑥마을공동체 운영 컨설팅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도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아동, 청소년 지도자 상담 연수교육 실시(대구교육청)• 성미산마을의 영역별 지도자, 시흥행복지원센터장의 마을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경력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실현 토대 마련•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유지 및 확산에 기여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

과제: 4-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 청소년 협업체제 구축

■ 현안사항 : 마을주민과 아동청소년들이 협업체제를 구축하기에 앞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제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일시적인 문화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 내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지역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자립해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청소년 간의 상생과 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성은 마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긴밀한 협업과 상생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과 청소년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시설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간대별 공동이용, 사업영역별 협동조합 운영, 청소년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에 마을주민 참여 유도 등의 협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역 내 시설 공동 이용 및 사업영역별 협동조합 운영 청소년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에 마을주민 참여 유도 추진단계: ①추진협의회 구성, ②마을주민과 청소년 간담회, ③ 협업 내용 및 운영기구 ④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발족 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릉동 마을사업 주민과 청소년 공동기획 및 실천,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업별협동조합운영 핸드미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 및 체험활동에 마을 주민 적극 참여 유도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기본법(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과제: 4-3) 지역 내 자원 활동가와 자원봉사 인력 적극 활용

■ **현안사항** : 지자체 별로 추진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니세프 인증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과 마을 단위에 전문성을 갖춘 자원 활동가와 자원봉사 인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단순히 무보수 개념의 봉사활동으로만 요청하거나 활용하려는 접근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방향** :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마을활동가 혹은 자원 활동가 등의 새로운 전문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 실현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면서 이들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자원활동 인력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한 청소년활동에 자원봉사자 활용, 마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 과정에 자원 활동가 참여,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운영에 지역 전문가와 자원 활동가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도서관 이용 청소년활동에 마을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활용마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과정에 자원 활동가 참여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운영에 지역 전문가와 자원 활동가 참여추진단계: ①운영사례 탐방 및 계획 수립, ②지역 인적자원 풀 구축, ③추진의도 설명 · 홍보 ④운영방안 협의, ⑤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교육교사연구회’, 시흥참이슬마을학교의 ‘주민봉사회’공릉동 꿈마을공동체의 ‘자원 활동가 그룹’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자원활동가 운영지침」

과제: 4-4) 마을공동체 단위의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확대

- 현안사항 :** 공릉동 ‘꿈마을공동체’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흥, 참이슬마을의 경우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을 내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산어촌의 경우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만으로 마을공동체에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일자리와 함께 이들의 주거와 결혼 문제, 자녀 양육과 학교, 의료, 기본적인 문화 활동 등의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
- 추진방향 :** 산마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근 구성된 ‘진강산마을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량 및 에너지 자급, 협동조합 운영,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양 한드미마을은 폐교를 이용한 농촌유학과 수학여행단 유치,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미산마을은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창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결성 •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타 지역 우수사례 탐방 및 벤치마킹 실시 • 추진단계: ①우수사례 탐방, ②지역 인적·물적 자원맵 작성, ③전문가 중심 타당성 검토, ④사업확정 및 운영방안 협의 ⑤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릉동 ‘시작된 변화(청소년자율프로젝트)’ 와 마을축제, 성미산마을 다양한 사업장 운영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꿈의 학교’, 한드미마을 ‘농촌유학 및 수학여행 유치’ 와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청소년이 다양한 특성화사업 개발 및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

영역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금년도 양적조사와 현장면접 조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초빙 콜로키움, 포럼, 워크숍,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와 ‘마을공동체’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정책 기반과 협력체계’에 관한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과제: 5-1) 지자체 주도의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 **현안사항** :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활동에 일시적으로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청소년 정책제언을 위해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에 속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은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방향** : 청소년이 상상한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운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형태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이슈를 일정한 공간에 모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자체 단위로 정책 및 이슈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On-Off라인 형태의 지역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이슈를 일정한 공간에서 토론회 개최지자체 단위로 정책 및 이슈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참여 동기 유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군산시 ‘청소년자치연구소’ 중심 청소년 플랫폼 운영서울시 공릉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중심 지역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음

과제: 5-2) 마을 전체를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

■ **현안사항** :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3은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②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③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④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⑤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와 같은 제반 여건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지역단위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방향** : 다른 유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과 관련된 지역 사회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마을지도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다양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업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별별 마당 프로그램 기획하고 직업인들을 멘토로 초청한다. 지역 내 사업장들과 청소년들이 진로 체험 연계를 위한 ‘꿈마을 선포식’과 ‘꿈꾸는 날’ 선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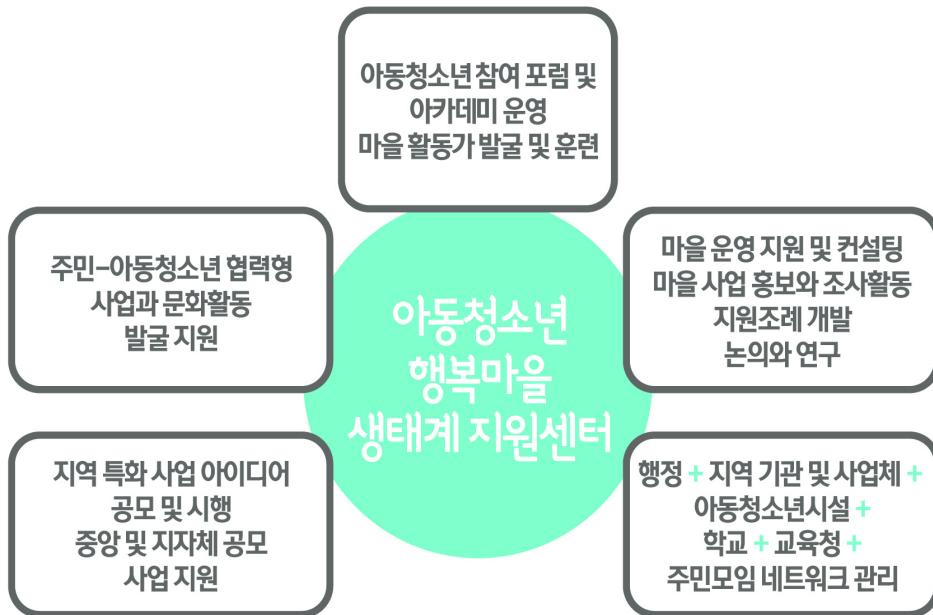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스스로 기획팀 꾸리기 및 꿈 멘토 초청하기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별별 마당 프로그램 기획 지역 내 사업장들과 진로 체험 연계를 위한 마을선포식 추진단계: ①우수사례 탐방, ②마을 사업장 데이터 구축, ③ 직업인, 청소년 초청 설명회 개최 ④ ‘꿈마을 선포식’과 ‘꿈꾸는 날 선정’ ⑤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자유학기제’ 실천을 위한 지역사업장 네트워크 서울시 공릉동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중심 ‘꿈 나르사’ 활동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마을이 함께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 체험 기회 제공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 체험장 추진, ⑥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과제: 5-3) 아동과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위한 ‘청소년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운영

■ **현안사항 :** 전국 광역지자체 마을 만들기 현황 및 지원체계에서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부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센터’, ‘전북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등으로 행정 주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강화하려는 추진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점차 민간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하지만 각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자치구의 상황에 적합한 현장성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과 운영협의회를 보강해야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생태계지원단은 평균 3명 정도이고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보다 늘리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2016)

■ **추진방향 :** 서울시는 2012년 2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마을공동체담당관’ 신설과 4월 민관협의기구인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14년 3월에는 18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하였다. 현재는 22개 차지구에 마을생태계지원단이 운영 중이고 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높여가고 있다(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2016).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5곳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중간지원센터’와 ‘운영협의회’ 모델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에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행복마을 혹은 청소년행복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의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2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협의체 구성 및 관련조례 제정 등으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가칭 ‘아동청소년 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그림 VII-1]에서 제시한 역할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타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함으로써 거버넌스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림 VII-1】 아동청소년 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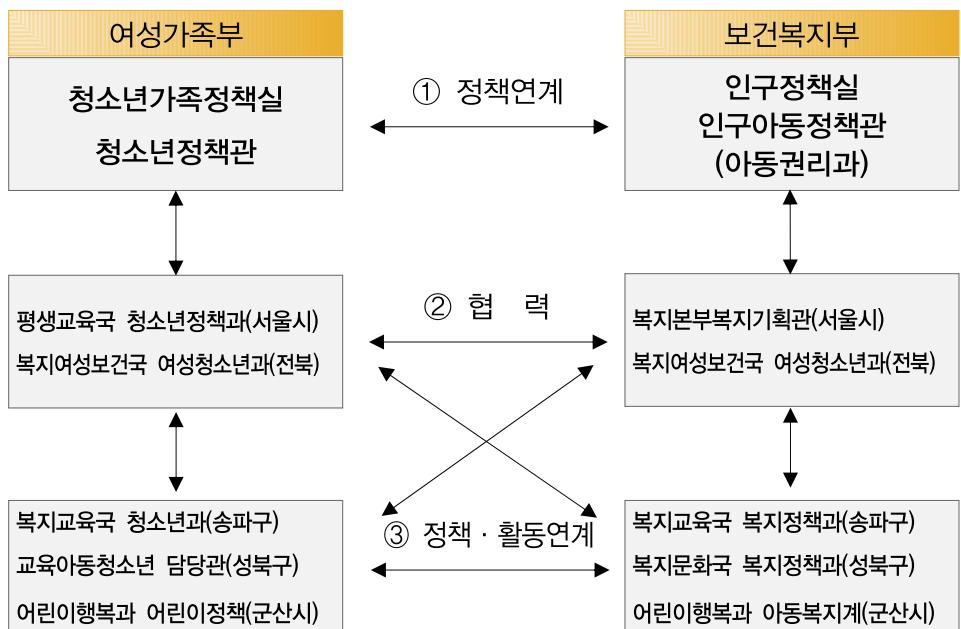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전략 및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행복마을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실시 • 운영협의체 구성 및 관련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민간단체 및 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과 협력관계 구축 • 추진단계: ①청소년행복마을위원회 구성, ②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③지원센터개소 ④지역 조직과 협력관계 구축, ⑤지원 역량개발 및 사업 확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전북 마을만들기협력센터, • 부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센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경기도와 부산시 마을만들기위원회 등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공동체 관리 기반 조성 • 지역 단위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연구 전담 체계 확립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광역 및 기초 자자체 「마을공동체만들기 혹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등

과제: 5-4)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중앙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현안사항 :**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와 인증에 따른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UNICEF한국위원회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이다. 아동친화도시의 내실 있는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아동과 청소년 사업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4대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30-40여개 세부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중앙정부의 주부부서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 이어져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 업무가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에 방문한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자들 대부분은 중앙부처로부터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자체 단위에서 부서 간 협조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추진방향 :** 정부는 그 동안 중앙 및 지자체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통합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3.0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음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 간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인력 자원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 VII-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이원화된 정책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단위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같은 사례를 타 지자체도 도입하여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II-2】 중앙부처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책 협력체계

■ 실천전략 및 기대효과

실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가적인 미래인력 관리라는 차원에서 관련 중앙 부처들의 인식 전환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부서 통합 운영 •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아동청소년정책 협조를 위한 조정기구 운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아동청소년정책 통합 운영) • 서울시 송파구 부서 간 협조를 위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아동청소년 정책을 중심의 중앙 및 지자체 관련 부서 간 협력 모델 구축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표 VII -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제, 추진기간 및 관련 부처

과제 영역	세부 과제	기간	관련 부서
1. 청소년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추진	1-1 청소년 각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단기	여성가족부 교육청
	1-2 실증자료 분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지자체 정책 수립 및 추진	중장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1-3 청소년 행복관련 지표의 시계열 자료 축적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2-1 Youth Market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교육청, 지자체
	2-2 청소년과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청소년마을축제 개최	중장기	지자체, 지방의회
	2-3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 행복공간(Youth Happy Zone)으로 운영	중장기	지자체 지방의회
	2-4 지자체 청소년의회에 청소년정책 개발 및 예산심의 권한 확대	단기	지자체 교육청
	2-5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 작성	중장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3.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정책과 확산을 위한 운영모델	3-1 지자체정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의지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	단기	지역 민간단체 청소년 단체
	3-2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중장기	지장의회
	3-3 아동과 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주무부서의 지위 부여	단기	지자체
	3-4 아동과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청소년문화공간연합회' 구성	중장기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3-5 지역 주민과 행정 담당자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중장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4.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공동체' 구성 및 운영모델	4-1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중장기	행안부 광역지자체
	4-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 청소년간의 협업체제 구축	단기	지자체 민단단체
	4-3 지역 내 지원 활동가와 자원봉사 인력 적극 활용	단기	지자체 행안부
	4-4 마을공동체 단위의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확대	중장기	지자체 교육청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 기반 및 협력체계	5-1 지자체 주도의 '청소년 참여 플랫폼' 구축	단기	지자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5-2 마을전체를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학습장으로 조성	단기	지자체 청소년시설 및 단체
	5-3 '아동과 청소년 행복공동체를 위한 '청소년행복마을 생태계 지원센터' 운영	중장기	지자체 여성가족부
	5-4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중앙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중장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6. 11. 30).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조간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988&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10월 27일 인출.
- 교육부 (2017. 6. 23).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988&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6월 23일 인출.
- 교육부 (2017. 6. 23).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145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17년 6월 23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36-39, 92-95, 130-133, 176-179, 226-229). 세종: 교육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4. 4).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4. 4).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4. 4). 2012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4. 4). 2010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7년 4월 4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 3. 21). 2012년 주민등록연방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3.21). 2013년 주민등록연방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3.21). 2014년 주민등록연양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3.21). 2015년 주민등록연양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3.21). 2016년 주민등록연양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7.7.26.). 2015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517# 에서 2017년 7월 26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7.7.4),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I3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2017.7.4). 시도·연령별 실업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7# 에서 2017년 7월 4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7.3.21).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D11&conn_path=I4 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2017.3.21).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3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2017.9.12.).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시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에서 2017년 09월 12일 인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17.9.12). e-나라지표 2016년 말 도시공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에서 2017년 9월 12일 인출.
- 군산대학교 (2016). 2016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전북: 군산시청.
- 군산시청 (2016). 2016 군산시사회조사보고서. 전북: 군산시청.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 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세광 (2017. 09. 16.).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청소년의 행복과 경제, 군산시청소년친화정책개발 포럼 3차 자료집, pp. 3-37. 전북: 군산청소년자치연구소.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파주: 한국학술정보.

-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 정진희, 진은설, 오세비 (2015). 청소년활동론. 서울: 신정
- 김정주 (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p. 1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지역사회 진단·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하 (2016.08.) KISTEP InI 제15호. 45-58.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공비법을 나누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제2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사례집.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도로교통공단 (2012).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2013).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2014).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2015).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2016).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의 활동역량 지표진단지의 표준화와 관련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09-01).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목포시청 (2016).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남: 목포시청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40). 세종: 보건복지부.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행복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서정아, 김희주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홍성효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안정행정부.
-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2016). 살맛나는 도시 마을 공동체 (p. 126). 서울: 서울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5).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pp. 429-430).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서울: 여성가족부. 서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염유식, 김경미, 이승원, 김수미 (2017).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김세광, 정윤미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해섭, 김세광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혁진(2014).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p. 89). 서울: 집문당.
- 유니세프 (2003). 세계아동현황보고서-어린이참여. (p. 4).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유민상, 최창용 외 (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순형 편저(1989). 교육적 사회론. (p. 284). 서울: 양서원
- 이해주, 최운진, 구정화 (2008). 청소년 인권과 참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월간교육(2016. 5. 4). [특별기획]교육과 복지② 2016년 국가예산의 교육복지 수준을 분석한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1>에서 2017년 4월 12일 인출.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혜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병관 (2015).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시골동장의 동네복지 이야기-. (pp. 201-241). 서울: 우물이 있는 집.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2017.6.29.). 사회복지비중.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에서 2017년 6월 29일 인출.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대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pp. 344~345).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자료. 대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2017.9.4). 2015 사회조사.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 통계청 (2017.5.4). 2015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5SP151R&vw_cd=MT_ZTITLE&list_id=D21D에서 2017년 5월 4일 인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및 실행 방안 연구.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방정환재단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3-92). 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p. 28). 서울: 행정안전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2016).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16-03(통권676호).
- 행정안전부(2016.12.31.)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에서 2017년 10월 11일 인출.
- Anderson Moore, K., Lippman, L., & Brown, B. (2004).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the promise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 Ben-Arieh, A. (2007). *Measuring and monitoring the well-being of young children around the world*. paper commissioned for the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 Bradshaw, J., &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 Research, 23), 319-351.*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7a).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7b).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133-177.*
- Bradshaw, J., Noble, M., Bloor, K., Huby, M., McLennan, D., Rhodes, D., Wilkinson, K. (2009).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Child Indicators Research, 22), 201-219.*
- Carstensen, B. (2007). Age-period-cohort models for the Lexis diagram. *Statistics in medicine, 26(15), 3018-3045.*
- Children's World. (2015).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5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2013-2014*
- Fienberg, S. E., & Mason, W. M. (1979).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age-period-cohort models in the analysis of discrete archival data. *Sociological methodology, 10, 1-67.*
- Fienberg, S. E., & Mason, W. M. (1985). *Spec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age, period and cohort models. In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pp. 45-88). Springer New York.
- Fu, Wenjiang J. (2000). 'Ridge Estimator in Singular Design with Application to Age-Period-Cohort Analysis of Disease Rates.'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Theory and Method, 29, 263-278.*
- Glenn, N. D. (2003). *Distinguishing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465-476.*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auser, R. M., Brown, B. V., & Prosser, W. R. (Eds.). (1997).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Russell Sage Foundation.
- Hernandez, D. J. (2011). *Declining Fortunes of Children in Middle-Class Families: Economic Inequality and Child Well-Being in the 21st Century.* FCD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ex (CWI) Policy Brief 2011. Foundation for Child Development.
- Joshua Wachtel (2012. January 19). Restorative city movement spreads to New Zealand.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iirp.edu/news/2098-restorative-city-moveme>

- nt-spreads-to-new-zealand.
- Joshua Wachtel (2012, January 19). World's First "Restorative City" : Hull, UK, Improves Outcomes of All Interventions with Young People, Saves Resources. Retrieved May 20, 2017, from <http://www.iirp.edu/news/1981-world-s-first-restorative-city-hull-uk-improves-outcomes-of-all-interventions-with-young-people-saves-resources>.
- Land, K. C., Lamb, V. L., & Mustillo, S. K. (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5–1998: Some findings from a new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3), 241–318.
- Land, K.C. (2014). Child and Youth Well-Being Index (CWI) report 2014, Durham, NC: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 Laura Mirsky(2009, January 12). Hull, UK, on Track to Becoming a Restorative City. Retrieved May 20, 2017, from <http://www.iirp.edu/eforum-archive/4411-hull-uk-on-track-to-becoming-a-restorative-city>.
- Lau, M., & Bradshaw, J. (2010). Child well-being in the Pacific Rim. *Child Indicators Research*, 33, 367–383.
- Lee, J., Lamb, V. L., & Land, K. C. (2009). Composite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Child Indicators Research*, 24, 353.
- Moore, K. A., L. Lippman, and B. Brown. (2004).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The promise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 125–145.
- Moore, K. A., Theokas, C., Lippman, L., Bloch, M., Vandivere, S., & O' Hare, W. (2008). A microdata child well-being index: Conceptualization, creation, and finding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17–50.
- O' Hare, W. P., & Bramstedt, N. L. (2003). Assessing the KIDS COUNT composite index. Baltimore: Annie E. Casey Foundation.
- O' Hare, W. P., & Gutierrez, F. (2012). The use of domains in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composite index of child well-be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54, 609–629.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 (2014a).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June 21, 2017, from <http://dx.doi.org/10.1787/>

- 0fe1315d-en.
- OECD (2014b). Children in households by employment status. Retrieved October 27, 2017, from http://www.oecd.org/els/family/LMF_1_1_Children_in_households_employment_status.pdf.
-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p.239.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a), PISA 2000.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database-pisa2000.htm>.
- OECD (2017b), PISA 2012.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pisa2012database-downloadabledata.htm>.
- OECD (2017c), PISA 2015.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oecd.org/pisa/data/2015database/>.
- Oxford Martin School(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 Qvortrup, J. (1999). *The meaning of child's standard of living. In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development*. Westport, CT: Praeger.
- Rees, G. & Main, G. (eds) (2015).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5 countries: An initial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2013-14*. York, UK: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 Richardson, D., Hoelscher, P., & Bradshaw, J. (2008). Child well-be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Child Indicators Research*, 1(3), 211-250.
- Robert, K. Y. (2008).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 신경식, 서아영 공역.
- Robertson, C., Gandini, S., & Boyle, P. (1999). Age-period-cohort models: a comparative study of available methodologie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2(6), 569-583.
- Rutherford, M. J., Lambert, P. C., & Thompson, J. R. (2010). Age-period-cohort modeling. *Stata Journal*, 10(4), 606.
- Shavelson, R., & Townes, L.(Eds.) (2002). *Scientific research in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The World Bank (2017). Adolescent fertility rate (indicator). Retrieved May 18, 2017, from

- http://wdi.worldbank.org/table/2.14
- Tu, Y. K., Krämer, N., & Lee, W. C. (2012). Addressing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age-period-cohort analysis: a tutorial on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and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Epidemiology, 23*(4), 583-593.
- UNICEF (2017). Low birth weight (indicator).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s://data.unicef.org/topic/nutrition/low-birthweight/>.
- WHO (2008). WHO Mortality Database. Retrieved June 21, 2017, from <http://apps.who.int/healthinfo/statistics/mortality/whodpms/>.
- WHO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BH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3/163857/Social-determinants-of-health-and-well-being-among-young-people.pdf?ua=1.
- WHO (2015a). Measles (MCV) Immunization coverage estimates by country. Retrieved June 21, 2017, from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80100?lang=en>.
- WHO (2015b). Polio (Pol3) Immunization coverage estimates by country. Retrieved June 21, 2017, from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80601>.
- WHO (2015c). Diphtheria tetanus toxoid and pertussis (DTP3). Retrieved June 21, 2017, from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80200>.
- WHO (2016). Growing up unequal: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BH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3/303438/HSBC-No.7-Growing-up-unequal-Full-Report.pdf?ua=1.
- WHO (2017). Global Health Observatory. Retrieved May 18, 2017, from <http://apps.who.int/gho/data/node.country> (Accessed on 18 May 2017).
- Yang, Y., Fu, W. J., & Land, K. C. (2004). 2.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Age-Period-Cohort Models: The Intrinsic Estimator and Conventional Generalized Linear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34*(1), 75-110.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부 록

【부록 1】 청소년 행복지표조사 설문지

【부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효과분석 설문지

[부록] 부 록

【부록 1】 청소년 행복지표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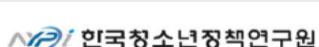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담당자 : 오해선 선임연구위원 044-415-2167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044-415-2102

수행기관



※ 담당자 : 김도윤 과장
※ 문의전화 : 080-384-1000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작성요령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맛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있다 → 17번문항으로

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만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나라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믿을 수 있다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믿을 수 있다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보부를 믿을 수 있다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10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11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PART III. 건강영역

※ 다음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1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먹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매우 많이 먹는다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5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 | | |
|------|------|------|
| ① 0일 | ② 1일 | ③ 2일 |
| ④ 3일 | ⑤ 4일 | ⑥ 5일 |
| ⑦ 6일 | ⑧ 7일 | |

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① 없다 → 17번 문항으로

② 있다



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 표시를 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부록

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컴퓨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별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PART IX. 환경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흥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무상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⑦ 모름



배경문항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 학생은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	--	--	--

년

--	--

월

2 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시(도)
구(군)
동(읍/면)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예) 사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 | | |
|--------------------------|----------|--------|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할머니 | ③ 아버지 |
| ④ 어머니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 ⑩ 없음 |

4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두신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시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두신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硕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6

학생의 학업 성적(2017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7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7-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효과분석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효과성 조사 (초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복과 활동역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제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연구책임자: 오해설 선임연구위원 (ohs@nypi.re.kr)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I 일반적인 배경

- | | | | |
|---------|------------|-------|--------|
| 1) 학교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 2)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 |
| 3) 거주지역 | _____ 시(도) | | |

※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II 삶의 만족도(주관적 웰빙)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인간관계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에 부모님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IV 문제해결역량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복잡한 문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V

성취동기역량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비슷한 경험들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리더십역량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에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책임진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공동협력과제에서 구성원들을 도와가며 일을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도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

시민성역량 영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bstract

“The Study on Youth Happiness Indicators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V” aims to examine the happiness level of the youth and its trends based on the nationwide study of youth happiness indicators. Another purpose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propose a future model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village communities” driven by youth activities.

The main areas of study include ① analyzing the study on youth happiness level in 17 cities of Korea, ② examining the data related to domestic examples of “village communities,” ③ understanding implications and effects of running pilot projects for Happy Villages for the Youth (2 communities) and ④ identifying characterizing elements and developing a logic model for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literature study, nationwide indicator study, field interview, colloquium, forum, pilot project, expert advisory meeting, and working level meeting on policy stud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re made for establishing Happy Villages for the Youth and creating the right policy environment.

First, there needs to be policies and programs customized for each sub-group’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mplement evidence-based policies to promote the happiness level in the youth.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their own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empirical data.

Second, realistic contents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This must then be supported with the right institutions and venues.

Third, there should be expanded training opportunities at home and abroad for stronger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order to establish and expand “children and youth-friendly cities.”

Fourth, a collaborative system of residents and the youth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develop and expand projects to characterize each community, which will add vigor to the “village communities” driven by youth activities.

Fifth, policy efforts to establish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should include setting up a “participatory platform for the youth,” creating a village career experience learning zone, and introducing “Support Center of Happy Villages for the Youth” among others.

* Keyword: happy community for the youth, youth happiness indicators, children and youth-friendly city, characterizing elements, logic model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연보라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II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사업보고서 –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한지형 · 정윤미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연구성과보고서 / 최용환 · 한지형 · 박상현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정윤미 · 고강혁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VIII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용환 · 최승주

협동 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군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군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군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 · 흥영란 · 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2016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 조사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군희 (자체번호 17-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 · 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 · 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 · 김영한 · 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 · 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 · 김기헌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 · 김기헌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 · 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흥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적정위탁 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시범사업 운영과 행복마을 특화모형 개발**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3-9 93330